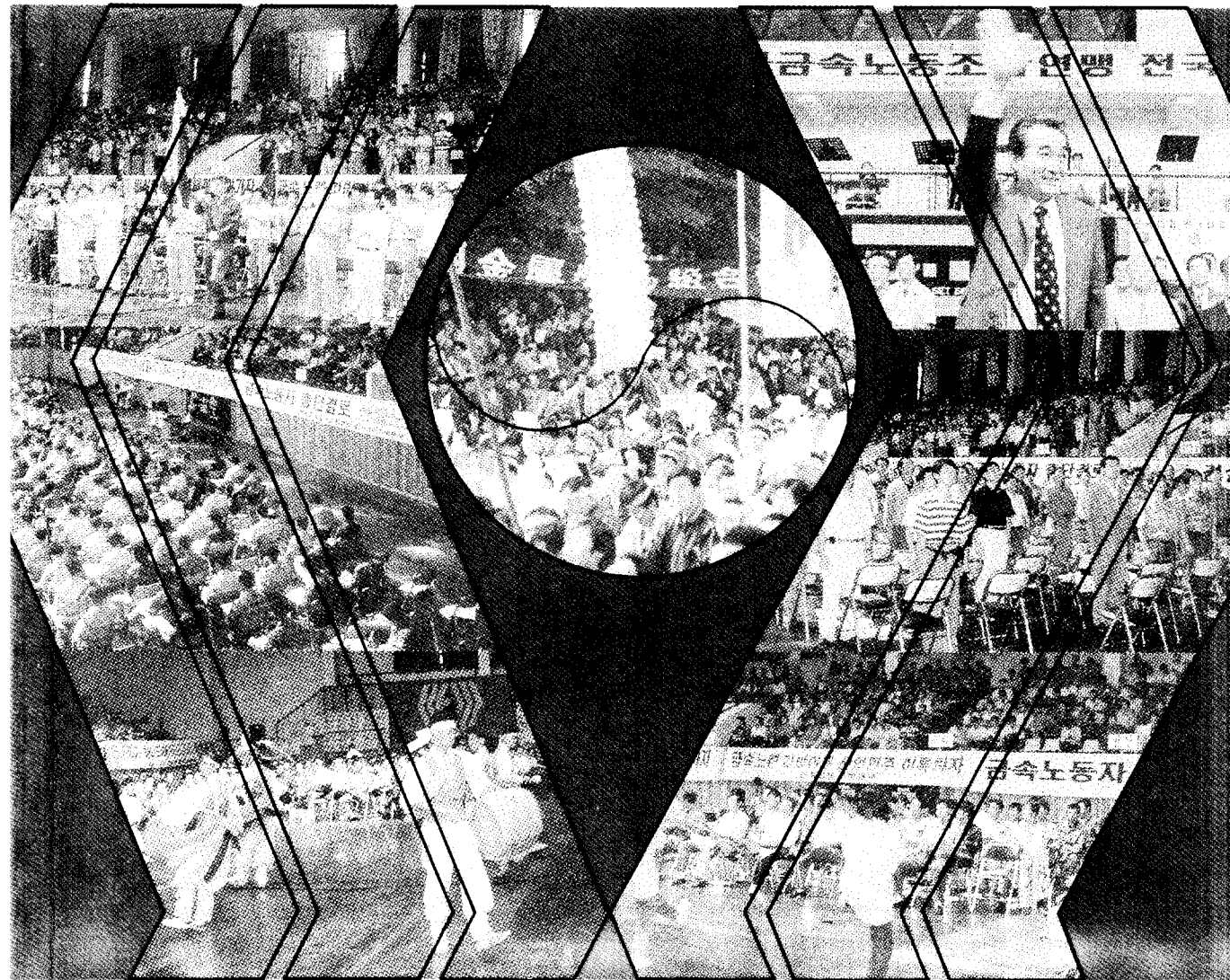


1994년도

사 업 보 고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WORKERS' TRADE UNIONS

1994년도

사 업 보 고

REPORT ON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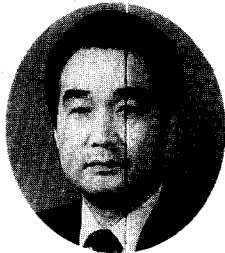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WORKERS' TRADE UN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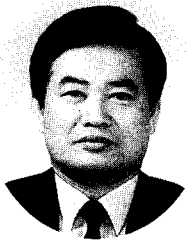
목 차

1. 화보.....	6
2. 머리말.....	17
3. 선언·강령.....	19
4. 연혁.....	21
5. 총론.....	31
6. 기획연구활동.....	59
7. 총무활동.....	123
8. 조직활동.....	147
9. 국제활동.....	209
10. 노사대책·법규활동.....	249
11. 조사통계활동.....	271
12. 산업안전활동.....	321
13. 교육활동.....	331
14. 홍보활동.....	343
15. 여성·문화활동.....	407

임원



위원장
박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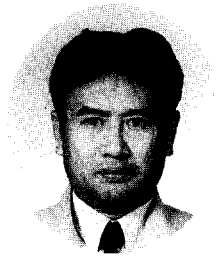
부위원장
김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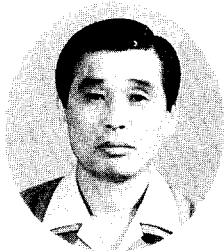
부위원장겸사무처장
정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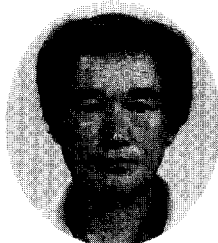
부위원장
최웅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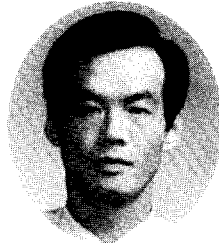
부위원장
유재섭



부위원장
정학균



부위원장
부안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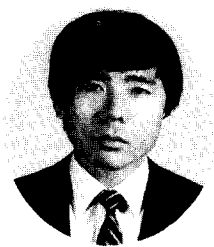
부위원장
부김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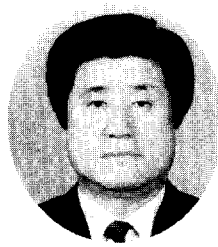
부위원장
박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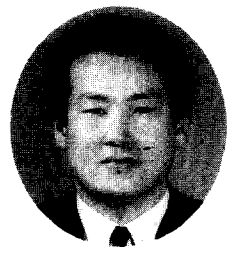
부위원장
김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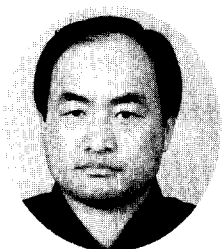
부위원장
부제선수



부위원장
부오봉출



부위원장
부하영일



부 위 원 장
박 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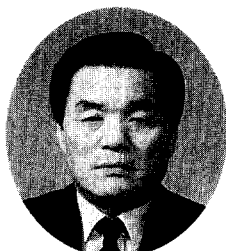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김 경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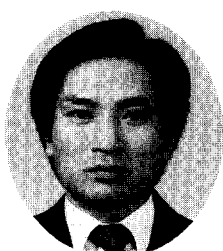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김 윤 주



부 위 원 장
박 영 구



부 위 원 장
정 기 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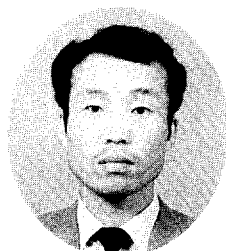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백 종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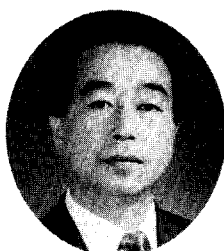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전 재 환

부 위 원 장
박 천 석

회계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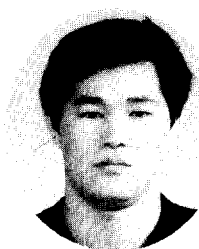
회 계 감 사
김 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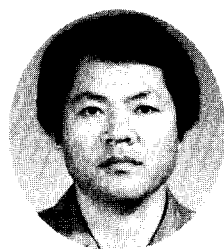
회 계 감 사
김 두 형



회 계 감 사
박 순 자



회 계 감 사
김 종 국



회 계 감 사
최 창 기



회 계 감 사
임 문 택

사진으로 보는 '94년 연맹 주요 활동

각종 대회 및 회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 94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5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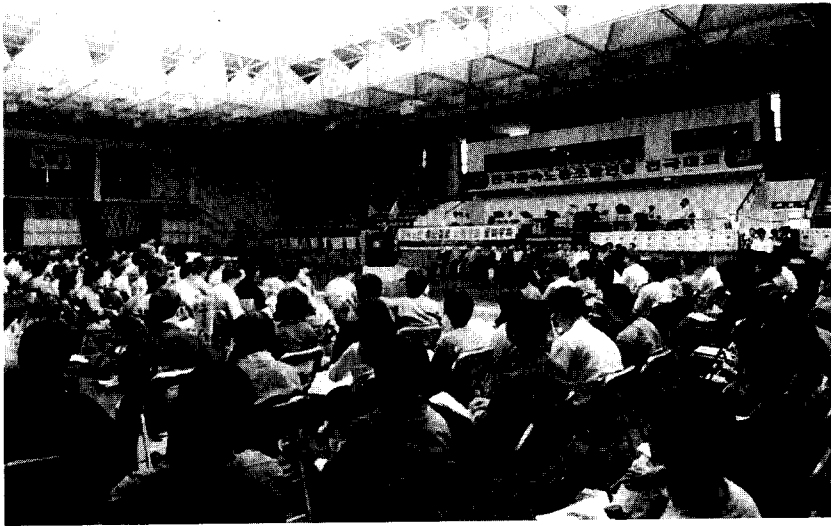
o o o o o o o o



■ 제3차 중집 및
부서부장 연석회의
(7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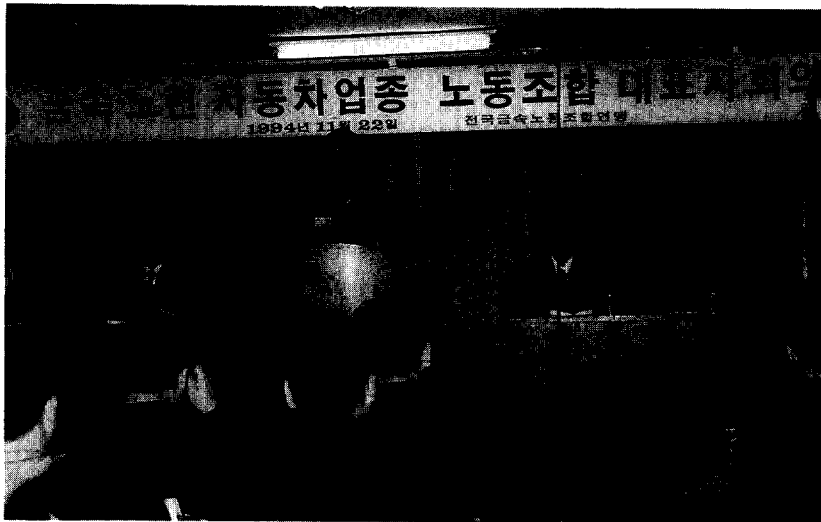
o o o o o o o o

조직강화와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대회



금속노동자의
운동방향과 노선 정립,
조직력 강화, 선진
노동조합으로의
재도약 도모
(9월 13일)





자동차 제조 및
부품업체의 불균형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하여

■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11월 22일)



■ 자동차분과업종
임원회의(12월 8일)



■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단 회의(8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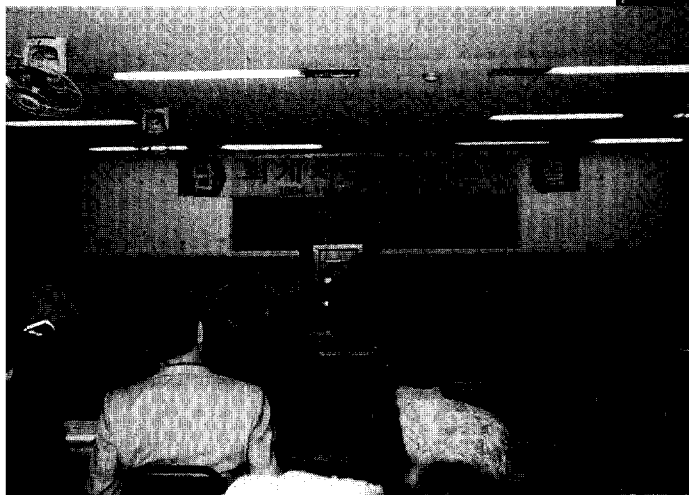
아는 것이 힘 !!!



■ 산업안전보건담당간부교육 (11월 15일 - 18일)

■ '95 임투를 위한 기업경영분석교육 (95년 3월 21일 -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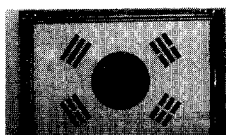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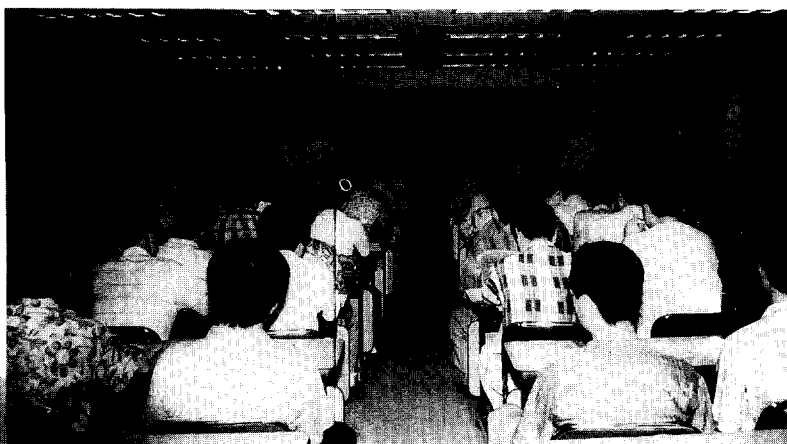
■ 회계처리실무교육(11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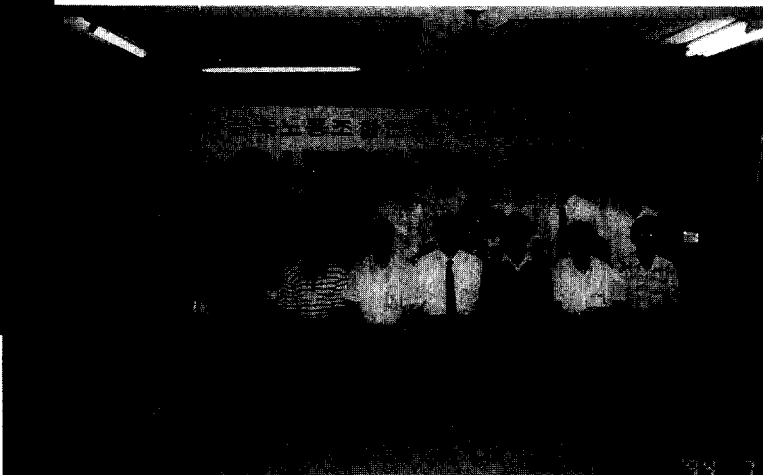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group of people, including men and women, standing behind a long banner. The banner contains the text "1994. 10. 18 ~ 10. 21",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활동세미나", and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 한국금속노조(SMU)". A large character "전"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of the ba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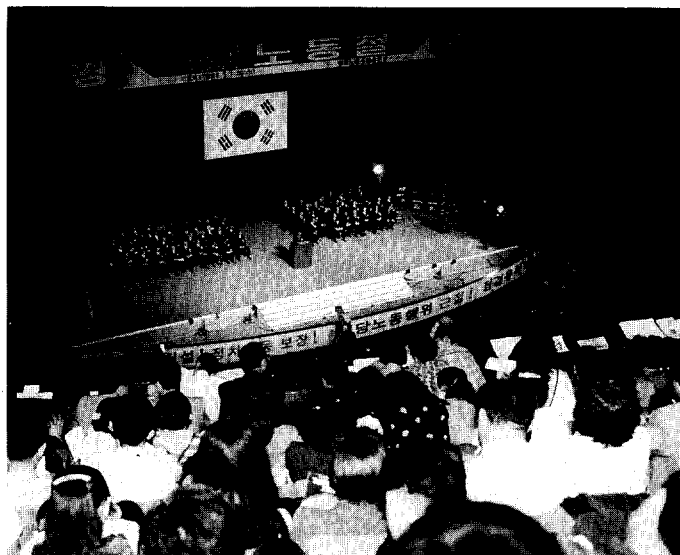
■ 노동조합산업안전
보건활동세미나
(10월 18일-21일)

■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9월 1일-2일)



■ 부산 울산지역
강사후속세미나
(7월 26일 - 27일)





노동자는
하나 !!

■ 노동절 행사
○ ○ ○ ○ ○ ○ ○ ○ ○ ○



■ 서울지역본부
통합대의원대회(12월 14일)
○ ○ ○ ○ ○ ○ ○ ○ ○ ○



■ 경기도 지역본부
연맹위원장 초청
간담회(7월 11일)
○ ○ ○ ○ ○ ○ ○ ○ ○ ○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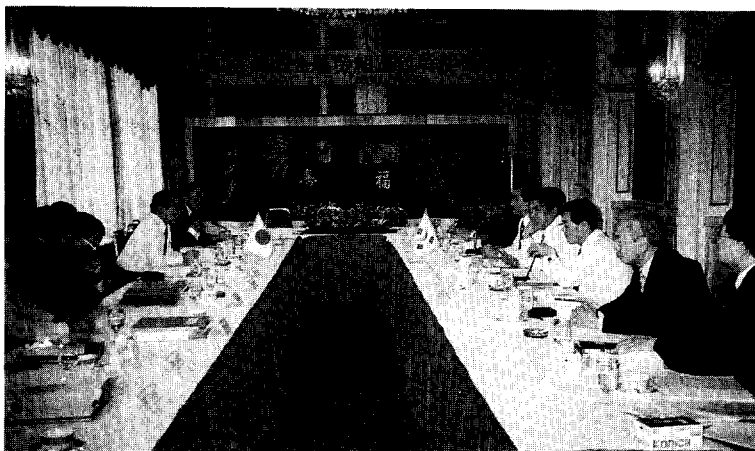
■ 한국자동차보험
부당노동행위항의
및 격려방문



■ 주)코리아씨키트의 부당노동행위
항의방문(7월 11일)



국제활동



■ 제4회 한일금속
노조고위간부
간담회(12월 12일)



■ 일본전기노련 연수단
방문(5월 19일-21일)



■ 일본중기노련
연수단 방문(12월 9일)

머 리 말

94년은 노동운동에 있어 여러가지 주객관적 도전이 뚜렷히 들어났던 해이다. 정치적으로는 '국제화'의 기치를 내건 경제 제1주의가 주창되었고 '국제화'가 다시 '세계화'로 강화되어 정부조직 개편등 선도적 조치가 나타났으며 북한의 핵문제를 계기로 문민정부의 보수회귀가 명확히 들어났고 경제적으로는 이상기온등 현상에 불구하고도 호조를 보였다. 경영정책에 있어서는 경영합리화정책이 광범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기업조직 개편이나 새로운 인력관리정책들이 추구되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 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점점더 취약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조직율은 87년 12월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제2노총 준비와 관련된 대립과 반목이 증폭되기도 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 노동운동이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과제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대중조직으로서의 노조운동이 갖는 관성 때문에 적극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나 '국민을 위한 운동'이나 '국민속의 운동'등 여러가지로 명명되는 운동노선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고 실천의 새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노련에 있어 94년도는 시련의 한해였다고도 할 수 있다. 기존 이탈조직들이 새로히 다시 이탈선언을 하는 정치행위들이 의도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노조운동에 있어서 보다 심각한 병폐는 기업별 노조주의가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이에 편승하여 조직이익을 추구하는 사례들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속에서 '산업별 조직' 추구는 험난한 장애에 부딪칠 것이다. 형식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쉽게 무너질 것이다. 소박한 차원이나마 '전체의 이익이나 장기적 이익을 위해 내가 조금은 손해볼 수 있다'는 '연대' 의식이 심어지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기업이기주의의 벽은 날로 두터워져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연맹의 재정이나 조사통계, 교육등 제반활동에 그대로 장애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의식 약화현상은 연맹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가맹조직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노조체제에

내재해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 한해 본노련은 이러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토론에 많은 역점을 두었었다. 새로운 상황에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연맹집행부가 어떻게 업무를 개선하여 가맹조직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품질을 개선할 것인가가 주요 주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은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며 앞으로 조합원차원까지의 토론과 실천의 개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제는 다음회계년도로 인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한해 매우 어려운 한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연히 대처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금속노련이 갖고 있는 저력과 가맹노조들의 애정 때문이었다 할 수 있다. 보다 발전된 다음 회계년도를 기대하면서 부족하나마 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며 애정어린 평가와 조언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5년 5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 인 상

선 언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깃발아래 굳게 뭉쳤다.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루 금속산업발전을 두 어깨에 메고 이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일사불란한 운동체제아래 노동자의 생활 향상과 사회적 지위를 드높이기 위하여 전진 또는 전진하련다.

우리 노동자는 확고한 단결력과 피끓는 동지애로써 민주주의 제원칙하에 노사평등의 산업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국가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근로대중의 복지사회건설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제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이 나라 국민의 주시와 관심속에 사회정의실현에 과감하게 전진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의 실천을 기하고 산업평화의 지속적인 유지로 자손만대의 영광스러운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발전에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강 령

1.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힘과
슬기를 모아 조국의 번영과 민주적 평화통일의
선봉이 된다.
2. 우리는 자유, 정의, 평등의 운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참여, 민주노동운동
의 항구적 발전을 기한다.
3. 우리는 확고한 단결로써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국
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국가 실현을 기한다.
4. 우리는 건전한 노동정신으로써 조합원의 총의와
역량을 집중하여 노동권존중의 산업민주화를 기
한다.
5. 우리는 노동자의 교육훈련과 문화향상에 강력한
실현을 기한다.
6. 우리는 민주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
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연 혁

서기 1959년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구 철공노동조합을 주체로 하여 탄생하였으나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여 오던중 서기 1960년 10월 대한조선공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여 사실상 제 2노조로 등장하게 되어 긴요한 총단결 과제는 혼미상태에 이르게 되어 당시노련에서는 또다시 서기 1960년 10월에 인천중공업회사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전국철강노동조합연맹 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3노조가 등장하는 과정에 처하여 오던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노동단체가 해체되고 동년 8월3일 공포된 법률 제 672 호에 의하여 단일산업별 체제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80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1981년 2월 23일 개최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 혁 일 랫 표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 무 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결 성 대 회	59. 3.	유 익 배	한승용, 이원석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결 성 대 회	60. 10	임 한 식		김 사 옥	
전국철강노동조합	60. 10.		준비위원회: 임한식 준비부위원회: 송영준, 김재범		
전국금속노동조합 결 성 대 회 제 2차대의원대회	61. 8.25 62. 7. 2	지 연 일 (인천중공업)	김재범(대한중기), 이수영 (삼양산업), 이령(김천철공)	박 중 현 (삼성기계)	609
제3차 대의원대회 (임시대회)	63. 4.12	박 중 현 (삼성기계)	유귀형(한국전력기계), 이수영(삼양산업), 권종오(한 국기계)	김 득 성 (기아산업)	5,034
제4차 대의원대회	64. 4.30		유귀형(한국전력기계), 박세천(한국기계)	"	8,455
제5차 대의원대회	65. 4.30		최종규(금성사), 이명구(인천 강업)	이 건 성 (인천중공업)	9,110
제6차 대의원대회	66. 1. 8	박 세 천 (한국기계)	최종규(금성사), 김병용(기아 산업), 박종선(한국공업)	허 만 성 (인천중공업)	9,984
제7차 대의원대회	67. 4.27		최종규(금성사), 김병용(기아 산업), 이희용(인천중공업)	홍 순 모 (일진기계)	14,038
제8차 대의원대회	68. 4.30		"	"	15,223
임시대의원대회	68. 9.20	김 병 용 (기아산업)	최종규(금성사), 이성학(조선 기업), 문익모(이천전기), 이규운(봉신주철), 강준석(한 국베아링)	이 택 용 (인천중공업)	17,947
제 9차대의원대회	69. 4.29	"	문익모(이천전기), 이규운(봉 신주물), 강준모(한국베아링), 허재업(조선공사)(보선), 강기태(금성사)(보선)	이현구 (한국기계) - 보선	23,960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 무 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제10차대의원대회	70. 4.30	김 병 용 (기아산업)	강기태(금성사), 정남수(조선), 하준(조선기업),이우년(한국기계)	최 종 규 (금성사)	25,217
제11차대의원대회	71. 4.16	"	정남수(조선), 하준(조선기업), 문익모(이천전기)(보선)	최 종 규 (금성사)	27,306
제12차대의원대회	72. 4.28	"	"	"	"
제13차대의원대회	73. 4.25	김 병 용 (기아산업)	문익모(이천전기),강준석(한국베아링), 정부경(금성사),한달수(대한전선), 팽종출(조선공사),김정배(대한중기)	최 종 규 (금성사)	27,246
제14차대의원대회	74. 4.30	"	"	"	43,856
제15차대의원대회	75. 4.23	"	"	"	53,293
제16차대의원대회	76. 4.21	김 병 용 (기아산업)	강준석(한국베아링), 정부경(금성사), 하준(승리기계), 한달수(대한전선)	최 종 규 (금성사)	72,809
제17차대의원대회	77. 4.27	"	"	"	92,756
제18차대의원대회	78. 5.20	"	"	"	112,891
제19차대의원대회	79. 5.11	김 병 용 (기아산업)	하준(경북지부),정남수(부산지부), 이현구(대우중공업),팽종출(조선공사), 이중석(남서울지부),정낙균(금성전선)	최 종 규 (금성사)	138,668
제20차대의원대회	80. 6.17	"	"	"	126,140
제21차대의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결성 임시 대의원대회,정기대 의원대회 같음)	81. 2.23	팽 종 출 (조선공사)	최종규(금성사),민정식(금성사), 박인상(조기),이준(화천),한창석(인천제철), 김장선(대한전선),이상숙(금성통신), 권수태(기아기연)	"	108,864
제22차대의원대회 (1983.1984년은 중앙위원회로 같음)	82. 5. 7	팽 종 출 (조선공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 민정식(금성사),김장선(대우전자), 한창석(인천제철),조태식(효성중공업), 최정원(대선조선),이성균(새한자동차), 허성원(금성전기)	김 성 문 (대한전선)	99,594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 무 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제23차대의원대회	85. 5.30	민 정 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업),김장선(대우전 자),최경환(금성알프스),강창영(동부제강),최규문(국제종합기계) 김장화(아세아자동차),유철규(평 화크랏치)	한 창 석 (인천제철)	119,636
제24차대의원대회	86. 5.23	“	“	“	119,445
제25차대의원대회	87. 5.22	“	“	“	138,990
제26차대의원대회	88. 5.27	박 인 상 (조기)	김장선(대우전자), 김세민(기아 산업),유철규(평화크랏치) 강영섭(금성사),임창기(대한중기) ,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 이영복(현대자동차),이금수(크라 운전자),양동생(대우조선),박병윤 (대우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 차경준(한국중공업)	김 성 문 (대한전선)	295,864
제27차대의원대회	89. 5.26	“	김장선(대우전자),강영섭(금성사) ,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천), 이영복(현대자동차),박병윤(대우 통신),이성균(대우자동차),차경준 (한국중공업)	“	356,900
제28차대의원대회	90. 5.11	“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 사),박기식(연합철강),정기춘(화 천),박병윤(대우통신),이성균(대 우자동차),차경준(한국중공업)	“	389,060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 무 처 (국) 장	당 시 조합원수
제29차대의원대회	91. 5.15	박 인 상 (조 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유재섭(금성사), 박병윤(대우통신),정기춘(화천), 차경준(한국중공업),정학균(대동조 선),제선수(삼미특수강),박영호(영 창악기),피회중(동해전장), 염성태(대우중공업),양재석(동부제 강),강규석(기아특수강),박영구(럭 키금속),전덕진(현대전자),허관무(기아자동차)	최 응 길 (동양강철)	272,078
제30차대의원대회	92. 5.13	“	“	“	262,078
제31차대의원대회	93. 5.20	“	수석 : 김장선(대우전자), 상임 :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유재섭(금성사), 박병윤(대우통신), 정기춘(화천), 차경준(한국중공업),정학균(대동조 선),제선수(삼미특수강),박영호(영 창악기),피회중(동해전장),염성태(대우중공업), 양재석(동부제강), 강규석(기아특수강),박영구(럭키금 속),전덕진(현대전자),허관무(기아 자동차),김영철(현대전자),김관태(기아자동차)	“	
제32차대의원대회	94. 5.17	박 인 상 (조 기)	상임 :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응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정학균(대동조선), 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 ,박천석(기아서비스),전재환(대우 중공업),박영호(영창악기),김동교(인천제철), 제선수(삼미특수강), 오봉출(한진섬유기계), 하영일(금 성전선), 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 김경조(쌍용중공업),김윤주(범양냉 방), 박영구(럭키금속),정기춘(화 천기공), 백종부(부산파이프)	정창영 (금성전선)	243,271

[illegible]

● 임 원

직 책	성 명	소 속 조 합 명	직 책	성 명	소 속 조 합 명
위 원 장	박 인 상	조 기	부위원장	박 한 주	코리아스파이서
부위원장	김 성 문	대 한 전 선	"	김 경 조	쌍용중공업대구
"	최 웅 길	동 양 강 철	"	김 윤 주	범 양 냉 방
"	유 재 섭	L G 전 자	"	박 영 구	L G 금 속
"	정 학 균	대 동 조 선	"	정 기 춘	화 천 기 공
"	안 영 환	동 부 제 강	"	백 종 부	부 산 파 이 프
"	김 영 철	현 대 전 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 창 영	L G 전 선
"	박 천 석	기 아 써 비 스	회계감사	김 두 형	대 성 공 업
"	전 재 환	대 우 중 공 업	"	김 홍 수	L G 계 전
"	박 영 호	영 창 악 기	"	박 순 자	로 옴 코 리 아
"	김 동 교	인 천 제 철	"	김 종 국	LG 전자 부품
"	제 선 수	삼미종합특수강	"	최 창 기	오 리 온 전 기
"	오 봉 출	한진섬유기계	"	임 문 택	기 아 특 수 강
"	하 영 일	L G 전 선			

● 지역본부의장

지 역 본 부	의 장	지 역 본 부	의 장
서 울 지 역 본 부	신 성 균	경 남 지 역 본 부	제 선 수
경 기 지 역 본 부	하 영 일	울 산 지 역 본 부	제 기 한
인 천 지 역 본 부	박 한 주	대구.경북지역 본부	장 지 태
충 남 지 역 본 부	김 두 형	포 향 지 역 본 부	백 종 부
충 북 지 역 본 부	김 홍 수	구 미 지 역 본 부	박 병 도
부 산 지 역 본 부	오 봉 출	광주.전남지역 본부	정 기 춘

● 중앙위원 (당연직 제외)

95. 3. 31 현재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박 상 범	경 방 기 계	정 한 식	LG전자창원1지부	이 해 석	대 우 전 자
이 병 균	대 우 전 자	전 기 흥	롯데알미늄	이 대 영	풍 성 전 기
권 용 식	한 국 콘 베 어	김 광 현	풍 우 실 업	강 익 화	대 한 전 선
김 수 룡	대광다이케스트	장 정 환	대 원 전 선	경 홍 식	범 양 냉 방
신 철	신 일 산 업	윤 선 옥	대광에로이카	임 홍 순	한 국 가 구
성 용 주	현대엘리베이터	이 종 찬	경 원 세 기	오 광 수	반 도 기 계
노 원 숙	기 름 산 업	송 성 수	대 덕 전 자	이 쌍 봉	서 울 차 체
조 재 천	오 양 공 조 기	엄 종 국	세 광 알 미 늄	최 진 하	일 진
이 병 옥	태 양 금 속	이 중 교	L G 기 전	최 광 질	서 울 제 강
장 태 훈	영 창 악 기	박 광 실	한 화 기 계	이 은 물	대 립 통 상
이 준 만	후지카대원전기	박 재 혁	한 국 샤 프	한 상 환	한 영 알 미 늄
박 재 형	맥 스 전 자	전 병 순	대 우 통 신	이 병 철	국제 종합 기계
정 병 석	동 양 강 철	권 성 하	에 넥 스	조 동 철	LG전자청주2지부
김 병 규	명 성	황 대 선	대 선 조 선	서 복 호	동 국 제 강
김 동 철	삼미종합특수강	강 진 호	연 합 철 강	손 용 환	L G 산 전
임 창 수	풍 성 정 밀	김 환 수	세 방 전 지	정 홍 식	풍 성 전 기
강 석 수	창 원 공 업	최 해 경	한 국 중 천	김 남 수	두 원 중 공 업
김 복 천	정 일 공 업	전 형 태	대 일 공 업	한 경 남	대한알루미늄
주 태 화	삼 성 제 침	양 용 진	진 도	정 문 호	삼 도 기 전
윤 태 길	아세아종합기계	권 종 열	삼 립 산 업	김 무 호	평 화 크 랫 치
송 만 현	포철 노재 정비	원 종 도	L G 정 밀	강 희 준	두 산 전 자
예 정 오	포 스 틸	강 화 중	그 린 산 업	정 용 근	동 부 제 강
장 석 웅	한 일 전 기				

● 중앙집행위원

95. 3. 31 현재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천광희	L G 전자	성무용	L G 전자	황창배	대우전자
이종진	성신	정상영	현대전자	장진수	경원세기
조광용	삼화콘덴서	박정화	동아전기	박순영	대경화성
남진우	삼목강업	배종남	경동산업	허장도	대우중공업
김과한	해태전자	장영일	미주제강	김종덕	연합전선
양정규	정풍물산	박효순	삼화전기	이형일	뉴맥스
심경수	경신공업	조동권	화신테크	윤정일	대동조선
박병용	대창단조	김규호	부산정기	남상규	삼선공업
김영택	삼천리자전거	김기선	한국씨티즌	김우배	덕양산업
이경해	한일이화	김영곤	삼정강업	김문섭	LG정보통신
강영일	조기				

● 실.국장

95. 3. 31 현재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소속
기획연구실장	김길동	LG전자청주2지부	총무국장	윤창열	본노련
조직국장	이진우	본노련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본노련
교선국장	나찬경	LG전자평택지부	복지국장	권석정	한샘
여성국장	정영숙	본노련			

● 부서부장, 직원

직	책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명	소	속
기획연구부장		신	송	근	동국종합전자	조사통계부장		박	용	민	평화 크라치
총무부장		최	상	돌	현대공업	재정부장		신	용	석	LG전자부품
조직부장		손	종	홍	대한제당	노사대책부장		김	순	호	삼양중기
국제부장		김	광	호	대덕산업	쟁의지도부장		표	세	봉	태광특수기계
법규부장		권	동	재	오리엔탈정공	대외협력부장		윤	승	오	화신제작소
정치부장		안	희	철	흥진기연	홍보부장		이	신	열	동해전장
교육부장		김	홍	룡	영창악기	복지부장		신	윤	섭	평화산업
안전부장		김	희	곤	고려용접봉	협동사업부장		윤	춘	식	동양물산
여성부장		문	광	주	세진전자	문화부장		전	경	임	남성
조직차장		김	정	완	본노련	조사통계차장		정	문	주	본노련
홍보차장		박	현	미	본노련	직	원	김	영	미	본노련
직	원	백	명	아	본노련	직	원	박	창	식	본노련
직	원	최	은	혜	본노련						

총 론

목 차

1. 1994 년 세계경제정세
 - 1) 세계경제
 - 2) 국제무역
 - 3) 국제금융
 - 4) 경제블러벌 동향
 - 5) 기술변화
2. 국내정세및 경제
 - 1) 민주화
 - 2) 신정부의 출범
 - 3) 세계은행의 한국경제전망
 - 4) 성장
 - 5) 수출
 - 6) 수입
 - 7) 물가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미치는 영향

'94 경제정세와 국내외 동향

1. 1994년 세계경제 정세

(1) 세계경제

'93년중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92년의 1.8%보다 약간 높은 2.2%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93년중 유럽경제는 '89년부터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한 성장률이 '7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0.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경제는 경제 안정화정책의 효과와 물가안정 저금리의 지속으로 예상되는 민간투자, 민간소비가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93년에는 '92년 2.1%보다 0.3% 증가한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1-1>

'94년 세계경제전망

국 가	세계	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	개도국	중국	대만	태국
실질GDP성장률	2.5%	2.2%	3.1%	1.5%	1.5%	5.3%	9.5%	6.3%	8.0%

자료: 세계경제에 대한 93년 평가 및 94년 전망과 정책방향, UN

미국=미국 경제의 르네상스를 주장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제력 회복이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미국 경제의 구조적 조정에 따른 지속성 상승세로 보며,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위치가 다시 주도적 역할로 전진하는 근본적 변화라고 까지 강조하고 있다.

이들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구조적 조정'은 냉혹한 대량해고와 경비절감이라는 80년대 이후의 미국 경제가 격어온 상황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구조적 조정의 결과 미국의 경쟁력은 일본과 독일등 다른 선진 국가들을 제치게 되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의 노동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평균 30% 낮으며, 이에 따라 그 만큼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노동생산성도 크게 개선돼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일본보다 17%, 독일보다 21%나 높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에 제동을 거는 회의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품경제의 후유증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이나 복지국가의 비효율적 경제운영으로 어려움에 빠진 유럽이 구조조정과 효율성 회복에 성공할 경우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회의론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따라서 미국의 경쟁력 우위상태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구조 조정'이라는 혁명적 상황을 치른 미국 노동계의 쓰라린 경험과 피해도 미국 경제의 위협적 요소가 될 수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비준때 미국 노동계가 보여준 격렬한 반대는 바로 이러한 피해의 반작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미국경제가 지금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있어 올해 인플레이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며 인플레이가 되살아날 경우 회복세의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인상과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등이 되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역기능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긍정적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데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일본=경제대국 일본의, 새해 경제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의 대표주자로서 세계에 군림해온 일본 경제의침체는 94년에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지역이 아시아라는 예측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80년대 후반의 거품경제 붕괴이후 시작된 일본 경제의 불황은 올해로 4년째에 들어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따르면 93년 일본의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0.5%이며, 올해도 선진 7개국중 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랫동안 고도 성장에 익숙해 온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1차 석유위기 직후인 74년 이후 처음이며 실질성장률의 하라폭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는 전후 최대의 불황을 겪은 해가 된다.

올해의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은 관측자에 따라 저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엇갈리나, 경기회복의 결정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부설 종합 연구기관인 NEEDS는 올해 일본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0.5%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경기회복의 주요한 카드로 상정하고 있는 5조엔 규모의 소득세감세를 실시하고 소득세 인상시기를 95년 4월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나온 수치다.

소득세 감세가 실시되면 월급 생활자를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구매욕을 자극해 경제를 어느 정도 부양할 것으로 보이는 하나, 그 효과는 마이너스 성장을 회피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거품경제때의 과잉투자로 인한 과잉설비와 과잉인원 때문에 기업의 투자의욕이 얼어붙어 설비투자는 93년의 8.3%감소에 이어 94년에는 5.1%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의 성채로 간주되오던 '일본주식회사'의 재검토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노사대립을 완화시키는 '일본형' 경영의 지주였던 종신고용제도는 일본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막는 방해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경제 회생을 위한 처방으로 전략적 구조재조정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 일본을 무섭게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임금, 에너지 격차를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등 새로운 발상에 기초한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유럽=유럽경제는 올해 후반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해 18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유럽공동체(EC) 12개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은 1%이다.

유럽 경기회복의 핵심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금리인하다. 지난 해 10월 새로 취임한 한스 디트마이어 독일 연방은행 총재 '신중한 금융정책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측통들은 지금 5.75%인 재할인률이 연말께는 3%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인플레이의 부담이 생각보다 작은 데다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그냥 안고 갈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는 금융완화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으로 올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회복속도는 느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계속되는 중세정책이 경기를 냉각시켜 제로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없지 않다.

지난해 4월 유럽환율조정장치(ERM)가 사실상의 변동환율제로 바뀐 뒤부터 개인소비가 다소 늘고 있는 프랑스도 경기 회복력은 약해 올해 1% 안밖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0년부터 불황이 시작돼 91, 92년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영국은 91년 가을 유럽환율조정장치 탈퇴와 파운드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어 지난해 2% 성장을 기록했다. 영국은 자동차, 주택, 소매등 개인소비가 늘어 올해 유럽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2.9%의 성장이 예상된다.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한 이탈리아도 약세의 성장이 예상된다. 북유럽에서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에서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반면 불가리아와 옛 유고지역은 경제의 축소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옛 소련지역에서는 올해도 경제난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 90년대말 이래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는 올해도 예외없이 성장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의 권위있는 경제 예측기구들은 한결같이 올해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최소 5%에서 20%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특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타이, 말레이시아등 여섯 나라가 올 한해 역동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이들 나라의 평균 성장률이 6.1%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무엇보다 올 들어 지난 5년간 계속 하강세를 보이던 미국과 유럽등 서방 선진국의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엔화 강세에 따른 대일본 무역 경쟁력 강화가 아시아권 나라들의 성장을 더욱 활기차게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 기구는 내다봤다.

이런 예측은 아시아 개발은행(ABD)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 이 은행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올 평균 경제성장이 지난해보다 0.6% 높은 7.1%에 달할 것이라며 특히 수출의 괄목할 만한 증가를 점치고 있다.

증권시장의 활기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극명하게 들어내 보여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아시아 이외의 나라에서 별다른 투자 유인을 찾지 못하는 서방자본이 올해도 변함없이 몰려 들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중산층의 부 또한 증권시장에 투자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베트남, 라오스등 아시아지역의 마지막 개발대상국들에 대한 서방등의 각종 투자가 활발해 짐에따라 아시아지역의 활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1-2>

국내총생산 성장 전망

역동적인 아시아 경제군 (DAES)				서방 선진 7개국 (G7)			
93년	94년	95년		93년	94년	95년	
한 국	4.3	5.5	6.0	미 국	2.8	3.1	2.7
대 만	6.0	6.0	6.5	일 본	-0.5	3.1	4.1
홍 콩	5.5	5.0	4.5	독 일	-1.5	0.8	2.2
싱가포르	7.5	7.0	6.5	프랑스	0.9	1.1	2.9
타 이	7.5	8.0	8.0	영 국	2.0	2.9	2.9
말레이시아	8.5	8.0	8.0	이탈리아	-0.1	1.7	미확인
				캐나다	2.5	3.7	4.1

* 자료 : 한겨레 12/22

(2) 국제 무역

세계교역량은 '93년중 5.2%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94년 중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금년보다 약간 늘어난 5.6%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신장세는 82-86년간 3.7%, 87년-89년간 7.6%, 90-91년의 2.5%, '92년의 4.2%의 증가세에 비추어 볼때 바닥권을 벗어나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교역량의 신장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 EC의 경제통합, NAFTA의 발효, APEC의 활성화, 역내 무역의 증가등으로 향후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1-3〉

세계교역전망

(단위 : %)

예측기관	1992년	1993년	1994년
WEFA	4.2	5.2	6.1%
IMF		5.2	5.6%
OECD		4.0	5.8%

(3) 국제 금융

'93년중 국제환율은 미국경제의 회복으로 인한 미달러화의 가치회복,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 독일 경제의 통독으로 인한 가치하락, 영국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른 파운드화의 가치상승이 그 특징이었다.

따라서 '93년 12월 6일 현재 주요 통화간 환율은 엔/달러107.9 마르크/달러1.702 달러/파운드1.504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같은 환율은 당분간 그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93년중 국제금리는 미국의 저금리 정책, 경제 성장세의 둔화등으로 미국 장기국채(30년 만기)는 93.12.6 현재 '92년 말의 7.4%보다 1.24% 떨어진 6.16%수준이며, 리보금리(3개월 만기)는 3.44%에서 0.06%오른 3.5%, 유로엔 금리(3개월 만기)는 3.81%나 떨어진 2.00% 유로마르크 금리(3개월 만기)는 7.44%에서 1.38% 하락한 6.06%의 수준이다.

이같은 금리 추세는 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저금리정책으로 '94년 중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1-4〉

국 제 금 융

1992 년말	10월말	11월22일	12월 6일	12월말
국제환율				
엔/달러	124.8	108.6	108.5	107.9
마르크/달러	1.614	1.686	1.704	1.702
달러/파운드	1.512	1.481	1.476	1.504
국제금리(%)				
미국장기국채(30년)	7.40	5.96	6.38	6.16
LIBOUR(3개월)	3.44	3.44	3.50	3.50
유로엔금리(3개월)	3.81	2.56	2.31	2.00
유로마르크금리(3개월)	7.44	6.56	6.13	6.06

(4) 경제 불려별 동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는 경제의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EC경제 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 APEC진전등으로 세계는 경제 불려단위의 소위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1월이면 발효된다. 그러나 유럽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대륙 경제권의 통합이 연말들어 뼈꺼덕거리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캐나다의 장 크레티앵 신임 총리가 NAFTA는 결코 도움이 되는 협정이 못된다고 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남미 국가들 역시 미국상품이 범람하는 것을 우려, 자국 상품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하원의 비준안이 통과되고 상원의 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도 NA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NAFTA의 와해조짐에 대해 미 행정부는 계속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NAFTA에서 소외되고 있는 남미국가들의 반발조짐이 조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날이 그리 순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같은 분열현상은 EC통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이 대치되는 것에서 발전해 양국의 정상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까지 일삼고 있는데다 프랑스는 독일이 통일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EC통합에 따른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유럽통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은 집단조약으로 각국별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유럽은 심각한 실업률에 봉착해 있다. EC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11.2%이고 유럽의 경제 우등생이던 독일도 9%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25세 미만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3명중 한명, 프랑스와 영국은 4명중 한명으로 극심한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99년 1월 EC단일통화로 경제통합을 완결하기 위한 단계적 보완조치로 내년 6월 유럽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그리고 95년 스웨덴등 4개국이 추가로 가입하고 97년 1월에는 고정환율제가 최종으로 확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매우 험난한 정도를 넘어서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분열상이 내년에도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유럽경기가 호전될 어떠한 징조도 나타나지 않은 채 현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반대세력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유럽통합은 경제통합 이전에 자국내의 정치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기구의 창설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행사하려는 APEC의 정상회담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계산속에서 호소가와 모리히수상이 내한, 친한정책에 따른 진사발언을 통해 반일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중국에는 경제원조를 함으로서 APEC주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의도에 대해 과거 침략국으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APEC 지도국으로써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번 APEC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화해 재스처를 보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이 무역관세에 대한 특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대가로 전세계 GNP의 45%에 달하는 APEC에 대한 메리트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다.

중국은 올해들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아시아의 맹주로 오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은 수출을 통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유화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홍콩, 대만은 국가로서의 인정이 어려워 이번 APEC정상회담에 각료가 참가함으로써 균형을 잃었고 중국은 오히려 위상이 높아졌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는 APEC 결성에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나 APEC결성이 대세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기는 하지만 세계 정치, 경제에서의 입김과 역할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APEC의 결성을 점칠 수는 없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촉진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동남아에 침투해 있는 기존의 기득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한국, 중국 등과 같은 견제국가에서 긍정적으로 APEC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대미수출에 있어 대자간협상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5) 기술변화

기술변화는 세계 정치, 경제여건의 변화보다 노동운동에 보다 현실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1970년대 말 유럽의 노동운동이 내부적으로 겪었던 커다란 진통증의 하나는 기술변화에 관한 문제였다. 기술변화를 수용하자면 기존 노동자들의 전직, 전업 등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거부하자면 결국 남는 것은 기업의 도산, 노동자들의 실직이었다.

기술변화가 노동운동에 던지는 과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변화에 따른 작업수행방식과 작업조직의 변화 또한 노동운동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전반적으로 볼때 기업의 인원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직종의 구분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작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기술상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이 엄격히 가능했지만 자동화나 전산화같은 신기술은 이러한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들면,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작업 환경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에서 알 수 있다.

신기술은 시장경쟁 격화와 맞물려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육체 노동자들도 단순히 작업을 동일반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숙련의 깊이는 물론 폭을 키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작업조직도 노동자들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된 작업만을 그대로 수행하는 성격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러한 작업수행과 작업조직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키고 동시에 노동의 성격도 다양하게 만들어 노동운동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술변화는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하여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인건비의 상승으로 후발개도국가 대해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자동차를 예를들면, 정부의 적극 지원하에 기업들은 앞다투어 자동화 관련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원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수행과 작업조직의 성격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따라서 시장 경쟁력강화와 맞물린 기술변화는 한국의 노동운동에 임금문제보다는 고용문제보다 당면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2. 국내 정세 및 경제

(1)민주화

국내정치, 사회의 민주화는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식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노조활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제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주의체제로 바뀔 때 노동조합 활동의 제도적인 토대가 강화 될 수 있다.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줄어들때 자율의 폭이 넓어지고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경제, 사회정책의 참여기회는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민주화운동의 선상에서 인식하는 듯한 일반국민의 정서가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민주화가 되어가면서 노동운동에 대해서 일종의 '프리미엄'을 주기를 꺼리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또한 민주화와 함께 각종 이익집단의 활동도 강화된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다원화된 이익집단들의 '압력' 속에서 진행될때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도 이익집단의 하나로서 인식될 소지가 커진다.

(2) 신정부의 출범

한국노동운동에서 정권교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93년 출범한 김영삼정권은 경제사회의 불안속에서 보수화 분위기가 커져가는 가운데 탄생되었다. 언론에서 문민정부라고 표현하는데서 알수 있지만 김영삼정권의 정통성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정권이 구상하는 노동정책의 윤곽은 아직 들어나고 있지 않지만 역대정권의 노동정책보다 적어도 정치적 시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영삼정권이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보다 중요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계속 노사관계에 개입하므로써 주도할 것인지는 아직은 결론지어 말하기 어렵다.

노동운동이 정부와의 관계설정에서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를 노동조합의 자치 그리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에 두고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득력있는 논리를 제시할 필요를 느낀다.

(3) 세계은행의 한국경제 전망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으로서는 강력한 대외지향적 경제운용을 하고 있으며 70년대이후 보수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쓰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부의 불로자본소득과 조세제도의 불평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경제력 집중의 일환으로 특정기업의 독점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과 아울러 각 시민단체의 환경문제 제기등을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경제에 대한 낙관을 하고 있는 점이다. 80년대의 고성장은 하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7-8%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목표선을 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조건은 기술개발과 무역자유화, 금융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성장

실질 경제성장률은 2년내리 4%대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6-7%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한국경제가 93년 1월을 바닥으로 경기상승국면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으며 다른 연구기관들도 경기 회복세가 94년에 가시화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지난 3분기만 하더라도 내년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으나, 4분기 이후 부터는 정부, 기업 모두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으로 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경제성장률이 올해 1.1%에서 2.2%로 높아지는 등 여건이 개선되고 국내적으로는 실명제 충격이 해소되고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부문별로는 2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설비투자가 내년에는 5-10%의 증가세로 돌아서고 건설투자가 공공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는 등 투자가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화학공업은 생산 및 수출의 호조가 지속되고 지금은 부진한 경공업종도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과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용전자(14.7%)-자동차(11.4%)-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의 경우 (10.5%)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이상의 생산증가세가 이어져 대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과 일반기계산업도 신규수주 증가와 수출 및 내수증대에 힘입어 내년에는 각각 11% 및 10.7%의 생산증가를 예상했다.

그러나 철강은 수출수요 부진으로 내년생산이 2.5%에 그치고, 석유화학도 공급과잉 물량조절로 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기관별 94년 경제 전망

<표1-5>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한국은행	KDI	KIET	전경研	삼성研	력금研	대우研
실 질 성장율	6.3	7.0	6.4	6.6	5.5	6.8	6.3
민간소비	5.6	5.7	6.0	5.8	5.5	5.5	4.5
건설투자	6.5	7.0	8.0	6.0	3.4	5.8	5.0
설비투자	5.8	6.2	6.7	9.8	3.8	7.5	4.8
경상수지 (억달러)	5	12	10	-9	4	23	3.8
무역수지 (억달러)	24	32	33	10	2	33	18.8
수 출	7.9	9.1	9.1	7.9	7.4	8.5	7.0
수 입	7.8	7.7	7.8	9.0	5.5	6.6	6.0
소비자 물 가	6.1	5.6	5.8	-	5.3	5.8	6.0

(5)수출

우리나라 수출(통과기준)은 1993년 7.4% 증가한 823억 달러에 그쳐 기대에는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1994년에는 회복세가 빨라져 9.1% 증가한 898억 달러를 기록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우리나라 수출은 중화학공업 수출 호조, 경공업 수출 부진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경공업의 수출은 1993년 10월까지 3%감소하여 1991년 이후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공업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중화학공업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1993년 11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동기비 6.7% 증가에 그쳐 1992년 같은 기간의 8.5% 증가에도 못미쳤다.

지역별로는 일본, EC에 대한 수출이 지역 국가의 경기침체로 인해 1993년 10월까지 각각 2.4%, 2.8% 감소하였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0.3% 증가에 그치는 등 대선진국 수출이 심각한 부진을 보였다. 반면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 동구권에 대한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우리나라 수출은 1993의 산업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면서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89년이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잇는 경공업 부문이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공업 부문의 경쟁력이 지난 5년에 걸친 구조조정애 힘입어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공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대선진국 수출이 1994년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경공업 수출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고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로 1993년중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 중화학수출은 1994년에도 엔고가 여전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1-6〉 수출입 및 국제수지전망

단위: 백만달러, 전년도통계비

	1992	1993			199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 출	766	389	434	823	422	476	898
(증가율)	(6.6)	(6.1)	(8.8)	(7.4)	(8.5)	(8.5)	(9.1)
수 입	818	413	422	835	443	457	900
(증가율)	(0.3)	(-1.5)	(5.8)	(2.1)	(7.2)	(8.3)	(7.8)
수출입차	-52	-24	12	-12	-21	19	-2
무역수지	-21	-3	22	19	-3	36	33
경상수지	-45	-11	13	2	-12	22	10

〈표1-7〉

무역 의존도

(단위:%)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1975년	59.0	22.8	39.5	48.0
1985년	68.5	22.8	54.7	60.1
1990년	55.3	17.7	50.0	50.9
1991년	54.6	16.3	50.1	-

(6) 수입

수입(통과기준)은 1992년 0.3% 증가에 그친데 이어 1993년에도 2.1%증가한 835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이나 1994년에는 빠른 증가세를 보여 7.8% 증가한 900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우리나라의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수가 부진을 보임으로서 1993년 11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9%의 낮은 증가에 그쳤다. 수출용 수입은 수출이 완만하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데 힘입어 1993년 10월까지 전년동기비 8.4%증가한 반면 내수용 수입이 2.5% 감소하여 수입부진이 내수부진에 주로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본재 수입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1993년 10월까지 2.5%감소하였으며 소비재 수입도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1.6%의 낮은 증가에 머물렀다.

1994년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수입도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1-8> 최근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구 분 년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991	71.870	10.5	81.525	16.7	-6.980
1992	76.632	6.6	81.775	0.3	-2.146
1993 1/4	18.244	7.5	19.961	-4.5	-2.146
2/4	20.705	4.8	21.333	1.6	-186
3/4	20.479	6.9	20.786	7.4	790
10	7.507	5.4	7.019	-3.1	245
11	7.370	11.2	7.526	13.3	-
1-11	74.305	6.7	76.356	1.9	-

(7) 물가

1993년 소비자 물가는 금융실명제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통화량의 20%이상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흉작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 11월까지 전년말 대비 5.2% 상승하였다. 이에따라 1993년 전체로는 5.4% 상승하여 정부의 목표치 상한선인 5%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중 소비자 물가는 상승세가 가속화하여 1993년보다 높은 5.8%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금융실명제이후 퇴장되어 있던 통화가 1994년에는 금융실명제 정착으로 심리적인 불안감이 완화되어 유출되면서 유통속도가 점차 빨라져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가 1993년에 비해 더욱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동안 억제되어 온 공공요금의 1994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물가상승을 부추는 요인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요금, 우편요금, 국립대 등록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1994년에는 6-10%인상될 것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인상과 1994년 초의 일부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은 시내교통료 등 서비스 단가의 상승과 기타 공산품 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표1-9〉 물 가 전 망 단위 : 전년동기비, %

	1992	1993			199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	6.2	4.2	1.2	5.4	4.8	1.0	5.8
생산자물가상승률	2.2	1.6	0.1	1.7	1.7	0.3	2.0

<표1-10>

물 가 인 상 (94년 신년)

-공공요금(94년도) : 6% -93년 소비자 물가인상 : 5.8% -93년 장바구니물가 인상: 20.7%					
품 목	금 액	%	품 목	금 액	%
공산품		3.8	쓰레기수거료	200-1600	700.0
농산물		13.3	우편요금		9.0
수산물		12.6	담배		8.0
축산물		2.0	고속도로통행료		6.4
			휘발유		
시내버스	250-290	16.0	경유		
좌석버스	550-600	9.1	도시가스		1.64-3.25
지하철	300-350	16.7	프로판가스		
택시기본	800-1000	7.7-29.6	소주(공장도)		4.7
고속버스		14.3	세탁기(소비)		13.1
시외버스		16	커피		5.0
철도		9.8	우유		15.9
공항이용료	3.000	200.0	떡	(200g)	31.4
상수도료		43.8	아이스캔디		56.4
하수도료		27.0	가공식품		17.5
전기료		1.0	합판		49.0
여객선		159.0	금반지	3000-3500	6.8
(고속선)		36.0	설령탕	1800-2000	17.0
(쾌속선)		14.0	짜장면	(500g)	11.0
(카페리)		9.0	고추장		7.6
사립대등록금		15-10	신라면		8.7
국립대등록금		7.0	프림값		6.6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미치는 영향

1993년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아마도 UR의 타결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쌀시장 개방이라는 '폭탄선언'으로 UR의 타결은 1980년대 말부터 경기 하강국면에 돌입하는 좀처럼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엄밀히 말하면 세계 자본주의국가들을 지칭함)에 청신호가 다가왔다. UR을 주도해 왔던 GATT의 추계에 의하면 UR협정이 발효되는 1995년부터 10년후인 2005년까지 세계교역규모가 현재수준보다 12% 금액으로 따져서는 약 7천4백50억 달러정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10년에 걸쳐 누적하면 약 5조달러정도의 무역증대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UR협정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위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개도국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UR로 인하여 이득을 골고루 나누어 갖기보다는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UR의 이득의 68.5%를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가져간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UR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UR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초미의 일이므로 우리 노동자들도 UR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자본주의 세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제 2차 세계대전후 30년간의 '자본주의 황금기'를 유지시켜 왔던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국제적 조정기구가 IMF-GATT체제이다. IMF-GATT체제는 자유무역에 입각한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정책이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의 철폐였다. 관세장벽의 철폐를 GATT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8차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우리가 흔히들 무슨 무슨 라운드라고 부르는 것이 이른바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다자간 무역협상이 최초로 논의된 곳의 지명이나 주도적 인물의 이름을 따서 '무슨 라운드'라고 하는 것이다. 역대 GATT가 추진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다음의 표와 같다.

<표1-11>

GATT의 역대 라운드

차수	협상기간	양허품목수	관세인하율	참가국	개최지	비고
제1차	1947. 4-10	45,000	불명	23	제네바	
제2차	1949. 4-10	5,000	불명	32	프랑스 엔시	
제3차	1950. 9-1951. 4	8,000	불명	34	영국 톨키	
제4차	1956. 1-5	3,000	불명	22	제네바	
제5차	1961. 5-1962. 7	4,000	7%	23	제네바	딜론라운드
제6차	1964. 5-1967. 6	30,000	35%	54	제네바	케테디라운드
제7차	1973. 9-1979. 4	25,000	38%	102	도쿄	도쿄라운드
제8차	1986. 9-1993. 12	-	33%	116	우루과이	UR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하고 1973-74년의 공황을 통해 자본주의의 장기 호황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거대한 초국적 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기 시작된다. 즉, 과잉축적된 자본의 출구를 마련하고 국내노동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하에 초국적 기업들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자본주의 상호간에도 광범위한 직접 투자를 감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7차 도쿄라운드가 시작된다. 동경라운드의 특징은 기존의 다자간협상과는 달리 관세이외의 비관세장벽의 자유화도 다루어 졌다는데 있다. 비관세장벽은 첫째,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비관세 장벽(=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외환할당 등) 과 둘째,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비관세 장벽(보건위생규정, 정부보조금,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내국세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작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도쿄라운드의 연장선하에서 서비스, 지적 재산권, 농산물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모든 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는 얼핏보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를 회복시킬 수있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는 상반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초국적 자본의 원활한 자본축적을 돕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힘센 자본, 경쟁력있는 자본만이 살아 남을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의 자본은 도태시키겠다는 것이다. 강자에게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겠다는 본질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IMF-GATT체제를 대신하는 1995년 부터 들어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경제의 국제적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본질적으로 불균등 발전한다는 사실, 경제적 약자와 경제적 강자로서의 분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그 속에서 나올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세계경제에 개한 공정한 조정이 아니라 경제적 강자에 대한 일방적 대변일 뿐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초국적 자본이 부추기고 있는 자본간의 치열한 경쟁을 세계경제적 차원에서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경제적 약자의 희생위에 불명예스러운 성장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1-12〉

우루과이라운드 분야별 타결내용

	주요 내용	한국양허안(또는 한국 영향)
다자간 무역기구	☞ 가트를 흡수한 국제무역기관으로 95년 창설예정 ☞ 부속서에 나타난 시장접근으로 각 분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제협정을 총괄	
긴급수입 제한조치	☞ 수출자유구제 등 희생조치는 4년 이내에 철폐	
무역관련 투자조치	☞ 원산지 부품요구 및 수출입 균형요구 금지	
공산품	☞ 95년 이후 5년간 각국 평균관세율 1/3이상 인하 (85년 9월 관세율 기준) ☞ 철강, 건설장비, 의약품, 의료기기, 가구, 농업장비, 맥주, 증류주 등 8개 분야 5년 내무관세화 ☞ 화학제품분야 관세 5-15년동안 6-6.5%로 인하	☞ 평균 관세율 41%인하 ☞ 맥주 증류주 제외한 나머지 6개 ☞ 화학제품 196개 품목중 192개 참여
농산품	☞ 예외없는 관세화 - 모든 비관세장벽 철폐,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화 - 6년간(95-2001)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평균 36%인하 (최소 15%인하) - 6년동안 국내 소비량의 3-5%만큼 현행 관세율 적용 ☞ 보조금 - 국내보조금 6년간 20% 삭감 - 수출보조금 6년간 36% 삭감 - 보조금 지원받는 수출물량 6년간 21% 감축	☞ 95-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유예, 그기간중 쌀수입 1-4%최소시장접근 허용 ☞ 2005년 이후 쌀시장 개방 여부는 재협상을 통해 결정 ☞ 쇠고기시장 2000년부터 개방
서비스	☞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 ☞ 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도 자유화대상 ☞ 5년 주기로 점진적 시장 개방	☞ 전체 11개 분야중 8분야 78개업종 개방약속

	주요 내용	한국양허안(또는 한국 영향)
반덤핑	- 제3국 우회덤핑수출 실제조사뒤 150일간 소급 관세부과 인정 - 수입국 반덤핑조사의 객관성여부를 가트가 판단 - 반덤핑관세는 5년뒤에 자동소멸	미국 등의 반덤핑제소 소지 줄어 업계에 유리
보조금 상계관계	- 수출지원, 국산품사용촉진 및 수입억제 보조금 98년 이후 금지 - 자국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정산업 지원은 상계관계 보복대상 - 기술개발지원금 중 기초산업기술은 소요자금 50%까지 응용기술은 25%까지 인정	- 정부지원 줄어 수출기업 타격 - 그러나 후발개도국 보조금 감축폭 커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면도 있음
섬유	10년동안 다자간섬유협상의 섬유쿼터철폐 - 관세율의 점진 인하	큰 영향없음
철강	10년 동안 관세율 0%로 인하	철강수출에 도움
지적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배치설계권, 영업비밀까지 보호대상에 포함	선진외국기술도입 촉진
정부조달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입찰에 96년부터 외국기업 참여 허용 - 물품서비스 건설분야 모든 대상	- 중소기업 고유품목 한전 중전기, 한국통신 장비 예외 97년이후 참여
분쟁처리	- 가트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일방적 조치금지 - 분쟁처리위원회를 자동적으로 설치하고 그 수속을 신속화 함 - 채택방식을 한 나라라도 찬성하면 채택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러한 UR협상은 우리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각국의 교역제한을 허용해온 농산물 시장의 관세화와 최소시장 접근 및 보조금 지급제한등을 통해 자유무역화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부문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제조업부문에서는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섬유류 협상 등에 대한 합의로 무분별로 명암이 갈라지게 되었다.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농산물협상의 경우 보조금문제가 미국과 EC간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관세화 문제도 한국, 일본이 개방양보로 타결이 가능하였다. GATT체제를 대체할 기구로서 당초 다자간무역기구(MTO)가 거론되었으나 미국의 양보도(WTO)로 결론지어 졌다. 시정각분야의 경우 막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향후 과제로 남겨놓게 되었다.

농산물의 경우 모든 농산물에 대해 현재의 각종 관세, 비관세장벽을 전면 철폐하고 대신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관세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비관세 장벽의 관세화, 그리고 이렇게 부가하는관세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하는 관세의 단계적 감축, 그 기간중 수입국은 매년 일정규모 이상을 수입하도록하는 최소시장 접근에 합의하였다.

우선 농업부문이 UR협상의 타계로 인해 받게 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확대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크다. 무엇보다도 쌀의 관세화 등으로 대표되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저렴한 외국농산물의 과도한 수입을 초래하여 우리의 농업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보리, 콩, 쇠고기등 기초농산물의 수입도 '95년부터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의 피해규모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생산기반의 축소, 농가소득의 감소, 그리고 이로인한 이농현상의 초래, 국가의 자립적 농업생산의 붕괴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 또한 장차 자립적 기반의 붕괴로 인한 해외의존도의 증대는 한 국가 전체의 경제의 예측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시장개방과 함께 농산물 보조금의 사용제한으로 추곡수매 제도등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점도 우리 농업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발표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개방 10년후 농가 피해액은 연간 1조30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저가 수입농산물의 유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은 개방 10년후 1조 1570억원으로 수치상으로는 국민경제에 대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붕괴, 환경, 홍수조절, 이송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고용, 주택, 교통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할 경우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서비스 부문도 국내업체의 대응제고 여하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이 UR협상에서 우리가 양터의 폭에 따라 점진적인 자유화가 추진될 것이 앞으로 미국등 선진국과의 양자간 협상을 통해 자유화 폭이 확대돼 나가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현재 개별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각종의 규제조치등은 더이상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외국서비스업체의 국내시장 잠입률은 증가할 것이다.

다만 국내 서비스산업의 의 특성, 공산품과는 달리 국내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인 예컨대 문화적 동질성이나 관습 등의 요인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UR협상이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제조업 부문이다. 물론 제조업중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최근 사업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UR타결이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증대효과는 49억6천만 달러 달하는 반면 수입증대 효과 4억5천만 달러에 그쳐 결과적으로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45억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의 관세율이 UR이전에 비해 33%정도 인하될 것이며 철강등의 부문에서 관세장벽이 철폐된 반면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은 UR에서 양허한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부문별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산업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날 분야는 금속제품으로 17억8천만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동산업 UR타결이후 특히 철강분야의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의 경우 8억 8천만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반기계 및 전기기기 산업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전통적인 수출산업은 섬유, 가죽산업의 경우에는 수출증대 효과가 1억8천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측면에서는 일반기계 및 전기기기 상업의 경우에는 6억4천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3억5천만 달러의 수입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여타 산업의 경우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유, 화학, 고무산업의 경우 수입이 4억달러 정도 오히려 줄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UR타결이후 가동률 제고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표1-13〉 UR타결이 산업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달러

산 업	수 출		수 입		무 역 수 지	
	'92실적	영향	'92실적	영향	'92실적	영향
식료품.담배	847	11	2,268	-25	-1,421	36
섬유.가죽	19,874	180	3,797	-2	16,077	182
제재 및 목제품	261	94	917	-15	-656	109
종이.펄프.인쇄	612	-24	1,653	17	-1,041	-41
화학.석유.고무	7,901	1,803	10,940	-432	-3,039	2,235
비금속광물	579	17	1,031	2	-452	15
금속제품	7,344	1,783	7,983	-76	-638	1,859
기계	22,928	1,015	21,756	993	1,172	22
-전자	20,040	877	7,746	354	12,294	533
-일반기계 및 전기	2,888	128	14,010	639	-11,122	-511
기기	9,408	37	5,429	-1	3,980	37
운수장비	4,552	45	3,864	-7	688	52
기타 제조업						
UR의 영향	49억6천만 달러 (6.68%증대효과)		4억5천만 달러 (0.76% 증대효과)		45억 천만 달러	

기획연구활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1. 9. 13 전국대표자대회
2. 고위간부정책세미나
3. 노총 '95 정기대회에의 의안제출

평가와 개선방향

지금까지 금속노련의 기획활동은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사업전개에 필요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기획하였기 때문에 종합적 기획활동은 사실상 없었으나 금년 회계년도부터 기획활동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금 회계년도의 기획활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본노련에서는 먼저 집행부 업무의 개선을 위해 실무자회의를 가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고 그 결과의 일부는 추후 고위간부정책세미나에서 집행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다음은 본노련의 운동방향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이 대토론회의 목적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노조운동이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침체일로에 있는 노조운동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전국적 토론회를 위해 연맹집행부 내부의 토론을 거친 바 있고 안산, 부산, 울산 등 지역적 토론을 가진 바 있으며 연맹의 모든 간부들이 참여하는 고위간부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토론을 거친 바 있다.

이런 토론을 거쳐 제시된 연맹 운동방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생소하게 느끼는 간부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변화나 전반적인 노조운동의 변화양상으로 볼 때 연맹이 제시한 운동방향은 점점더 현실적 노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조합원 차원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금회계년도에는 이 점이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할 수 있다. 조합원 차원의 의식조사를 통해 과연 조합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연후에 운동방향을 재정리하여 토론과 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1. 9.13 전국대표자대회

- (1) 일시 : 1994.9.13
- (2) 장소 : 대구시민운동장내 실내체육관
- (3) 참석자수 : 가맹노조간부 1,200명
- (4) 목적 : 금속노련의 운동방향정립 및 조직강화를 위한 전조직적토론
- (5) 대회일정

식전행사

11:00 - 11:30 풍물놀이

제1부 행사

11:30 - 12:00 대회선언
금속노련기 및 지역본부기 입장
국민의례
대회사(본노련 박인상 위원장)
격려사(한국노총 박종근 위원장)
축사(대구직할시 조해녕 시장)
환영사(본노련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정조
의장)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위원장 축하메세지
낭독
국제금속노련 메세지 낭독
폐회

중식

12:00 - 13:00

제2부 행사

13:00 - 13:15 문화행사
13:15 - 13:45 강연 '현정세와 노동조합운동의 과제'(경
실련 서경석 사무총장)
13:45 - 14:05 응변 '단결만이 살길이다'

14:05 - 14:40	주제 I '우리의 운동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 ?' (1) 지역제안 발의 (2) 우리 지역의 제언
14:40 - 15:00	웅변 '우리 의식부터 변화시키자!'
15:00 - 15:30	주제 II '우리 모두 조직강화 위해 뛰자!' (1) 지역제안 발의 (2) 우리지역의 제언
15:30 - 16:05	주제 III '금속노련 발전을 위한 제언' (1) 제안 발의 (2) 우리 지역의 제언
16:05 - 16:20	집행부 논평(본노련 박인상 위원장)
16:20 - 16:25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선언'
16:25 - 16:30	폐회

<본노련 위원장 대회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대비로 바쁘신 가운데도 전국 각지로부터 이렇게 참석해주신 동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협력에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 금속노련이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로써 재출발 해보자는데 그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운동은 지금 거센 객관적 도전과 주체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국가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그런 가운데 정치사회적 보수화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화와 사회정의 구현의 보루라고 자처하는 우리 노동조합 진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기억과 자부심은 무덤속으로 묻히고 있고 노동운동은 심한 분열과 조로증의 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조 조직율이 15%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최근의 보고입니다. 여기서 단결의 질적 수준도 날로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급조직의 분열양상은 심각하며 시정될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조운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애정도 날로 식어가고 있고 간부들의 열의와 헌신도 전반적으로 후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의 단결은 모이는데서부터 출발함에도 노조행사 참가율은 날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운동의 진정한 위기는 노총이니 제2노총이니 하는 조직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의 퇴색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측면에 사로잡혀 절망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상황을 탓하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운동방법과 전략전술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의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냉정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국대회에 우리의 운동기조와 활동방향을 토론주제로 내걸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금속노련이 새롭게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토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맹 집행부 토론을 가진 바 있고 본노련의 임원과 지역본부 의장,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과 부서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9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토론을 하였으며 본인이 몇몇 지역을 돌면서 일선의 간부들과도 진지한 논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토론과정을 거쳐 국민과 함께하는 합리적 노동운동 추구라는 운동의 대원칙을 오늘 여러분앞에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운동원칙이 성립키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측이 이행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진정한 노조인정과 부당노동행위의 전면적 포기이며 둘째 정부정책참여와 경영참여의 보장입니다. 정부와 기업측에 대해 우리가 이처럼 제안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대국적 정상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정의가 조화될 수 있는 산업민주적 사회를 창출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정부와 기업의 태도를 볼 때 오히려 노조 약화와 노동자 고통전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단결로서 국민의 지지를 창출하고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키지 않는 한 정부와 기업측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한발자국의 변화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측이 계속하여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한 노사관계정상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경쟁력 강화도 노사평화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측이 사고의 대전환을 통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조속히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동지 여러분 !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전조직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노선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노선을 찾아내기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토론을 진행시켜 왔습니다만 오늘의 토론이 그 어떤 토론보다도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제약적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토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오늘의 전국대회를 계기로 우리는 우리의 운동방향을 재정립하여 이를 중

심으로 실천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실천후에는 다시 평가하여 개선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본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연맹활동의 많은 점들이 개선되고 보다 질 높은 활동을 일선의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연맹은 실천으로써 솔선수범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비록 단위 사업장의 일로 짐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연맹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과 같은 전국대회는 우리 금속노련으로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예견됩니다만 진정으로 우리 금속노련의 발전을 이룩해보자는 의욕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오늘 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어 행사의 진행에 힘을 주시고 또 금속노련의 명예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인상)

<노총위원장 격려사>

친애하는 박인상 전국금속노련 위원장과 노조간부 여러분
동지여러분들은 오늘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가 금속노동자들의 결속력을 더욱 굳건히 함은 물론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직의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동지 여러분의 연대와 투쟁은 인간다운 삶을 갈망하고 있는 전국 1천 2백만 노동자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

최근 노동운동을 둘러싼 주변정세는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보다 진취적인 운동이념과 대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평등이 실현되고 사회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참다운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노동조합은 그동안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지여러분!

아직도 우리 노동조합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민주화 시대의 주도세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본래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조직력과 투쟁력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은 날로 선진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실천력과 현장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중운동으로서의 위상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하겠습니까.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동의 이념에서부터 조직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개혁을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를 통일시켜 나가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동지 여러분께서 투쟁과 연대, 그리고 전진의 깃발아래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다짐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의 운동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업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여러분!

모든 운동은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적 이념인 동시에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운동도 현시기에 우리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제도적 법률적 모순을 극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경쟁력을 빌미로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노동탄압을 분쇄해야 하며 경영참여의 보장과 노동법의 개정,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한 노동자의 역할 제고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가안정과 세제개혁 그리고 주택문제의 해결등 노동자의 보다 나은 삶을 쟁취하기 위한 정책, 제도개선에도 조직적인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국대회를 계기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과 평등한 세상을 위한 연대, 그리고 산별체제 확립을 위한 단결을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금속노련의 무궁한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격려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종근)

<대구직할시장 축사>

오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국제화와 개방화에 부응하고 금속노련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 대구에서 전국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대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박인상 전국금속노련 위원장님, 그리고 본 대회에 참석해 주신 박종근 한국노총 위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금속분야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뜻깊은 전국대회를 갖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몇년동안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과다한 욕구분출로 우리 사회는 혼란을 겪기도 했으며, 특히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은 산업 및 경제발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2년동안 서로간의 자제와 협력으로 산업평화와 사회안정의 기반을 다지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지역내의 금속노련 산하 노조에서 한 건의 쟁의발생도 없었다는 데 대하여 지역 금속노련 김경조 의장과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속과 다짐으로 약화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국제화와 개방화로 국경없는 경제적 기술적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조합의 활동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현실에 부합되는 운동으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금속노련의 전국대회는 25만 노조원의 복지향상은 물론 결속과 다짐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되어 힘찬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대회가 전 산별노조에 파급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전 노조원의 가내에 행운이 충만되기를 기원합니다.

(대구직할시장 조해녕)

<본노련 대구.경북지역본부 의장 환영사>

전국에서 모이신 금속노동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 30만 조직을 대표하신 금속노련 박인상 위원장님과 우리 한국노총의 박종근 위원장님 또한 전국 각산별 위원장님께 이 지역의 금속노동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뜻깊은 대회가 이곳 대구에서 열리게 되어 대구.경북지역의 동지들과 더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 지역에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가슴벅찬 감정을 억제하면서 군소조직이 가장 많은 우리 대구.경북지역에서 우리 금속노동자가 가일층 분발할 수 있는 활력소와 같은 용기를 불어 넣어서 명실공히 재도약의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동지 여러분!

우리 다같이 이 나라 노동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어 금속인의 가치를 높이높이 올려 세우고 온 국민속에 신망과 사랑을 받는 노동운동상을 야무지게 적립해 나갑시다.

아울러 기왕에 오신 걸음 고귀하고 값진 조언 아낌없이 주시고 대구.경북을 오래 오래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지역 살림을 맡아 걱정하시는 조해녕 시장님, 이만호 노동청장님과 지역의 각 산별 대표자 여러분께서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환영의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속노련 대구.경북지역본부 의장 김정조)

<국회 노동환경분과 위원장 축하메세지>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고 또한 변하는 만큼 발전도 이룩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와 비교해볼 때 금세기에 이루어진 변화야말로 총량으로 보나 질적인 차원에서 보나 그 이전의 모든 내용을 합친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엄청난 힘과 속도를 가진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남다

른 희생을 감내하는 변화만이 인류역사에 위대한 발전으로 기록된다는 점이 시대를 막론한 변화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지 못한 변화는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잠깐 스쳐 갈 뿐입니다.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보았던게 우리사회의 현실이었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노동만큼은 아직도 수많은 부분이 미완성인 형태로 남아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나마도 노동분야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비록 형극의 길이지만 인류역사의 발전과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신념을 지켜오신 수많은 선배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희생하는 자세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변화의 세찬 바람을 맞이한 분들의 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동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노동계에 종사하시는 지도급 인사들이 맞이해야 할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인간본성에 보다 가까이 다가간 운동,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쪽으로 가야 발전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과제로 남는 문제이지만 훗날 이 자리가 노동운동을 통해 역사발전에 기여한 지도자들의 치열한 장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지도급 인사들의 더욱 많은 고민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같이 자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과 함께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노동환경분과 위원장 홍사덕)

<국제금속노련(IMF) 연대 메시지>

귀 한국금속노련 전국대회에 연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 한국이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것은 여러분의 노조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부와 기업들은 현 상황하에서 노무비 삭감과 노동조건의 개악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여러분이 지

난 87년 대투쟁으로 획득한 노동복지가 침탈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있어 서로를 분열시켜 노동자간 경쟁을 격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에 의해 차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제금속노련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일상적 투쟁을 높이 평가하여 왔으며 여러분의 새로운 운동방침을 정할 오늘의 전국대회 토론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노동조합의 확고한 정착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투쟁은 이 지역 동지들로부터 커다란 주목을 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항시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 마르첼로 말렌타키)

<강연> 현정세와 노동조합운동의과제

오늘 이 시간 금속노련이 새로운 노동운동을 다짐하는 대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여 강연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가 금속노련이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노동운동과 연대하는 시민운동가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기대하고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는 국민의 지지가 노동운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을 명심해 주심사는 부탁드립니다. 지난날 군사독재치하에서는 국민의 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나도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언론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은 독재정권이 미워서라도 무조건 노동자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단결되어 있고 또한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또한 군사정권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칫 길거리에서의 정권타도 운동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많은 양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세상

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력하게 데모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남기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래서 투표까지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설득력과 공신력을 가진 운동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합리성에 기초한 시민운동이 오히려 영향력을 갖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여론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은 노동운동이 국민이 적극적인 지지를 얻게 되면 꼼짝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아무리 노동자의 단결이 강해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패할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최근의 일련의 노사분규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노동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이제는 국민이 비합법적인 투쟁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군사독재 치하에서는 국민들은 비합법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했지만 이제는 법이 악법이나 혹은 옳은 법이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불법을 지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국민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노동조합이 불법만 저지른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공권력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어느 대기업의 임원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하기를 노사분규가 생기면 기업은 열심히 노조를 약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속지 않지만 결국은 화가 나서 불법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곧바로 공권력을 불러들여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끝까지 합법적으로만 대응하게 되면 기업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건한 생각을 가진 사람, 감옥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만이 합법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합법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상대방이 치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이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합법운동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합법이 불가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비합법운동의 방식에 오히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사회적 공공선을 앞세우는 노동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나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노동운동이 되

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임을 얻는 노동운동이 건설됩니다. 우리는 폴란드 바웬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바웬샤는 단지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폴란드 국민 전체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폴란드 국민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가장 훌륭한 애국자로 떠받들고 나아가서는 바웬샤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노동운동세력이 국민의 두터운 지지를 받고 나아가서는 노동자 대통령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하고 평소에 어용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도자만이 노동자를 설득해서 노동자의 코앞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전체의 이익을 더 우선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비로소 노동조합이 승리할 수 있고 따라서 노동자의 이익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도덕적인 노동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힘을 갖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기업을 향해서도 이러한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향해서도 이러한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데도 노동자가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는다면 이는 노조의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노동조합은 기업이 비자금을 만들고 있는지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지 근검절약을 하는지 부동산 투기를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공개를 요구하고 나아가 깨끗한 기업이 될 것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임금이 적게 오르더라도 하청계열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사이의 커다란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운동만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되고 노동조합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을 수 있다는 신화를 창조하게 되고 기업을 꼼짝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국민복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투쟁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1989년에 노동자들은 열심히 임금인상투쟁을 해서 약 20%의 임금인상을 쟁취했지만 그 액수는 10조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그 해에 땅값이 크게 올라 땅가진 사람들이 약 330조의 돈을 벌었습니다. 제아무리 임금이 올라도 땅값 오르면 전세값이 올라 노동자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일입니다.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물가를 잡아야 하고 종합토지세를 올려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야 하고 세제개혁으로 공평한 세금을 내게 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해서 가난한 사람도 잘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러한 토지, 주택, 교육, 금융, 재벌, 세제, 사회복지, 환경, 교통등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단지 노동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일입니다. 실제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득권세력의 강력한 저항때문에 개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회 경실련과 같은 시민운동은 이러한 개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연대하여 이러한 개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동운동이 이러한 개혁을 위해 앞장설 때 온 국민이 이를 크게 감사해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두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노동과 자본이 서로 적대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하루빨리 청산되고 노동과 자본이 서로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선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든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단지 일류기업이 되어도 안되고 초일류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사관계의 개혁이 없으면 절대로 초일류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사관계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우선 첫째로 기업은 임금을 높이고 복지의 수준을 높여 노동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의 풍토를 마련해야 합니다. 누가 노(勞)이고 누가 사(使)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노사가 한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음에 노동자는 기술향상, 품질향상, 생산성향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초일류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정한 경쟁질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자도 사용자도 다같이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최근 미국의 GM, 새턴, 제록스 회사와 같은 거대기업이 이러한 노사관계의 개혁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임금과 재벌위주의 경제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임금을 가지고 초일류기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임금정책은 비용을 줄일 수는 있어도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 정도로 노동자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없이는 그 기업이 경쟁해서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동조

합은 이러한 고임금, 고생산성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개혁에 앞장서야 하며 노동운동을 통해 이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앞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에는 노동운동이 일반시민의 공감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과의 공동협력이 쉽지 않았습시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연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김영삼개혁이 실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필요가 더욱 절실합니다. 왜 개혁이 실종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에 권력과 능력을 장악한 소수의 기득세력이 완강하게 개혁을 반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김영삼정부가 이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함께 연대하여 강력한 개혁주체세력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연대는 김영삼정부에게 개혁을 촉구할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김영삼정권보다 더욱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김영삼정권처럼 호지부지되는 정권이 아니라 철저한 자세로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정권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크게 단결하면 이를 지켜보는 기층민중과 중산층시민들이 서로 단결하게 될 것이고 그 때에야 기득권세력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단지 시민운동측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노동운동은 일반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이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에서는 노동운동을 하지만 거주지역에서는 시민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데 뭉쳐져서 구분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사회민주당은 노동자중심의 정당으로서 유럽을 민주복지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운동이 이렇게 우리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되려면 단지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간부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두터운

지지가 있어야 우리사회의 개혁도 이루어지고 또한 훗날 노동자출신 대통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회가 바로 이러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출발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토론자료>

새로운 정세와 우리의 대응(요약)

- 금속노련의 운동기조와 방향 -

1. 새로운 정세

- 주요 공산권의 붕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계적지배를 가져오고 있으며 혁명적 운동노선을 퇴조시키고 있으며 사상적 보수화를 급진전시키고 있다.
- 경제에 있어서는 선진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하는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시아지역과 동구지역은 선진자본의 새로운 착취영역으로 등장하여 머지 않아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 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정치·노동운동의 새로운 개화가 전망되고 아울러 이들의 경쟁력 강화는 한국등 신개발국들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 국제화·개방화는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해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 중심에 경제 제1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이 결과 노동운동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게 된다. 그러나 균형을 잃은 경제제1주의의 추구는 사회정의와 민주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탄생시키게 될 것이다.
- 국제화·개방화와 함께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어 국제노동운동의 강화가 예상되나 그럼에도 국제노동조직은 국가간 경쟁을 지양시키는 데는 한계가 클 것이다.
-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경쟁격화와 소비자 위주의 생산강화로 유연성추구의 경영이 매우 강화되고 있으며 종업원 창의성 도모와 노동강화를 위한 조직 간소화나

팀작업제등이 도입되고 있다.

- 정보화가 급격히 추진되어 선진자본에의 정보집중이 진행되고 있고 선진자본은 정보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 초기의 개혁정책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문민정부는 우르파이라운드 타결을 기화로 보수화를 강화하고 있다.그럼에도 현재로는 차기정부가 더 개혁적일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 문민정부의 노동정책은 과거 군사정부의 정책과 차이가 없으며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운동을 체제내로 편입시키고 길들이기 위해 오히려 더욱 적극적 공세를 펴고 있다.
- 남북간의 민족문제는 적대감이 점점 해소되어 나갈 것이나 분단상태는 계속 유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 재벌의 경제적 지배가 문민정부하에서도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할 전망에 있다.
-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합리화가 광범히 추진되어 고용불안이 크게 야기되고 있으며 연공서열임금제에 대한 공격이 격화되고 있다.
- 노조 조직율은 90년부터 계속 하락하여 94년 상반기에 87년말 수준으로 떨어지기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 전국 조직을 둘러싼 분열과 각급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심한 분열과 대립, 그리고 전반적인 노조의식의 약화 및 기업별체제 고착화로 노조의 활력과 단결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던 국민의 의식은 이제 노조로부터 떠나 노조운동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노조도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조합원의 급진성과 현실과의 괴리는 직선제를 통하여 노조지도부의 불안정을 제도화하고 있어 노조간부의 경험축적을 저해하고 사용자측의 노조개입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
- 노조의 지도력 약화와 기업별 분산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의 적절한 대응이 매우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부당노동행위는 종전처럼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근절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 임금억제 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 노무비 삭감을 위한 사용자측 고용정책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 4대운동기조

-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함께 국민의 권익증진도 아울러 추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속의 노조운동을 확고히 정착시킨다.
- 사회적 상식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을 높여 요구의 관철율을 높여 나간다. 투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예비해 둔다.
- 슬로건적 민주나 은폐된 민주를 지양하고 실질적 민주를 강화한다.
- 현장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방법을 강구하는 현장주의를 강화한다.

3. 운동방향

- 노사관계정상화를 위해 주도적 노력을 경주하며 노사관계 정상화의 기본전제인 정부와 사용자의 노조인정과 결정기구에의 노조대표 참여보장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선거운동 참여뿐만 아니라 노조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노조 자체를 보위할 뿐만 아니라 진보세력의 역량강화에 이바지 한다.
-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선, 비생산적 불로소득 근절, 조세제도 개혁등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연대강화와 모기업 노조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구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남북 민족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바 우선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립하여 국민적 합의형성에 참여한다.
- 노조통일에 관하여는 현재의 조직분열의 실체를 인정하여 문호를 개방하여 두되 대신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 나간다.
-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되 잘못된 정부제도나 경영방식, 그리고 비민주적 노사관계,장시간 노동등 진정한 경쟁력 저해요인을 밝혀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노동자 스스로 기능.기술연마와 정성을 기울이는 기풍을 키워 나간다.
-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기업측으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 포기 선언을하도록 요구한다.
- 조직확대를 위해 임시직.사무직.영세기업 노동자.공무원의 조직화를 추진하며 근본적으로는 노조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시켜 부당노동 행위에의 욕구를 없애간다.
- 산업별 노조체제의 도입을 위해 법적 지원을 추구하되 보다 기본적으로는 조직

- 내적 합의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그 이전이라도 현 연맹체제를 개선, 강화해나가는 활동을 함으로써 기업별체제의 단점을 보강해 나간다.
- 조직강화를 위해 운동노선을 정립하며, 지역별, 업종별 조직의 활성화와 교육, 홍보 활동의 개선을 도모한다.
 - 의식개혁을 위한 특보제작등 캠페인을 전개한다.
 - 노조 집행부의 안정과 전문부서 담당의 임기연장 및 대우와 집행부간 업무인계 인수 철저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노조운동의 경험이 축적되어 나가도록 한다.
 - 노동법 개정은 노조법 3조5호에 대한 입장정립을 통해 노동진영의 개정요구안을 통일, 공동대응해나감으로써 노동법개악의 소지를 없애야하고 금속노련은 산업안전법 개선을 위해 특히 노력한다.
 - 임금중앙합의에 대해서는 금년말 정부의 제도개선 이행결과를 놓고 결의기관의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 효과적인 경영참여를 위해 노사 상호 신뢰축적과 기업회계제도 개선, 노조간부의 경영파악능력제고 및 산별체제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경영참여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참여한다.
 - 정부의 산업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산업전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정책에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시키도록 노력한다.
 - 고용대책은 단기적 대책에서 장기적, 종합적 대책으로 전환을 모색하며 경영참여 입법활동을 통해 고용문제에 대한 노사공동결정제가 도입되도록 한다.
 - 산업안전활동과 환경개선활동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조안전 담당의 유급활동 보장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 강화등 법개정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 조합원의 욕구 다양화에 따라 교양, 레저활동의 체계화를 도모하며 맞벌이 증대에 따른 생활정보 제공등 편의 도모와 주부 노동력 및 고령자 노동력의 증대에 발맞추어 탁아시설 확충과 고령자 대책을 강구한다.
 - 국력증대에 따라 능동적 국제활동 전개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바 노동외교 재단형성과 담당요원의 전문화를 강구한다.
 -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예산절약과 수익자부담 사업의 증대를 도모하며 수익사업의 개발에 노력한다.
 - 정보의 전산화를 통해 신속한 자료공급을 도모한다.
 - 노조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연맹과 지역본부간 업무통일을 기하고 서식등 기본적 업무양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한다.

6. 운동기조 및 활동의 구체화 방안

- 전국대회 직후 9월 30일까지 가맹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동기조 및 방향을 일차적으로 확정한다.
- 10월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작업을 한다.
- 운동기조 및 방향이 확정되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결의기관 결의를 통해 실천해 나간다.
- 95년도 정기대회시 일차적인 평가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토론 내용>

주제 I 우리의 운동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 ?

1. 지역제안 발의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성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재섭입니다. 그간 우리 금속노련이 최대산별 조직이었습니다만 특별한 운동기조를 가지고 뚝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동지들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금속노련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련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소집단인 가정에도 가정을 발전시켜 보려는 애정을 가지고 가훈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교훈을 줍니다만 노동운동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에 목표나 방침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면 누가 그 배를 타려 하겠습니까? 누구도 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금속노련이 늦으나마 이렇게 안을 내놓고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연맹 집행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정세와 우리의 대응'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된 고위간부정책세미나에서 토의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료에는 요약분만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세미나결과를 반영시켜 일부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속노련의 운동

기조와 방향인 ‘새로운 정세와 우리의 대응’에는 보시다시피 정세분석부분과 4대운동기조 부분, 그리고 구체적 운동활동부분과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평가할 것인가의 절차부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위간부 정책세미나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집행부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이의는 없을 줄 압니다. 다만 집행부안중 몇가지는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운동’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조합원의 권익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온 우리에게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또 기업별 노조 체제인 우리 처지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판단은 정세분석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지금 우리의 노동운동이 너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또 ‘집단이기주의’, ‘일방적이다’, ‘폐쇄적이다’등 비난으로 매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노조운동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와 기업주,언론이 삼박자가 되어 노조를 고립시킨 측면이 매우 큼니다만 우리 노동조합도 과연 운동방향에 과오가 없었는지 냉정히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몇년전에야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고 탈법행동까지도 용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 생각이 엄청나게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빨간따만 봐도 달리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이제 노조가 권리주장만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까지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운동’을 전개하자고 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일부 노조들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병원 환자의 권리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한다거나 환경운동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가뭄대책에 참여하는등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기조는 또한 국제화.개방화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강구이기도 합니다. ‘국제화.개방화’라는 말은 정부와 기업이 너무 악용하고 있는 결과 우리 노동자에게는 혐오감을 주는 말로 변모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떻든 경쟁에서 낙오되면 노동자나 노동조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냉엄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빈대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운동은 분배에 역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분배는 물론 생산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노동강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올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마음의 자세를 갖춰보자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유일한 재산인 노동력의 질을 개선해보고 우리가 만든 상품이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기풍도 기울여보며 인간다운 노

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큼니다. 기업은 노동자로부터 불신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기업의 흥망이 노동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동자 복지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두번째로 이와 관련해 지금의 역량소모적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많은 사업장에는 이순간에도 끝없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은 오랜기간 노동자를 종부리듯 해온 기업측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차피 노사의 공동 노력없이 노사관계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서로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신뢰도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풍토가 각 기업차원에서는 단기간에 달성될 수 없습니다. 기업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때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만 발버둥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정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운동기조에서는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와 사용자가 노조를 인정할 것, 정부와 기업의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킬 것, 부당노동행위를 완전 중단할 것등을 전제조건으로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충실히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무의미한 논쟁을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편인가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제기하고 주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이 선입견을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는 것이 노사관계 정상화의 첫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하면서 지금의 노사관계를 그대로 방치해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솔직하고 용기있는 자세야말로 오늘 우리가 처한 노동운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연맹의 운동기조도 이러한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 노동운동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연맹 집행부안의 주요부문을 소개드렸습니다. 진지한 토론이 있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맹 집행부에 대해서는 토론을 오늘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조합원차원까지 토론을 확대시켜 진정으로 조합원까지 공감하는 가운데 이 운동기조가 생명력을 가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제안 발의자 유재섭)

2. 지역제안

<인천지역>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한 의식전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노동운동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주체적 노동의식과 권리에 대한 자각으로 향후 노동운동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준비단계에서 우리 나라 노동운동도 새롭게 가치관을 정립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사회적 형평, 참여, 복지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선도할 수 있는 노동운동의 이념적 방향설정과 구체적 실천활동을 중심으로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노동운동의 기초를 창출해내야 하는 필연적인 시기에 도래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부족, 또는 노동운동 내부적으로도 사고와 이념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나 이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뚜렷한 이념정립과 구체적 대안을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천명하여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 나가면 폭넓은 대중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의 연맹의 새로운 노동운동기조는 전체 노동운동의 단편적이며, 획일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향후 새로운 노동운동정신을 주체적으로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운동기조라 생각하며 인천지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1)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성공리에 정착되어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 2) 우리는 연맹의 이러한 운동기조가 일시적인 광고, 홍보형의 선언적 운동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전제로 하는 실천운동으로 연계되기 위하여 계속적이며,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
- 3) 우리는 이러한 운동기조의 올바른 이해와 실현을 위하여 전국민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이를 위하여는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시켜나가는 현장중심의 의식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포항지역>

87년 6월항쟁에 이은 7,8월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굴종과 예측을 끊어버리고 자주성을 기반으로 한 단결과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민중 중심 사상의 싹을 틔워 우리 노동운동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은 너무 일찍 현실에 안주하였고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노동운동의 질적인 발전은 뒤로 하고 노.노간의 선명성 경쟁, 어용성 시비에 휘말리며 전투적인 조합주의를 선호함으로써 문민정부에 노동탄압의 빌미를 주는가 하면, 막강한 언론의 오도로 인하여 국민대중들로부터 집단 이기주의라는 따가운 시선마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대회를 통해 우리의 노동운동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라는 대명제 아래 전국금속노동자들과 고민하게 됨은 다행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연맹에서 제시한 4대운동기조에 지지를 보내며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상급단체의 분명하고 뚜렷한 운동방향제시를 통해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의 선점과, 국민고 함께 하는 운동기조로의 이론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보장과 생활수준의 제고, 근로조건개선, 고용보장,자본의 부당노동행위,임금억제정책,노동법개악등 많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비굴한 온정주의로 몰아붙일 수 있으나 현실을 직시한 우리 스스로의 의식변화를 통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공동인식 속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임금협상 단체협상투쟁등을 통해 합리적 협상과 단호한 투쟁을 적절히 배합하는 경제조합주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전투적인 노사관계에서 협력과 합의를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상의 정립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이 먼저 변화의 선상에서 노사관계를 주도하여야 하며 그동안 우리의 노사관계는 상호부정과 불신이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 제공 또한 정부와 자본측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새로운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며, 정치와 정책결정등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인정할 때만 노사관계 정상화가 지켜질 수 있으며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관계법령 개선, 기업의 정당한 분배원칙,노동자들의 생산적 책임등 대국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받을 때 가능하리라 할 것이며 정부나 사용자측의 근대적 사고의 발상이 담보상태일 때는 전국의 노동자들로부터 투쟁의 명분만 가져다 줄 뿐임을 우리는 알려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해묵은 이념논쟁을 떨쳐버리고 자주성을 확보한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조합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로 국민속에 함께하는 경제조합주의를 향해, 반목과 굴절의 긴 터널을 지나 오늘 모인 전국 노동자들과 함께 힘차게 뛰어 갈 것을 제언합니다.

(대표제안자: 화성기업 노동조합 김우석)

<서울지역>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외의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산별체제에서 단위노동조합으로 분해된 이래 새로운 시련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는 새로운 도약은 의식개혁을 통하여 이룩하여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독점적 지위는 어느새 무너져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새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의식개혁,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금속연맹 노동자는 강철노동자입니다. 강철은 두들길수록 가열할수록 더 세게 태어납니다. 유일조직으로 누려온 독점적 지위는 우물안 개구리식 운동으로,각 단위사업장에서 누려왔던 무사안일은 어느새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노동자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모인 노동조합은 국내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한때 우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었고 의무만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한다고 매도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조직으로서의 우리 노동조합운동, 노동운동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한결음은 책임있는 대안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우리의 권리행사와 대안있는 비판, 그리고 사회성원으로서의 의무행사를 통해 한국경제산업을 이끌어야 할 우리는 오로지 단결만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결은 무사안일과 나태에 빠져서는 행사될 수 없습니다. 한때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교육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동안 무사안일과 고립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 반성은 곧 의식개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식개혁과 대동단결 이 두가지를 위해 새로운 결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제안자 : 서울남부기계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권태정)

주제 Ⅱ 우리 모두 조직강화위해 뛰자!

1. 지역제안 발의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총 부천지부 의장을 맡고 있는 장진수입니다.

제안발의에 앞서 지난 9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친 고위간부 정책세미나에서 어떻게 하면 금속노련의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간부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토론 결과와 집행부안을 중심으로하여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과 금속노련의 새로운 운동방향을 설정하여 통일적 실천을 추진키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단위조합의 대표자와 핵심간부들로서 노동운동의 진로는 우리들의 행동여하에 따라 결정지워진다는 중대한 책임과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의 급진전으로 국가이기주의와 보수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 체제의 등장등 국제적 규제력이 강화되고 선진 자본의 이윤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들은 노동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노동운동의 침체는 한때 지나가는 독감이 아니라 사망선고 직전의 매우 심각한 악성종양의 상태로 각계에서 진단한 바 있습니다. 87 년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전투적 조합주의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대중성을 상실케 하였고, 정치편향주의는 노동조합의 활동자체를 규제시켰는가하면 민주다 어용이다 하는 도식적 조직노선은 결국 노동조직 내부의 소모전과 갈등만을 초래케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노련 역시 90년도 39만에 육박해 있던 조직이 소기업 노조의 자진해산과 기능마비, 제도내 조직이탈, 중간노조의 양산등 주변 여건에 의해 조직율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조직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직간의 분열과 이탈, 독자화, 휴면화되어가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으로 이념논쟁은 사라지고 각국의 노동운동도 이제는 자국의 이익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노동운동의 내부에는 상당부분 이념 논쟁에 휩싸여 갈등과 반목이 깊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조직은 작년의 4.1 중앙노사합의와 금년도 3.30 사회적 합의로 인해

운동차원에서 제도권 조직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노동법 개악과 복수노조문제, 사용자의 잦은 부당노동행위, 국가경쟁력을 빌미한 고통분담, 조직내부의 노.노 갈등등 대내외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인상율이 노.경총 합의 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노.경총 합의는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사회적 합의중 정책. 제도개선 사항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아 각급조직에서 노총과 산별을 불신하는 결과만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법 개정 방향은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개별 근로관계법의 개악과 구색을 맞추기 위한 성격이 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이 예상되어 차후 노사관계에 있어 부정적 영향과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 시민법적 대응이 강화되어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가와 업무방해, 고소고발의 급증, 최근의 현대중공업 쟁의의 종결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정착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야노동세력은 노.경총간의 사회적 합의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금년 11월에 제2노총 결성 준비위를 구성한 후 내년 2월까지 노조법 제3조 제5호의 철폐와 관계없이 제2노총을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규합하고 있어 노동세력의 이원화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90 년이후 노동운동이 수세기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 역시 경기침체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노동통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동환경 이외에도 제2노총 건설추진에 있어 본노련이 타케트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분열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됩니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배양치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노조가 권리주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은 물론 국민의 이익과 조화속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앙노사합의중 정책. 제도개선 사항을 반드시 실현하여 노동조직의 힘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조합과 조합간, 지역과 지역간의 연대로 조직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급 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당해지역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감으로써 조합원들의 소속 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소속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내 노조와 조합끼리의 연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별 조직을 활성화해야하고 그러한 조직체계 속

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운동요원을 육성하여 우리의 운동노선을 확산시킴과 아울러 현장과 지역본부, 그리고 연맹간의 기동성있는 가교로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교육과 홍보기능을 개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은 지금까지의 주입식에서 토론식으로 방향을 전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의 의식을 고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종 자료를 제작 공급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중심의 활동을 보강시켜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봉사적 조직운동을 전개하여 우리들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나갑니다.

특히 이탈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변화노력과 접촉의 유지를 통해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생각이 다르다 하여 노동자끼리 이질화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비제도권 노조와 대화를 통해 본노련의 운동이념과 활동사항, 조직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세와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우리의 노동운동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단결은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 어떤 도전 세력에도 응징해 낼수 있지만 분열은 조직의 생명을 앗아가는 적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되새겨 우리모두는 금속노련 발전을 위해 뜻과 의지를 한데 모아 다같이 땀시다.

(제안 발의자 장진수)

2. 지역제안

<경기지역>

1. 조직력 강화에 대하여

가. 조직력 강화의 필요성

- 1)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일방적인 정권과 경영의 힘에 대응하기 위하여
- 2) 노동자가 정치.경제.사회의 주체로서 국민으로서 국민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 3) 금속노동자의 발전이 우리 1200만 노동자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나.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1) 본부(노련)

가) 실천적이고 앞서가는 정책대안 제시

나) 힘을 모아내는 집중성 필요

다) 일상활동의 강화

(1) 지역별 모임 활성화

(2) 공동사업 추진

(3) 교류회 실시

위 활동을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토대 마련

2) 지역

가) 실국부서의 활성화

나) 지역별 업종별 연대사업 강화

(1) 정기모임 추진

(2) 공동사업 추진

(3) 자료 교환

(4) 소모임 활동

3) 교육 및 홍보사업

가) 간부교육

나) 조합원 교육

다) 직무교육(부서장 업무, 회계실무 등)

전체 간부 및 조합원 교육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하루아침에 볼 것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의 계획을 갖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4) 재정 자립화 추진

가) 사업의 다각화 검토

나) 조합원으로부터 소속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참여의식 유도 필요

다) 조합비 운영의 공개 및 선진 노조들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

2. 확대방안에 대하여

가. 확실한 정책제시 및 실천하는 금속노련상을 보여 주어야

나. 3.30합의에 대한 시행유무 추적, 미실시 사항 시행촉구대회 개최

다. 대시민 홍보 필요, 94임투 전체방향을 잡아나아가야 하며 95년의 임단투 정책제시

라. 전노대의 노총탈퇴와 민주노총 건설을 부르짖고 있는 이 때 산하

조직들에 분열보다는 화합과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
끝으로 앞서가는 금속노련이 지역별 업종별 연대사업의 강화속에 조직강화가 이루어질 때 강력한 산별체제로의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제안자 : 금성전선노조 군포지부장 이우창)

<경남지역>

저희 경남지역본부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현실적 조합운동의 전개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노동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짓고 교육홍보개선에 대한 토의를 거친 결과 제안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교육활동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일반 간부교육은 교육참여율은 괜찮은 편이나 임원급(대표자, 사무국장)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 2) 교육프로그램 문제는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과 교육시간이 너무 길고 중복된 내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3) 교육재정문제에 있어서 IMF교육비 활동중단에 따른 교육비 거출의 문제점과
- 4)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이수후 의식변화 활용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문제점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교육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 1) 교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교육시행시기의 변경과 신임대표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사업장에 문서통보후 독려하고 대표자 교육을 부위원장까지 확대 하자는 방안과
- 2)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저명한 강사의 초청과 강의식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토의식 방법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교육시간도 단축하고
- 3) 교육재정에 있어서는 거출 교육비의 적정인상과 좀더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단위노조의 참여의식을 높여나가며
- 4) 사후관리는 의식변화, 활용도에 대한 설문지 조사등 교육부의 인

원충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3. 홍보활동의 문제점은

- 1) 기관지 발행시 단위노조 및 지역본부 소식의 연맹 취합이 미흡하여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과
- 2) 가맹노조 노보 발행실태 미흡으로 노보발행지원이 안되고 있으며
- 3) 전국과 지역의 홍보체계 부재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교류 및 홍보활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4. 홍보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 1) 지역본부에 홍보요원을 확보하고 연맹과 지역본부간의 정보교류 및 홍보의 신속화를 기해야 하고
- 2) 지역본부의 기관지발행 및 지역단위 홍보선전교육과 컴퓨터 통신 교육을 이용한 상호 정보 및 홍보의 신속한 교류가 절실하며
- 3) 단위노조 의견이 지역본부 및 연맹으로 전파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본부 및 연맹에 비공식, 공식 의견란을 비치하고
- 4) 금속노련 통신 및 기관지를 매월 3회이상 발행하여 현장중심의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며 이상과 같이 저희 경남지역본부에서 제안한 교육홍보개선방안에 대하여 전국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제안 발표자 : 금성사노조 창원2지부 지부장 김영준)

<충북지역>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지역본부 뉴맥스노동조합 위원장 이형일입니다.

모든 활동이 그렇듯이 자금 및 재정은 그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지난 9 월 1,2 일 정책세미나에서 보고된 연맹의 재정은 이미 사업비의 수준이 1/2 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난은 연맹의 활동 위축뿐만 아니라 지역본부의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며 대조적이 아닌 중소조직의 단위조합에도 각종사업 및 정보의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재정을 확충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먼저 의무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일입니다. 단위조합에서는 의무금을 납부할 때 조합원의 조합비를 징수하는 즉시 연맹에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재정의 부족을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위조합에서는 현재 징수한 조합원수에 근거하여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의무금만으로는 연맹 활동이 미흡하고 연맹 활동이 미흡하면 조직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직강화를 통해 참여조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지역본부의 재정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역본부가 활성화 되어야 연맹의 조직이 강화되는데 현재 지역본부가 처한 상황은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연맹의 의무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지역본부를 지원하거나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의무금 납부 체계를 변경하여 인원수에 따라 연맹이 일괄적으로 의무금을 받고 지역본부로 할당해서 지원하는 체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이상 재정의 문제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빠른 시일안에 결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어 우리 지역본부의 의견을 모아 감히 제안합니다.

(대표 제안자 : 뉴맥스노동조합 위원장 이형일)

<부산지역>

함께하는 전국의 노동자 및 이 자리에 참석한 노조 간부 여러분!

활화산처럼 치솟던 87년도의 활기찬 노동운동이 오늘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감마저 느낄 정도로 극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원인의 첫번째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좋지못한 시각변화를 들 수 있겠고

두번째로는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가운데서 노조간부들이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개발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 침체국면에 서서 무기력하게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적인 침체요인에 핑계를 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하여 노동운동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개발하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자기 의식변화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조 간부로서 철저한 의식변화의 실천방안으로는 먼저 간부로서의 확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투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출퇴근에 모범을 보이고 조합원들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로 성실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확고한 노동운동의 이념을 가진 가운데 간부 자신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상급단체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과 노조간부로서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회정세 파악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무사안일한 사고를 버리고 매사에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노조간부로서의 자기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강철같은 단결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조간부로서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승복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며 규약을 준수하고 보다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며 또한 노조간부로서 의무이행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지시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상급단체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단결을 깨는 사심과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체제 건설을 위하여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우리는 노동운동의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산업안전보건활동과 고용안정 및 사내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에 참여하여 연대를 강화해 나가며 정부의 정책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노동자들도 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운동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노조 대표자 및 노조간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조간부로서의 의식변화를 통하여 조합원 위에 올라서려는 개인적인 권위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조간부로서의 의식변화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사심을 위한 감투싸움을 과감히 청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뼈저린 자기반성과 노조간부로서의 의식변화를 통하여 투철한 사명

감을 지닌 공인으로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대회를 통하여 주제발표된 노동조합간부 의식변화운동이 우리 금속뿐만 아니라 그외 전 산별 및 법외단체 노조간부들에게도 들불처럼 일어나 침체된 노동운동 국면에 큰 활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표제안발표자 : 오리엔탈정공노동조합 위원장 권동재)

주제 III 금속노련 발전을 위한 제언

1. 지역제안 발의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지역본부 의장을 맡고 있는 박한주입니다.

지금까지 금속노련 운동기조와 조직확대, 강화방안에 대해 집행부안 설명과 지역별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점적 방안들이 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1000만 노동자가, 요즘 거지도 받지 않는 일금 100원씩만 내면 10억원이라는 막대한 거액으로 돌변한다고 얘기합니다. 담배 한갑정도 가격인 1000원씩을 내면 100억원이고 1만원을 내면 1000억원입니다. 또 노동자가 국회앞이든 정부 종합청사 앞이든 모이면 게임은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산술적 계산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아마 1200만 노동자가 한자리에만 모일 수 있다면 대통령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 해보는 산술적 계산에 불과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힘이 하나라도 모아지기보다는 계속 분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흔히 1000만 노동자여 단결하자고 외치지만 그것은 메아리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맹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에서는 모든 짐을 단위노조가 다 져야 하는 형편입니다. 전국적 단결도 좋고 연대도 좋지만 우선 기업안이 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 동지들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편한 노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기업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정입니다. 한편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요구가 강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집행부는 조합원과 줄다리기를 병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대와 같은 노동운동의 이념은 지켜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악순환고리입니다. 기업내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대가 어려워지고 연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시 기업내 사정은 더 어려워

집니다. 상급단체 역시 똑같은 악순환의 쳇바퀴돌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조직의 어려움에 따라 상급단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그 결과는 조직이탈이나 맹비남부 해태입니다. 상급단체의 사업능력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결국 상급단체에 대한 기업별 조직의 불만은 다시 더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잘아시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체념한 채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거나 아니면 악순환고리를 끊어내든가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몫도 아니고 기업주의 몫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금속노련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고민은 오늘 하루로 끝낼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하여 우리는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또한 이런 종류의 자리들을 계속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경주되지 않은 채 현실이 잡아끄는 대로 끌려 간다면 노동자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경북과 전남,충남,구미,울산 지역에서 한 동지씩 나와 지역을 대표해 의견을 말씀 해주시겠습니까만 진지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제안 발의자 박한주)

2. 지역제안

<대구,경북 지역>

40만 금속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인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 각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및 간부 여러분!

오늘 금속노련의 노동운동 재도약을 위한 전국대회를 저희들 대구지역에서 개최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금속노련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평소 여러 공,사석에서 즐겨 말하기를 40만 금속노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오나 본인이 짐작하고 있는 현실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수

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사실이라면 연맹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노력으로 군소조직, 대기업조직, 문제의 이탈조직등을 막론하고 똑같은 조직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은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행정적이기에 앞서 산하조직과의 연대와 긴밀한 협조가 조직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구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발로 뛰며 실천하는 운동으로 진정코 40만 금속노동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연맹이 될 수 있도록 바라오며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노경총 임금가이드라인 합의는 어떠합니까? 높은 물가 인상, 생계비상승등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사례는 임금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노경총합의안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기업별 노사자율에 맡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째 전국의 모든 노동조합 형태를 유니온샵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대정부 활동방안은 생각해보셨습니까? 현재의 오픈샵제도 적용으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구제를 위하여 그리고 진정한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땅히 유니온샵 제도 적용이 실현되기를 원하오며

네째 노동조합 조직중에서도 제일 약체인 현재의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벗어버리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산별체제의 노조형태로 바꾸어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선에서 땀흘리는 조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받는 연맹이 된다면 산별노조 건설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산별체제 단점을 백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힘써주실 것을 바라오며

끝으로 대구, 경북지역에는 특히 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가 많습니다. 지난번 연맹에서도 하도급 납품업체의 고충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까지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형태의 불리한 여건속에 있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책을 심도있게 연구 노력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속노련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제안 발표자 : 아시아 종합기계노조 위원장 윤태길)

<전남지역>

금속노련이 발전하려면 허리조직인 지역본부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본부를 활성화시키는데는 크게 두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재정확충

및 자립이고 또 하나는 참여의식과 연대강화입니다.

먼저 재정확충, 자립을 위해서는

첫째 각 단위노조에서는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조합비를 받듯이 연맹이나 지역본부 의무금을 조합원수대로 납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역본부 활성화에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본부에서는 회의기구를 통해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연맹에서는 각종 명비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약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여의식과 연대강화는

첫째 연맹과 지역본부에서는 수시로 단위노조를 방문하여 현장조합원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직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현장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본부의 활성화에 더한층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각 단위노조 대표자께서는 비판을 하든 찬성을 하든 각종 회의나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 지역본부와 단위노조는 물론 조합과 조합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본부 활성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힘을 쓸 수 있듯이 금속노련의 허리조직인 지역본부를 활성화하여 전국금속조직이 너와 내가 아닌 하나로 단결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대표제안자 : 남선선반 노동조합 위원장 임경연)

<충남지역>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느껴왔고 겪어 왔던 수,우,미,양,가. 공부를 잘하면 수를 맞고 그 다음으로 잘하였다면 우를 맞고 보통인 경우에는 미를 맞습니다. 성적이 형편없다, 꼬도바리인 경우에는 가를 맞습니다.

우리는 금속연맹의 지도편달과 지역본부의 자문과 연대속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10여년간 노동조합을 운영해오면서 느껴왔던 사실입니다만 어느 사업장은 노사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어느 사업장은 허구한날 알고보면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노사가 계속 싸움만 일삼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노사가 번갈아 가며 고소, 고발을 일삼는 경우를 종종 보아 오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이럴테면 사전에 연맹이나 지역본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소한 일을 큰 사건으로 확대시켜 놓고 그때서야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본가들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행위가 판을 치는 것도 사실이고, 가면 갈수록 노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파렴치하고 가부장식 구습적 관념에 요지부동인 자본가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3D현상을 기피하고 있다느니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국제경쟁력 제고에 어렵다느니 이데올로기식의 교묘한 말을 터뜨려 경제불황이 마치 노동자 때문인양 묘사하고 있는 현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사람만 잘살아 보자 설립한 노동조합도 아니요 우리 함께 의무를 다해 가며 권리를 주장하여 우리 모두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최선을 다해 투쟁하는 선의적인 우리 노동형제들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역본부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식과 연대의식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상급단체의 교육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어떠한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교섭력을 평소에 배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래도 될가 말가 하는 판에 금속연맹이 아닌 이 단체로 간다느니 저 단체로 가자느니 내 생각은 이런데 웃기지 말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참견말라는 등 얼빠진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금속연맹 산하 노동형제들이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하나의 역사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손가락 열개가 뭉치지 않고 개인플레이를 한다면 생쥐 한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손가락 열개가 이렇게 뭉쳤을 때는 호랑이도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소생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 대동단결합시다.

금속연맹의 지도편달과 지역본부의 자문을 받고 서로 상의하고 협조하여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수,우,미,양,가 중에서 가서방,양서방이 되지 말고 우씨,수씨가 되어 그야말로 노동형제가 하나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됩시다.

대한민국 금속연맹을 세계가 부러워 하고 대한민국 금속연맹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금속연맹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지혜와 연대의식 그리고 대동단결의 벽을 쌓아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제안자 : 삼신노동조합 위원장 강한우)

<울산지역>

1. 정치적 영향력 발휘 - 노동법 개혁, 국회 노동계 진출
2. 노총의 과감한 개혁, 필요에 대한 연맹의 입장과 대책
3. 산별체제 구성
4. 지역본부 활성화 방안
5. 조합원 중심제의 현장활동 강화
6. 중앙임금교섭 절대 반대
7. 재정확보
8.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갈등심화 해소

<조합원중심의 현장활동강화에 대한 문제점>

1. 상급단체 역할에 대한 교육 - 순회간담회 필요
2. 노조간부 의식강화 교육 - 노노간의 갈등해소
3. 조합원 대상으로 임금, 단협시 순회방문 지원
4. 연맹의 전문교육 강사배치, 조합원대상 단위노조 교육
5. 조합원이 대거 참석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연중행사로 실시 또는 각 지역본부별 실시 - 연맹지원
6. 중앙임금교섭 절대반대(필요하면 연맹 독자안 제시)

비제도권 노총탈퇴빌미 제공 : 선거공약 사용

특히 울산지역은 현총련에게 빌미를 주므로 제도권에서 탈퇴현상

최소화를 위한 지역본부별 간담회를 갖고 현장 토론을 거친 다음 실시

이와같이 울산지역본부에서의 대책은 교육활성화나 강사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단위 사업장별 필요에 따라 재정 기타 제반문제는 단위노조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이념적 노노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 제도권에서 비제도권에게 명분을 주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문제라도 현장중심적 조합활동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이다.

앞으로 정책적인 활동과 조직강화활동에도 모든 대회와 집회는 현장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이상 금속연맹이 단위사업장 선거공약이나 여타한 문제에서도 어용시비로써 조합원에게 현혹시키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천명한다.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선언>

우리는 지금 세계사적 대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타성에 안주하여 변화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주체성을 새로이 세워 변화의 주인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있다.

주요 공산권 몰락과 함께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전지구를 휩쓸고 있다.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국가이기주의가 날뛰고 있다. 경제 제1주의가 무서운 기세로 등장하고 있으며 진보와 민주와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를 압살하고 있다. 선진국 자본은 공정, 자유무역을 무기로 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블록화등 수직적, 수평적 분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초기의 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문민정부는 이제 경제 제1주의의 논리로 노동자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독점재벌은 날로 비대해져 이제 최고 권력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반면, 사회진보진영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조직을 저하와 분열강화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계속되는 후퇴를 멈추고, 변화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새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결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개혁과 운동노선정립으로 단결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의식과 조직문화를 고쳐나갈 것이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에 매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조직확대와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며 산별 체제구축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진보역량 구축을 위해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각계각층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주도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상호인정의 노사관계를 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불신의 근원인 노동탄압을 영구히 포기하라 !
-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을 진심으로 인정하라!
- 노동자의 정책참여와 경영참여를 보장하라!
- 사회정의를 무시한 경제성장 제1주의를 중단하라!
- 최저생계비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 해고, 구속, 수배노동자 문제를 대화합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라!

우리는 이러한 전제조건인 충족만이 노사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고 신뢰 넘치는 사회의 공존공영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럼에도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는 가증스런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측의 진실한 사고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국민속의 노동운동을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의 단결력과 우리의 노동을 통해 우리 권익과 국민의 권익을 도모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사악한 이익추구를 위해 우리 노동자를 국민으로부터 이간시키려는 어떤 시도와도 과감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합리적 노동운동의 전개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측의 합리적 요구 수용태세를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권 개악시도를 일체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 문제해결과 권위주의적 경영방식을 일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노동위원회 개혁을 요구하며 정부 및 사용자에 대해 정보의 공유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체적 입장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방적 고통전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사용자측에 촉구한다. 그 길만이 사회적 분열과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국가경쟁력 저해의 최대요인이 정부와 기업, 비생산적 불로소득 제도에 있으며 잘못된 노사관계와 비민주적 경영, 단순반복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중대한 경쟁력 저해요인임을 밝혀둔다. 노동자의 창의성과 헌신은 참여와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조건속에서 샘솟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개혁과 모든 국민의 합의된 노력속에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성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히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경쟁력의 단순 거부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력 저해요인 규명에 참여, 그 시정에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창의력과 정성과 기능을 경쟁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상은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기본적 요구이다. 우리는 이들 요구를 관철키 위해 단결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중단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노력이 무시되고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임금억제와 일방적 고통전담, 그리고 노무비삭감을 위한 고용불안정책이 계속된다면 단결된 투쟁과 국민에의 호소로써 강력히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대회

<집행부 강평>

정말로 진지한 토론을 들었습니다.지지도 해주시고 채택질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상 기회를 못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돌아가셔서 연맹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9월말까지 의견들을 취합하여 저희 운동기조와 운동방향을 다시 정리하여 책자로 만든 후 여러분께 발송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선언 한번 한 것으로 끝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기조와 운동방향을 구체화 시키고 일을 만들어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계년도에 가능한 사업도 있고 내년 회계년도로 넘겨서 처리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실천을 해본 후 내년 대의원대회에서 일차적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평가 결과에 따라 고칠 것은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회가 끝나면 일단 조합원에게 홍보키 위한 특보를 제작해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나 연맹 임직원들이 여러분 사업장을 방문할 때나 지역 간담회를 가질 때 직접 설명을 하고 호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또 연맹 교육시도 설명을 드리고 언론을 통해서 전달할 길이 있다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에도 알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종 회의때 여러분의 간부들께 이를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견이 나온 것이 있다면 연맹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이나 합리적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우리가 단결력을 풀어버린 채 무장해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결력을 더욱 강화시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고 진정으로 노사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쉬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도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공개적 토론회같은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정부 정책건의 문제도 있으므로 노총과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또 규약이나 단체협약 모범안등 지침이 필요하면 그것을 만들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령노조부분은 지역본부 및 노

동부와 협의하여 일소운동을 벌이고 안되면 직접 해당기업으로 가서 간판을 철거하겠습니다.

산별체제 부분은 일차적으로 우선 산별체제가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건설되어야 하는지등 정책연구자료를 만들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업종분과 위원회 활성화 문제는 우선 금년도에 해당 업종과 상의하여 자동차부품분과를 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여타 분과도 해당업종들의 요청이 있으면 조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식개혁문제가 중요 문제로 대두하였습시다만 노조의 비상근 간부와 상근간부로 구성되는 의식개혁홍보 소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 의식개혁 특보 씨리즈를 만들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문제는 지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주제에 대해서도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연말에 회의를 열어 금년도 임금교섭에 대해 평가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금속노련은 매2년마다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을 조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여 왔습시다만 금년도에도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발간할 계획입니다. 곧 조사서가 나가게 됩니다만 여러분께서 적극 호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문제는 지금 여러가지 활동계획을 수립해두고 있습니다.세미나를 2회 개최하고 교육을 1회 실시할 것이며 심포지움과 실태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간활동가 육성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활동의 주 역점을 두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산업안전 소식지도 만들계획이며 조합원 교육용 전단 모음집도 만들어 배부할 계획이고 산업안전 관련 시청각 교재도 전반적으로 구입해들 계획입니다.

전산화 문제는 지금 연맹 자료실부터 입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실무서식등 노조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쯤 해서 간소한 전산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산망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인력을 확보하여 많은 자료를 입력시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아직 이 단계에까지는 갈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문제는 지금 대폭 절감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월부터 400원으로 인상토록 금년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매월 그때그때 차질 없이 납부해주신다면 연맹으로서는 커다란 힘이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정말 장시간 노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맹은 새로운 각오로 노력을 해볼 계획입

니다. 물론 한계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의 선언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실천하고 평가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인상)

<웅변1>

우리의 의식부터 변화시키자

존경하는 박인상 위원장님 그리고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동지여러분 !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의 의식부터 변화시키자”고 외치는 것은 나 자신의 의식부터 변화시켜 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산준령에서만 산다는 호랑이는 이제 동물원에만 있습니다. 호랑이가 자취를 감추니까 이제는 미련하고 고집스런 곰들, 간사스러운 여우때들 이기주의가 몸에 배인 너구리, 오만불손한 이리, 엉큼한 늑대 승랑이등 별별 짐승들이 판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이를 제대로 다스리는 자가 없게 되니까 저마다 욕심껏 설치고 있으며 새로운 풍습을 만들어 낼 정도로 기승을 부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우리 사회와 노동운동의 현실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동지들께 몇가지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사회를 정보화시대라고 말합니다. 노동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자본과 정부의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에 뒤늦어 버리면 대응책 마련에 실패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때문에 그동안 항상 반대투쟁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노조에서는 단위노조 차원에서나마 회사측의 경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배분을 요구하기도 하고 발표되지 않은 공장이전 또는 감원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등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기획원, 상공부 또는 노동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노동자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가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노동운동의 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작업에 대한 조합비의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할 시점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노조간부는 용서받을수 있어도 사전 정보수집을 게을리 하고 이에 대한 조합비 투자를 외면한 노조간부는 용서받을수 없다”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합니다

이제 노조의 투쟁력은 “쪽”수의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는것이 아니라 풍부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설득력있는 정책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가름날것이라는 의식의 변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모든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조합원은 아직 멀었어”, “상급단체가 하는게 뭐있어”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이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을 깎아 내리는 말들을 주저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그 첫번째로는 자신과 조합간부나 조합원들을 믿지 못하는데서 나오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 두번째로는 “부정적인 사고”의 영향입니다.

조합원 대중과 부단히 실천하고 그 결과를 냉정히 평가해 새로운 실천을 해나가 기보다는 한번 실패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부정적 사고방식을 갖게되면 매사에 실천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천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게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완성된 행위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측면보다 잘된 면을 생각하게 되면 비판보다 낙관적 전망을 세울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조를 둘러싼 정세가 힘들거나 어려울때 이 불신과 부정적 사고방식, 비판론은 기승을 부립니다. 노조간부들은 밖의 적도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는 “안된다”는 독버섯에 주의를 기울이는 의식의 변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옳고 그름을 지적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간부가 자신들의 지도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조합원들의 생각에 매어 있다는 지적을 자주 들곤합니다. 인기 관리에만 관심이 있지 조합원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습성을 고치려 들지 않고 조합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자조섞인 푸념을 넘어 상황을 합리화 하는데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조합원이 낭떠러지로 가잔다고 낭떨어진줄 알면서 가는 간부는 누가봐도 훌륭한 간부라 할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변화만이 노동자가 하나가 될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감히 여러분앞에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넷째로 배우겠다는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간부가 되어 1년이되면 최소한 근로기준법, 노동법등 노동관계법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동운동의 재도약을 위해 지식을 쌓겠다는 강한 의식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다섯째로 노조간부는 각종 회의와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우리 지도급 간부들부터 참여의식을 성숙시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참여하여 주장하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식이 있어야만 노동운동이 힘차게 재도약을 할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 앞에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섯째로 노조간부는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복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결의된 사항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타적이거나 실천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반민주적,반노동자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총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응변2>

“단결만이 살길이다”

현대전자 노동조합 여성부장 박연희

존경하는 박인상위원장님!

그리고 금속노동자의 단결과 전진을 굳게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국의 노동조합 간부 여러분!

저는 그 동안 우리 노동자가 보여온 모습을 뒤돌아 보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여러 동지들에게 드리기 위하여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진정한 노동자의 모습과 우리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결의를 가슴 깊이 다지는 강고한 단결의 장이 되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동지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난 87년 7.8.9투쟁의 열기와 단결된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불과 7년 남짓한 세월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

서로의 불신과 자기만의 아집,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노동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노동가의 내용에도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노동자가 가진 고귀한 재산,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 노동자 모두의 단결입니다. 믿음과 단결, 그리고 동지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그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목과 불신이 가져오는 많은 피해를 우리는 보고 듣고 또 몸소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은 고치지 않고 남의 탓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실수고 남의 잘못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불신과 공격의 풍토가 알게 모르게 우리 노동자의 순결한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겁하고 불순한 오염은 악덕한 자본가들의 음모에서 비롯된 점도 있습니다. 또 많은 언론과 일부 반노동세력들은 지금도 노동자의 단결과 애정을 파괴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실천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단결한다면 어느 누구도 노동자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 서로에 대한 믿음 위에서 단결하고 연대한다면 노동자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를 움매고 있는 악법, 바로 옆의 동지도 지원할 수 없는 악독한 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게 단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처지와 서로 다른 업종, 서로 다른 지역의 벽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국의 조직이며 우리의 자주적 단결체인 금속연맹인 것입니다.

악법은 깨지라고 외치기만 하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법은 우리가 굳게 단결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깨지는 것입니다.

말뿐인 연대와 단결이 아닌 실천적이고 활동적일 때 비로소 우리 노동자는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며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여러분앞에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분열과 반목속에서 주저 앉느냐 아니면 단결과 연대로 전진하느냐의 기로 말입니다.

단위조합은 단위조합을 이해하고 지역은 지역을 사랑하고 업종은 업종을 격려하며 이 모두가 금속연맹속에서 굳게 단결하고 전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금속연맹으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순수한 단결의 마음, 연대의 정신으로 재출발합니다.

그래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세상을 건설하는데 모두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살길은 오직 '단결'뿐이라고 여기 서있는 이 연사 목이 터져라 강력히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 구 호 >

금속노련 총단결로 노동운동 꽃피우자
금속노련 깃발아래 뚫뚫뭉쳐 단결하자
노동운동 일신하여 세시대를 끌어가자
금속조직 강화하여 노동운동 선봉되자
노동자의 양어깨에 국가운명 걸려있다
평등사회 민주사회 노동자가 실현하자
신뢰받는 노동조합 국민에게 사랑받자
민주사회 주도하여 우리권리 쟁취하자
조직강화 연대강화 대접받는 노동운동
분열은 노조파괴 화합은 조직강화
노동자가 하나되어 우리권리 확보하자
통일행동, 연대강화 앞서는 금속노련
뭉치자 하나로 이룩하자 산업민주 !

재정자립 이룩하여 떳떳하게 활동하자
떳떳한 노동운동 함께하는 국민정서
이기주의 추방하여 조직강화 이뤄보자
의식개혁 하지않고 노동운동 발전있다
뭉치면 대접받고 흩어지면 노예된다
말로하는 운동보다 행동하는 노동운동
금속노련 앞장서서 산업민주 이룩하자
금속노련 하나되어 사회정의 실현하자
일방적인 고통전가 온몸으로 거부한다
힘찬전진 연대속에 노동운동 선봉되자
너와내가 하나될때 조직크고 나도큰다
한발앞선 조직강화 열보앞선 권리확보
노동탄압 분쇄하여 믿음사회 건설하자

2. 고위간부정책세미나

- (1) 일시 : 1994. 9.1 - 9.2
- (2)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3) 참석인원 : 임원, 지역본부의장,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부서부장등
100명
- (4) 목적 : 9.13대회 토론을 위한 예비토의(운동방향 및 조직강화
방안)
- (5) 일정

94.9.1(목)

11:00 - 12:00	참석자 등록
12:00 - 13:00	중식
13:00 - 13:50	개회식
13:50 - 14:00	휴식
14:00 - 15:20	현정세와 바람직한 노조운동의 방향 (장명국 내일신문 주주운영위원장)
15:20 - 15:30	휴식
15:30 - 16:30	국제화시대에 있어서의 노조운동의 방향 (박세일 서울법대 교수)
16:30 - 16:40	휴식
16:40 - 18:00	운동기조 및 조직강화방안에 관한 연맹 초안 발표(집행부)
18:00 - 19:00	석식
19:00 - 19:30	분임토의 안내
19:30 - 23:00	분임토의

94.9.2(금)

08:00 - 09:00	조식
09:00 - 10:00	분임토의(계속)
10:00 - 13:00	종합토의
13:00 - 14:00	중식 및 귀가

(5) 토론주제

분 입 명	분임토의 주제
제 1 분임	1. 국민적.합리적 운동의 기초에 대해
제 2 분임	2.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영참여에 대한 입장
제 3 분임	1. 향후 임금교섭에 대한 방침
제 4 분임	2. 노동법 개정에 대한 방침
제 5 분임	1. 조직확대.강화방안
제 6 분임	2. 교육,홍보 개선방안
제 7 분임	1. 재정 확충 및 자립방안
제 8 분임	2. 노조간부 의식강화 방안

<집행부 분석 발표>

1. 조직 확대.강화 방안

1) 현황

(1)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음(20%-16%) → 노동세력 약화

이유 : ① 산업구조 조정과 소프트화, 정보화

② 노동운동 역량의 한계와 기업별 노동조합

③ 부당노동행위 급증

(2)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직간 분열, 독자화, 이탈,휴면, 유령화 되어감

이유 : ① 노총의 정통성 부인(대한노총, 유신지지, 4.13 호헌선언등)

② 기업별 노조의 조직이기주의와 연노련 판결의 영향으로

무소속 노조 양산(상급단체 소속 강제의 위법 판결)

③ 4.1, 3.30 합의이후 제 2, 제 3 노총건설 조속화

④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유령, 휴면노조 급증

(3) 이런 상황속에서 노동법 개정 및 정부 정책 전개방향은 차별화와 유연화를 내

용으로 하는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체계적 대응을 어렵게 할 으로 보임.

이유 : ① 노동법 개악(변형근로, 파트타임, 생리휴가, 년월차 개악등)

② 노사관계에의 시민법적 대응강화(손배청구, 무노동무임금
강요)

③ 신경제 정책의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2) 조직강화의 문제점

(1) 본노련 탈퇴조직에 대한 대응 미비

(2) 제 2노총 건설추진에 있어 본노련 조직이 타케트화

(3) 복수노조와 법개정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노동조직의 이원화 내지는 무
소속노조의 양산

(4) 2차에 걸친 노.경총합의로 조직내부의 갈등증폭

- 제도권 조직의 탈퇴 원인

- 노총탈퇴 공약후보자의 당선증가

- 재야노동세력의 규합계기

(5) 기업별체제의 극명한 한계와 조직내 이기주의 팽배

(6) 각급조직간 유기적 관계 부족하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함.

(7) 취약한 재정, 소수 인력으로 광활한 지역, 방대한 조직관리가 어려운 실정

가. 기존조직관리

① 문제점

- 본노련에서 단위조합의 개별적 관리가 어렵다.

- 노동계 주변 여건이 이탈조직 양산

- 임.단협시 외압에 의한 조직 갈등 발생

- 지도부 교체시 완전 물갈이로 활동(관리)의 연속성 상실

② 개선방안

- 중앙노사합의중 정책. 제도개선 부분의 확실한 이행, 실천으로 제
도내 조직의 위상정립

- 지역본부의 역할.기능 강화

- 지역별 조직강화특위 구성

○ 노사분규. 쟁의발생.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공동방문, 항의

- 조직강화의 달 설정
- 교육활동강화
- 각종 자료발간 및 정보의 제공
- 현장중심의 활동보강(조합원 위주의 새로운 상품개발 - 연구과제)

나. 미참여 노조에 대한 대책

① 문제점

- 미참여 노조에 대해 강제할 방법이 없다.
- 권리제한, 제명이 압력수단이 될수 없다.
- 제도권 조직에 대한 불신이 미참여의 원인이다.
- 집행부와 완전 경질로 대화 채널이 없어진다.

② 개선방향

- 이탈조직에 대한 참여기회 부여
 - 의무금 관련 경감 조치기간 설정
- 대의원수의 확보, 규약상 탈퇴 방지 노력
- 조직 단일화를 위한 지역별 세미나(정책토론회) 개최
 - 본노련 운동이념, 활동사항 홍보
 - 조직통합의 필요성 홍보
- 지역별 전략사업장 선정, 집중적인 설득 작업

다. 휴면 및 유명노조 대책

① 문제점

- 휴면, 유명노조의 파악곤란
- 조합운영이 어려운 영세 노조가 대부분

② 개선방안

- 연맹에서 파악된 휴면(유명)노조에 대해 각 지역본부가 당해지역 행정관청을 통해 재조사후 해산조치 요청 또는 내부 조직선을 연결하여 노조 활성화(동문,향우회 등 사내씨클 등 비공식 조직 활용)

권리제한 노조, 제도외 노조, 휴면노조 현황

지 역	권리제한 노 조 수	제도외 참여 노 조 수	휴 먼 노조수
서 울	50	15	6
경 기	101	13	36
인 천	16	13	36
충 남	7	2	9
충 북	6	1	5
경 남	39	11	13
부 산	9	1	36
울 산	14	6	5
대구 · 경북	10	3	30
구 미	4	4	3
광주 · 전남	9	6	9
포 향	3	3	2
계	268	78	190

2. 교육활동 개선방안

1) 현황

가. 93년도 교육 실시현황

교 육 명	실 시 시 기	교 육 장 소	대상인원	참석인원
신임대표자(1차)	93.10.12-10.14	노총교육원	60	30
신임대표자(2차)	93.10.19-10.21	"	60	36
신임사무국장(1차)	93.11.2 -11. 4	유성 경하장	60	50
신임사무국장(2차)	93.11.30-12.2	"	60	40
여성 간부	93.10.26-10.28	송실대 봉사관	60	59
홍보선전	93.12 7-12.10	노총 교육원	60	74
노동문화	93.11.23-11.25	유성 경하장	60	73
신노동정책대응세미나	93.11.9 -11.11	노총 교육원	100	140
상집간부실무교육	93.12.14-12.16	"	100	166

나. 94년도 교육실시계획 -93년과 대동소이함

2) 문제점

(1) 일반간부 교육은 교육참여율이 괜찮은 편이나 임원급(대표자,사무국장) 교육의 참여율이 저조.

가) 동원방법

- 각지역본부에 교육실시 문서 발송하여 인원배정 및 동원독려.
- 금속노련통신,노보등에 교육참가안내 게재.
- 연맹교육부에서 유선독려.

나) 세부 문제점

-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불안정,교육참여의식 부재.
- 교육 시행시기 중복(10월-11월)-행정관청,단위노조 행사
- 대사업장 대표자 불참, 소사업장 대표자만 참석
- 신임대표자 파악자료 부재
- 신임대표자 및 지부장에만 한정참석
- 교육장 선정관계도 영향

(2) 교육 프로그램 문제

- 일방적 강의식
- 교육 시간이 길다(07시기상-21시까지)
- 중복된 내용

(3) 교육 재정 문제

- 교육비 활용/중단
- 교육비 거출(1일교육5000원,1박2일10,000원,2박3일15,000원)

(4) 사후관리 문제

- 교육이수후 의식변화,활용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됨

3) 개선 방안

(1) 교육 참여율

- 교육시행시기의 변경,적정 배분 (곤란)
- 신임대표자 현황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본부 통보 및 해당사업장 문서통보후 독려
- 대표자 교육을 부위원장까지 확대

- 교육장을 획기적으로 좋은곳 선정(예산문제)
- 연맹 비상근 임원 중앙위원 협력
- (2) 교육 프로그램
 - 저명한 강사 동원
 - 강의식 교육방법 지양, 토의식 방법으로
 - 교육시간 단축 -19시까지
- (3) 교 육 재 정
 - 교육비 거출 인상
- (4) 사 후 관 리
 - 의식 변화. 활용도에 대한 측정 (설문지)
 - 인원 충원 (교육차장)

3. 홍보활동 개선방안

1)홍보활동 현황

가. 기관지 발행

- 타블로이드 4면, 5,000부 월 3회 발행
- 내용 : 연맹활동, 지역본부 소식, 단위조합 행사, 기타 기획기사

나. 금속노련통신 발행

- 8절지 22면, 1,000부 월 3회 발행
- 내용 : 속보, 노동, 경제관련 신문 스크랩

다.기타 속보(보도자료) 및 특보

라.지역본부 기관지 발행

- 현재 대구, 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에서 부정기적으로 발행

2) 문제점

- 1)기관지 발행시 단위조합 및 지역본부 소식 연맹으로 취합이 미흡하여 내용이 빈약함
- 2)가맹노조 노보발행실태 미흡으로 노보발행지원 미흡

- 3) 지역본부의 홍보담당책임자 부재로 지역의 홍보활동 미흡
- 4) 홍보체계(전국, 지역)부재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교류 및 홍보 활동 미흡
- 5) 단위노조 미참여로 소속감 및 참여의식 결여 -> 관심저하

3) 해결방안

- 1) 지역본부의 홍보요원 확보로 연맹과 지역본부간 정보교류 및 홍보의 신속화
->단기적으로 상근 여직원의 홍보교육 후 홍보요원화
- 2) 지역본부 기관지 발행
- 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정보 및 홍보의 신속한 교류
->지역본부의 컴퓨터 구비(전산화에도 필요)
- 4) 노보발행실태조사를 통한 노보 미발행노조 지원
- 5) 지역단위로의 홍보선전교육 강화 및 활성화(지역본부 주관, 연맹 지원)
->연맹의 홍보선전교육의 시간 및 인원제한 극복
- 6) 지역의 고정적인 통신원 확보(지역본부 주관, 연맹지원)
- 7) 단위노조 활동 적극 홍보를 위한 지역본부의 소식전파기능 강화
->단위노조의 참여와 관심 제고
- 8) 단위노조의 의견 지역본부 및 연맹으로의 전파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예) 지역본부 및 연맹에 비공식(공식)의견란 비치

4. 재정확충 및 자립방안

1) 조합비 징수현황

- (1) 단위노조 : 노동조합법 24 조 근거에 따라 단위노조 규약에 명시하여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
- 조합비 징수율별 노조분포수

기본급(통상임금)의 1 % 미만 징수조합 4.5 % (29)
 " 1 - 1.5% 징수조합 81.0 % (533)
 " 1.6 % 이상 징수조합 14.5 % (96)

※ 1 인 평균 조합비 납부금액 ; 6,944 원(기본급 534,168 원기준)

(2) 본노련 : 1인당 정액 300원 (94. 10. 1 부터 400 원)
 월간 납부액 40,500,000(평균) 700 개 노조 135,000 명

2) 조합비 지출현황

조합비 지출내역 (본노련 94 년도 예산서 기준)

- 매 비	233,040,000 원	24.2 %
- 적립금	3,000,000 원	0.3 %
- 운영비	343,100,000 원	37.3 %
- 사업비	153,200,000 원	16.7 % (30%이상 유지되어야 함)
- 기 타	197,002,561 원	21.5 % (차입,미지급, 예비비)

919,342,561 원 100.0

※ IMF에서 연간 \$80,000 - 100,000 지원되고 있으나 매년 10%씩 감액되어가고 있음.

<지출사례>

- 공문 1 부 발송시 우편료 160,000 원
- 금속통신 1 부제작 발송료 740,000 원(제작비 500,000 + 우편 240,000)
- 교육 1 회 실시 : 4,000,000 원 (70 명 기준)
- 단협자료 제작비 : 4,000,000 - 7,000,000 원

2) 대책

(1)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법

- 참여조직을 증가시키는 방법
- 땀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
- 징수방식을 정액방식에서 정율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 별도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방안(보험, 인쇄등)
 - * 실제징수인원으로 납부되는 관행확립

(2) 지출을 줄이는 방법

- 활동을 축소하는 방법
- 비용의 최대한 절감
-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방법
 - 0 각종 자료 유가보급(단체교섭자료집, 주. 월간 간행물등)
 - 0 행사개최비용 분담등

<토론 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합리적 노동운동 기조에 대해

방향제시가 없는 현 노동운동에서 볼 때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 있고 노동운동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단 이러한 운동기조가 조합원이 함께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과 세금등 국민의 이해관심사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서 관철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기업내에 있어서는 생산과 품질은 노동자가 책임지고 최고의 임금과 복지는 기업이 책임지는 풍토도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제경쟁력에 대해

연맹 집행부안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단지 임금억제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계해야 하며 노동자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경영참여에 대해

연맹 집행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경영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산별 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노조측이 경영파악능력이 없는 경우

오히려 이용만 당하는 결과가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경영참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각 경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임금중양합의에 대해

93년도 4.1합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94년도 중양합의에 대해서도 맹목적인 불신이 있었고 비제도권으로의 조직이탈에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고 사실상 중양합의보다는 임금들이 더 높게 타결되어 실효성도 없었다. 93년도에는 금속노련이 독자안을 제시하여 그래도 호응이 좋았다. 따라서 임금중양합의는 반대한다는 주장이 한 분임에서 나왔고 반대로 94년도 중양합의중 제도개선부분이 실현되었을 경우 95년도 중양합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밑으로부터의 토론을 거쳐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른 분임에서 나왔다.

노동법개정에 대해

노동법개약은 연맹을 중심으로 저지하여야 하며 복수노조를 이유로 한 타 노동법개약은 절대로 반대하여야 한다.

조직확대.강화에 대해

먼저 산별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산별체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법개정 난항과 단위조합 이해부족, 그리고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산별전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총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국회청원등의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기구명칭 및 직위명 단일화 등 산별체제의 기초작업을 하며, 산별체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단위조합원들에게 적극 교육을 전개하고, 제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개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지역본부의 활성화이다. 이는 지역본부의 참여의식 결여로 현재 지역본부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규약개정 삽입 및 의무금 통합 부과 등 현재 단위조합에서 느끼고 있는 지역본부로의 참여에 어려움을 극복하여 적극적으로 지역본부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본부 참여를 의무화 함으로써 지역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분과위원회의 활성화이다. 현재 연맹은 6개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전자, 조선분과는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미진하고 다른 분과는 분과위원회가 결

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지역적 여건 및 대,소조직의 차이점이 있는 상태에서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운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으며, 분담금의 부담감이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먼저 분과별 사업장의 분류와 조직화, 구체적 활동방침의 수립, 분과별 담당자 선임, 각종 정보교류 및 자료발간, 임.단협 공동교섭 준비, 활동비에서의 일부를 연맹사업비에서 충당 해야 한다는 것등이었다.

재정확충.자립에 대해

연맹의 재정확충 및 자립은 먼저 상급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조직 및 중간노선 회원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의무금을 산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감각을 잘 이해하는 상급단체로 탈바꿈하면 재정자립은 자연히 보장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노조간부의 의식강화에 대해

노조간부의 의식강화의 문제점은 집행부 구성후 승복하고 단결력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으며,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와 우리라는 개념보다 너와 나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며, 조합행사 참여가 부족하며 관심이 없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세대간의 의식차이로 갈등이 있는 것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집행부가 많은 대화를 갖고 지역감정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세대차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만들며, 올바른 민주의식을 숙선하여 보여주고, 모든 불신사항들을 교육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그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집행부 강평>

금번 우리 운동기조의 선언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내년 대의원대회무렵에 일차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운동기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9.13 전국대회에서 일단 토의가 되고 나면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홍보하여 공감대 폭을 확대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에 대해 협조적이지 아니나

는 오해가 있을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오해는 풀릴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노사관계 정상화이다.

경영참여는 신뢰가 구축되어 가는 가운데 가능하다.

복수노조문제에 대해서는 분임에 따라 의견차이가 있지만 전면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노총만 허용할 것이냐의 2개안이 나왔다. 그러나 ILO협약의 정신은 사업장이든 전국이든 다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에 관하여는 노총과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우리 독자적으로 안을 낼 수는 없다. 다만 우리 금속노련 고위간부들의 견해는 이렇다는 것을 전달토록 하겠다.

임금중앙교섭의 문제는 금년말 제도개선이행여부를 보고 결의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다.

우리도 우리의 홍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개선키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러 동지들이 제기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로 계속 논의가 되었으며 연맹에서도 해결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각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대회를 통해 새로운 운동방향과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정립될 것이다.

이러한 연맹의 노력은 여러 동지들과 단위노조가 함께할 때만이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금속노동자의 새로운 모습과 노동운동의 힘찬 전진이 보장될 것이다.

아무쪼록 여러 동지들과 연맹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동지들과 연맹이 제시한 해결 방법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다시 태어나는 금속노련을 만들자.

여러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한다.

3. 노총 '95정기대회에의 의안 제출(95.1.25)

의 안 명	의 안 내 용	제 출 이 유
의안제도 개선	사업계획 수립이전 의안을 취합하여 그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한다. 의안처리결과를 차기 정기대회에 보고	현행 의안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전국대표자대회 결의사항 시행	전국대표자대회결의사항 제도화 및 실천으로써 회원조합에 용기를 주고 노동계통합의 전기를 마련	전국대표자대회 결의사항 시행이 철저하지 못할시 불신이 증폭될 가능성이 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제시	21세기를 대비할 새로운 노사관계상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기업측의 일방적 추진을 막고 국민 및 1200만 노동자에게 노조운동의 위상을 정립시키는 계기로 만들	새로운 노사관계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것임
신경영 전략에 대한 대응방향 연구	임금,인사,고용등 기업의 신경영전략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 필요	기업의 신경영전략에 대응하지 못하면 노조약화
선거에의 대응	법개정 요구와 함께 현행 법체제내에서의 활동 방침개발 필요 선거에의 대응지침마련,정치교육,포스터 제작, 노조정치신문발간	노조의대정부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정치참여가 요구됨

총 무 활 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1. 회의활동

- 1) 199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2) 중앙위원회 개최
- 3)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4) 기타회의

2. 기타활동

- 1) 노충장학금 배정지급
- 2)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

평가 및 개선방향

총무활동은 자산관리,맹비의 징수 및 사업비 지출관리 각종회의의 준비 및 개최 그리고 각 부서의 지원활동으로 진행되어 왔다
년간 활동 중 대부분이 조합비의 징수업무이다.

조합비는 모든 조합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이며 조합에 가입하고있는 조합원이 소정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모가 큰 조합은 큰 조합대로 지출해야할 사유가 많아지고 규모가 적은 조합은 조합비의 징수금액 자체가 적으므로 조직의 대소에 관계 없이 재정 운영에 크게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은것이 현실의 문제다.

일상에서 우리들은 조합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매우 강조해왔다 노련의 활동 또한 조합비의 원활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조합원이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의 활동을 할수 없게 된다.

총무국에서는 94년 5월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승인된 각 부서 사업계획의 집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다. 노련에 가맹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성실하게 적기에 맹비를 납부하므로써 미흡하나마 여건내에서 최대한의 활동이 가능했던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일부의 노동조합은 맹비의 납부가 규약에 명시된 의무사항임에도 성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조합이 있었으며 맹비를 장기적으로 체납하거나 납부 자체가 중지되어 노련에 대하여 가맹노조가 갖게되는 모든권리를 제한 조치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또한 조합비를 징수 의원수 만큼 상급단체에 납부해야하는 조직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음으로, 년중 개최되는 각종회의를 통하여 노련의 중요정책과 활동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 회의 구성원이 개인적이거나 소속 사업장의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원만하고 효과적인 회의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노동운동의 주변 환경이 정리되지 못하여 막연한 변화를 기대하며 스스로의 운동기조를 잃어버리고 분위기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조합이 있는것으로 보면, 보다 확실하고 현실적인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여러 의사결정 기구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지난 한해에도 노련을 아끼고 노련의 규약과 제규정 그리고 결의내용을 존중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에 의해 노련이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온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사항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노련의 규약, 규정, 그리고 결의사항은 준수하여야 하겠다.

둘째, 맴비의 납부는 징수 조합원수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되어야 하겠다.

셋째, 어느곳에도 맴비를 납부하지 않는 무임승차 노조를 노동운동의 동지로 인정되어서는 안되겠다.

넷째, 노동운동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회의기구 구성원은 빠짐없이 참여하여 조합원의 생각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1. 회 의 활 동

1). 94 년 도 정 기 대 의 원 대 회 개 최

가. 일 시 : 1994 년 5 월 17 일 (화) 10 시

나. 장 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다. 참 석 자 : 재적 376 명 중 294 명 참석

라. 결 의 사 항

의 안	결 의 사 항
1. 93 년 도 사 업 보 고	원안통과
2. 93 년 도 결 산 보 고	원안통과
3. 임 원, 중 앙 위 원 노총파견대의원선출	위원장 선거결과 투표자 294 명, 찬성 271 명, 반대 무효 23 표로 위원장 박인상 당선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중앙위원, 노총파견대의원 선출 및 중앙집행위원 임명안에 대한 투표결과, 투표자 233명, 찬성 203표, 반대무효 30표로 아래와같이 선출 부위원장 김성문, 정창영, 최응길, 유재섭, 정학균, 안영환, 김영철, 박천석, 전재환, 박영호, 김동교, 제선수, 오봉출, 하영일, 박한주, 김경조, 김운주, 박영구, 정기춘, 백중부. 사무처장 정창영 회계감사 김두형, 김홍수, 박순자, 김종국, 최창기, 박한섭, 임문택

의 안	결 의 사 항
	중앙위원 박상범, 박승리, 정한식, 이해석, 이병균, 전기홍, 정용호, 신성균, 이대영, 서민애, 권용식, 김광현, 강익화, 성일모, 이두세, 도정복, 김수룡, 장정환, 경홍식, 장세익, 신철, 윤선옥, 임홍순, 성용주, 박종서, 이종찬, 오광수, 노원숙, 송성수, 이쌍봉, 조재천, 유병류, 윤무영, 엄종국, 최진하, 이병욱, 이종교, 최광길, 장태훈, 신문균, 박광실, 이은물, 이영식, 오동필, 박남수, 박재혁, 한상환, 이준만, 전병순, 이병철, 박재형, 권성하, 조동철, 정병석, 손용환, 강외룡, 김동철, 김환수, 박복렬, 정홍식, 임창수, 이원택, 이석오, 권종열, 김무호, 윤태길, 박갑철, 황대선, 서복호, 김병규, 안천호, 강진호, 조덕래, 김종갑, 전형태, 한경남, 김복천, 기한도, 양용진, 원종도, 강희준, 권선국, 송만현, 장문식, 강학중, 정용근, 예정오, 최석호, 김용표, 강승흡, 장석웅 노총파견대의원 <u>본 부</u> 박인상, 김장선, 김성문, 정창영, 최웅길, 박병윤, 박영호, 염성태. <u>서울지역</u> 유재섭, 강영섭, 김영준, 권종안, 이정식, 장석춘, 이해석, 이병균, 황창배, 강익화, 안영환, 박한섭, 김해주, 박순자, 전기홍, 문광주, 신성균, 이대영, 서민애. <u>경기지역</u> 도정복, 김종국, 경홍식, 김윤주, 장세익, 권석정, 김영철, 하영일, 김길동, 안봉규, 박천석, 이종찬, 장진수, 이종진, 유병류, 윤무영, 정영숙, 김순호, 이쌍봉, 엄종국, 최진하, 이병욱

의 안	결 의 사 항
	<u>인천지역</u> 이종교, 이은물, 전재환, 허장도, 전병순, 이영식, 오동필, 박용민, 장태훈, 김동교, 박한주, 박재혁, 한상환, 이준만, 김홍룡, 한창석. <u>충남지역</u> 정병석, 김두형. <u>충북지역</u> 김홍수, 조동철, 박재형. <u>대구,경북지역</u> 김경조, 장지태, 박용민, 김무호, 윤태길, 심경수, 정광진 <u>경남지역</u> 제선수, 김종국, 신용석, 김남수, 김동철, 김환수, 박복렬, 이원택, 최해경, 이석오. <u>부산지역</u> 박갑철, 윤정일, 박병용, 서복호, 김규호, 강진호, 강영일, 김종갑, 오봉출, 정학균. <u>울산지역</u> 기한도, 노헌돈, 박영구, 김용겸, 김복천, 오진현. <u>포항지역</u> 백종부, 장문식, 정해용, 강학중.

의안	결의사항
	<u>구미지역</u> 김재찬, 최창기, 권선국, 박병도.
	<u>전남.북</u> 정기춘, 임문택.
	<u>강원지역</u> 장석웅.
4. 1994 년도 사업 계획수립	원안통과
5. 1994 년도 예산수립	94 년도 10월 1 일부터 100원 (300원→400원)을 인상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통과
6. 결의문 채택	원안채택 결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4 년 정기대의원대회

대 회 선 언 문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의원 일동은 전국금속노동자의 결의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참 자유, 민주, 평화의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속노련의 1994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오늘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우리는 변화의 거센물결이 우리에게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음을 보고 있다. 지난 87 년 우리 일천만 대군의 노동자는 민주화와 인간화의 대의를 높이 쳐들고 노도와 같은 전진을 주도했지만 이제 우리는 소위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도전에의 신속한 대응이다. 낡은 습관과 양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몸부림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자본측이고 노동자는 또다시 고통전담의 도구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와 자본은 변형근로제와 근로자파견제등 노동법 개악과 노조전임자 삭감등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고용불안이 우리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조직 내적으로 치열한 조직경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위기에 있고 순수한 노동운동이 조직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 운동으로 전략할 가능성도 있으며 상호발전보다는 반목에 골이 깊어질 우려까지도 배제할수 없다. 특히 노동자간의 이러한 분열은 정부와 자본측에 의해 악용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노동조합운동이 고립될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언제나 노동조합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엄중한 주객관적 정세에 직면하여 우리의 자세와 입장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도자로 우뚝 서기 위해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져나갈 것이다. 개혁과 진보, 생산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겸허한 자기 반성과 변화 그리고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인 단결의 정신을 밑바탕으로 하여 오늘의 난국을 주도적으로 돌파해 나갈것임을 20만 조합원과 일천만 노동형제 앞에 엄숙히 선언하다.

1994 년 5 월 17 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4 년 정기대의원대회

대 회 사

친애하는 선배동지와 한국노총 박종근 위원장 및 산별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금속노련 대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 !

본인은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의원대회를 축하해 주시고 우리 금속노련의 발전을 기원키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1,800 만 국제금속노련과 260 만 일본금속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오늘 대회를 축하하고 국제적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고지마 동지와 하토리동지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록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치 못했습니다만 우리의 많은 동지들이 지금 일선에서 지금 이 순간도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들 동지들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자리는 지난 1 년을 평가·반성하고 새로운 의지를 다시 결집하여 새로운 1년을 출발하고자 하는 본노련 최고 권위와 결정의 자리입니다만 오늘 대의원대회야말로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자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그간 가맹노조 대회와 행사를 격려하는 자리나 지역순회 간담회 석상에서나 우리 노동조합운동이 처한 주객관적인 정세에 대해 누차 언급을 해왔고 또 오늘의 정세가 그 누구에게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상세히 재론코자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제화, 개방화는 이데올로기일뿐만 아니라 현실 자체이며 노동조합운동의 발전 문제도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 우리가 어떻게 기민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노동운동진영은 부족한 경험과 지도력 미정착으로 인해 변화의 거센물결에 떠밀려가거나 낙오하고 있는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우리 모두가 똘똘 뭉치더라도 역부족임에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현실타개에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도 상호가 자기 조직꾸리기에 정열을 집중시키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자본측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걸고서 노동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형근로제나 근로자 파견제, 생산성을 이유로 한 감원의 허용등 문제는 일단 그것이 도입되면 노동자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게 될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본질적 문제에 총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저는 본인을 비롯해 우리 스스로도 반성할것은 반성하고 고칠것은 고쳐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술선수범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간의 반목을 씻어내고 하나로 합류할 수 있는것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돌파해나가느냐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몇가지 사업추진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먼저 현장주의 운동노선을 제창코자 합니다. 우리 연맹은 그간 본부든 지역본부든 현장을 열심히 뛰었다고 뉘것이 사실입니다만 단위 노조에서 뛰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연맹이나 지역본부 인력 사정으로 볼때 한계가 많은 것이 절대적 현실입니다만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노동현장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동지들이 일하고 땀흘리는 현장과 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현장을 다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장과의 접촉폭을 더욱 넓히고 정책수립에 있어 현장간부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등 방식을 제도화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연맹이나 지역본부의 일은 연맹이나 지역본부가 알아서 할일이라고 방치하기에 앞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실질적 민주주의 운동노선을 부르짖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은 노동조합운동의 절대적 원칙입니다만 이들문제는 우리노동운동사에 있어서 특히 지난 87년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지대한 역할도 한바 있습니다. 그 누구도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성을 맹목적으로 주장한다거나 파벌 이익이나 개인주의를 위해 민주성을 악용한다거나 한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단호히 배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주장만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민주주의나 분열만 초래하는 그런 민주주의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것입니다. 잘못된 민주주의로 인해 진정한 민주주의까지 먹칠되는 불행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어디까지나 좋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며 비록 뜻이 다르더라도 남의 주장을 존중하여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는 과정입니다. 민주주의란 결코 자유와 방종이 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규율을 지키고 다수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며 비록 뜻이 다르더라도 남의 주장을 존중하여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는 과정입니다. 민주주의란 결코 자유와 방종이 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규율을 지키고 다수의견을 따를줄 아는 정신이 없는 한 민주주의는 항시 벼랑의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급 조직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세째는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개발, 실험하고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그간 세계는 엄청난 변모를 겪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것이 모든 나라의 현실이며 특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계입니다. 노동조합은 조직원리상 수평적 대중조직으로 수직적 조직에 비해 기동성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연맹을 구성하는 각 조직의 처지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현장주의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례를 개발하고 실질적 소위원회 구성등을 통해 현장과 접촉될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고용문제, 법개정문제, 새로운 교섭전략과 각 업종의 문제, 그리고 각종 일상활동 전략등에 있어 착실한 축적을 이루어 나가야 할것이며 인기위주의 순간적 정책이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책임까지 수반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또한 모든 정책과 전략수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야말로 그 어떤 파업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째는 조직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일입니다. 우리 금속노련은 그간 비록 금속노련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과의 접촉유지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조간부의 개인적인 판단과 관계없이 보다 주변의 조직적 의지가 끊임없이 작용하여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혔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속노련은 금속노동자 모두가 하나로 갈수 있도록 계속적 노력을 경주할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내적 정통성과 결속력을 확립해 나가는 일일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모를 적극적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 나름대로의 운동방향을 정립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계획하기는 쉽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만 이제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묶어 열심히 뛰는 것이야말로 금속노련의 기피를 조합원 가슴속에 심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것입니다. 우리 금속노련은 재정이나 인력에 있어 한계가 큰것이 사실입니다만 대폭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대응해 나갈것입니다. 여러분의 애정있는 참여야말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커다란 힘이 될것이며 의욕과 헌신성을 북돋게 될것입니다.

우리 연맹은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땀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오늘 대의원 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여 우리 금속노련의 새출발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 년 5 월 17 일

결 의 문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물결과 함께 경쟁력 제1주의가 전제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력 강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정한 개혁은 회피한 채, 마치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억제가 경쟁력 강화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노동자의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어떤 경쟁력 강화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쟁력 강화는 불로소득과 독점횡포의 철폐와 권위주의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의 개혁에 있으며 소유와 경영의 확실한 분리, 그리고 광범한 경영참여와 생활임금의 보장, 노동자의 신뢰와 근로의욕의 실질적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 그러나 어떤 개혁도 노동조합등 사회진보세력의 단결구축과 간단없는 요구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제 이익단체의 좁은 틀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개혁의 요구에 앞장서야 하며 소수가 주도하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을 빌미로 한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무조건적 배척의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대안있는 적극적 대응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개혁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먼저 잘못된 과거를 개혁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안일무사와 비노동자성과 관료성을 배격하고 파벌과 이기주의와 형식의 민주주의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집약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노동조합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에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의원 일동은 우리 스스로의 변화로부터 노동조합 및 사회적 개혁을 이끌어내자는 각오를 다지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다 음

1. 우리는 기업위주의 일방적 경쟁력 강화정책을 규탄한다.!
1. 정부는 94년도 중앙합의중 정책제도개선사항을 조속히 시행하라!
1. 우리는 노동법 개악과 파견법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
1. 우리는 노무비 삭감을 위해 기존 고용질서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기업측의 고용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광범히 허용하라!
1. 정부는 포항제철과 삼성을 포함한 모든 유령노조를 즉각해체하라!
- 1.우리는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구속노동자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현장에 기초한 책임성있는 노동조합운동 노선을 수립하여 운동의 구심점을 구축하며 금속노동자의 굳센 결속을 도모한다.!
1. 우리는 업종별 연대체제를 확립하여 공동임투와 산업정책개선 투쟁을 전개한다.!
1.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며 국민속의 노동조합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1994 년 5 월 17 일

2) 중앙위원회

(1) 제 110 차 중앙위원회 및 제 2 차 중앙집행위원회

가. 일 시 : 1994 년 5 월 16 일 15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① 94 년도 정기대의원 대회 상정안건 심의

가) 93 년도 사업보고 - 원안 상정을 결의하다.

나) 93 년도 결산보고 - 원안 상정을 결의하다.

다) 94 년도 사업계획안 - 원안 상정을 결의하다.

라) 94 년도 예산안 - 94 년 10월 1일부터 노련맹비를 100 원 인상하는것으로 편성한 94 년도 예산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후 원안대로 정기대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하다.

마) 결의문 안 - 일부 자구 수정하여 상정할 것을 결의하다.

② 대의원 자격 심사

94 년도 정기대회 참석대의원수를 376 명으로 확정하고 본 대회 성원보고 순서 이전까지 대의원 교체가 가능한것으로 결의하다.

(2) 제 111 차 중앙위원회 및 제 4 차 중앙집행위원회

가. 일 시 : 1995 년 2 월 27 일 15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① 주요업무집행 결과를 요약보고하다.

② '95 년도 임금교섭에 관한사항

- 노사대책국장이 95 년도 임금인상 지침안을 설명보고 하고
- 위원간에 충분히 토의한후 기준내 근로로 승급분 제외하고 기본급기준 14.1%(71,258원) 인상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 조합에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임금 인상요구의 방식을 비율(%)과 금액을 병행하여 요구하기로 결의하다.
-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간접 임금인상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면세점인하, 연장근로수당등의 과세문제, 근로자 주택건설제도의 개선과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건의를 한다.

③ 예산항목전용 및 가예산 승인

예비비에서 조직비, 판공비로 13,000,000 원 항목전용을 승인하고 95. 4.1 - 5.31까지의 가예산 149,000,000원을 승인한다.

④ 건의사항

- 가) 임투시기에 노련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이 느껴지도록 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 나) 조합원에 대한 선물, 상여금, 연장근로등에 대한 과세에 대해 근로복지의 개선 차원에서 비과세 되도록 건의해 주기 바란다.
- 다) 임시총회 개최등 조합활동이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노동법 개정을 건의하기 바란다.
- 라) 세제의 개선 및 각종제도의 개선요구를 노동부의 순회간담 회시에 각 지역마다 동일하게 요구하도록 한다.
- 마) 노동절 행사를 형식적인 개최보다 조직을 과시하는 행사로 변화시켜 주기 바란다.

3) 중앙집행위원회

(1) 제 1 차 중앙집행위원회

가. 일 시 : 1994 년 4 월 1 일 14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① 94 년도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가) 94 년도 5 월 17 일(화) 10:00 시에

나)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다) 93년도 맴비를 94. 4. 16.(토) 14:00시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② 소위원회는 중집전원을 규약 및 의안심의 소위원회, 사업계획 심의 소위원회, 예산심의 소위원회로 분할 구성하기로 한다.

③ 모범조합원 표창은

가) 94. 3월말 기준 맴비납부조합원 2000명이상 노동조합에 1명

나) 시.도 지역본부에 1 명

다) 2000 명 이상되는 노조를 제외하고 10,00명 이상 지역본부에 1명 추가 배정하고 상패와 금뱃지 ½ 돈을 시상한다.

④ 한국노총 장학재단 94 학년도 장학금 96,390,000 원을 수령하여 단위노조에 배정되었음을 보고하다.

- ⑤ 중앙노사 합의에 대하여 합의내용이 만족하기 어려운 미흡한 수준이나 부대합의 내용인 제도개선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요청하다.
- ⑥ 위원장 선거관리 위원은 하영일, 박한주, 안영환, 최웅길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다.

(2) 제 3 차 중앙집행위원회

가. 일 시 : 1994 년 7 월 13 일(수) 14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 ① 중앙집행위원 및 실국부서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다.
- ② 전국대표자대회 개최의 건
 - 대회 명칭 및 개최일시는 집행부안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 개최장소는 대전권의 실내체육관이나 연수원 강당중에서 선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선정토록한다.
 - 원만한 행사개최를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되 임명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참가비로 1 인당 10,000 원씩을 납부하며
 - 부대사업으로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부서부장등 200 여명이 노총중앙교육원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 7 - 9 월중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조직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조직 활성화의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노련운영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 지역간담회나 지역행사 개최시 비상근 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다.

4) 기타회의

(1)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4 년 6 월 10 일 14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 ① 94 년 정기 대의원 대회 결의사항 및 국제금속노련 94 년도 중앙위원회 참석결과를 보고하다.
- ② 가맹노조 총회 및 창립기념행사에 노련 상근 임원이 모두 참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연맹과 지역본부가 협의하여 지역의 비상근 부위원장들이 연맹 위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기로 의결하다.
- ③ 노동운동의 전환기를 맞아 복수노조 문제가 거론되고 제 2노조설립 준비의 움직임이 있는 등 노동운동의 재편성 움직임이 있는 현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인식으로 조합원과 일선 간부에게 공감이가는 운동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조직운영 전반의 사항을 재정리 하기로 한다.

(2)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4 년 8 월 16 일 14 시

나. 장 소 : 대구지역본부 회의실

다. 결의사항

- ① 회의 참석자 전원이 대구 시민운동장내 실내체육관을 답사하다.
- ② 정책세미나 개최의 건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결의하다.
- ③ 9 월 13 일 전국대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 94 년 9 월 13 일(화) 11시에 대구시민운동장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며
 - 명칭을 『노동운동의 힘찬 제도약을 위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전국대회』로 확정하고
 - 참석규모를 1,000 명으로 하며
 - 참가비는 1인 10,000원, 2인 20,000원, 3인이상은 20,000원을 한도로 한다.
 - 기타 의안, 프로그램 작성,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회의에 위임한다.

(3)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4 년 10 월 20 일 14 시

나. 장 소 : 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실

다. 결의사항

① 하반기 교육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하반기에 집중되어 실시되는 각종교육의 참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년중으로 분산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가능하면 차기 회계년도 부터 시행토록 한다.

② 중앙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각종교육에 참석율이 저조하므로 지역을 순회하며 일선 간부들을 상대로 노동운동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순회 교육의 실시를 적극 검토한다.

③ 교육실시 공문을 현재 지역본부에만 발송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보완을 위하여 지역본부와 단위노조에 동시발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한다.

④ 94 년도 임투 결과를 보고하다.

⑤ 조직 확대 및 강화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 조직관리를 위하여 업종별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
- 조직관리의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자동차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자동차업종의 전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히 토의한후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다.

(4)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4 년 12 월 1 일 13 : 30 시

나. 장 소 : 대전 유성 경하장

다. 결의사항

① 주요업무 경과를 보고한후

여성간부 교육을 쏘타크럽지원으로 집행한 결과 교육내용의 일부가 현재 우리노련의 활동내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로는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토록 한다.

② 94. 12. 12 - 13. 에 개최되는 한일고위간부회의에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이 최대한으로 참석토록 한다.

- ③ 95 년도 임투지침 작성의 건에 대하여 토의한 후 가맹노조의 지역, 업종, 규모를 고려하여 95 년도 임금대책 실무위원회를 빠른 시일내 구성하며 노진귀 노사대책국장이 총괄 책임을 맡아 95 년 1 월말까지 자료를 정리 배부하도록 한다.
- ④ 경남지역본부로부터 접수된 건의서에 대하여 작성 및 배부과정을 설명보고 받고 제도의 노동단체의 세력 확대를 위한 나름대로의 활동에 대하여 어느산별 보다 먼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총정에서 비롯된것으로 이해하고 노동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의 전개에 대하여는 노련의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 활동방향을 결정하기로 한다.
- ⑤ 가맹노조 문서발송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 후 지역본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역본부로 발송』, 『가맹노조로 직접발송』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키로 한다.

(5)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5 년 2 월 23 일 16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 ① 95 년 2 월 23 일 10시에 개최하는 한국노총 95 년도 정기대의원 대회에 본노련에서 52 명의 대의원을 파견하기로 확정되었음을 보고하다.
- ② 노총 규약 개정안중 중앙위원회가 부활됨에따라 산별위원장. 노총시도본부의장은 당연직이 되고 맹비납부 조합원 8,000명당 1 명이 배정되고 단수 4,001 명에 1 명이 추가됨을 알리고 본노련에 13명의 중앙위원이 배정되었음을 보고하다.
- ③ 대회발언시는 본연맹의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기를 요청하다.
- ④ 95 년도 임투방향에 대하여는 2 월 27일에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및 중집연석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하다.

(6)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5 년 2 월 27 일 13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 ① 경과보고 - 중앙위원회에 원안 상정하기로 의결하다.
- ② 95 년도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 기본급 기준 14.1%인상 요구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다.
- ③ 예산항목 전용 및 가예산 승인의 건 - 중앙위원회에 원안 상정하기로 의결하다.

(7) 사업계획 심의 소위원회

가. 일 시 : 1994 년 5 월 3 일 14 시
 나. 장 소 : 본 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사무처에서 작성한 94 년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중앙위원회 및 정기대의원 대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다.

(8) 예산심의 소위원회

가. 일 시 : 1994 년 5 월 3 일 14 시
 나. 장 소 : 본 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맹비징수 예상 조합원수를 130,000명으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맹비 징수 조합원수 확대에 적극 노력하도록하고 원안 상정을 의결하다.

(9) 94 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수검

가. 일 시 : 1994 년 11 월 3 일 14 시
 나. 장 소 : 본 노련 회의실
 다. 내 용

본노련 94 회계년도 상반기 (94. 4. 1 - 9. 30). 회계처리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다.

(10) 94 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수검

가. 일 시 : 1995 년 4 월 28 일
 나. 장 소 : 본 노련 회의실
 다. 내 용

본노련 94 회계년도 하반기 (94. 10. 1 - .95. 3. 31.). 회계처리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다.

2. 기 타 활 동

1) 한국노총 장학금 배정

한국노총 장학재단에서 우리노련에 배정된 94 학년도 장학금 96,390,000원을 맹비납부 실적에 따라 가맹노조에 배정하였다.

년도별 장학금 수혜내역

년도별	중	고	전문대	대	계	지 급 금. 액
77 년	16	12			28	1,520,000
78	91	68			159	9,765,000
79	118	86			204	13,960,000
80	165	120			285	21,525,000
81	130	42			172	30,980,000
82	127	49			176	37,980,000
83	140	37		2	179	41,680,000
84	68	9			77	16,480,000
85	84	8			92	19,000,000
86	84	8			92	19,000,000
87	71	12			83	19,650,000
88	149	64			213	15,390,000(일 반) 45,600,000(국 고)
89	128	58		1	187	11,820,000(일 반) 47,390,000(국 고)
90	199	51		1	251	80,900,000
91	261	47		1	309	114,770,000
92	231	58		3	292	116,960,000
93	165	72	1	2	240	117,860,000
94	61	87	기 타)1	1	150	96,390,000
계	2,280	893	2	11	3,186	836,160,000

2)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

신임, 신규 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담당자와 회계감사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실무교육을 실시 하였다.

지역별 교육 실시 현황

지 역	교 육 일 정	장 소	참석자수
서울.경기.인천.강원	94. 11. 4.	노총안양지부강당	82
충남북.전남북.	11. 8.	노총대전본부강당	35
경북.대구.구미.포항	11. 9.	금속대구본부강당	47
경남.부산.울산	11. 10.	노총부산본부강당	52
계			216

조 직 활 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 지역본부 임원명단
 - 단위노동조합 현황
2. 지부현황
3. 신규조직현황
4. 외국인 투자기업체 현황
5.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
6. 해산 노동조합 현황
7. 지역별 조합원 월별 현황
8. 년도별 조합원 증감 현황
9. 기타 활동

평가 및 개선방안

우리 노동운동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외적으로는 UR의 타결로 경제의 국제화, 통제에서 자유화로 전환되었고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산품 위주였던 자유무역은 물론이고 농산물, 제조공산품, 서비스산업, 금융, 통신 시장등 모든 경제활동이 개방되어 국내산업은 점차 설자리를 잃고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96년 OECD 가입을 목표로 하는 정부로서는 각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개방을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경제의 개방화 추세와 아울러 지역 경제 불력도 강화 될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경기순환이 불황이나 회복기나 호황국면이냐에 따라 노동운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클것이다.

금년의 국내 정치.사회 정세는 6/27 4대 지자제 선거에서 노동자 표를 의식하여 강경책 구사는 어려울 것이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불법 분규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강공책이 예상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노사관계 정책도 크게 변화되리라 본다. 특히 민 노총 준비위는 제2노총 건설을 위한 차별화 전략과 강성이미지 불식을 위한 유연화 전략이 시도되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국민과함께하는 사업의 전개를 근간으로한 새로운 시도가 엿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의 상황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노동운동도 변화하는 환경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노동운동 자체에 커다란 손실과 타격을 입게 될것으로 본다

우리가 당면한 노동운동의 침체는 한때 지나가는 독감이 아니라 사망선고 직전의 매우 심각한 악성 종양의 상태로 각계에서 진단 한바있다.

87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전투적 조합주의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대중성을 상실케 하였고 정치편향주의는 노동조합의 활동자체를 규제시켰는가하면 민주와 어용이다 하는 도식적 조직 노선은 결국 노동조직 내부의 소모전과 갈등만을 초래케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노련 역시 90년도 39만에 육박해 있던 조직이 소기업 노조의 자진해산과 기능마비, 제도내 조직이탈, 중간노조의 양산등 주변 여건에 의해 조직율의 감소를 가져 왔다.

이러한 조직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직간의 분열과 이탈, 독자화, 휴면화 되어가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으로 이념 논쟁은 사라지고 각국의 노동운동도 이제는 자국의 이익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노동운동의 내부에는 상당부분 이념 논쟁에 휩싸여 갈등과 반목이 깊게 형성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조직은 4.1 중앙노사합의와 3.30 사회적 합의로 인해 운동 차원에서 제도권 조직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뿐만아니라 노동법 개악과 복수노조문제, 사용자의 잦은 부당노동행위, 국가경쟁력을 빌미한 고통분단, 조직내부의 노.노 갈등등 대내외의 도전 을 받고 있다.

특히 작년도 임금인상율이 노.경총 합의 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노.경총 합의는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사회적 합의중 정책 제도개선 사항도 이행 되지 않아 각급조직에서 노총과 산별을 불신하는 결과만을 초래케 하였다.

또한 노동법 개정 방향은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개별 근로관계법의 개악과 구색을 맞추기 위한 성격이 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이 예상되어 차후 노사관계에 있어 부정적 영향과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 시민법적 대응이 강화되어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가와 업무방해, 고소고발의 급증, 최근의 현대중공업 쟁의의 종결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정착 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야노동세력은 노.경총간의 사회적 합의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제2노총 결성 준비위를 구성하여 노조법 제3조 제5호의 철폐와 관계없이 제2노총을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규합하고 있어 노동세력의 이원화가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이다.

90 년이후 노동운동이 수세기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 역시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노동통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환경 이외에도 제2노총 건설추진에 있어 본노련이 타케트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직의 분열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된다. 이제는 우리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배양치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국민들이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노조가 권리주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은 물론 국민의 이익과 조화속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급 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당해지역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감으로써 지역내 노조와 조합끼리의 연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별 조직을 활성화해야하고 그러한 조직체계 속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운동요원을 육성하여 우리의 운동노선을 확산시킴과 아울러 현장과 지역본부, 그리고 연맹간의 기동성있는 가교로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교육과 홍보기능을 개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교육은 지금까지의 주입식에서 토론식으로 방향을 전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의 의식을 고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각종자료를 제작 공급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중심의 활동을 보장시켜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봉사적 조직운동을 전개하여 우리들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이탈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변화노력과 접촉의 유지를 통해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현재 생각이 다르다 하여 노동자끼리 이질화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조직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비제도권 노조와 대화를 통해 본노련의 운동이념과 활동사항, 조직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세와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우리의 노동운동을 성숙시켜 나가야 하며 단결은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 어떤 도전 세력에도 웅장해 낼수 있지만 분열은 조직의 생명을 앗아가는 적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되새겨 우리모두는 금속노련 발전을 위해 뜻과 의지를 한데 모아 다같이 뛰어야 할것이다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1) 서울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9. 12. 28.
- ②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40 - 14
- ③ 전화 번호 : 863 - 1983 FAX : 865 - 4358
-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신 성 균	오 트 론	94. 12. 14.
지도위원	권 용 식	한 국 콘베어	94. 12. 14.
지도위원	안 영 환	동 부 제 강	94. 12. 14.
수석부의장	박 상 범	경 방 기 계	94. 12. 14.
부 의 장	서 갑 순	한국특수공구	94. 12. 14.
부 의 장	박 순 자	로 음 코리아	93. 1. 28.
부 의 장	전 기 홍	롯데알미늄	94. 12. 14.
사무국장	이 명 재	신 명 전 기	94. 12. 14.
정책실장	선 기 노	세 일 종 공	94. 12. 14.
행정조정실장	김 광 현	풍 우 실 업	94. 12. 14.
회계감사	문 광 주	세 진 전 자	93. 1. 28.
회계감사	김 제 연	해 덕 기 계	94. 12. 14.
회계감사	이 대 영	풍 성 전 기	94. 12. 14.
회계감사	김 형 식	대한전선 시흥지부	94. 12. 14.

⑤ 서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LG전자노동조합	63.05.30	유 재 섭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6 가 36	가전제품
정방기계노동조합	88.06.27	박 상 범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19 - 8	타자기
제림메디칼노동조합	94.07.07	최 완 식	강남구 역삼동 735-32	의료기기
남성전기노동조합	77.02.12	오 갑 순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45 - 30	카스테레오
대우전자노동조합	83.04.02	이 해 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노총회관 409	가전제품
대한전선노동조합	72.06.15	강 익 화	서울시 구로구 시흥1동 104	광통신전선
동부제강노동조합	66.04.29	안 영 환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23	강관,철판
동아건설노동조합	74.06.29	민 병 용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 - 23	건설업
동일제강노동조합	85.06.14	진 대 환	서울시 구로구 구로 5 동 566 - 1	와이어로프
동해노동조합	89.02.24	이 경 옥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 2 동 481 - 2	카스테레오
로움코리아노동조합	78.06.27	박 순 자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71 - 11	저항기
롯데알미늄노동조합	76.04.08	전 기 홍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1005	알미늄
롯데전자노동조합	87.08.21	차 명 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3	오디오
모토로라코리아노동조합	88.12.19	김 명 옥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445	반도체
샤프전자노동조합	90.05.08	유 용 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 27	계산기
서울남부금속노동조합	93.08.28	강 성 두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3동 140 - 14	기계
세진전자노동조합	77.01.23	문 광 주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60 - 19	키보드
신명전기노동조합	85.05.22	이 명 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 가 11	전동기
신한전기노동조합	81.05.19	엄 종 원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5 가 27	전기부품
쌍용창동정비노동조합	95.01.13	김 광 우	서울시 도봉구 창4동 181-16	자동차정비
아남산업노동조합	88.06.14	박 회 란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151 - 22	반도체
오톤노동조합	88.02.01	신 성 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 - 2	전화기
제일종공노동조합	82.02.23	선 기 노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 가 34	갑속기
청우공업노동조합	88.05.10	이 명 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 가 96 - 1	펌프
풍성전기노동조합	67.02.28	이 대 영	서울시 성동구 성수 1 가 656 - 335	자동차부품
풍우실업노동조합	89.11.09	김 광 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71 - 37	장식용전구
한국시그네틱스노동조합	67.09.08	최 현 숙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2	반도체
한국음향노동조합	85.04.25	김 종 화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71 - 41	스피커
한국전자부품노동조합	89.03.28	이 병 원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79 - 2	스피커
한국콘베어노동조합	71.01.12	권 용 식	서울시 구로구 수궁동 72 - 1	콘베어
한국특수공구노동조합	62.3.31	서 갑 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 가 1	절삭공구

2) 경기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2. 9. 27.
 ②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안양 8 동 377
 ③ 전화 번호 : (0343) 42 - 3666 FAX : (0343) 45 - 2816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하 영 일	L G 전 선	88. 10. 20.
부 의 장	강 익 화	대 한 전 선	88. 10. 20.
부 의 장	나 찬 경	LG전자 평택지부	88. 10. 20.
부 의 장	이 종 진	성 신	91. 10. 29.
부 의 장	권 석 정	한 샘	91. 10. 29.
부 의 장	김 윤 재	대 우 통 신	91. 10. 29.
부 의 장	최 진 하	일 진	90. 10. 30.
부 의 장	엄 종 국	세 광 알미늄	90. 10. 30.
부 의 장	가 재 두	일 진 전 기	90. 10. 30.
부 의 장	임 흥 순	한 국 가 구	90. 10. 30.
부 의 장	조 인 근	대 우 중공업	90. 10. 30.
부 의 장	김 수 룡	대광다이케스트	90. 10. 30.
부 의 장	김 길 동	LG전자 청주지부	82. 9. 27.
사무국장	박 정 화	동 아 정 기	91. 10. 29.
회계감사	박 순 영	대 경 화 성	94. 10. 31.
회계감사	장 정 환	대 원 전 선	94. 10. 31.
회계감사	이 병 도	배영설비기공	94. 10. 31.
회계감사	신 철	신 일 산 업	94. 10. 31.
회계감사	이 병 옥	태 양 금 속	94. 10. 31.
회계감사	김 일 섭	LG전자 오산지부	94. 10. 31.

⑤ 경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 산품
LG전선노동조합	67.05.12	장 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55 번지	전선
강진노동조합	89.02.20	이 강 훈	경기도 군포시 당동 7 - 5	자동차부품
경동산업노동조합	88.12.13	장 봉 만	경기도 고양시 신원동 260-2	라지에타
경원산업노동조합	87.08.24	강 장 규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갈곶리 산 6-1	баттери
계선산업노동조합	87.08.28	진 춘 기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마교리 153-2	철제가구
고신열관리노동조합	88.06.23	경 명 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9-1	산업용버너
공성통신전자노동조합	88.06.23	김 상 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	카세트테이프
국제전기노동조합	88.09.19	김 형 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0-1	전구
국제전선노동조합	68.05.03	김 영 기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66	전선
기경실업노동조합	87.08.25	이 문 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 - 1	구조물
기아서비스노동조합	79.06.22	박 성 근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546	자동차부품
기영산업노동조합	88.03.25	이 대 선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2 나 202	자동차부품
남북노동조합	89.02.24	한 석 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초부리 80 - 1	자동차부품
대광다이캐스트노동조합	88.03.07	김 수 룡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25	자동차부품
대기산업노동조합	89.02.24	박 종 철	경기도 시흥시 장왕동 1264	자동차부품
대성전선노동조합	78.02.19	김 완 용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513	전선
대신기계노동조합	88.05.17	강 호 석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쾌량리 480 - 1	자동차부품
대웅산업노동조합	94.11.23	이 상 곤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계곡리 273-11	
대원전선노동조합	87.07.31	장 정 환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38-77	전선
대일노동조합	88.05.25	최 정 출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57-2	가스보일러
대한로노동조합	88.10.28	최 만 복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고현리 221-4	열처리로
대한제작소노동조합	81.01.31	이 두 중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	기계제작
동신중공업노동조합	90.06.04	조 인 식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백봉리 산 66	조립식주택
동신평강노동조합	88.12.26	왕 일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833 - 7	가전제품
동아정기노동조합	87.08.17	조 동 진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862 - 8	자동차부품
동양매직노동조합	92.11.10	김 성 복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100-2	가스용구
동양산업기계노동조합	92.10.23	최 영 복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38-1	송풍기
동양산업전기노동조합	88.11.29	권 오 정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20	전자기기
동유물산노동조합	85.02.18	홍 응 기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모산리 175	주방기구
동화계량기노동조합	87.08.14	왕 환 규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대농리 126-10	주유기
동희산기노동조합	91.05.23	마 군 용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7 3나 301호	자동차부품
두산기계노동조합	87.08.19	유 숙 회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465 - 2	기계제조
두산제관노동조합	88.04.18	조 현 덕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8 - 1	알미늄캔
두원정공노동조합	87.08.27	정 춘 식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180	분사펌프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명보산업노동조합	89.09.25	조 길 현	경기도 광주군 오폐면 양벌리 337 - 1	전화박스
배영설비기공노동조합	89.04.24	이 병 도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72 - 7	공조기
범양냉방노동조합	77.07.03	경 흥 식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 - 4	에어콘
보원무역노동조합	87.08.14	하 병 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6	수출용액자
부승정밀노동조합	88.08.16	김 광 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442 - 5	B.O
삼아알미늄노동조합	89.02.17	신 현 철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111 - 2	알미늄
삼영전자노동조합	88.08.28	지 수 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0-1	콘덴서
삼원산업노동조합	86.06.03	전 인 권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봉암리 234	자동차부품
삼한노동조합	87.07.23	양 신 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0-5	전화기부품
삼화전자노동조합	94.11.21	유 일 열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211-1	전자부품
삼화제관노동조합	88.08.16	장 동 원	경기도 송탄시 모곡동 445	음료캔
삼화콘덴서노동조합	87.08.24	이 명 호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124	전자부품
새한요업노동조합	75.11.28	전 재 천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대포리 342-1	요업
서원풍력기계노동조합	88.11.07	최 상 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1-2	산업선통기
서진다이킨노동조합	91.01.25	박 완 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0 - 9	자동차부품
선일기계노동조합	88.06.11	임 상 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0	자동차부품
성문전자노동조합	90.12.30	김 정 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6	가전제품
수산중공업노동조합	88.05.16	이 원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109-2	산업기계
신라엔지니어링노동조합	88.05.16	윤 용 기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10-2	금형프레스
신진전기노동조합	87.08.28	유 연 각	경기도 수원시 평동 145 - 1	각종기계
아세아벤드노동조합	89.01.08	김 광 민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262	배관자재
연합인슈노동조합	90.11.21	주 현 중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조립식건축
연화정밀노동조합	88.07.27	유 지 택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7-1	가스렌지부
오공금속노동조합	88.06.09	권 태 복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고림리 612 - 1	자동차부품
우성노동조합	89.02.18	박 찬 일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600-12	양식기
유성정밀노동조합	88.09.10	김 선 영	경기도 광주군 오폐면 매산리 597 - 11	변압기
이화다이아몬드노동조합	88.03.12	성 세 현	경기도 오산시 원동 520 - 2	공구
이화전기노동조합	88.07.18	김 광 식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 - 20	전자부품
일진전기노동조합	87.08.16	가 재 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7 - 64	자동차부품
장안공업노동조합	79.03.16	이 산 응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갈곶리 224 - 1	전기소켓
진영기전노동조합	88.03.02	백 용 연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237 - 4	실린다밸브
진우노동조합	91.07.10	최 정 철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사랑리 137 - 6	자동차부품
철도컨테이너정비노동조합	90.06.05	임 승 재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3	콘코테이너
코발트전기노동조합	89.07.18	조 경 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09 - 1	전기다리미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태광에로이카노동조합	92.10.19	윤 선 옥	경기도 안양시 안양 7 동 191-1	전자부품
태양강업노동조합	88.05.06	조 한 구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업단지 1277-5	기계금속
퍼시픽콘트롤즈노동조합	91.02.06	장 현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288	자동제어기
필코전자노동조합	87.08.26	윤 문 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80	전자부품
한국가구노동조합	68.09.04	임 홍 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38 - 1	가구
한국길전제작소노동조합	88.05.16	손 병 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	치과기계
한국버그전자 노동조합	93.11.12	한 광 수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하리 345-4	전자부품
한국번디노동조합	87.07.19	백 광 인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신리 206 - 1	강관
한국브레이크노동조합	88.04.20	유 환 철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복리 608-23	브레이크
한국셀마스타노동조합	94.04.48	이 윤 석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감정리 600	셀
한국에르나노동조합	79.07.23	박 홍 철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226-1	전자부품
한국에이.엠.피노동조합	89.11.01	이 성 근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양기리 451 - 9	전자부품
한국열교환기노동조합	87.08.31	최 용 만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6리 517	열교환기
한국일측노동조합	93.05.17	김 충 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3-3	게이지
한국체인노동조합	87.08.26	한 정 원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177 번지	체인
한국키스톤발브노동조합	88.07.09	주 택 근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계록리 270-4	밸브
한독분말야금노동조합	93.03.10	이 문 성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55-1	자동차부품
한샘노동조합	80.04.01	한 승 인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594 - 1	주방기구
해태전자노동조합	87.09.19	김 과 환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독정리 461	가전제품
현대엘리베이터노동조합	87.08.14	성 용 주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엘레베이터
현대전자노동조합	87.08.14	김 영 철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컴퓨터
화천프레스노동조합	87.09.19	김 기 섭	경기도 안양시 안양 7 동 219 - 7	자동차부품
희승알미늄노동조합	92.07.09	임 만 선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유포리 산 7-1	알미늄
경원세기노동조합	79.04.05	이 종 찬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22	에어콘
대륙자원노동조합	92.01.22	함 중 원	부천시 오정구 내동 352	
로렌스시계노동조합	89.02.01	조 규 덕	부천시 중구 도당동 173 - 27 호	시계
반도기계노동조합	87.08.20	오 광 수	부천시 남구 송내동 409-3	크레인
삼양중기노동조합	84.07.08	신 규 복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134	프레스
삼협전자노동조합	89.04.07	김 상 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0 - 8	카스테레오
서울주철노동조합	88.04.27	권 갑 주	부천시 소사구 소사2동 133 - 14	맨홀
성신노동조합	87.07.28	이 종 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6 - 5	펌프
신한일전기노동조합	74.05.18	이 준 덕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	펌프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신한주철노동조합	74.07.20	윤 무 영	부천시 소사구 소사 3 동 135	주물
우진전자노동조합	87.0902	전 경 준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4 - 5	전자제품
풍정산업노동조합	87.1112	이 문 식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6 - 1	자동차부품
한국신광전자노동조합	88.0807	백 경 재	부천시 오정구 내동 124	
한도정밀노동조합	88.0511	이 원 근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9-13	베아링
흥진기연노동조합	89.0225	안 회 철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5-6	크레인
경용기계노동조합	84.05.27	류 한 국	안산시 성곡동 646-5 반월공단 B 602-7	기계
광명기전노동조합	90.08.28	김 창 중	안산시 목내동 451 - 3	배전차단기
광명전기노동조합	87.08.15	이 명 구	안산시 목내동 389번지 2-15	전기제품
금성공업노동조합	91.03.26	이 창 수	안산시 신길동 1049 - 5 B 601-16	
기린산업노동조합	90.07.14	노 원 숙	안산시 목내동 403 번지 16 브록	판넬
남성기계노동조합	89.04.10	박 종 찬	안산시 신길동 1054-1	크레인
남성노동조합	88.09.06	염 규 근	안산시 원시동 724 1 브럭	자동차부품
대경화성노동조합	89.01.13	정 근 화	안산시 성곡동 636 - 2	자동차부품
대덕산업노동조합	87.12.11	김 광 호	안산시 목내동 475 - 15 B	인쇄회로기
대덕전자노동조합	87.12.28	송 성 수	안산시 목내동 390 - 1	PCB전자
대동노동조합	89.03.16	박 종 세	안산시 성곡동 633 - 6	사출금형
대륙전선노동조합	87.12.02	김 영 규	안산시 원시동 731 - 9, B 4 - 10	전선제조
대아볼트노동조합	87.08.13	김 병 호	안산시 원시동 824 - 6	볼트
동광제작소노동조합	87.09.30	정 영 배	안산시 원시동 769 - 11	철제가구
동서공업노동조합	87.12.08	이 연 식	안산시 목내동 402 번지 6 롯데 16 호	차량피스톤
동성진흥노동조합	87.10.29	이 상 섭	안산시 목내동 445 - 4, B 15 - 1	케이블추레
동성진흥노동조합	89.11.28	홍 원 상	안산시 성곡동 610 - 6 B 18-17 브럭	방음벽
동진금속노동조합	89.04.03	최 종 강	안산시 성곡동 4 가 302	알루미늄샷시
배명금속노동조합	88.03.07	김 원 덕	안산시 초지동 654-2 (9B 71-1)	스텐레스
삼기기공노동조합	78.10.13	장 인 권	안산시 원시동 726- 4, 반월공단 B1-45	자동차부품
삼목강업노동조합	88.04.18	남 진 우	안산시 초지동 654 - 3 반월공단 9-71-2	자동차부품
삼영기공노동조합	89.03.28	유 인 수	안산시 성곡동 B 602 - 18	자동차부품
서울라디에타노동조합	88.01.16	박 양 기	안산시 원시동 724, 반월공단 B1 - 21	전자부품
서울차체노동조합	67.10.13	이 쌍 봉	안산시 신길동 1125 (13-14)	자동차부품
성안기계노동조합	89.05.15	최 관 섭	안산시 성곡동 646 - 4 (602브럭)	기계제작
성진산업노동조합	87.08.22	임 병 우	안산시 원시동 731 - 8 (4B,9L)	자동차부품
세강물산노동조합	90.04.23	한 병 우	안산시 성곡동 638 - 4	강선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세강물산노동조합	90.04.23	한 병 우	안산시 성곡동 638 - 4	강선
세광알미늄노동조합	86.08.31	엄 중 국	안산시 초지동 9 브럭 65	주방기구
신아전기노동조합	80.03.26	신 은 철	안산시 원시동 779 - 10	변압기
신일산업노동조합	77.04.25	신 철	안산시 사사동 119	선풍기
신일정밀노동조합	89.09.16	나 경 현	안산시 사사동 123	타이어
신한전선노동조합	87.09.04	민 경 민	안산시 목내동 406, 반월공단 7B 1호	전선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노동조합	87.08.22	이 준 근	안산시 목내동 398 - 14	수도꼭지
오양공조기노동조합	87.08.17	조 재 천	안산시 원시동 817, B 1 - 89	모타
우진공업노동조합	89.05.12	한 창 기	안산시 원시동 770 - 1, 11 B 17 L	스파크브러
일진노동조합	87.08.22	최 진 하	안산시 목내동 472 - 1	알미늄
제원전자노동조합	89.04.07	채 향 란	안산시 성곡동 646-6 반월공단 602-9B	전자부품
중원전기노동조합	88.05.16	김 원 곤	안산시 원시동 727 - 9	전기용품
진영공업노동조합	94.03.25	김 종 성	안산시 원시동 778-5	자동차부품
창화공업노동조합	87.11.23	박 윤 기	안산시 성곡동 반월공단 602 블럭 25	자동차부품
태양금속노동조합	76.05.26	이 병 옥	안산시 성곡동 595, 반월공단 21 브룩	볼트
테일정밀노동조합	88.04.23	송 기 선	안산시 목내동 456 - 1, 16-13 브룩	컴퓨터
한관산기노동조합	88.05.08	장 기 윤	안산시 원시동 735	
한국캠브리지필터노동조합	90.02.16	이 한 규	안산시 원시동 781 - 5	전자부품
한국코인노동조합	88.03.17	김 병 국	안산시 목내동 394 - 2	
해덕강업노동조합	89.07.13	이 철 하	안산시 신길동 1060 - 2, 605 B	파이프
화일볼트노동조합	87.05.25	김 태 옥	안산시 원시동 779 - 2	
홍진정공노동조합	88.11.19	이 정 한	안산시 원시동 780 - 1, 10-8 브룩	가전제품

3) 인천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1. 2.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1166-1 봉광빌딩 A 동

③ 전화 번호 : (032) 437 - 8505 FAX : (032) 437 - 8504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박 한 주	코리아스파이서	92. 6. 30.
수석부의장	한 상 환	한 영 알 미 늄	92. 11. 16.
부 의 장	전 재 환	대 우 중 공 업	93. 7. 8.
부 의 장	이 준 만	후지카대원전기	93. 7. 8.
부 의 장	장 영 일	미 주 제 강	93. 7. 8.
부 의 장	나 용 길	세 일 기 계	93. 7. 8.
사무국장	박 재 혁	한 국 샤 프	93. 7. 8.
회계감사	이 준 선	영 풍 기 계	93. 7. 8.

⑤ 인천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물
LG기전노동조합	87.07.25	이 중 교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85 - 1	엘레베이터
경동산업노동조합	85.01.25	배 중 남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0 - 10	스텐레스
금영실업노동조합	87.07.06	김 병 국	인천시 북구 효성동 225 - 2	선반
대동케이블노동조합	89.07.11	양 승 중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07-2 남동공단 3B3L	케이블
대림통상노동조합	87.08.12	이 은 물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4 - 4	양식기
대우중공업노동조합	61.12.10	전 재 환	인천시 동구 만석동 6	철도차량
대우통신노동조합	81.03.02	전 병 순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1 - 1	교환기
대한제당노동조합	69.06.02	손 중 흥	인천시 중구 북성동 1 가 6 - 14	설탕
대한제쇄노동조합	63.02.23	한 해 근	인천시 남구 도화동 740	땃
도투락 인천공장노동조합	88.07.05	김 현 섭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7 - 3	추물
동광화성노동조합	89.12.12	황 승 오	인천시 북구 효성동 316 - 15	사출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동보노동조합	87.09.10	최 화 영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06 - 1 2B-2L	자동차부품
동양철관노동조합	87.08.25	양 시 준	인천시 북구 청천동 176	강관
로알노동노동조합	87.07.25	한 종 윤	인천시 북구 효성동 410 - 19	수도꼭지
런나이코리아노동조합	89.03.17	조 인 수	인천시 북구 십정동 560 - 2	가스기기
미주제강노동조합	47.08.09	장 영 일	인천시 남구 도화동 696	제강
부국철강노동조합	88.02.08	최 영 진	인천시 남구 도화3동 686	철강
삼성공업노동조합	87.08.10	오 인 상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4 B 1L	자동차부품
삼성정밀노동조합	89.04.14	정 길 환	남동구 논현동 429-9 남동공단 21B-11L	주방기기
삼송공업노동조합	87.08.24	김 철 소	인천시 북구 효성동 316 - 2	캐스타
서울제강노동조합	88.02.09	최 광 질	인천시 북구 십정동 558 - 7	철강
서흥가전노동조합	88.07.15	윤 재 원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5 - 5	보온병
서흥노동조합	88.07.15	김 명 석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5 - 5	보온병
성지공업노동조합	89.09.15	이 상 권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8 - 11	증기부품
세일기계노동조합	87.10.19	나 용 길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3 B 1L	자동차부품
승일제관노동조합	88.06.01	김 성 국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3 - 4	캔
신일특수관노동조합	92.05.10	김 학 배	인천시 남구 학익동 535 - 3	특수관
신화정공노동조합	82.03.19	방 수 복	인천시 북구 산곡동 137-1	산업기계
쌍용정공노동조합	87.08.18	권 태 연	인천시 북구 효성동 219	공작기계
영창악기노동조합	76.02.17	장 태 훈	인천시 서구 가좌동 564 - 1	악기제조
영풍기계노동조합	87.08.20	이 준 선	인천시 북구 십정동 557 - 3	공구
이천전기노동조합	61.08.25	최 인 배	인천시 동구 화수동 5 - 5	중전기기
인천자동차노동조합	88.03.14	이 석 주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 - 79	차량정비
인천제철노동조합	70.05.20	김 동 교	인천시 동구 송현동 1	철강
제일엔지니어링노동조합	88.05.20	이 성 남	인천시 남구 주안 5 동 1385 - 9	전자부품
진영정기노동조합	89.02.27	진 의 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49 B 2 L	방전기
코리아스파이서노동조합	80.05.01	박 한 주	인천시 북구 삼산동 211 - 3	자동차부품
한국강관노동조합	80.05.08	양 정 우	인천시 남구 학익동 468 번지	강관
한국분말야금노동조합	87.08.16	김 복 남	인천시 북구 갈산동 5 - 1	자동차부품
한국샤프노동조합	88.06.10	박 재 혁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18	오디오
한국화학장치노동조합	89.01.21	이 길 훈	인천시 서구 가좌동 291 - 13	화학기계
한성실업노동조합	87.08.18	박 근 수	인천시 북구 부평동 65 - 115	자동차부품
한영알미늄노동조합	76.10.27	한 상 환	인천시 서구 가좌동 525 - 4	비철금속
한일튜브공업노동조합	93.05.15	김 도 식	인천시 북구 작전동 871-17	브레이크
한화기계노동조합	63.02.25	박 광 실	인천시 북구 산곡동 100-25	베어링
후지카대원전기노동조합	68.03.02	이 준 만	인천시 북구 작전동 286 - 1	난로
희성금속노동조합	87.08.23	허 규 선	인천시 서구 가좌동 180 - 12	용접봉

4) 충남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1. 1. 30.
 ②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 - 185
 ③ 전화 번호 : (042) 273 - 5786 FAX : (042) 273 - 2555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두 형	대 성 공 업	94. 3. 31.
부 의 장	강 한 우	삼 신	94. 3. 31.
부 의 장	김 재 동	대 아 공 업	94. 3. 31.
사무국장	양 정 규	정 품 물 산	94. 6. 25.
회계감사	김 보 현	대 홍 정 비	94. 3. 31
회계감사	김 회 중	동 양 금 속	94. 3. 31.

⑤ 충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국제특수금속노동조합	71.05.13	이 홍 배	충남 연기군 동면 용암리 산 666 - 8	자동차부품
남선기공노동조합	74.02.21	윤 익 병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50 - 10	밀링
대성공업노동조합	78.10.15	송 영 택	대전시 동구 성남 1 동 180 (7/5)	양식기류
대아공업노동조합	89.03.15	김 재 동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35 (2공업단지)	후레임
대한공조노동조합	90.02.01	민 계 동	충남 천안군 입장면 기로리 111 - 7	공조기
대홍정비노동조합	85.06.18	김 보 현	충남 천안시 성정동 2 - 1	자동차정비
동방의료양행노동조합	89.01.26	박 회 국	대전시 동구 삼성동 302 - 128	일회용주사
동양강철노동조합	67.03.06	정 병 석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63 - 15	알미늄
동양금속노동조합	78.08.07	김 회 중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 - 55	주물
두양금속노동조합	93.05.13	최 용 우	충남 온양시 배미동 145-3	
두원공조노동조합	90.12.17	정 덕 순	충남 아산군 음봉면 원남리 산 16 - 1	공조기
삼신노동조합	87.07.29	강 한 우	충남 천안시 두정동 63 - 6	밸브
삼천리기계노동조합	89.06.01	신 경 선	충남 천안군 성환읍 성환리 418-1	기계제작
상지전자노동조합	90.02.01	이 철 수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73	전화기
에프케이엘동화노동조합	90.02.06	박 준 택	충남 천안군 성환읍 대흥리 338 - 13	전자부품
연합전선노동조합	87.08.26	김 중 덕	충남 천안군 풍세면 보성리 569	전선
정품물산노동조합	93.03.31	양 정 규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40	전화기
중앙공업노동조합	73.01.27	김 병 구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90 - 7	농기구
한국쌍신전기노동조합	76.04.26	유 재 순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 - 1	콘덴서
한국이연노동조합	74.05.08	박 군 호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261	엔진부품
한국중기노동조합	88.05.22	이 수 영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90 - 13	주물,주강

5) 충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8. 12. 31.

②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0 - 15 번지

③ 전화 번호 : (0431) 67 - 1418 FAX : (0431) 66 - 5088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김 홍 수	L G 계 전	94. 12. 15.
부 의 장	권 성 하	에 넥 스	94. 12. 15.
부 의 장	왕 용 호	한 국 야 금	94. 12. 15.
부 의 장	이 형 일	뉴 맥 스	94. 12. 15.
사무국장	이 형 일	뉴 맥 스	94. 12. 15.
회계감사	박 재 형	맥 슨 전 자	94. 12. 15.
회계감사	권 영 혁	대 성 셸 틱	94. 12. 15.

⑤ 충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 조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금성계전노동조합	74.03.19	김 홍 수	충북 청주시 송정동 1	기계
국제중합기계노동조합	74.02.01	이 병 철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 - 1	농기구
극동전선노동조합	87.08.22	임 오 영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 16-1	전선
남한홍산노동조합	92.05.01	손 영 수	충북 청주시 송정동 2-1	수정발전자
뉴맥스노동조합	88.04.27	이 형 일	충북 청주시 송정동 27 - 15	사무기기
대농중공업노동조합	94.12.31	이 관 회	충북 청주시 송정동 27-5	증장기
대성셀틱노동조합	89.04.19	권 영 혁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곡리 313 - 1	가스보일러
동성금속노동조합	91.03.01	배 상 열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	엔진배어링
동신오미야법랑노동조합	8.91.116	송 성 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60 - 1	건축내장재
동아건설청주노동조합	87.06.15	한 규 정	충북 청원군 남이면 상발리 213-1	건설업
맥스전자노동조합	82.05.11	박 재 형	충북 청주시 향정동 125	무선전화기
방원금속노동조합	89.08.02	김 선 태	충북 진천군 만송면 죽현리 693 - 1	자동차기어
삼화전기노동조합	90.01.31	박 효 순	충북 청주시 복대동 92	콘덴서
세진-다지마노동조합	91.06.03	최 창 규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850	스텐레스
에넥스노동조합	87.08.10	권 성 하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555	주방기구
우진정밀노동조합	88.08.04	배 범 순	충북 청주시 향정동 73 - 3	오디오테일
일신산업노동조합	88.05.19	강 은 정	충북 청주시 봉명동 417 - 14	헤드폰
제일공업노동조합	89.04.12	김 영 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02 - 2	펜치후드
하나계기노동조합	90.02.22	곽 한 규	충북 청주시 사천동 619	전자저울
한국야금노동조합	91.02.04	왕 용 호	충북 청주시 송정동 53 - 16	초경합금
한일정공노동조합	93.12.31	한 남 석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645	자동차부품

6) 부산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29.

② 소 재 지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 - 240

③ 전화 번호 : (051) 644 - 4613 FAX : (051) 647 - 8770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오 봉 출	한진섬유기계	
부 의 장	서 복 호	동 국 제 강	
부 의 장	윤 정 일	대 동 조 선	
부 의 장	이 한 유	대 한 제 강	
부 의 장	김 회 근	고려 용접봉	
부 의 장	강 진 호	연 합 철 강	
사무국장	오 일 환	동 승 기 업	
조직국장	이 재 섭	부 산 주 공	
쟁의지도국장	김 병 규	명 성	
회계감사	하 상 순	대 성 사	
회계감사	김 병 옥	부 산 링 구	
회계감사	정 운 국	한국오르강침	

⑤ 부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강남노동조합	78.03.19	문 정 도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99	선박
고려용접봉노동조합	84.06.17	김 회 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1 - 3	용접봉
고려제강노동조합	82.06.10	윤 한 철	부산시 남구 망미 2 동 475	로프
고성산업노동조합	87.08.06	이 한 봉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2	수도밸브
국제밸브노동조합	84.04.09	정 영 제	부산시 사상구 주례1동 690 - 14	밸브
극동금속노동조합	89.04.03	김 대 복	부산시 사상구 감전4동 124 - 1	선재
내소날정공노동조합	94.03.03	김 영 중	부산시 동래구 거제1동 1467-3	금형
대동조선노동조합	75.01.14	윤 정 일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 가 160	조선
대림정기노동조합	91.04.03	정 인 섭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09	프레스
대림철공장노동조합	88.10.26	진 재 옥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10	프레스
대명공업노동조합	88.03.03	유 덕 기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8 - 11	차량부품
대선조선노동조합	68.12.03	황 대 선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4 가 12	조선
대성사노동조합	76.03.30	하 상 순	부산시 동래구 안락 2 동 107 - 16	차동차부품
대성스프링노동조합	94.01.07	류 대 열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51-4	TV부품
대창단조노동조합	75.05.10	박 병 용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952 - 3	크랭크
대창중기노동조합	90.04.10	이 규 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8-5	주강
대창크랭크노동조합	93.10.22	이 준 기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16	크랭크
대한제강노동조합	89.04.20	이 한 유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6	철강
동국제강노동조합	87.09.01	서 복 호	부산시 남구 용호 1 동 177	철근
동기브레이크노동조합	89.07.04	김 영 수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27	라이닝
동승기업노동조합	87.09.01	백 진 현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1 동 791 - 1	차량부품
동아금속노동조합	87.10.17	윤 상 의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9 - 7	기계부속
동아전기노동조합	77.08.01	윤 춘 동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8	기계부속
동영공업노동조합	87.10.18	박 재 호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48 - 9	밸브
동화정기노동조합	87.09.10	김 재 술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6 - 2	선박의장
만호제강노동조합	73.11.21	김 용 정	부산시 사상구 화명동 1130-1	로프
명성노동조합	76.07.31	김 병 규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101 - 1	라이트
문화공업노동조합	93.11.11	권 상 근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61 - 7	자동차부품
미진금속노동조합	75.10.29	최 영 수	부산시 사상구 패법동 800	관이음쇠
부국금속노동조합	87.03.23	류 채 주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43	활동판
부산링구노동조합	78.04.30	김 병 옥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3-1	차량부품
부산선박목의장노동조합	93.03.24	박 후 철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2 가 77	선박수리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부산수리조선노동조합	87.06.20	김 민 원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 가 29	선박수리
부산정기노동조합	79.03.01	김 규 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21 - 3	미성제작
부산조선노동조합	78.07.03	홍 신 택	부산시 영도구 청학 1 동 330	조선업
부산주공노동조합	88.04.20	서 영 택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5 번지	주물
부영철강노동조합	89.07.03	박 호 길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4-5	선재압연
삼공사노동조합	87.02.13	류 국 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32	선박비품
삼성기계노동조합	87.08.25	조 용 철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4 - 2	철도차량
삼창기계노동조합	79.06.29	서 원 조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32-2	산업기계
삼천리열처리노동조합	87.08.24	조 영 대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53 - 5	기계부품
서일노동조합	88.06.29	이 기 수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61	실린다
성광밴드노동조합	75.11.19	배 명 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20	밴드
세동산업노동조합	88.04.18	장 평 곤	부산시 남구 감만 1 동 254 - 48	금속용기
세웅종합건설노동조합	89.03.20	김 용 민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 가 29	선박
세진노동조합	89.02.02	정 창 근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529	조선업
신동방노동조합	75.11.09	문 춘 회	부산시 동래구 연산 1 동 581 - 4	철문
연합조선노동조합	57.10.15	이 창 만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 가 122	조선
연합철강노동조합	77.02.12	강 진 호	부산시 남구 감만동 588 - 1	냉연강판
오리엔탈정공노동조합	90.02.17	권 동 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8	조선자재
우창공업노동조합	93.02.08	권 영 민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271-1	조선기자재
적고노동조합	88.07.12	이 승 우	부산시 사하구 감천 1 동 702	기계부품
제일전기노동조합	77.03.19	조 성 래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31	스윗치
제일중기노동조합	76.02.25	이 우 송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19-3	산업기계
조광공업노동조합	89.12.11	조 용 석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15-14	밸브
조기노동조합	67.12.17	강 영 일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 가 101	기계수리
조선선재노동조합	88.07.26	전 용 구	부산시 남구 우암 1 동 39	용접봉
태광밴드노동조합	76.02.06	양 재 권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34	밴드
태양사노동조합	87.08.11	김 근 박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267 - 1	식기류
한국선재노동조합	89.05.08	최 승 진	부산시 사상구 감전 1 동 148-1	도금철사
한국오루강침노동조합	89.04.06	정 운 국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660 - 1	미성바늘
한국주철관노동조합	80.04.19	차 윤 환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19	주물
한보철강노동조합	80.02.26	장 의 진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90	철강
한진금속노동조합	81.03.09	이 수 광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49 - 6	주물
한진섬유기계노동조합	70.04.10	오 봉 출	부산시 금정구 부곡4동 799 - 3	직기제작
한창트랜스노동조합	93.05.06	박 경 덕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58-6	트랜스
형진공업노동조합	89.07.16	이 종 동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8 - 6	못,철사

7) 경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 9.

②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 번지

③ 전화 번호 : (0551) 84 - 4021 FAX : (0551) 87 - 5052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제 선 수	삼미종합특수강	93. 1. 8.
부 의 장	정 한 식	LG전자 창원1지부	93. 1. 8.
부 의 장	김 영 준	LG전자 창원2지부	93. 1. 20.
부 의 장	허 장 도	대우중공업창원지부	93. 1. 20.
부 의 장	임 태 진	한 국 철 강	93. 1. 20.
부 의 장	김 종 국	L G 전 자 부 품	93. 1. 20.
부 의 장	김 남 수	두 원 중 공 업	93. 1. 8.
부 의 장	이 정 식	L G전자 김해지부	93. 1. 8.
사무국장	김 기 선	한 국 씨 티 즈	93. 1. 8.
회계감사	박 재 원	동 호 전 기	93. 1. 8.
회계감사	강 석 수	창 원 공 업	93. 1. 20.
회계감사	서 기 호	태 평 양 밸 브	93. 1. 20.

⑤ 경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LG산전노동조합	87.07.27	손 용 환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엘레베이터
LG전자부품노동조합	74.10.07	김 종 국	경남 양산군 양산읍 북정리 191	전자부품
고려상사노동조합	87.03.21	김 정 훈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131 - 1	와이어로프
대동기어노동조합	76.05.26	전 종 환	경남 진주시 주악동 407 - 1	각종기어
대동산업사노동조합	89.10.04	하 상 기	경남 진주시 상대 2 동 33 - 1	자동차장비
대동정밀노동조합	89.07.03	김 형 태	경남 마산시 양덕동 974 - 17	금형,사출
대명공업노동조합	88.11.24	이 신 호	경남 창원시 팔룡동 24 - 1	중장비부품
대신공업노동조합	87.08.21	윤 영 진	경남 사천군 사남면 월성리 413	농기계부품
동명중공업노동조합	87.07.21	송 균 호	경남 창원시 내동 창원공업기지 A-2 B	유업기계
동보체인노동조합	93.10.02	신 기 범	경남 양산군 정관면 예림리 940 - 20	각종체인
동양물산노동조합	79.07.16	유 춘 식	경남 창원시 창원공업기지 A - 6 B	농기계
동진전기노동조합	89.02.16	정 남 진	경남 김해군 진영읍 죽곡리 9 - 4	전기모타
동호전기노동조합	88.05.30	박 재 원	경남 진양군 지수면 송내리 산 58-1	컴퓨터헤드
두원중공업노동조합	80.01.14	김 남 수	경남 사천군 축동면 구호리 650	해상기제작
삼미종합특수강노동조합	86.12.03	김 동 철	경남 창원시 신촌동 66	강판,강봉
삼선공업노동조합	88.06.22	남 상 규	경남 창원시 성주동 54	알미늄
삼성라디에터노동조합	85.04.04	박 한 봉	경남 창원시 내동 456 - 4	라디에터
삼송노동조합	88.01.28	김 호 규	경남 창원시 성주동 52 - 3	자동차안전
삼우금속노동조합	80.06.10	명 노 후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 - 17	표면처리
삼원금속노동조합	77.05.02	김 유 규	경남 김해시 안동 430 - 5	안테나
삼천리자전거노동조합	60.10.24	김 영 택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289	자전거
삼한노동조합	87.08.13	윤 삼 원	경남 창원시 웅남동 40 - 1	자동차부품
상농기업노동조합	87.08.28	박 인 규	경남 창원시 성주동 50 - 1	프라스틱사출
성우금속노동조합	88.07.07	김 삼 근	경남 양산군 정관면 달산리 농공단지 A브록	자동차부품
세방전지노동조합	76.07.28	김 환 수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 - 2	축전지
세신실업노동조합	75.11.20	이 진 회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34 - 14	공구
세신정밀노동조합	80.04.21	정 병 철	경남 양산군 양산읍 산막리 311	주방기구
세원중공업노동조합	88.11.02	김 종 배	경남 창원시 신촌동 72	프렌트
세일공업노동조합	88.04.14	백 기 형	경남 진주시 상대동 33 - 50	농기구
수산스타노동조합	87.08.19	안 병 세	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4 - 7	프린트
스리스타노동조합	89.04.26	김 덕 관	경남 창원시 성주동 53-2	
신신기계노동조합	87.08.12	박 명 환	경남 양산군 정관면 예림리 940-13	산업용펌프
쌍용중공업노동조합	87.08.14	곽 병 수	경남 창원시 창원기계공업기지 제2단지	디젤엔진
양지금속노동조합	88.12.06	곽 평 호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 - 4	자동차부품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 산품
영진기계노동조합	89.03.18	김 익 수	경남 김해시 안동 161 - 7	자동차부품
영흥철강노동조합	87.09.17	전 덕 봉	경남 창원시 신촌동 71 - 1	와이어로프
우신홍산노동조합	89.08.17	김 인 철	경남 양산군 양산읍 하북정리 291-6	손톱깎기
유성금속노동조합	80.04.03	손 성 국	경남 양산군 웅상면 덕계리 389	알미늄
제일정밀노동조합	81.06.18	권 창 수	경남 창원시 내동 456 - 8, A 2 블록	정밀부품
진해삼미노동조합	92.02.07	구 향 주	경남 진해시 이동 1	전자부품
진흥철강노동조합	88.03.10	송 낙 철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33 - 4	아연철선
창신산업노동조합	87.10.06	박 칠 도	경남 창원시 양곡동 192 - 4	농기계
창원공업노동조합	87.09.07	강 석 수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 - 4	단조품
창원기화기노동조합	87.10.22	김 성 철	경남 창원시 이동 852 - 12	자동차부품
충무연합조선노동조합	86.05.03	김 점 덕	경남 충무시 봉평동 162 - 4	목조선
코렉스스포츠노동조합	88.05.03	김 재 홍	경남 창원시 성산동 70 번지	자전거
태광특수기계노동조합	87.08.10	김 상 목	경남 창원시 신촌동 76	제지기
태양코팅노동조합	89.09.02	김 정 국	경남 창원시 성산동 43	주방기구
태주실업노동조합	88.09.09	이 인 호	경남 창원시 성주동 48 - 5	주물
태평양벨브노동조합	89.04.23	서 기 호	경남 양산군 양산읍 산막리 310 - 8	벨브
태화기계노동조합	79.07.06	오 광 식	경남 창원시 창원공업기지 A-6B	각종연삭공
풍성전기창원노동조합	89.03.08	신 논 기	경남 창원시 성산동 47	전장품
풍성정밀노동조합	90.05.24	임 창 수	경남 창원시 외동 853 - 5	자동차제기
한국동양유전노동조합	87.08.20	이 문 효	경남 충무시 도남1동 468	전자부품
한국마그넷노동조합	86.12.16	이 진 수	경남 진주시 상대동 33 - 45	마그넷
한국스핀들노동조합	88.07.18	김 성 천	경남 김해시 안동 161 - 12	자동차부품
한국시티즌노동조합	87.12.10	김 기 선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4	시계
한국일선노동조합	88.07.05	박 기 훈	경남 마산시 양덕동 974-17	전자부품
한국정상화성노동조합	88.07.04	심 문 보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4	싸이클류브
한국중천노동조합	87.08.11	최 해 경	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4 - 17	타임스위치
한국지엠비노동조합	88.11.15	이 유 출	경남 창원시 성산동 8 창원공업기지 2단지	자동차부품
한국철강노동조합	87.08.10	임 태 진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621	철강
한국카시오노동조합	89.02.03	육 태 봉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 - 4	전자시계
한덕산업노동조합	88.10.14	전 영 섭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458 - 10	못
한일기계노동조합	90.01.18	이 창 규	경남 양산군 양산읍 북정리 182	자동차부품
한일제관노동조합	87.08.17	이 동 호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11 - 1	통조림용공
효성기계노동조합	83.03.26	이 문 호	경남 창원시 성산동 77	모타싸이클

8) 울산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9. 9. 1.

② 소재지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 - 7

③ 전화 번호 : (0522) 76 - 5880 FAX : (0522) 74 - 9631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기 한 도	고 려 아 연	94. 12. 1.
부 의 장	김 복 천	정 일 공 업	93. 8. 26.
부 의 장	박 용 도	세 운 공 업	94. 1. 21.
사무국장	이 용 우	현 대 알루미늄	93. 8. 26.
교육선전국장	노 현 돈	동 회 산 업	94. 12. 1.
회계감사	장 병 문	금 강 공 업	93. 8. 26.
회계감사	오 상 철	동 회 산 업	94. 12. 1.

⑤ 울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LG금속노동조합	83.03.21	신 택 기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대정리 70	동판등
고려아연노동조합	77.10.09	기 한 도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대정리 505	아연괴
금강공업노동조합	90.08.11	장 병 문	울산시 울주구 삼남면 가천리 140-25	건설자재
대덕사노동조합	94.04.14	정 후 태	울산시 중구 효문동 712-1	자동차부품
대일공업노동조합	85.06.07	전 형 태	울주구 두서면 전음리 두서농공단지 302	자동차부품
대한알루미늄노동조합	78.08.03	한 경 남	울산시 중구 여천동 1	인코트
덕양산업노동조합	87.08.10	김 우 배	울산시 중구 연암동 945	자동차부품
동희산업노동조합	87.08.11	오 상 철	울산시 남구 황성동 218	자동차부품
부산기업노동조합	89.05.08	강 성 구	울산시 남구 여천동 750 - 2	자동차부품
삼주기계노동조합	88.12.16	문 성 일	울산시 중구 효문동 750 - 1	자동차부품
세찬산업노동조합	88.05.17	윤 상 원	울산시 중구 연암동 496 - 1	자동차부품
우영산업노동조합	87.08.29	연 기 섭	울산시 중구 연암동 714 - 15	자동차부품
정일공업노동조합	87.09.12	김 복 천	울산시 중구 효문동 212 -11	자동차부품
정일기업노동조합	88.10.04	박 복 순	울산시 중구 양정동 700	자동차부품
진도노동조합	85.01.31	양 용 진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길천리 1 - 26	콘테이너
한일이화노동조합	87.07.11	이 경 해	울산시 중구 연암동 925 - 1	자동차부품
한진중공업노동조합	87.08.05	황 준 영	울산시 남구 용감동 492	선박건조
현대강관노동조합	87.08.05	남 상 철	울산시 중구 염포동 282	파이프
현대공업노동조합	89.03.21	최 상 들	울산시 남구 부곡동 산 271-6	자동차부품
현대알루미늄노동조합	87.08.03	이 두 락	울산군 상북면 길천리 1	알미늄

9) 대구.경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②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4 - 73

③ 전화 번호 : (053) 564 - 0128 FAX : (053) 564 - 0127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장 지 태	경 창 산 업	95. 3. 21.
부 의 장	김 무 호	평 화 크 랫 치	93. 3. 28.
부 의 장	윤 태 길	아세아종합기계	93. 3. 28.
사무국장	이 길 호	동 서 물 산	93. 3. 28.
조직국장	주 태 화	삼 성 제 침	93. 3. 28.
기획실장	공 석 철	동 국 강 재	93. 3. 28.
교선국장	김 윤 이	삼 협 산 업	95. 1. 21.
회계감사	권 태 훈	(주) 영 진	93. 3. 28.
회계감사	윤 승 오	화 신 제 작 소	93. 3. 28.
회계감사	나 영 섭	일 지 산 업	93. 3. 28.
총무부장	김 순 창	평 화 정 공	95. 1. 10.
조직부장	김 춘 종	미 주 금 속	93. 3. 28.
교육부장	정 한 근	동 해 전 장	95. 1. 10.
조사통계부장	정 용 목	세 왕 금 속	95. 1. 10.
노사대책부장	조 동 권	화 신 테 크	95. 1. 10.
복지부장	정 문 호	삼 도 기 전	93. 3. 28.
기획부장	김 주 현	금 용 기 계	93. 3. 28.
체육부장	이 용 대	대 한 중 석	95. 1. 10.
안전대책부장	권 종 열	삼 립 산 업	93. 3. 28.
법규부장	유 병 충	삼 익 정 공	95. 1. 10.

⑤ 대구.경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 산품
성산노동조합	89.03.09	전 봉 진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43 B 4 L	자동차부품
신생공업노동조합	72.06.01	이 영 용	대구시 북구 침산 3 동 260 - 1	튕날
쌍용중공업대구노동조합	68.02.08	이 경 문	대구시 달서구 성서 2차단지 1지구 18B 2L	섬유기계
아세아산업노동조합	80.03.01	서 무 환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20	농기계
아세아종합기계노동조합	87.06.21	윤 태 길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금동 168	농기계
영남주물노동조합	71.10.01	박 민 식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34	주물
영일기공노동조합	89.12.05	장 진 복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 - 31	자전거부품
영진노동조합	85.11.15	권 태 훈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 - 52	자동차부품
영풍제관노동조합	89.05.31	이 성 곤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42	음료수캔
유진전장노동조합	93.07.12	강 한 영	대구시 북구 검단동 777-1	자동차부품
일지산업노동조합	89.02.01	나 영 섭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177 - 1	자동차부품
평화발레노노동조합	89.01.28	서 윤 배	대구시 달서구 장동 성서공단 105 B	자동차부품
평화산업노동조합	75.04.10	신 윤 섭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 17	자동차부품
평화오일철노동조합	78.10.14	유 길 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 88	자동차부품
평화정공노동조합	88.09.20	김 순 창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55	자동차부품
평화크랫치노동조합	74.11.30	김 무 호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14	자동차부품
한국브레트노동조합	92.06.10	김 석 진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103-21	숏트볼
협립제작소노동조합	68.06.10	신 기 봉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31	양산
경신공업노동조합	87.09.10	심 경 수	경북 경주군 강동면 오금리 산 11	자동차부품
남종농기사노동조합	83.03.27	박 태 용	경북 김천시 신음동 111 - 1	농기계
대부기공노동조합	89.05.18	홍 정 표	경북 경주군 외동읍 구어리 12 - 2	자동차부품
대영베어링노동조합	81.03.31	박 승 용	경북 김천시 신음동 79 - 3	베어링
대한소결금속노동조합	88.10.21	배 만 국	경북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 10	다이캐스팅
대한중석노동조합	81.01.21	이 용 대	경북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304	다이캐스팅
동국강재노동조합	88.11.01	공 석 철	경북 달성군 논공면 복리 1 - 16	철골
삼립정공노동조합	92.06.15	여 선 동	경북 경산군 진량면 당곡리 산 22-1	자동차부품
세명기업노동조합	75.06.19	박 윤 준	경북 경산군 진량면 진량공단 1 L 24 B	자동차부품
세왕금속노동조합	87.08.27	정 용 목	경북 영천시 망정동 390	병뚜껑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경창브레이크노동조합	88.09.09	김 인 태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 - 13	자동차부품
경창산업노동조합	85.07.20	장 지 태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72	자동차부품
경창와이퍼시스템노동조합	88.09.07	백 영 식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00 - 86	자동차부품
금융기계노동조합	90.03.24	김 주 현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666 - 1	기계제작
남선알미늄노동조합	68.08.25	안 병 호	대구시 동구 방촌동 1050	알미늄
남양금속노동조합	88.11.09	조 회 성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	주물
남양정밀노동조합	89.04.20	김 진 옥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54	
대건기계노동조합	90.04.06	우 정 훈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성서공단내 37B 2L	섬유기계
대광보일러노동조합	75.08.18	김 호 식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03 - 1	보일러
대동금속노동조합	88.02.16	김 형 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18	주물
대리정밀노동조합	88.07.14	임 종 춘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북리 1-121	자동차부품
대성정기노동조합	90.04.10	이 종 규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00 - 32	자동차부품
대원기계노동조합	88.10.10	박 인 환	대구시 서구 이현동 44 - 26	섬유기계
대철노동조합	70.10.22	조 규 원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05 - 1	자동차부품
동서물산노동조합	88.04.13	이 길 호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 - 45	쌀고제작
동양주물노동조합	88.03.19	이 광 회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20	주물
동원금속대구노동조합	90.02.01	이 상 수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6	파이프
동해전장노동조합	89.02.27	정 한 근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076-4	자동차부품
동협노동조합	89.01.28	이 종 규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254	
동협정밀노동조합	88.03.06	차 철 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358-15	
명성기계노동조합	89.06.07	이 재 연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2차 2지구 52B 14L	자동차문
미주금속노동조합	78.08.16	김 춘 중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 - 39	자동차부품
삼도기전노동조합	87.08.24	정 문 호	대구시 서구 이현동 45 - 55	자동차부품
삼립산업노동조합	68.06.18	권 종 열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236 - 3	자동차부품
삼립전기노동조합	91.04.10	김 채 민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 - 4	자동차부품
삼성제침노동조합	91.05.27	주 태 화	대구시 북구 노원 2 가 189	제침
삼익공업노동조합	87.08.18	하 태 광	대구시 북구 침산동 750	줄
삼익정공노동조합	89.08.16	류 병 충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25-2 42 B - 3 L	기계제작
삼협산업노동조합	87.03.28	김 윤 이	대구시 달서구 장동 647 - 3	자동차부품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 산품
새운공업노동조합	87.08.13	박 용 도	경북 경주군 외동읍 모화리 1747-60	자동차부품
신삼익노동조합	88.08.18	이 상 준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1-6	쌀고
신아금속노동조합	84.10.26	손 순 석	경북 영천시 본촌동 440	자동차부품
아진산업노동조합	79.07.25	신 봉 식	경북 경산군 진량면 진량공단 2B 5L	자동차부품
영신정공노동조합	89.05.20	공 석 봉	경북 경주군 천북면 오야리 408	자동차부품
유진산업노동조합	93.12.03	김 효 연	경북 경주군 외동읍 모화리 1700 번지	자동차부품
유진정공노동조합	92.04.21	강 준 호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749 - 1	자동차부품
전우개발노동조합	88.12.08	민 경 선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360	변압기
정일산업노동조합	95.01.10	김 회 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시방리 산 2-3	자동차부품
진영종합기계노동조합	81.03.14	한 명 진	경북 김천시 대광동 1000 - 28	농기계
한영전자노동조합	90.05.07	이 호 진	경북 김천시 백옥동 241 - 3	트랜지스터
현대발브노동조합	93.08.16	이 석 곤	경북 경주군 외동읍 계곡리 146 - 1	밸브
화신제작소노동조합	88.05.04	윤 승 오	경북 영천시 언하동 412	자동차부품
화신테크노동조합	88.04.29	조 동 권	경북 영천시 도남동 도남농공단지 193	자동차부품

10) 구미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3. 2. 10.
 ② 소재지 : 구미시 비산동 26 번지 (광명정비 2 층)
 ③ 전화 번호 : (0546) 464 - 3643 FAX : (0546) 464 - 3643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박 병 도	L G 정 밀	93. 2. 10.
부 의 장	신 송 근	동국종합전자	93. 2. 10.
부 의 장	이 병 균	대 우 전 자	93. 2. 10.
부 의 장	김 장 수	일성기계공업	93. 2. 10.
부 의 장	천 광 회	LG 전자구미1지부	94. 3. 11.
노사대책국장	김 상 일	정 화 금 속	93. 2. 10.
홍보국장	김 영 호	태 석 전 기	93. 2. 10.

⑤ 구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 조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 산품
LG마이크로닉스노동조합	87.08.14	노 송 표	구미시 구포동 624	새도우
LG반도체노동조합	90.02.09	이 진 석	구미시 임수동 1191	반도체
LG정밀노동조합	87.08.17	원 종 도	구미시 공단동 133	계측기
LG정보통신노동조합	83.07.05	김 문 섭	구미시 공단동 299	교환기
고려전기노동조합	90.11.26	이 명 회	구미시 공단동 171	고일
동국종합전자노동조합	87.08.13	신 송 근	구미시 공단동 321	카세트
두고전자노동조합	89.02.08	김 경 환	구미시 공단동 163	PCB 히타
두산전자노동조합	87.08.20	오 재 두	구미시 구포동 644	키판원판
새한전자노동조합	88.06.22	김 충 원	구미시 공단동 130 - 7	키판원판
신성기업노동조합	88.10.23	유 병 성	구미시 공단동 153	PCB
실트론노동조합	89.01.06	김 유 연	구미시 임수동 274	반도체
오리온금속노동조합	88.08.18	김 우 철	구미시 공단동 148	CRT부품
오리온전기노동조합	82.11.03	남 중 곤	구미시 공단동 129	반도체
일성기계노동조합	82.09.03	김 장 수	구미시 공단동 194	염색기
정화노동조합	74.06.11	김 상 일	구미시 공단동 169	PCB
클레스트라하우저만도노동조합	8.90.224	한 경 석	구미시 황상동 502 - 4	철재칸막이
태평양금속노동조합	88.07.28	김 길 득	구미시 공단동 157	영구자석
한국대화금속노동조합	89.03.20	김 현 철	구미시 공단동 128	샷시
한국델코전지노동조합	87.08.19	안 석 찬	구미시 황상동 495	자동차밧테리
한국신영노동조합	87.08.18	김 진 섭	구미시 공단동 162	콘덴서
한국아이지모타노동조합	89.04.06	박 미 숙	구미시 공단동 142	소형모타
한국전자노동조합	88.10.23	이 대 영	구미시 공단동 149	반도체

11) 포항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1. 11. 23.
- ② 소재지 :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 - 11
- ③ 전화 번호 : (0562) 83 - 3728 FAX : (0562) 83 - 3729
- ④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백 중 부	부산파이프	93. 12. 8.
부 의 장	강 학 중	그 린 산 업	93. 12. 8.
부 의 장	정 용 근	동부제강 포항지부	93. 12. 8.
사무국장	김 영 곤	삼 정 강 업	95. 3.
회계감사	김 형 복	동 일 철 강	93. 12. 8.
회계감사	이 상 용	한 금	93. 12. 8.

⑤ 포항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그린산업노동조합	88.07.01	강 학 중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1 보훈후생관 5층	철강
동방금속공업노동조합	89.07.01	정 대 근	포항시 남구 호동 567	목수선재
동일기업노동조합	88.07.04	이 동 익	포항시 남구 해도 1동 432-1	철강
부산파이프노동조합	74.03.11	박 철 우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 - 1	강관
삼정강업노동조합	89.02.08	김 영 곤	포항시 남구 괴동동 967	철강
서한정기노동조합	89.06.10	강 진 유	포항시 남구 호동 포철 제 2 단지 72	자동차부품
세아특수강노동조합	89.03.21	우 법 윤	포항시 남구 장흥동 747	냉각압조용
조선선재노동조합	88.12.10	전 문 중	포항시 남구 장흥동 865	선재
코스틸노동조합	88.04.24	김 용 수	포항시 남구 호동 286	철근
포철노재정비노동조합	88.06.29	송 만 현	포항시 남구 호동 611	고로보수
포철산기노동조합	88.06.29	성 흥 석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 - 1	정비
한금노동조합	90.12.05	이 상 용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74	냉간압연
화성기업노동조합	89.03.24	김 우 석	포항시 남구 해도동 171-18 협력회관(내)	철강
흥화공업노동조합	87.08.25	강 진 포	포항시 남구 괴동동 24	철구조물

12) 전남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30.
- ② 소 재 지 : 전남광역시 북구 유동 40 번지
- ③ 전화 번호 : (062) 524 - 8581 FAX : (062) 528 - 8671
- ④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노동 조합명	선 출 일 자
의 장	정 기 춘	화 천 기 공	93. 1. 19.
부 의 장	박 준 근	태 성 기 공	93. 1. 19.
사무국장	신 용 석	엘지전자부품	93. 1. 19.
회계감사	권 일 수	서 울 차 체	95. 1. 19.
회계감사	전 상 근	한국신광전자	93. 1. 19.

⑤ 전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광동정밀노동조합	91.04.24	김 영 주	전남 승주군 서면 선평리 256 - 5	제철
금성기계노동조합	78.04.04	임 길 섭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4	자동차부품
남선선반노동조합	78.07.19	임 경 련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273 - 6	공작기계
대산노동조합	87.08.24	진 중 화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4 - 1	자동차부품
대성정밀노동조합	95.03.10	조 재 영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69	
대아산업노동조합	87.08.20	강 성 찬	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729 - 6	자동차시트
부국산업노동조합	88.11.01	김 동 인	전남 동광양시 금호동 627	제철
부국철강노동조합	88.11.08	장 경 식	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738-1	제철
서울프레스노동조합	81.03.28	김 명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2 - 5	자동차부품
신흥금속노동조합	92.04.15	유 영 선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4-1	
아름기공노동조합	87.08.11	김 경 범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681 - 1	유압유니트
천기제강노동조합	85.06.17	이 은 정	전남 승주군 서면 압곡리 291	와이어로프
캐엠사노동조합	91.11.26	김 영 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854	밀장비
대성기공노동조합	88.12.24	김 상 곤	전남 승주군 서면 압곡리 720	제철
포스틸노동조합	88.07.20	예 정 오	전남 승주군 서면 압곡리 1019	강관,강단
포철기연노동조합	89.08.05	장 옥 기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656 - 4	설비제작
하남전자노동조합	85.03.17	박 기 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5 - 1	알미늄
한국신광전자노동조합	89.11.26	전 상 근	전남 승주군 서면 선평리 35	전자부품
한국알프스노동조합	89.05.16	조 삼 담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0 - 1	전자부품
화천기공노동조합	77.03.28	구 명 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6 - 1	전자부품

13) 전북지역산하 단위노조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기아특수강노동조합	66.05.06	임 문 택	전북 군산시 소룡동 1 - 6	철도차량
대부전선노동조합	89.03.05	김 두 한	전북 이리시 팔봉동 839 - 1	전선마그넷
동양기업노동조합	88.04.28	양 남 용	전북 군산시 경암동 486 - 7	재단가위
우민주철노동조합	87.11.10	백 병 기	전북 군산시 소룡동 466	상수도관

14) 강원지역산하 단위노조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주생산품
21세기기계노동조합	91.07.11	박 종 래	강릉시 입암동 21-6	자동차부품
대우자동차춘천정비노동조합	93.07.12	임 석 모	춘천시 근화동 786-1	차량정비
속초지역노동조합	70.01.26	신 종 찬	속초시 금호동 482-5 근로복지회관	조선업
이수세라믹노동조합	93.07.14	정 규 문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12	세라믹
한일전기노동조합	75.10.21	장 석 웅	원주시 우산동 공업단지 10 브럭	가전제품

2. 지부현황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LG전자노동조합 구로지부	63.05.30	이 철 구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459 - 9
LG전자노동조합 구미1지부	63.05.05	천 광 회	경북 구미시 공단동 184
LG전자노동조합 구미2지부	92.01.24	장 석 춘	경북 구미시 진평동 6 B
LG전자노동조합 김해지부	79.10.09	이 정 식	경남 김해시 안동 259 - 1
LG전자노동조합 오산지부	95.02.06	김 일 섭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79
LG전자노동조합 창원1지부	63.05.05	정 한 식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391 - 2
LG전자노동조합 창원2지부	63.05.30	김 영 준	경남 창원시 성산동 76
LG전자노동조합 청주1지부	63.05.30	권 종 안	충북 청주시 향정동 50 제 3공단
LG전자노동조합 청주2지부	70.02.26	조 동 철	충북 청주시 향정동 73
LG전자노동조합 평택지부	63.05.30	나 찬 경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산 19-1
경방기계노동조합 반월지부	88.06.29	강 영 석	안산시 성곡동 544-2 (B블럭)
대우전자노동조합 광주지부	83.04.02	박 상 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1 - 1
대우전자노동조합 구미지부	83.03.28	이 병 균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6
대우전자노동조합 여주지부	87.09.02	신 종 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동리 185
대우전자노동조합 인천지부	83.03.28	박 성 구	인천시 남구 용현5동 604
대우전자노동조합 주안지부	83.03.28	김 정 근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1 - 5
대한전선노동조합 시흥계전지부	76.06.15	김 영 배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993 - 4
대한전선노동조합 시흥전선지부	76.06.15	김 형 식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113 - 119
대한전선노동조합 안산지부	87.08.08	이 항 래	안산시 성곡동 603번지 20블럭
대한전선노동조합 안양전선지부	76.06.15	신 향 철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785
동부제강노동조합 부산지부	66.04.29	이 양 우	부산시 북구 학장동 725 - 4
동부제강노동조합 인천지부	66.04.29	김 한 정	인천시 서구 가좌동 590 - 1
동부제강노동조합 포항지부	88.07.20	정 용 근	경북 포항시 괴동동 792 - 1
동아건설노동조합 미사리지부	74.06.29	김 판 균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 - 5
동아건설노동조합 부산지부	87.11.08	김 덕 갑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 - 37
동아건설노동조합 천안지부	74.06.29	류 근 식	충남 천안군 성거읍 천흥리 315 - 4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동아건설노동조합장비사업소지부	88.06.20	정 세 영	충남 온양시 실옥동 250
동아건설노동조합창원볼트지부	92.12.10	송 석 진	경남 창원시 대원동 91 - 92
로움코리아노동조합 구로지부	78.06.27	문 선 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 - 22
롯데알미늄노동조합 반월지부	76.04.08	김 천 섭	안산시 원시동 822
서울남부금속노동조합 신화방기분회	94.03.25	김 호 겹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 가 1 - 3
세진전자노동조합 오산지부	77.01.23	유 재 열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57
LG전선노동조합 구미지부	67.05.12	김 중 기	구미시 공단동 190
LG전선노동조합 군포지부	87.09.24	조 홍 수	경기도 군포읍 당정동 200
LG전선노동조합 안양지부	67.05.12	방 한 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
국제전선노동조합 전주지부	68.05.03	강 철 순	전북 전주시 팔복동 3 가 408
기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81.02.14	장 덕 남	광주시 서구 광천동 262
기아서비스노동조합 대구지부	81.02.14	이 상 백	대구시 북구 노원 3 가 558
기아서비스노동조합 대전지부	81.02.14	조 일 형	대전시 동구 대화동 1 - 15
기아서비스노동조합 본산지부	86.02.22	홍 민 기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514 - 5
기아서비스노동조합 부산지부	81.02.14	박 팔 만	부산시 북구 감전동 159-4
기아서비스노동조합 성동지부	81.02.14	박 정 원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167 - 6
기아서비스노동조합 수원지부	91.10.14	최 병 삼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546
기아서비스노동조합 시흥지부	81.02.14	신 부 호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514 - 5
기아서비스노동조합 영등포지부	81.02.04	김 재 홍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 가 16 - 2
기아서비스노동조합 원주지부	83.06.25	이 광 선	원주시 우산동 450
기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91.10.15	이 정 호	인천시 서구 가좌동 106
기아서비스노동조합 창원지부	85.10.11	장 정 면	경남 창원시 대원동 78
기아서비스노동조합 청주지부	80.09.30	김 홍 기	충북 청주시 신봉동 158
두산기계노동조합 창원지부	88.08.27	장 정 철	경남 창원시 대원동 82
현대전자노동조합 청주지부	94.10.01	윤 동 현	충북 청주시 봉명동 37-21
LG기전노동조합 보수부지부	87.07.25	전 의 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 2 (원정BD3F)
LG기전노동조합 천안지부	87.07.25	유 승 창	충남 천안군 목천면 삼송리 27-1
경동산업노동조합 대구지부	90.10.01	김 재 규	경북 달성군 논공면 북리 1-144
대림통상노동조합 김포지부	87.08.13	김 효 중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금곡리 158 - 2
대림통상노동조합 인천지부	87.08.10	박 병 두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9 - 2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안산지부	75.12.03	조 권 식	안산시 팔공이동 85-1 안산서비스센터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안양지부	61.12.10	조 인 근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462 - 2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영등포지부	61.12.10	조 근 식	경기도 광명시 철산 1 동 120 - 3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창원지부	61.12.10	허 장 도	경남 창원시 성주동 24번지
대우통신노동조합 소래지부	81.03.02	김 윤 제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60 - 3
대한제당노동조합 울산지부	90.02.13	장 인 식	울산시 남구 용잠동 480
동양철관노동조합 충주지부	91.01.26	이 창 재	충북 충주시 용탄동 168
한영알미늄노동조합 안산지부	76.10.24	김 윤 식	안산시 원시동 833 - 2
한화기계노동조합 창원지부	77.08.26	장 준 영	경남 창원시 내동 452-9
후지키대원전기노동조합구로지부	68.03.02	김 종 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1 - 1
동양강철노동조합 2 지부	90.09.28	이 종 일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51
동양강철노동조합 3 지부	81.02.14	최 연 식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75-2
연합전선노동조합목천지부	91.07.01	원 용 덕	충남 천안군 목천면 소사리 242-2
고려제강노동조합 수영지부	82.06.06	이 재 근	부산시 남구 망미동 475
고려제강노동조합 양산지부	85.06.13	홍 종 성	경남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 753 - 1
고려제강노동조합 유산지부	84.08.15	박 병 도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127 - 27
대동조선노동조합진해지부	88.08.27	현 역 조	경남 진해시 원포동 139
동국제강노동조합 인천지부	89.02.20	지 원 철	인천시 동구 송현동 1
동국제강노동조합 포항지부	87.09.01	김 정 영	경북 포항시 포철 2 연관단지 18 B
적고노동조합 김해지부	88.07.12	이 성 숙	경남 김해군 진영읍 죽곡리 10-1 유목농공
한국주철관노동조합 포항지부	80.04.19	김 말 택	경북 포항시 청림동 1 - 138
LG산전노동조합 서울지부	87.07.01	박 기 준	중구 을지로 2 가 165 - 1 (동화빌딩1층)
LG산전노동조합 오산지부	87.07.27	유 태 승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736
LG산전노동조합 창원지부	87.07.01	주 성 민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LG전자부품노동조합 광주지부	74.10.07	최 병 배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8 - 1
삼미종합특수강노동조합울산지부	88.11.25	김 규 섭	울산시 남구 여천동 250
삼선공업노동조합 구로지부	88.06.23	박 춘 길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45 - 11
삼선공업노동조합 반월지부	88.06.22	김 석	안산시 목내동 393-1
상농기업노동조합 부산지부	78.08.28	문 병 희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96 - 9
상농기업노동조합 양산지부	78.08.28	김 진 태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476 - 68
성우금속노동조합 부산지부	88.07.07	정 성 수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3-9

노 동 조 합 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세방전지노동조합 광주지부	89.12.16	이 관 우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500 - 4
창원기화기노동조합 대구지부	93.03.12	지 부 남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95 - 11
한국철강노동조합 창원지부	87.08.10	김 용 회	경남 창원시 신촌동 70
한일제관노동조합 수원지부	87.08.17	신 재 경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12
LG금속노동조합 장항지부	83.01.27	설 광 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78
대일공업노동조합 연양지부	85.06.05	민 영 일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양등리 216
정일공업노동조합 평택지부	87.09.21	정 기 열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울포리 28 - 5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85.01.31	변 승 호	인천시 북구 작전동 505 - 7
진도노동조합 연양지부	85.01.31	박 원 문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길천리 1 - 26
진도노동조합 인천지부	85.01.31	김 성 찬	인천시 남구 도화동 1 - 46
남선일미농노동조합 논공지부	68.08.25	김 선 회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 13
삼도기전노동조합 안산지부	88.03.24	이 경 모	안산시 신길동 1061
경신공업노동조합 강동지부	87.10.01	송 경 하	경북 경주군 강동면 오금리 산 11
경신공업노동조합 경주지부	93.11.04	서 동 해	경북 경주시 황성동 42
경신공업노동조합 아산지부	89.07.13	강 홍 진	충남 아산군 음봉면 덕지리 463-5
경신공업노동조합 인천지부	87.10.01	김 현 숙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8 - 3
화신제작소노동조합도남지부	88.05.04	이 석 기	경북 영천시 도남동 도남농공공단내 3 호
화신테크노동조합대구지부	88.04.29	손 민 호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4 B - 2 L
두산전자노동조합 증평지부	88.10.15	변 대 영	충북 괴산군 증평읍 용강리 산 661
태평양금속노동조합부평지부	87.08.17	신 용 일	인천시 북구 갈산동 14-3
부산파이프노동조합 서울지부	74.03.11	윤 중 삼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80 - 15
삼정강업노동조합 광양지부	89.08.05	이 근 수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655 - 1
포철노재정비부문노조 광양지부	88.07.23	임 영 수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7-12
기아특수강노동조합 인천지부	78.02.10	김 부 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0 - 8
경원세기노동조합 서울지부	89.11.11	임 정 섭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253
경원세기노동조합 아산지부	93.06.15	이 정 용	충남 아산군 탕정면 동산리 24-1
반도기계노동조합반월지부	89.07.03	이 창 재	안산시 신길동 1058 - 7
대경화성노동조합제2공장지부	93.03.31	김 남 수	안산시 성곡동 638 번지
서울차량노동조합 시흥지부	67.10.03	백 정 훈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272
서울차륜노동조합 반월지부	67.10.13	고 홍 선	안산시 신길동 1125 (13-14)
서울차체노동조합 광주지부	67.10.13	김 홍 규	광주시 서구 내방동 643
서울차체노동조합 창원지부	67.10.13	이 지 택	경남 창원시 차룡공단 10 - 3 블록
일진노동조합 통신지부	87.08.22	송 정 규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 2 리 산 7

3. 신규조직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소 재 지	주 생산품
엘코코리아	김 진 태	94. 4. 18.	금천구 구로3동 183-1	전자부품
계림메디칼	최 완 식	94. 7. 7.	강남구 역삼동 735-32	의료기기
쌍용창동정비	김 광 우	95. 1. 11.	도봉구 창4동 181-16	자동차정비
한국셀마스타	이 윤 석	94. 4. 8.	김포군 김포읍 감정리 600	셀
을 지 전 기	임 상 문	94. 4. 19.	하남시 감일동 266	전기제품
한 일 산 업	신 호 철	94. 5. 19.	시흥시 정왕동 24	
대 성 정 공	조 재 현	94. 7. 13.	화성군 팔달면 구정리 산 88	자동차부품
은 성 산 업	김 종 철	94. 8. 5.	이천군 신둔면 소정리 179	콘텐샤
이 천 자동차	전 옥 구	94. 8. 9.	이천군 마장면 표교리 164-1	자동차정비
도 남 메 탈	조 창 제	94. 11. 21.	안산시 원시동 784-12	
삼 화 전 자	유 일 열	94. 11. 21.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211-1	세라믹
대 용 산 업	이 성 곤	95. 2. 15.	안성군 계록면 미야리 273-11	자동차부품
남 양 공 업	노 춘 용	95. 3. 27.	안산시 목내동 390	자동차부품
신생플랜트산업	허 주 영	95. 3. 30.	송탄시 모곡동 438-2	산업기계
삼 진 기 공	황 영 남	94. 9. 23.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60-2	
현 대 정 기	구 궁 환	94. 10. 10.	인천시 북구 작전동 679-2	철구조물
건화전기공업	김 기 준	94. 7. 7.	아산군 인주면 관암리 429-2	철강, 관
환 영 철 강	안 선 호	95. 1. 17.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7	건조기
신흥기업사	조 상 기	94. 11. 3.	청주시 향정동 77-7	자동차부품
엘림엔지니어링	김 혁 재	94. 12. 13.	울성군 대소면 부윤리 7-5	중장비
대농중공업	이 관 회	94. 12. 31.	청주시 송정동 27-5	
종 합 해 사	송 종 길	94. 4. 18.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2가 199	밸브
한 일 밸 브	김 종 도	95. 2. 16.	부산시 북구 감전동 154-1	자동차부품
대 덕 사	김 명 호	94. 4. 15.	울산시 중구 효문동 712-1	자동차부품
대 원 기 공	박 수 용	94. 8. 18.	울산시 중구 명촌동 225-1	자동차부품
대진폴리머	윤 시 용	94. 10. 10.	울산군 두서면 전읍리 350	자동차부품
대 성 정 밀	조 재 영	95. 3. 10.	광주시 광산구 장덕용 969	자동차부품

4. 외국인 투자기업체 현황

기업체명	회사대표자	투자국	투자비율		자본금	생산품	조합원	근로시간	
			한국	외국				일	주
남 성 전 기	윤봉수	일 본	67	33	170 억	카오디오	300	8	44
로움 코리아	심장섭	일 본	13	87	200 억	저 항 기	650	7	42
롯데 알미늄	전계덕	일 본	15	85	33 억	알 미 늄	550	8	44
롯데 전자	김중기	네덜란드				오 디 오	500	8	44
한국시그네틱스	로버드	네덜란드		100		반 도 체	1,000	8	44
한국 콘베어	김종연	일 본	50	50	12 억	콘 베 어	100	8	44
한국 음향	배선갑	일 본	50	50	14 억	스 피 커	150	8	44
키스톤 밸브	방 철	미 국	10	90		발 브	30	8	44
서진대금	이기대	일 본	49	51	300 억	자동차부품	90	8	44
신라엔지니어링	박헌정	일 본	55	45	17 억	자동차부품	50	8	44
신한일 전기	정명식	일 본		100					
한국브레이크	강웅식	미 국	51	49		브레이크	255	8	44
동서공업	유홍우	영 국	50	50	22 억	키스톤핀	150	8	44
삼화제관	강병준	일 본	80	20	110 억	음 료 관	300	8	44
LG기전		일 본	86.6	13.4	210 억	승 강 기	1,568	8	44
대동케이블	이중화	일 본	70	30	6억 7천	케 이 블	300	8	44
로얄동도금속	박신규	일 본	75	25	48 억	수도꼭지	210	8	44
린나이코리아	최창선	일 본	51	49	6 억	가스기기	310	8	44
코리아스파이서	유준기	미 국	51	49	122 억	자동차부품	800	8	44
한국샤프	이기환	일 본	50	50	14억 8천	오 디 오	500	8	44
대한화학기계	이영호	일 본	51	49	43 억	화학프렌트	93	8	44
한국 G.M.B	구운모	일 본	51	49	20억7천	자동차부품	10	8	44
아주금속	석성길	일 본	72	28	7 억	자동차부품	200	8	44
풍성정밀	황규삼	일 본	50	50	13억2천	자동차기계	500	8	44

기업체명	회사대표자	투자국	투자비율		자본금	생산품	조합원	근로시간	
			한국	외국				일	주
한국 시티즌	오나티 아끼노	일본		100	40 억	시 계	200	8	44
태 양 코 팅	천기승	일본	49	51	10 억	주방용기구	500	8	44
창 원 공 업	이희찬	일본	70	30	30 억	자동차단조	400	8	44
한국동양유전	천전공	일본	30	70	19 억	전자 부품	280	8	44
한 일 제 관	정호발	미국	60	40	59억 7천	통조림용공	720	8	44
한국 카시오	소리다	일본		100	35 억	전자시계	250	8	44
세 방 전 지	김성두	일본	65	35	70 억	축 전 지	755	8	44
LG전자부품	김혜수	일본	51	49	250 억	전자부품	2,350	8	44
한 국 일 선	김두영	일본		100	12 억	자동차부품	288	8	44
평화 발레오	김상태 아노르백	프랑스	50	50	5억 5천	자동차부품	478	8	44
성 산	이충곤 비어링	미국	50	50	17억 8천	조명기기	200	8	44
부 산 정 기	홍순명	미국	56	44	27 억	재 룡 기	56	8	44

5.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 (대표자)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서울지역				
남 성 전 기	전경임	오갑순	95. 1. 10.	임시대회
동 해	정동익	이경옥	95. 1. 12.	임시대회
청 우 공 업	박일수	이영선	94. 5. 20.	임시대회
한국시그네틱스	서민애	최현숙	94. 12. 1.	임시대회
경기지역				
국 제 전 선	김영기	이두세	95. 1. 25.	
L G 전 선	장 건	도정복	95. 12. 12.	
LG전선 안양지부	방한석	조필구	95. 12. 12.	
LG전선 군포지부	조홍수	이우창	94. 11.	
대 동	박종세	김봉진	94. 12. 27.	
동 서 공 업	이성근	이연식		
서원풍력기계	최상길	권혁기	94. 10. 28.	
필 코 전 자	윤문태	강윤구	직무대행	
한국 A. M. P.	이성근	김성덕	95. 1. 3.	
신한일전기	이준덕	류병유	95. 2. 15.	
동 유 물 산	홍웅기	이성식	94. 11. 14.	
에이브코리아	김상오	박경숙	94. 11.	
삼아알미늄	신현철	박찬호	94. 10. 10.	
대 성 전 선	김청암	김완용		
기아씨비스	박성근	박천석		
동 신 특 강	왕 일	이경복	94. 12. 26.	
대 경 화 성	정근화	박순영		
대경화성지부	김남수	정근화		
삼화콘텐서	이명호	조광용		
인천지역				
런나이코리아	조인수	오동필	95. 1. 20.	
한 국 강 관	신문균	양정우	94. 12. 27.	
코리아스파이서	박한주	박남수	94. 2. 28.	
쌍 용 정 공	권태훈	박용민	94. 3. 16.	
우 성 기 계	금상섭	금상섭	94. 2.	
진 영 정 기	진의범	진의범	94. 2.	
한국화화장치	이길훈	이길훈	94. 2.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충북지역				
동신오미야법랑	송성철	서용천		
방 원 금 속	김선태	라채권		
세진 다지마	최창규	이두휘		
우 진 정 밀	배범순	박각규	94. 8. 13.	
제 일 공 업	김영기	최영호	94. 8. 31.	
부산지역				임시총회
극 동 금 속	김대복	김대성	95. 3. 5.	"
대 명 공 업	유덕기	이회문	94. 3. 5.	"
(주) 대림철공장	진재욱	김재곤	94. 7. 1.	"
대 일 공 업	전형대	김재화	94. 2. 12.	"
동기브레이크	김영수	정산규	94. 9. 20.	"
동 아 금 속	윤상의	이규보	94. 8. 12.	"
부산수리조선	김민원	하봉남	94. 8. 27.	"
부 산 주 공	서영택	이재섭	94. 1. 28.	"
부 영 철 강	박호길	최진석	95. 2. 28.	"
삼 공 사	류국부	문판술	94. 1. 12.	"
삼천리열처리	조영대	이성국	94. 10. 16.	"
상 농 기 업	문병희	안천호	94. 12. 12.	"
서 일	이기수	강백준	94. 7. 1.	"
세 동 산 업	장평곤	공규수	94. 10. 22.	"
세 진	정찬근	김근수	94. 12. 30.	"
세웅종합건설	김용민	오태일	94. 2. 24.	"
성우금속지부	조성백	정성수	94. 2. 11.	"
우 창 공 업	권영민	임영호	93. 1. 29.	"
유 성 금 속	손성국	안병무	95. 4. 1.	"
조 광 공 업	조용석	이명보	95. 5. 11.	"
조 선 선 재	전용구	김용호	94. 7. 15.	"
태 광 밴 드	양재권	김상복	94. 1. 1.	"
한 국 선 재	최승진	최상용	94. 3. 29.	"
한 보 철 강	장의진	김종갑	94. 8. 3.	"
한국주철관	차윤환	조덕래	95. 1. 18.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경남지역				
한 국 일 선	박기훈	홍상만	94. 6. 21.	정기총회
태광특수기계	김상목	표세봉	94. 7. 16.	"
한 일 제 관	이동호	이석오	94. 7. 20.	"
쌍용 중공업	곽병수	심권혁	94. 7. 22.	"
태 주 실 업	이인호	김명현	94. 9. 9.	"
제 일 정 밀	권창수	박영구	94. 10. 6.	"
세원 중공업	김종배	허영환	94. 10. 12.	"
한 덕 산 업	전영섭	이상주	94. 10. 14.	"
창원 기화기	김성철	백인철	94. 10. 15.	"
태평양 밸브	서기호	이환우	94. 11. 5.	"
효 성 기 계	이문호	김종길	94. 12. 9.	"
한국 카시오	육태봉	박춘규	94. 12. 14.	"
대 명 공 업	이선희	신석기	94. 12. 17.	"
대 화 기 계	오광식	박병곤	94. 12. 19.	"
대 동 기 어	전종환	강정목	95. 1. 17.	"
풍 성 전 기	신논기	정홍식	95. 2. 10.	"
삼 원 금 속	김유규	박덕춘	95. 2. 16.	"
대한 화학 기계	이재화	손정수	95. 2. 15.	"
아 주 금 속	박성표	김상권	95. 2. 18.	"
울산지역				
동 회 산 업	오상철	노현돈	94. 7. 24.	정기대의원대회
력 키 금 속	신태기	박영구	95. 1. 11.	"
세 종 공 업	이태환	김면기		"
한진 중공업	황준영	윤용하	94. 7. 26.	"
대일공업 연합	공민근	민영일	94. 11. 18.	정기총회
삼 주 기 계	이채영	문성일	94. 11. 9.	정기대의원대회
포항지역				
강 원 산 업	문석택	김상달	94. 6. 14.	정기총회
동 일 기 업	이동익	장문식	94. 6. 22.	"
부산파이프	박철우	정해용	94. 11. 14.	"
조 선 선 재	전문중	이창호	94. 12. 16.	"
코 스 텔	김용수	김문식	94.	불 신 입
화 성 기 업	김우석	김창원	95. 1. 26.	정기총회

노동조합 명	대 표 자		임원(대표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전남지역				
금 성 기 계	문병주	임길섭		임기대회
대 산 금 속	진중학	류재천		“
대 아 산 업	강성찬	김관호		“
서울 프레스	김 명	김현주		“
대 성 기 공	김상곤	박준근		“
한국 알프스	조삼담	은동준		“
대우전자 광주지부	박상민	최석호		“
세방전지 “	이관우	정용석		“

6. 해산노동조합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결성일자	해산일자	조합원수	해산사유
서울지역					
신 진 벨 브	권영재	74.10.18	94.	74	기능마비
한 국 마 벨	이진렬	75. 9.13.		249	기능마비
한국 트랜스	김완귀	88.10.14.		25	소 멸
경기지역					
동 양 정 밀	이윤희	80. 5.17.		300	소 멸
연 안 정 밀	조기환	89. 4.14.	95. 1. 9.	40	소 멸
퍼시픽와코전자	박원형	91. 2. 6.		40	합 병
은 성 금 속	엄광조	88.11.30.	94. 5.25.	62	소 멸
동 해 산 업	김완석	89. 2.20.	95.	45	
한국콘테이너	최원학	89.12. 2.	95.	220	
한 독	김동영	74. 6.26.		60	기능마비
충남지역					
봉 신 중 기	서정근	88.12. 5.		165	기능마비
천 일 전 기	이병무	89. 3. 7.		34	폐 업
충북지역					
대 양 인 슈	이종국	94. 3.25.		50	폐 업
두 레 금 속	이홍섭	88. 5. 4.		60	기능마비

노 동 조 합 명	대표자	결성일자	해산일자	조합원수	해산사유
인천지역					
한 중 기 업	최부성	93. 9.22	94. 5.20.	36	해 산
삼 진 기 공	화영남	94. 9.22.	94.10.30.	18	“
현 대 정 기	구궁환	94.10. 8.	95. 1. 7.	22	“
덕 창 기 업	진양규	87. 7.	94.11.	71	“
화 인	박용복	89. 9. 26.	94.10.14.	8	“
부산지역					
남 성 조 선	배석진	80. 2. 25.		5	기능마비
동아금속공업	정성수	89. 1.17.		77	합 병
부 산 정 밀	김용순	88. 7. 7.		17	해 산
성 우 금 속	이명희	87.12. 7.		180	제 명
신 신 기 계	김종환	89. 4. 8.		55	제 명
서 일 PCM	백주식	88.12. 2.		50	기능마비
효 성 전 기	구영희	93. 2. 8.		36	기능마비
우 창 공 업	권영민			3	기능마비
울산지역					
한 라 철 강	곽홍근	89.10.25.		90	회사부도
포항지역					
대 성 기 업	최부식	89. 2. 21.	95. 1. 17.		해 산
서울 용접봉	최위택	89. 3. 23.	94.		회사합병
전북지역					
고창기계시스템	오갑동	93. 9.15.		30	폐 업

7. 지역별 조합원 월별현황

7. 지역별 조합원 월별 현황

월 별 지 역		94. 4	5	6	7	8	9
서울	남	37,984	37,984	37,984	37,787	37,735	37,735
	여	20,933	20,933	20,933	20,688	20,666	20,666
	계	58,917	58,917	58,917	58,475	58,401	58,401
경기	남	48,671	48,695	49,660	32,385	32,385	32,385
	여	11,681	11,654	11,653	9,761	9,761	9,761
	계	60,352	60,349	61,313	42,146	42,146	42,146
인천	남	30,690	30,690	30,942	20,343	20,343	20,343
	여	4,851	4,851	4,859	4,488	4,488	4,488
	계	35,541	35,541	35,801	24,831	24,831	24,831
충북	남	2,988	3,038	2,602	3,177	3,177	3,177
	여	2,647	2,647	3,025	2,594	2,594	2,594
	계	5,635	5,685	5,627	5,771	5,771	5,771
충남	남	2,424	2,424	2,424	2,453	2,453	2,453
	여	1,115	1,115	1,115	1,101	1,101	1,101
	계	3,539	3,539	3,539	3,554	3,554	3,554
대구·경북	남	9,587	9,587	9,448	8,918	8,893	8,886
	여	3,891	3,891	4,003	3,983	3,968	3,807
	계	13,478	13,478	13,451	12,901	12,861	12,693
경남	남	17,171	17,171	17,244	16,261	16,261	16,201
	여	5,611	5,611	5,615	5,555	5,555	5,555
	계	22,782	22,782	22,859	21,816	21,816	21,756
울산	남	6,836	7,796	7,296	7,241	7,241	7,241
	여	2,391	1,294	2,401	2,407	2,407	2,407
	계	9,227	9,090	9,697	9,648	9,648	9,648
부산	남	12,950	12,950	13,049	12,488	12,596	12,507
	여	1,594	1,594	1,590	1,529	1,541	1,538
	계	14,544	14,544	14,639	14,017	14,137	14,045
광주·전남	남	2,108	2,108	2,108	2,108	1,108	1,108
	여	187	187	187	187	187	187
	계	2,295	2,295	2,295	2,295	1,295	1,295
전북	남	1,427	1,427	1,427	1,427	1,427	1,427
	여	122	122	122	122	122	122
	계	1,549	1,549	1,549	1,549	1,549	1,549
강원	남	303	303	303	303	303	303
	여	366	366	366	366	366	366
	계	669	669	669	669	669	669
포항	남	6,390	6,390	6,578	6,578	6,578	6,578
	여	87	87	87	87	87	87
	계	6,477	6,477	6,665	6,665	6,665	6,665
계	남	183,311	184,345	184,847	155,251	154,282	154,126
	여	58,264	57,140	58,744	55,656	55,631	55,467
	계	241,575	241,485	243,591	210,907	209,913	209,593

10	11	12	95. 1	2	3
37, 725	39, 058	39, 047	39, 102	29, 404	28, 941
20, 651	20, 716	20, 696	20, 650	14, 933	15, 032
58, 376	59, 774	59, 743	59, 752	44, 337	43, 973
32, 270	33, 942	33, 866	33, 852	32, 247	30, 964
9, 761	10, 860	11, 008	10, 950	10, 402	10, 842
42, 031	44, 702	44, 874	44, 802	42, 649	41, 806
20, 443	22, 157	22, 237	22, 189	22, 570	21, 708
4, 486	4, 722	4, 722	4, 486	4, 175	4, 060
24, 929	26, 879	26, 959	26, 675	26, 745	25, 768
3, 205	3, 665	3, 566	3, 456	2, 441	2, 446
2, 600	2, 934	2, 855	2, 784	2, 086	2, 197
5, 805	6, 599	6, 421	6, 240	4, 572	4, 643
2, 453	2, 262	2, 262	2, 262	2, 262	2, 026
1, 101	1, 148	1, 148	1, 148	1, 068	897
3, 554	3, 410	3, 410	3, 410	3, 330	2, 923
8, 854	9, 385	9, 431	9, 395	9, 343	9, 576
3, 782	4, 044	4, 096	4, 045	4, 540	4, 579
12, 636	13, 429	13, 527	13, 440	13, 883	14, 155
16, 200	17, 821	17, 930	17, 831	17, 571	17, 291
5, 507	6, 466	6, 494	6, 432	6, 544	6, 456
21, 707	24, 287	24, 424	24, 263	24, 115	23, 747
7, 153	6, 756	6, 756	6, 756	6, 377	6, 139
2, 405	2, 379	2, 379	2, 405	2, 486	2, 456
9, 558	9, 135	9, 135	9, 161	8, 863	8, 595
12, 507	12, 729	12, 729	12, 547	11, 049	10, 734
1, 538	1, 414	1, 414	1, 414	1, 370	1, 326
14, 045	14, 143	14, 143	13, 953	12, 439	12, 060
1, 108	1, 119	1, 119	1, 119	1, 540	1, 500
187	599	599	599	585	525
1, 295	1, 718	1, 718	1, 718	2, 125	2, 025
1, 427	2, 068	2, 068	2, 068	1, 938	1, 974
122	96	96	96	84	79
1, 549	2, 164	2, 164	2, 164	2, 021	2, 053
303	362	362	362	341	341
366	361	361	361	356	356
669	723	723	723	697	697
6, 578	6, 235	6, 235	6, 235	6, 108	4, 228
87	100	100	100	60	40
6, 665	6, 335	6, 335	6, 335	6, 168	4, 628
154, 008	162, 972	163, 121	157, 174	149, 873	143, 488
55, 383	59, 158	59, 287	55, 470	51, 983	52, 124
209, 391	222, 130	222, 408	212, 644	201, 856	195, 612

8. 년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1995. 3월말현재)

년도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조직체수		529	1,324	1,295	895	817	700	641	603
조합원수	남	228,281	269,091	293,035	234,523	197,120	177,038	213,808	143,488
	여	67,583	87,809	96,025	78,027	64,958	55,436	59,463	52,124
	계	295,864	356,900	389,060	312,550	262,078	232,474	273,474	195,612
조합원증감		+156,874	+61,036	+32,169	-76,510	-50,472	-29,604	+40,797	-77,659
조직체증감		+254	+795	-29	-400	-78	-117	-59	-38

9. 기타활동

1) 94년도 5.1 노동절 기념대회 참석

- 명 칭 : 94년도 5.1 노동절 기념대회
- 일 시 : 1994. 5. 1 10: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 참석자 : 서울,경기,인천지역 조합원

2) 노동절 모범 조합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동 부 제 강	위 원 장	안영환	대 원 전 선	위 원 장	장정환
영 창 악 기	"	장태훈	반 도 기 계	사무국장	이승학
삼 성 제 침	"	주태화	에 넥 스	운영위원	최치선
코리아스파이서	대 의 원	송진호	금 성 계 전	"	이장태
대 우 전 자	지 부 장	최석호	영 풍 제 관	위 원 장	김용태
동 신 중 공 업	위 원 장	박용일	두 고 전 자	"	김경환
금성통신(지부)	회계감사	장규정	풍 성 정 밀	조 합 원	임창근

3) 노동운동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전국노조 대표자 대회 참석

- 명 칭 : 노동운동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전국노조 대표자 대회
- 일 시 : 1994. 11. 17 (목) 13:00
- 장 소 : 88 실내 체육관
- 목 적
 - 최근 노동운동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노동운동 조직의 확대강화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비 민주적 요소와 부조리는 민주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노총은 자기개혁의 가치를 높이들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사회개혁을 이끌어 21세기 민주 복지 사회건설의 지평을 여는데 있음.
- 참석자 : 700여명 참석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13:00 - 14:00
 - 본 행 사 : 14:00 - 15:00

4) 회의활동

가. 산별 조직 담당자 회의 참석

- 일 시 : 1994. 4. 12. 14: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내 용 : 94년도 노동절 기념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나. 산별 긴급 조직 담당자 회의 참석

- 일 시 : 1994. 5. 16 15:00
- 장 소 : 8층 강당
- 내 용 : 전해투 노총 폭력 점거 사건의 문제와 향후대책.

다. 산별 조직 담당자 회의 참석

- 일 시 : 1994. 8. 4 14:00
- 장 소 : 노총 회의실
- 내 용 : 동부그룹 한국자보 부당 노동행위 규탄 대회에 관한 사항.

라. 산별 조직 담당자 회의 참석

-일 시 : 1994. 10. 17 14:00

-장 소 : 노총 회의실

-내 용 : ○ 제2노총 건설에 대한 대응방안 추진
○ 전력노조 퇴직금 환원 투쟁 적극 지원
○ 사회적 합의 재 평가 및 논리적 대응방안 강구
○ 노총 발전 특별 위원회 진행 촉구
○ 노총탈퇴를 선거공약으로 출마한 후보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전술(안) 마련

마. 산별 조직 담당자 회의 참석

-일 시 : 1994. 11. 1 10:00

-장 소 : 노총 회의실

-내 용 : 조직강화를 위한 노총의 활동
전국 노조 대표자 대회 개최의 건

바. 산별 조직 담당자 회의 참석

-일 시 : 1994. 11. 10. 14:00

-장 소 : 노총 회의실

-내 용 : 전국 노조 대표자 조직 동원의 건.

사. 산별 조직 담당자 회의 개최

-일 시 : 1994. 12. 2. 14:00

-장 소 : 노총 회의실

-내 용 : 전국노조 대표자 대회 결과 평가

아. 산별 조직 담당자 조직강화 수련회 참석

-일 시 : 1994. 12. 16-17.

-장 소 : 용평 리조트

-내 용 : 각 산별의 조직 강화 대책 방안 수립

5)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조직동원

- 일 시 : 1994. 8. 9. 15:00
- 장 소 : 동부그룹 한국자보 빌딩앞 광장
- 참 석 : 서울지역 노조간부 50명
- 내 용 : 한국자보 파괴기도 근절
정부의 강력한 대책 촉구

6) 95년도 노총중앙위원 선출

- 1. 선출일시 : 1995년 2월 23일
- 2. 인 원 : 당연직 3명
선출직 13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금 속 노 련	위 원 장	박 인 상	당 연 직
노총부산지역본부	의 장	정 학 균	"
노총대구지역본부	의 장	김 경 조	"
금 속 노 련	부위원장	김 성 문	선 출 직
L G 전 자	위 원 장	유 재 섭	"
경기지역본부	의 장	하 영 일	"
현 대 전 자	위 원 장	김 영 철	"
금 속 노 련	부위원장	김 윤 주	"
인 천 제 철	위 원 장	김 동 교	"
충북지역본부	의 장	김 홍 수	"
로움 코리아	위 원 장	박 순 자	"
경남지역본부	의 장	제 선 수	"
울산 "	의 장	기 한 도	"
광주,전남 "	의 장	정 기 춘	"
대 한 전 선	위 원 장	강 익 화	"
대 우 전 자	위 원 장	이 해 석	"

7) 본 노련 지역본부 사무국장 회의 소집

-일 시 : 1994. 11. 8 13:00

-장 소 : 대전,충남지역본부 사무실

-안 건 : -노총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개최의 건

-실태조사서 제출 독려 및 노동조합 카드 전산화 작업 건

-각 지역의 조직실태 토의

8) 임원,지역본부 의장 연석회의 개최

-일 시 : 1995. 2. 22. 16:00

-장 소 : 본 노련 회의실

-안 건 : -노총 전국대의원 대회에 관한 사항

-95 임투 방향

-당면 문제 협의

9) 노동조합 카드 전산화

- 단위노조와 연맹간의 정보 공유

- 업무개선과 관리의 능율화

- 단협내용 파악 통계처리의 신속화

- 단위노조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10) 노총 94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 참석

◦ 일 시 : 1995. 2. 23. 10:00

◦ 장 소 : 한국노총 8층 대강당

◦ 주요결의 내용

- 규약개정 (주요내용)

◦ 중앙위원회 신설

◦ 선언,강령 제정

◦ 대의원대회 활성화

◦ 분과위 12개로 신설

◦ 집행위 구성에 있어 결의기관과 집행기관 구성원 분리

◦ 노총 중앙 연구원 신설

- 중앙위원 선출
 - 인원:당연직 37명, 선출직101명 계138명
- 정치활동 선언
- 결의문 채택
 - 노총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문
 - 경제·사회개혁과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결의문
 - 지자체 선거와 노조 정치활동 강화 결의문
 - 항만 운영제도 개편에 대한 결의문
 - 명실상부한 한은 독립을 위한 결의문

◦ 참석대의원

순번	소	속	성 명	순번	소	속	성 명
239	본	노 련	박인상	265	대	한 전 선	강익화
240		"	김성문	266	오	트 론	신성균
241	금	성 사	유재섭	267	경	원 세 기	이종찬
242	대	동 조 선	정학균	268	대	양 금 속	이병욱
243	동	부 제 강	안영환	269	금	성 기 전	이종교
244	현	대 전 자	김영철	270	대	우 중 공 업	염성태
245	인	천 제 철	한창식	271	대	우 중 공 업	허장도
246	삼미종합특수강		제선수	272	대	우 통 신	전병순
247	한	진 섬 유	오봉출	273	영	창 악 기	장태훈
248	코리아스파이서		박한주	274	롯데알미늄		전기홍
249	쌍용중공업대구		김경조	275	성		신
250	범	양 냉 방	김윤주	276	경	창 산 업	장지태
251	력	키 금 속	박영구	277	두	원 중 공 업	김남수
252	화	천 기 공	정기춘	278	한	국 중 천	최해경
253	부	산 파 이 프	백종부	279	대	창 단 조	박병용
254	삼	양 중 기	김순호	280	일		진
255	로	움 코 리 아	박순자	281	연	합 철 강	강진호
256	기	아 특 수 강	임문택	282	정	일 공 업	김복천
257	고	려 아 연	기한도	283	한	일 전 기	장석웅
258	금	성 정 밀	박병도	284	영	창 악 기	박영호
259	금	성 사	강영섭	285	경	원 세 기	장진수
260	금	성 사	김영준	286	범	양 냉 방	경홍식
261	금	성 사	장석춘	287	대	림 통 상	이은물
262	대	우 전 자	이해석	288	한	영 알 미 늄	한상환
263	대	우 전 자	이병균	289	평	화 그 랫 치	김무호
263	대	우 전 자	황창배	290	대	동 조 선	윤정일

- 95 노총 대의원 대회 분과위원
 - 규약 및 자격 심사위원 : 박인상 위원장
 - 의사운영 위원 : 김성문 부위원장
- 표창자
 - 삼화전자 위원장 박효순
 - LG전자 창원2지부장 김영준
- 95년도 정부 포상자
 - 본노련 사무처장 정창영

11) 코리아씨키트 부당노동행위 현황

가. 사업체 개요

- 사업체명 : (주) 코리아씨키트
- 소재지 : 안산시 성곡동 606 - 4
- 업 종 : 전자부품 제조 (P.C.B Drum Mortor)
- 근로자수 : 530 명
- 설립일자 : 72. 4. 11

나. 노동조합 현황

- 조합명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코리아씨키트 노동조합
- 위원장 : 김 병 화 (전노사협의회 대표)
- 조합원수 : 150 명
- 설립일자 : 94. 6. 2

다. 현황

① 부당노동행위

- 회사는 94. 5. 31. 소사장제 실시를 발표하고 6. 1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6. 2 노총안산상담소 박부장의 지도로 노조를 결성하고 본노련에서 가맹인준증 발급, 6.4 안산시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발급

- 노조 설립후 김병화 위원장이 본노련을 방문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
 - 임금 기본급 5% + 95,000 원 인상요구
 - 퇴직금 누진제 실시
 - 휴가비 300,000 원 요구
 - 근속수당(5년이상 1 년에 5,000 원) 및 기술수당 (20,000원) 지급등 통상 임금기준 평균 48% 인상을 요구
- 이에대해 사용자 측에서는 요구 내용이 과다함을 지적
 - 사업장내 20 개의 소사장제 실시, 조합원중 다수가 소사장제로 흡수되고 나머지 소사장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일자리 요구" 하면서 노조옆 사 무실에 대기
- 회사에서는 소사장제를 반대하는 40 여명의 조합원에 대해
 - ① 소사장밑에서 약 2 개월간 파견근무할 것.
 - ② 2 개월후 제 2 공장에 신규사업부를 설치하고 일자리 확보 하겠다.
 - ③ 그간의 임금(기본급)을 지급하되 원하는 조합원은 휴가를 가든 회사내 출근할 경우 일련의 장소에서 노동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노조측에 제시
- 노조측에서는 ① 소사장제 철폐 ② 원하는 부서에 일할 수 있는 자리 마련 ③ 조속하게 노사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
- 94. 7. 4. 22:00 노조사무실 폐쇄와 함께 전 조합원은 제 2공장 으로 출근 할 것을 명령하고 제 1공장 정문폐쇄, 조합원 약 30여 명이 정문 앞에서 농성시작

② 연맹 활동사항

- 94. 6. 23. 경기본부 박정화 사무국장, 경흥식 위원장, 최진하 위원장, 이진우 조직국장이 안산지방 사무소를 방문하여 ① 일방적 소사장제 실시로 조합원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것 은 기업윤리 측면이나 법률적으로도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노동부에서 기업주로 하여금 일자리 확보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 고 상기 노조간부와 안산지방사무소 감독과장, 동감독관을 대동 하고 코리아씨 끼트 및 노조를 방문
- 회사측에 ① 조합원들의 일자리 확보 조치(원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② 조속한 시일내 교섭 재개하여 원만히 타결요망

- 회사측에서는 현재 조합원에 대해 2개월간 소사장에 파견을 주장하고 김미정등 운동권들의 사주에 의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있다는 것만 강조 그후 경기본부와 상의하여 코리아씨키트 문제가 풀리지 않으므로 안산에서 집회 할것을 상의하고 노동부등 관계기관에 이런 계획이 있음을 통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줄것을 요망
- 94. 7. 7 하영일 의장, 김길동 부의장, 이진우 조직국장, 김순호 노사대책부장이 안산지방 사무소장 면담.
- 노동부가 직무유기 하고 있다.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대책이나 행정지시가 없는데 빠른 조치 바란다 고 항의하자 노동부에서는 7.5 감독과장과 감독관 4명을 코리아씨키트에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 검찰의 품신을 얻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서류확인)
- 94. 7. 4 경기지노위가 코리아씨키트의 쟁의 발생신고에 대해 불가함을 통보 해오자 이를 경기지노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불법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지노위 위원장실 점검 농성할 것을 사전 통보
- 94. 7. 11. 안산지역 대표자 간담회 개최
 - 노동운동 전반에 관한 상황 설명과 토의가 있도록 김병화 위원장이 현재의 노동조합 상황을 설명, 이진우 조직국장도 연맹의 그간의 활동사항과 쟁의발생 신고 반려에 대해 조사하고 불편부당하게 처리 됐을경우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설명
 - 노동부 안산지방 사무소 항의 방문
 - 코리아씨키트 노조방문하여 정문 앞 농성자 격려와 격려금 전달(위원장)
 - 박인상 위원장, 하영일 의장, 이진우 조직국장이 송봉효 사장을 면담하고 노사협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 동일 17:00 개최약속 받고 교섭에 임할 것을 지도 (결과는 결렬됨)
- 94. 7. 12. 경기지노위 위원장 면담
 - 상황을 청취한 결과 노조측 주장(9번 교섭요구에 , 6 번기피, 3 번교섭)과 다르게 9 번검토(사실상 기피분도 있음) 1번 교섭한 결과를 가지고 주장의 불일치로 보기가 어렵고 노조

측의 교섭요구 사항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소사장제 철폐, 잔류인원에 대한 대책등 권리분쟁 사항이므로 쟁의 대상이 아님을 설명, 따라서 13 일 개최되는 부당노동행위 판결부분을 회사측이 지금까지 실시해온 부당노동행위부분을 참고(설명함)하여 조합에 유리하게 판결해 줄것을 요망하고 철수

- 동일 지노위에서 김미정 부위원장과 통화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 김미정 부위원장이 14일부터 쟁의에 돌입하겠다고 하자 조직국장은 일단 지노위의 행정지도(쟁의불가)가 유효하므로 적법절차를 밟고 쟁의에 돌입할 것을 지도하자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시행하겠다고 주장

결과 : 해고자 전원 경기지노위에서 복직 판결

12) 환영철강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현황

가. 현황

- 소재지 :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 - 7
- 위원장 : 안선희
- 설립일자 : 1995. 1. 17.
- 가입대상 : 350 명중 현재 130 여명 가입
- 현판식 : 1995. 2. 20 (12:30)

나. 부당노동행위 내용

- 노조가 결성되자 회사측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노조의 대응세력으로 부각시킴
(노사협의회 측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사협의회에 동참해 줄것을 호소)
- 공장장 정영길이 위원장을 면담하여 노조해산 요구
- 95. 2. 15 연맹조직국에서 회사방문

다. 면담내용(전무이사 정영길)

- 환영철강 노조는 정통성이 없고 기형적으로 탄생했다.
현 위원장이 노사협의회 대표에서 낙선하자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350 명 종업원 중 노조결성에는 10명밖에 참석치 않았고 나머지는 노사협의회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양립할수 밖에 없다.

라. 본노련 요구사항

- 노사협의회를 해체하고 노동조합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 달라
- 비정통성 운운하며 노조를 인정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부당노동행위다. 조속한 시일내 노사협의회가 해체되지 않고 회사가 이를 껴안고 간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

마. 대책

- 노동부 천안사무소 소장과 노동부 노동조합과에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구, 현재 천안사무소에서 조치중

13) 코리아스파이스 위원장 선거 분쟁

가.현황

- 소재지:인천 북구 삼산동 211 -3
- 분쟁내용
 - 제9대 위원장 선거에 5명이 입후보,
 - 95년 2월 9일 제1차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최고 득표자(박한주후보)와 차점자(선경순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에 임하게됨.
 - 95년 2월 11일 결선 투표과정에서 문제 발생
 - 당시 집행부(위원장 박남수)와 선경순 후보 측에서는 박한주 후보가 2차투표 당일날 선관위 승인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므로 불법선거로 간주,재 투표를 실시할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해오므로서 선거 중단사태가 발생
 - 선관위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투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투표를 실시
(조합원 828명중 727명이 투표 완료함)
 - 선거가 끝나자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노조 사무실로 이동하고 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남수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선관위원을 해촉 결의(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결의)
 -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자 선관위원 7명중 6명은 자진사퇴하고,1명은 "선거관리위원은 비록 운영위원회에서 임명되었다 하나 통상관례상 선거시작과 동시에 임명되고 선거 종료시 자동해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선거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할수 없다"며 박한주후보측 선거 참관인 5명과 함께 투표함을 쇠줄로 묶어 놓은채 식당에서 보존함

○ 박한주 후보측 주장

- 선관위가 정당하게 선거를 진행하였고 조합원 828명중 727명의 대다수 조합원이 투표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불법이나 부정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개표할것을 주장.
-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표요구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가 조합원 502명이 서명한 임시총회 요구서류를 집행부에 제출
- 이런 풍토가 관례화 된다면 공명선거를 기대할수 없다.

○ 문제점

- 선관위는 통상관례상 선거를 위한 독립기구로서 선거가 끝나면 자동 해촉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종료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해촉
- 선관위 승인 없이 배포한 유인물을 이유로 기 투표 완료된 선거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표거부,

* 본노련에서는 개표 할것을 지도하였으나 거부

- 결 론 : 박한주, 신경순 두 후보의 합의로서 95년 2월 28일 재선거 실시,박한주 후보 당선.

14) 서울지역본부 조직 대 통합

88년 이원화 되었던 서울지역본부가 그간 수차례 만나 조직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으나 서로간의 기득권 주장내지는 의견의 불일치로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각 조직의 대표들이 작년말에 조건없는 대 통합을 선언. 구랍 12월 14일 재적 대의원 43명중 37명이 참석하여 임원선출과 규약개정을 통한 조직의 대 통합을 이루어 냈다.

가. 통합 경과

- 94. 10.17 : 비공식 접촉으로 통합의사 타진
- 10.24 : 통합을 위한 공식 접촉 확인
- 11. 2 : 통합에 대한 공식 논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몇가지 문제점 확인)
의무금납부와 인선문제 및 조직현황 교환

11.12 : 통합선언 및 부속합의서 조인

금속연맹 서울지역본부 30개 사업장 5000여명과 경인협의회 11개 사업장 1,400여명은 이 시간 이후 한 조직임을 선언하고 12월 14일의 통합선언 및 정기 대의원대회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함

나. 통합선언 및 정기대의원 대회

- 통합선언 및 정기대의원 대회 추진위원

경방기계 박상범, 신명전기 이명재, 한국전자부품 이병원,
청우공업 이명선, 신한전기 엄종원

- 94. 11. 21 : 1차회의개최-대의원 대회일시,장소시간 확정

94. 11. 28 : 2차회의-규약개정.대의원 배정 및 임원선출등에 관한 논의

94. 11. 5 : 3차회의-경인협의회측 의무금 납부

(11개노조 1433명,498,260원 납부,대의원 확정)

94. 12. 14 : 서울지역본부 대 통합을 위한 대의원 대회 개최

통 합 선 언 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 본부와 경인지역 협의회 서울지역 금속노동자 일동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변화적 상황에 따른 노동운동 전반에 처해진 현실 여건을 인식하고 과거의 상당기간 침울하였던 조직분열을 동지애로 치유하면서 강철같은 대오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 노동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되살리면서 일체임을 확인한다.

다 음

- 우리는 조직적 분열상의 역사를 겹쳐히 반성하고 거듭나는 금속노동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조직의 단결에 앞장선다
- 우리는 금속노동자의 자존심을 회복하여 전진하는 노동운동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주체가 될것을 굳게 다짐한다
- 우리는 노동운동사의 전기를 마련하고 큰 자취를 남기기 위하여 굳센 의지와 부당한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이 내용을 상기하면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속 합의를 작성하고 양 조직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역사의 교훈이 되도록 한다

1994. 11. 14

전국금속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대표
경인지역협의회 서울지역 대표

고려제강 노동조합 조직정계

- 본 노련 부산지역 본부는 95년 2월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고려제강 노동조합의 무파업 선언과 관련하여 이는 반 조직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짓고,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타 노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2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운영위원 2/3의 찬성 (비밀 무기명 투표)으로 제명이 확정되었다

15) 조직강화 홍보용 책자 발간

- 제목 : 노동운동 개혁의 선봉장 금속노련
- 발행부수 : 5000부

국 제 활 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1. 회의개최
2. 해외파견
3. 외국인사초청
4. 외국노조간부 방문
5. 기타사업

평가와 개선방향

금번 회계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제4회 한일고위간부회의 개최, 11회에 걸쳐 28명의 해외파견, 본노련 정기대회에의 초청 2명, 해외노조간부 방문 4회 64명등이다.

우리의 국제활동에 있어서도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첫번째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전망으로 인해 지금까지 외국지원에 의존해왔던 국제활동이 자체 예산에 의한 활동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번째로 반면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노동문제 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활동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에 이를 뒷받침할 재정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으며 OECD가입이 확정되면 재정적 어려움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는 노총차원의 노동외교재단설립등의 방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향후 OECD가입이 확정되면 정부가 해외개발기금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 기금의 일부를 노동외교재단으로 흡수하여 활용할 도리밖에 없다.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인적 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부문은 WTO체제와 함께 향후 주요부분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조운동차원에서도 세계 각국의 변화하는 노조운동을 생생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정보는 지극히 낡은 것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의 극복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파악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1. 회의개최

1) 제4회 한일금속노조 고위간부 회의

(1) 일시 : 1994.12.12-12.13

(2) 장소 : 서울 팔래스 호텔

(3) 참석자 : 한국측 : 본노련 박인상 위원장의 8명

일본측 : IMF-JC 도꾸모또 테루히토 의장의 8명

(4) 회의일정

박인상 본노련 위원장 환영사

박종근 노총 위원장 축사

남재희 노동부 장관 축사

초청 강연, “ 한국의 정치경제정세”(장명국 내일신문 주주운
영위원장)

한국 노동사정 보고

일본 정치.경제.노동사정 보고

양국노조 협력방안 논의

공장견학 : 현대전자

< 참 석 자 명 단 >

국 명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일 본	도꾸모또 테루히토	IMF-JC 의장 자동차총련 위원장
	이와야마 야스오	IMF-JC 부의장 전기연합 위원장
	에토 벤이찌로	IMF-JC 부의장 철강노련 위원장
	요시이 마사유키	IMF-JC 부의장 조선중기노련 위원장
	기구찌 도시미쓰	IMF-JC 부의장 전선노련 위원장
	히메노 쇼조	IMF-JC 부의장 비철금속노련 위원장
	고지마 세이고	IMF-JC 부의장 IMF동아세아사무소 소장
	아지마 유꾸오	IMF-JC 사무국장
	소마 수에까즈	젠킨연합 사무국장
	호리 후카시	자동차총련 사무차장

국 명	성 명	소 속 및 직 위
한 국	박 인 상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김 성 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최 응 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정 창 영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제 선 수	경남지역본부 의 장
	박 영 구	력키금속노동조합 위 원 장
	정 기 춘	전남지역본부 의 장
	김 두 형	충남지역본부 의 장

<본노련 위원장 환영사>

도꾸모또(得本) IMF-JC의장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 여러분!

먼저 본인은 한국금속노련 및 우리 한국 대표단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노총 박종근 위원장과 남재희 노동부 장관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과 우리 한국의 금속노조 간부들이 이렇게 만나서 양국 및 국제적 연대방안에 대해 논의해온지 몇년이 되었습니다만 본인은 이러한 모임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보교류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양국 노동지도자들이 서로가 더욱 가까워서 이해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천목표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연대의 내용을 점점 더욱 알차게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연대의 발전은 앞으로 국제화.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한 믿음직한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 노조운동은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서 변화의 국면에 처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걸어진 국제화의 문제에 노동진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사회속에 노동조합의 위상을 어떻게 확립시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관련하여 지금 분열을 향해 치닫고 있는 노조운동조직을 어떻게 통일시켜나갈 것인가등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항상 일본에서의 노조운동경험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영자들이 일본의 경험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번 기회에도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상세한 말씀은 회의과정에서 나누기로 하고 제 인사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에서 체재하는 기간동안 불편함없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 축사>

존경하는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의회 임원 여러분!

자동차,전기,철강,기계금속,조선,비철 등 업종노조연맹 위원장님,국제금속노련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님!

그리고 한국금속노련 간부 여러분!

저는 오늘 전일본금속노동조합협의회와 금속노련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일 금속노조고위간부회의에서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회의는 한.일 금속노조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아시아지역 노조운동 방향에 대한 공동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금속노련 활동관련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친애하는 노조간부 여러분!

지금 세계는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WTO 체제의 출범으로 지금 우리는 국경을 초월해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사용자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자제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짐에 따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이윤 추구에만 집착한 나머지 투자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문제 역시 한 국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설 정도로 복잡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의 대응방안도 분명 달라져야 하며, 특히 각국 노조간의 유대강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및 일본의 정치, 경제, 노동 상황을 논의하고, 양국의 노동조합과 임금교섭 현황을 살펴보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리는 이번 회의는 매우 뜻깊은 의의를 지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보다 진지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한·일 금속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내빈 여러분께서 한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즐거움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갈음합니다.

(노총 위원장 박종근)

<노동부장관 축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꾸모또 데루히또 의장과 박인상 위원장을 비롯한 한·일 금속 노련 고위간부 여러분!

그리고 한국노총 박종근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금속노련을 대표하는 고위간부들이 양국 노련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결속이 강화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는 등 지역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갈 WTO체제가 내년에 출범하게 되면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한·일 양국을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들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세계교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국제질서 개편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아울러 우리 정부는 최근 세계화를 위한 구상을 전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의 일대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여 상호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일본 금속노련을 대표하는 고위간부 여러분과 한국금속연맹 지도자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한·일 양국의 공동관심 사항을 폭넓게 논의하는 모임을 갖는 것은, 양국의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교환과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일본금속노동조합협의회는 260여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거대한 조직으로 국제금속노련에서도 아시아지역을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금속노련과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이 올해로써 4회째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양국 노동조합의 유대가 더욱 공고해지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양국의 노동조합운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평소 우리나라 노동계의 큰 기둥인 금속노련이 이와같은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발전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 남재희)

<주제강연>

한국의 정치 경제정세를 보는 눈

장명국(내일신문 주주운영위원장)

1. 냉전.전쟁.분단에서 화해.평화.통일로

현재 한반도 정치지형은 냉전.전쟁.분단에서 화해.평화.통일로 넘어가는 과도적 상황에 있다.

전세계적인 탈냉전 추세가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영향을 미쳐 반세기에 걸친 냉전이 끝나고 있다.최근 북-미회담의 타결로 정전협정 역시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직전에 와 있다. 이에 따라 움직일 줄 모르던 분단상황 역시 그 극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지난날의 부분적인 남북대화는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가는 데는 '북한핵문제'와 같은 걸림돌도 존재했다. 또 우리 한국내에서는 94년 상반기 신공안국면이 전개하는 역사를 거스르는 역류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걸림돌과 역류가 전반적인 시대상황의 변화를 돌려 세울 수는 없다.아직도 구시대적 요소가 상당정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그에 비해 현재 진행중인 변화가 보다 근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날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를 한 축으로 북한이 대립하고 있던 단선적인 한반도 상황이 이제 새롭고도 복잡한 길항관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얼마전 미국은 북-미 합의문을 통해 북한과 정치.경제적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다.북한 핵문제를 둘러싸 2년여의 대립은 종종 전쟁의 위기로까지 치달았지만, 미국은 결국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잡았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미국은 더이상 한반도에서 과거와 같은 대결 일변도 정책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물론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된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하지만 전세계적인 탈냉전 추세에 따라 미국 역시 과거의 낡은 방식을 고집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일부 강경보수파들이 북-미 합의문을 문제삼고 나오지만, 합의 자체를 백지화시킬 수는 없다. 그들 역시 미국이 과거의 대결정책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전후 '55년 체제'가 붕괴하고 정계재편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며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추진하려는 세력이 부상하는 부정적인 양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미국의 '우산'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일본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역내 관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전후 처리'의 마지막 남은 문제인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개방개혁' 정책을 심화시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과거 교전국이었던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동북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허무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호전된 주변정세에 힘입어 남, 북한도 각기 냉전, 전쟁, 분단에서 화해, 평화, 통일로 넘어가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긴장완화와 군축을 통해 GNP의 27%에 이르는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 회복의 주요한 관건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북한은 작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에서 '무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등 대외 경제협력에 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과 정치, 군사적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일성 주석 사후 '전쟁세대'인 혁명1세대가 물러나고 김정일 비서를 중심으로 한 2세대가 전면에서 부상하고 있어, 북한의 '변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는 냉전강경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올 들어 실시된 여러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93%에 이르는 절대 다수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 평화, 통일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은 높은 것이다. 더구나 북-미 회담도 타결됐다.

이런 상황에 따라 남한 정부는 남북대화를 다시 잇기 위해 '남북 경험 1단계 조치'를 발표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 '문민' 정부의 성격

지금은 군부독재에서 민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이른바 '문민정부'다.과도기는 혼돈으로 비쳐지지만 역사적 전환기이다. 문민정부는 수구 대 개혁의 논리로 변화를 추구했지만, 변화와 개혁의 주체를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개혁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며 부분적으로밖에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영삼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다 돼가는 현시점에서 기득권층과 일하는 사람들의 대립구도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변화와 개혁이 민자당 내의 수구세력을 척결시키지 못함으로써 오는 한계를 여실히 노정했을 뿐 아니라,남북한 문제를 놓고 개혁 자체까지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먼저 기득권층을 위주로 한 개혁은,국제경쟁력 강화나 무한 경쟁의 논리로 이어져 구조적인 제도개혁 대신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분담론으로 떨어졌으며,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억압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노.사.정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되지 못하고 형식만 바뀌었을 뿐 지난날의 임금가이드라인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노사간 자율교섭주의 역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지난날처럼 공권력투입 등 정부에 의존되고 있다. 철도,지하철 노조의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초강경 진압으로 일관했다.

경제정책 역시 재벌 위주로 되고 있다.물가불안은 계속되고 내수경제는 침체상태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오히려 WTO체제를 맞이하여 '세계화 구상'을 들고 나와 경제개방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 살아 남을 자는 재벌들 밖에는 없다.

도대체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군부독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나회 축출과 사정개혁,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실시,통합선거법 개정 등 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견해도 있다.그렇지만 냉전이 끝난 후 통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남북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대결적인 접근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2월25일 취임사에서 민족의 이익을 어느 동맹국보다 우선하겠다고 선언했지만,미국에 의해 북한핵 문제가 제기되자 김영삼정권의 외교.통일정책은 그와는 정반대로 선회했다. 즉 평화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에서 냉전적이고 수구적인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사실 북한핵 문제의 본질은 냉전이 끝난 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다. 이것은 94년 6월 패리 미국방장관이 미국 NBC TV의(언론과의 대담)이라는 프로에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다. 그렇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이 임박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데에서 잘 나타난다. 미국은 북한핵 문제를 부각시켜 국지적 냉전을 유지시킴으로써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미국 군산복합체의 재고무기를 처분하려 한다.

여기서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를 비교해 보더라도 북한의 도발이란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92년 남한의 국방비는 112억 달러(GNP 대비 3.8%)로 북한 국방비 55억 달러(GNP 대비 27%)의 2배나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계속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문제를 더욱 확산하였고, 김영삼정권은 미국이 ‘대화와 타협’으로 돌아선 이후에도 계속 강경론을 고수했다. 한국내의 냉전수구세력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다시 신공안정국을 만들어 냈다. 한국내에서 매카시선풍이 부활되고 마녀사냥이 횡횡했다.

신부인 서강대 박 홍 총장은 주사파논쟁을 과열시켜 신공안국면에 기름을 부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급서하자 이제는 학생들과 진보적 교수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내부전쟁을 치루는 듯 하다. 남북 화해국면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자 북한이라는 적대신 내부의, 적을 급히 만들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김영삼정부는 ‘3당 합당’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신공안국면 속에서 수구세력에게 포위되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변화를 바라는 여성들과 대립하게 되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권력유지 수단으로써 다음 세가지를 활용하고 있다.

첫째 전근대적인 요소로써 지역주의를 유지시킨다. 영호남대립, 이른바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등의 지역감정을 활용한다.

둘째 근대적 성격을 가진 행정관료조직과 집권여당조직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 특히 선거법을 개정하여 ‘돈 안드는 선거’, 선거부정 처벌강화 등을 강화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현대사회의 총아인 TV 등 정보통신과 언론을 활용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장악하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 낸다.

김영삼정부는 대미관계에서 자주적이지 못한 데서 오는 한계, 변화와 개혁의 주체를 일하는 사람으로 설정하지 못하며 개혁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못하는 데서 오는 한계 등으로 인해 내실없는 형식주의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 95년의 지자제, 96년 총선, 97년 대선과 같은 일련의 선거국면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즉 노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요구와

이해가 높아져 민주적 정당이나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급격히 성장할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냉전과 분단을 이용한 빨갱이 사냥과 같은 탄압은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변화를 담아 안은 일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만이 한국의 자주민주 통일을 이룰수 있게 된다.

3. 경제동향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제화, 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첫째 이자율을 줄여서 기업부담을 줄이는 정책, 둘째 임금인상율을 대폭 낮추는 정책, 셋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WTO체제의 성립으로 더 강화될 추세이다.

국제금리가 한국의 1/2인 5~6%인 것이 현실일때 12%이상의 금리로 선진국과 경쟁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 정부는 통화량 팽창을 통해 금리를 17%에서 12%로 낮추었다. 앞으로도 금융자유화와 함께 대외금융개방이라는 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임금인상을 역시 일본은 3% 정도인데 반해 한국은 10%내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날 총액5%라는 가이드라인제에서 노사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율을 억제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통화량 팽창을 통해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5~6%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는 결국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대상이 한국의 경우는 대기업과 재벌 위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잃은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개방에 따라 89년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

[표1] 연도별 부도업체수 추이

연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부도업체	3, 238	4, 140	6, 518	10, 769	9, 502

[표2] 지난해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단위 : %)

국가	한국	대만	독일	싱가폴	미국	일본
상승률	5.8	4.6	3.6	3.0	2.7	1.0

92년도에 실시된 금융실명제가 한국경제의 제도개선을 부분적으로 달성했지만 급변하고 있는 정치,경제 속에서 아직 경제개혁과 제도의 완비는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WTO체제를 맞이해서 한국경제의 최대과제는 어떻게 경쟁력을 제고하는가에 달려있다. 지난 30년 동안 양질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성장과 수출과 건설을 달성했다 그러나 87년 6월항쟁과 7,8월대투쟁 이후의 정치 사회 상황은 과거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다.

중국 등 동남아 국가의 임금은 한국의 1/10 이하이다.또한 일본의 기술과 생산성은 한국이 따라가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WTO체제를 맞이한 한국경제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WTO체제는 자원과 자본보다 일하는 사람들의 일할 의욕과 능력과 조직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사람에 대한 투자와 일할 의욕을 만드는 새로운 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최대 당면 과제이다.

개인소유 자본주의의 문제를 제기한 노동운동은 국가소유 사회주의의 몰락을 보면서 새로운 방향을 확립하지 않을 수 없다. 종업원 지주제,경영참가제도 등과 같은 자주관리에 기반한 전문경영인 체제의 확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일본은 방위비가 1%,한국은 3.5%,북한은 27%일때 WTO체제하에서 승리자는 당연히 일본일 것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 특히 기술개발투자가 부족하다면 경제발전은 존재할 수 없다.

변화된 상황은 지난날의 노사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현대적 노사관계가 정립될 때만이 WTO체제를 슬기롭게 맞이 할수 있다.

4. '현대적 노사관계'를 향하여

1) 전근대적 노사관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전근대적 노사관계가 유지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사노(私奴)관계 즉 노동자보다 회사가 우위에 있다는 관행을 의미했다. 심지어는 사노 즉 개인노예가 노동자라는 극단적인 사고까지 일반화되었다. '중이 절 싫으면 떠나라'는 등 공공연히 노동자를 무시하는 발언들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는 일제하에서는 식민지, 그리고 해방후에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조건속에서 온존되었다. 노동자는 과격한 빨갱이 또는 발로 차이는 비

참한 존재와 같이 양 극단적인 표현으로 매도되었다. 반면 노동자들은 양질의 저임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산업전사로서 칭송되면서 전쟁터와 같은 산업현장에서 장시간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해야 했다. 세계 제1의 노동시간, 세계 제1의 산재사망자를 기록했다.

당시의 정권은 권위주의적인 군부독재로서 특징지워진다. 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 인권은 무시되었다. 박노해의 시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전쟁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가지

-박노해 '노동의 새벽' 중에서-

전근대적 노사관계에서는 노사간의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만 있을 뿐이다. 예측의 굴레를 깨뜨리기 위한 투쟁만 있을 뿐이다. 대립과 갈등만 있다.

2) 근대적 노사관계

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은 우리 사회에서 밑으로부터 근대적 노사관계가 정립되는 중요한 계기였다.[우리 일은 우리 힘으로,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다. 우리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면서 전근대적인 굴레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 87년에 산업현장 곳곳에서 들불처럼 타올랐다. 이 운동은 자주적 단결의 형식인 노동조합을 통해 나타났다.

냉전과 분단 속에서 형성된 전근대적 노사관계는 깨지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지난날의 의존적 관계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노사간에 대립과 마찰이 표면화되었다. 노동조합은 노사대등한 관계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 내부에도 노조의 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경향이 나타났다. 조합주의와 급진주의적 경향이 대립하여 나타났다. 조합주의는 근로조건 유지개선이 노조의 목적이라 하고 급진주의는 투쟁이 노조의 목적이라고 한다. 조합주의는 노사협조를, 급진주의는 노사대립을 강조한다. 조합주의는 단체교섭을, 급진주의는 단체행동을 위주로 한다.

미국의 AFL 초대회장이던 사무엘 고펜스(Samuel Gompus)는 노조의 목적을 the

more 즉 '좀더 많이'라고 했다. 그는 한때 급진적 사회주의자였다. 곰퍼스의 이 말이 조합주의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된다. 조합주의는 미국과 영국의 노조이념으로 정착되었다. 반면 급진주의는 프랑스와 일본에서 유행했다. 프랑스의 생디칼리즘이 대표적인 노조의 급진주의라 할 수 있다. 우리 한국에서 급진주의는 일부 학생운동의 흐름이 노동조합운동을 선도할 때 나타났다.

물론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에서는 아직도 전근대적 노사관계가 온존하며 조합도 의존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노조는 조합주의를 선호한다. 이른바 어용노조라 일컬어지는 노조의 조합주의는 사실상 허구적인 조합주의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급진주의도 문제가 있으나 조합주의 역시 보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합주의로 대표되는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이른바 영국병을 파생시켰다. 급진주의가 투쟁을 목적으로 조합원대중을 동원의 대상으로 본다면 조합주의는 조합원들을 근로조건 유지 개선위주의 좁은 경제적 이익에만 매몰시켜 집단이기주의 또는 경제적 동물로 비하시키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조합주의는 단체교섭 위주로 간부가 중심이 되어 노조를 운영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참여할 장이 없어지고 조합원은 오로지 노조 간부가 따오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노조간부들이 임금을 따오지 않으면 집행부를 바꾸든지 아니면 wildcat strike나 비조직적인 태업 또는 일하지 않고 시간 때우는 풍조가 일반화되어 직장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급진주의 역시 소수의 간부중심의 운동이다. 단체행동 위주의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노조가 운영되므로 대체로 모험주의로 치닫게 되고 싸움은 패배로 끝나 조합원들에게 좌절감과 패배주의를 만연시킨다.

이러한 조합주의와 급진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노조간부들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또한 근대적인 전문경영인 역시 이러한 흐름들이 존재할 때 많은 어려움을 체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적 노사관계는 노사대등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자본가가 노조에게 노사협조를 강요하여 이윤을 극대화시키려 하고 노조는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려 함으로써 양자간에 힘대힘의 대결과 긴장이 증폭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긴장대립 관계를 조정하고 조화시키기 위해 공권력 즉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노사관계에서 노사정의 관계를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정부 역할의 증대는 20세기의 일반적 추세였다.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부의 존재는 무척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는 일방적인 사용자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노동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현대적 노사관계론

현대적 노사관계는 근대적 노사관계의 문제를 파악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노사문제는 노사가 각각 자신의 이익과 주장만을 고집할 때 첨예하게 부각된다. 사는 이윤만을 노는 힘의 강화만을 주장할 때 힘대힘의 대결이 된다. 정부가 아무리 이를 조정하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일 뿐이다.

노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기준과 노사간의 장기적 방향에 대한 상호 동의가 요구된다고 할수 있다. 사는 자본의 탐욕이 제한되거나 자본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노는 조합주의나 급진주의와 같이 조합원을 대상화하는 조합운동을 극복해야 한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대상화시키고 사회에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물신화풍조를 일반화시킨다. 노사 모두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노사관계를 새롭게 파악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가치기준에 동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권의 독립으로 자본의 압력을 벗어나야 한다. 즉 전문 경영인 제도의 확립이 중요하게 제기되며 전문경영인은 직장의 안정화 명량화 민주화라는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스스로 실천하는 경영방침을 자처야 한다. 인간존중과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직장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가치의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

노동조합 역시 조합주의와 급진주의를 극복하고 자주적 단결을 목적으로 조합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 헌법 33조는 근로자의 3대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3조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 단결을 기반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일할 때,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의 안정과 명량화 민주화를 확립하고 평생직장을 보장받기 위해 자주관리를 밑바탕으로 하는 전문경영인 제도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요구하는 전문경영인들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현대사회를 자주성이 실현되는 사회라 한다. 자주성 실현은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 그리고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방향을 의미한다. 자주성 실현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을 가져온다.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대량상품생산체제로부터 소비자의 자주성이 보다 실현되는 다품종소량 주문생산체제로 바뀌고 있다. 직장내에서도 위로부터의 지시와 복종만이 요구되는 풍토에서 자주관리와 경영참가를 요구함

으로써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현대적 노사관계는 노사 모두가 자주성이 실현되는 현대 사회의 거시적 흐름을 받아들이며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할 때 정진된다. 자주관리를 밑바탕으로 하는 전문경영인제도의 확립이야말로 노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장기적 방향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의 커다란 정부와는 달리 21세기는 작은 정부의 시대로 나가고 있다. 규제 완화, 기업의 자율성보장, 노사관계 역시 노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부의 역할 역시 현대적 노사관계의 정립에서 필수적이다. 사회의 민주화와 민주정부수립은 바로 자주관리를 밑바탕으로 하는 전문경영인제도를 확립하는 현대적 노사관계에서 필요조건이다.

지금은 전환기이다. 문민정부는 과도적인 정권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민주정부로 향한 국민대중의 노력이 강화될 수록 현대적 노사관계의 싹이 자란다. 최근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한편으로 노사간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됨과 더불어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어 갈등적 노사관계를 자율적으로 풀수 있는 여건이 과거 군부독재 당시보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자주적 참여를 막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에 대한 고통분담론이 강조됨으로써 다시 노사관계에는 전근대적 잔재가 확대되며 현대적 노사관계로 진전되지 못하고 근대적 노사관계에 머무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근대에서 현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이 두 물체간의 힘의 관계를 중력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아인슈타인은 이를 중력장으로 한 차원 높인 것처럼 노사관계도 노사의 관계에서 노사정이 모두 새로운 장을 만들려고 할때 현대적 노사관계는 정립된다. 노사의 대립관계에서 노사정의 통일장을 만들때 현대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보고서 >

오늘 오전에 한국정치, 경제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으므로 이 시간에는 금년도 한국노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으며 그중에서도 정부정책 변화와 금년도 임투 그리고 노동조합조직상황등 세가지 특징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금속노련의 당면활동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정부노동정책

먼저 금년도 노사관계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정부의 정책변화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국제화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것은 93년도 시애틀 APEC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통령에 의해 선언된 것이지만 우르파이라운드 타결과 함께 국민여론의 중심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정부 국제화 선언의 중심은 국가경쟁력강화입니다. 정부는 국제화선언과 함께 93년도말 경제내각을 성장지향적 내각으로 개편하였으며 '경제제1주의'가 국정의 제1목표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년두기자회견에서 금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만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공론분열의 소지가 있는 노동법개정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부패 공직자나 정치인, 고급장성을 사회 지도부로부터 축출하고 금융실명제등 경제개혁 정책을 실시한 문민정부 제1년차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책이 추구되리라는 것을 암시해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정책도 당연히 변모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민정부 제1년차라 하더라도 기초에 있어서는 과거와 다른 노동정책을 폈다 할 수 없습니다. 문민정부는 그 출범에 있어서 '신경제'라는 '창의와 자율의 사회 형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에 걸맞는 노사관계정책은 없었습니다. 단지 노사분규에 대해 초기에는 보다 부드러운 정책을 쓰는 듯했으나 현대그룹 파업에 직면해서는 공권력을 위협무기로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민정부 제1년차의 노동정책마저도 '경제제1주의'의 위세에 종속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금년도 실정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노동정책은 임금안정화정책,노사평화의 정책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중앙단체간 임금권고안 합의를 강력히 추구했으며 '노사분규 무원년'을 선포함으로써 노사분규를 '행정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무노동부분임금'등으로 경영자를 자극하였던 문민정부 제1년차의 노동부장관은 93년말 경제장관 경질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임노동부장관이 더 반노동자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임 노동부장관을 해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런 노동부장관은 해임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94년도 노동정책은 금년 6월의 철도기관사와 지하철 파업에 대한 전례

없는 강경조치에서 나타났다 할 수 있습니다. 변형근로제 폐지와 휴일보장, 3% 임금 인상억제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중인 철도기관사에 대한 공권력의 공격으로 시작되어 연대가능성이 있는 여타 쟁의사업장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다 일단 협상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자 위법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 수배를 하게 된 것이 전반적 과정이었습니다.

이들 주요 파업의 결과 철도기관사의 경우 29명이 구속되었고 900여명이 징계를 당했으며 130여명이 전출을 당했고 서울 지하철의 경우도 17명 구속, 2700여명의 징계가 행해졌으며 노조간부에 대해 40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여타 연대 가능성이 있는 제조업 사업장으로부터도 다수의 구속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와같은 노동정책은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지렛대로 한 것이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7년 당시에 비해 매우 약화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영국 탄광파업에 대한 대처수상의 공격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정치적 판단을 배경으로 하여 금년도 임투를 둘러싼 분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을 꾀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동요와 이완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철도기관사 파업등에 대해 상상을 초월할 강경조치를 취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같은 정책이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경제는 금년들어 더욱더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2년도 하반기부터 3%대의 저성장을 기록했던 한국경제는 93년도 상반기 4.4%성장으로 여전히 저성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93년도 하반기부터 6.6% 성장으로 회복을 시작하여 94년도 상반기에는 8.5% 성장율을 기록했습니다. 94년도 3.4분기에도 유사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면 금년말까지 비슷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은 경제성장에 대해 이상과열현상으로 보는 주장도 있고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의 경우 금년 9월까지 6.1%가 올라 정부 목표선인 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지난 10월초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을 안정정책 선호자들로 경질했으며 95년도 경제목표치도 7%성장, 5%물가라는 안정지향적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APEC정상회담 참석이후 이번에는 '세계화 장기구상'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구체적 내용수립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에게 위임이 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의 주된 내용도 역시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계화장기구상이라는 것 역시 노조운동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법개정에 관하여는 금년 7월부터 공론화시키겠다고 노동부장관이 약속한 바 있고 노동법개정방향건의를 위해 마련된 노.사.공익의 연구위원회 활동이 재개된 바 있으나 지금 현재는 산업안전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노동위원회법등 개정안만이 정부에서 개정을 목표로 검토중에 있을 뿐이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그지난 11월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임금교섭 및 파업

금년도 임금교섭에 있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는 노사중앙단위 임금 권고안 합의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임금안정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였고 경영자 역시 이러한 권고안 합의로 임금인상을 저하를 노릴 수 있고 그외에도 임금교섭기간 단축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많은 경영자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여론형성 계층들도 권고안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작용을 가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 진영에서는 입장의 분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총계열 노조에 있어서는 정부투자기관등의 경우는 중앙권고안 합의가 없더라도 보다 저율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정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중앙권고안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상향시키기를 원했고 반면 각 기업단위로 교섭을 해 오고 있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체의 경우는 중앙권고안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정은 만약 중앙권고안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옛날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도할 것이므로 차라리 중앙권고안 합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정책,제도개선을 획득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작년도에 중앙권고안 교섭에 참여되지 않았던 비노총계열 역시 당초에는 비노총계열의 지위향상을 위해 중앙권고안 교섭에 참여토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안을 검토했으나 산하노조들의 검토과정에서 중앙권고안 교섭에 참여하기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채 노총의 중앙권고안 합의를 공격함으로써 조직을 확대,강화하려는 전술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금속노련은 작년도에는 중앙권고안 합의와 관계없이 독자의 인상요구안을 내놓고 지역적 공동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노총과 경총간에 이루

어진 합의가 각 기업차원 교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오히려 중앙권고안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앙권고안 합의가 잘못되는 것을 막고 정책.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서 중앙권고안 합의문제에 접근했으며 따라서 노총에 대해서도 민주적 결정과 교섭과정에서의 정부의 참여, 실질적 정책.제도개선 획득을 요구조건으로 제기했고 이러한 방향에서 화학노련,섬유노련등 제조업 노동조직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총은 임금 6.6% - 10.8% 인상과 12개사항의 정책.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정책.제도개선 교섭에서의 정부참여를 요구하면서 경영자측과 교섭에 임하여 금년 3월 30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첫째, 임금인상은 사업장의 임금규모별로 하여 88만 4천원 초과사업장은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5.0% - 6.85%, 88만 4천원 이하 사업장은 6.85% - 8.7%로 하되 53만원미만 저임금 사업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고

둘째 물가의 6%선 통제, 고용보험의 30인이상 사업장 적용, 외국인 노동자수입 결정시 노동자측 의견 청취, 노동자의 경영참여확대를 위한 법개정, 노동법개정시 노사의 의견 반영,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자 조세경감 및 형평과세 실현,노동자주택 10만호 공급,중소기업 노동자용 복지투자 증진, 직업능력개발투자 확대, 구속노동자에 대한 특별조치,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제도개선사항에 관하여 노사가 정부에 공동건의를 한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측이 노력하여야 할 사항과 노동자측이 노력해야 할 사항도 열거하고 있으며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정례모임 설치도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중앙권고안 합의는 각 기업차원 임금교섭에 작년도보다 훨씬 미약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임금교섭의 결과를 볼 때 중앙권고안보다 낮게 타결된 경우는 93년도 31.1%, 94년도 11.0%, 중앙권고안 수준에서 타결된 경우가 93년은 50.4%, 94년은 48.8%, 중앙권고안보다 높게 타결된 경우는 93년이 18.5%, 94년 40.2%로 94년의 경우 93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양호합니다. 이것은 경기가 더 좋아졌다는 것, 그리고 93년도에는 정부가 각 기업차원에서 중앙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무기를 가지고서 강하게 지도한 반면에 94년도에는 교섭시 노동자측의 강력한 요구로 정부가 기업차원 교섭에 크게 개입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권고안에서 합의된 정책.제도개선 요구를 이행시키기 위해 그간 수차례 회합을 가진 바 있고 대통령이 최대한 반영토록 특별지시를 한 바 있으나 조합원들에게 만족을 줄만한 성과를 이룩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지난 11월 17일날 개최된 산하노동조합대표자 6,000

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진 대회에서 내년도에는 중앙권고안 교섭을 하지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금속노련은 정책.제도개선 정도가 분명해질 금년말 시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중앙권고안교섭에 대해 입장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금년초부터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제 노총의 입장이 이미 정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에 활발한 공동임투를 전개키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임금교섭에서 획득한 임금인상율을 보면 10월 1일 현재 전체평균이 7.2%로 작년도 5.1%보다 2.1% 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실질임금의 측면에서는 1%포인트 정도가 작년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질적인 임금상승율은 14 - 15%가 되지 않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봉승급의 추가적용이나 임금협상결과와 축소보고등의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금속노련 산하 사업장의 경우는 9.6%, 금액으로 4만8천원 정도의 임금인상을 획득해 작년도 8.6%보다 1%포인트 정도가 더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급에 대한 것으로 수당이나 상여금 또 여타 복지부분의 획득들도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금속노련 산하노조의 기본급인상 실적을 업종별로 세분화 해 보면 기계금속이 9.4 %,5만원, 전기전자가 9.7%, 4만5천원, 자동차부품이 10.7%에 5만원, 비철금속이 9.9%,46,500원, 조선이 9.1%에 55,200원, 철강이 11.0%에 50,100원 등입니다.

한편 노사분규를 볼 때 9월말까지를 볼 때 작년도 124건보다 22건이 더 적은 102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손실일수도 작년도 120만일에서 99만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들 분규를 발생요인별로 볼 때 47%는 임금인상 때문이고 32%는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것으로 약 80%가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분쟁에 따른 파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분규에서 특징적인 것은 비제조업의 파업건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도에는 31.5%가 비제조업의 분규였는데 금년에는 46.1%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의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조직

노동조합조직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적인 조직율 저하문제이고 또다른 하나는 조직간 분열입니다.

첫째 조직율의 경우 93년 현재 17.2%로 87년 12월말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과거 몇년간의 조직율을 볼 때 87년 노동자대투쟁 직전 14.7%에서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계속 증가하여 89년에는 23.3%로 최고수준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로 매년 1.5%포인트 전후로 하락하여 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인원수로 볼 때도 87년 노동자 대투쟁 직전 105만명에서 대투쟁을 통해 89년에는 193만명으로 배증했으며 93년 현재 168만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합원수 감소에는 여러가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왔습니다. 89년 이래의 정부의 노동탄압정책과 기업측의 공세로의 전환, 기업의 감량경영 및 폐업증대, 하청증대, 비정규직 증가의 고용정책등이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별체제와 정규직, 생산직 위주의 노조체제도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조직 분열의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비노총계열은 소위 '민주노총'건설을 위한 추진기구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머지않아 노총체계에 대해 '제2노총'의 체계로 조직을 세워 경쟁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이들 조직은 주로 3가지 기존 조직을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노총 합법연맹들로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 병원노련, 대학노련, 건설노련, 전문기술노련이 이에 해당되며 주로 사무,연구직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기업그룹별 노동조합협의회입니다. 현대그룹이나 대우그룹, 기아그룹등이 그것입니다만 이들은 모두가 기업그룹노조들 일부만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노협의 지역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들 각 구성조직이나 또 그 구성조직내에는 제2노총설립에 대한 입장차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령 산별조직을 만드는데 대산별로 할 것인지 소산별로 할 것인지의 의견차이들이 존재하고 있고 보다 급진적인 부분과 보다 온건한 부분이 있으며 제2노총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과 조합원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차이도 있습니다. 조직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이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시장의 노출정도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어 노선의 분열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민주'라는 한가지 개념으로 극복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더구나 지금은 몇년전과 달라 '민주'라는 개념이 몇년전의 생동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 조직들이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보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정부 및 경영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일단 제2노총을 설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변수는 노조통일에 대한 노동자 및 사회로부터의 압력입니다. 한국

노총은 지난달 노조통일을 위한 대화기구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비노총조직에서는 대화의 전제로서 몇가지 조건을 달아 사실상 대화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총측에서 대화기구설립을 제안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비노총계열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속노련은 그간 미참여 조직의 참여를 위해 계속적으로 문호를 개방해놓고 있으며 노조운동의 대의에 따라 그들 조직에 대해서도 연대와 지원을 계속해왔고 지금도 이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금속노련으로서는 조직분열의 현실을 인정하여 대처키로 하였으며 상호 비방과 모함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할 것을 주창해왔습니다. 그것은 상호간에 감정의 간격이 커져 후배들의 통합노력까지 저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운동이 통일되지 않고는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분할지배공작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몇년동안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노총의 통합대화제의를 비노총계열도 적극 호응하여 통합분위기 형성에 기여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4. 금속노련의 운동방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조운동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노조운동의 미래가 크게 좌우된다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운동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금속노련은 우리의 새로운 운동방향을 정립키 위해 금번 회계년도부터 보다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토론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연맹본부 실무자 토론, 지역노조간부와의 토론회, 연맹 임원·지역본부 의장,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부서부장 토론회,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등 다양한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지혜를 모우고 있으며 금년도 9월 13일에는 1200여명의 가맹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운동진로를 모색키 위한 대토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국제경쟁의 압박이 우리 노동자에게 점점 가중되고 있고 정부정책 역시 경제제1주의로 치닫고 있으며 경영자들은 각종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노조 조직율은 저하되고 조합원의 노조를 향한 열의는 식고 있으며 노조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역시 매우 약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제1주의 논리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의 노조운동을 어떻게 다시 재도약시킬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노조운동이 노조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가슴속에 뿌리박을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결집을 촉진키 위해 정치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통합을 촉구했으며 95년부터 시작되는 선거국면을 맞이하여 노동법개정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경영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결정기구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킬 것과 구속노동자 석방 및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산별노조체제 도입을 위해 분투키로 하였으며 조직확대,강화를 위해 비정규직과 사무직 조직화를 위해 각종 장애요소를 제거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업종분과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의식고양을 위한 활동과 변화하는 조합원 욕구에 대응키 위한 새로운 노조활동을 개척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임금인상투쟁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개선투쟁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노동자의 임금격차해소가 매우 중요한 우리 운동과제라는 것을 확인했고 공정거래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산업안전활동과 환경개선활동을 결합하여 전개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이 우리가 결의한 주요 활동방향 몇가지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토론을 더욱더 진행시키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원까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운동방향을 정립해나갈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모든 금속노동자가 굳세게 단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일본보고 >

우선 먼저 우리나라 정치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작년 8월 지금까지 38년간 정권을 잡았던 자민당 대신에 細川연립내각이 탄생했고 우리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사민당,민사당도 함께 연립여당으로서 정권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은 이미 잘 아는 대로이다. 細川내각은 오랜기간 현안이었던 중의원(하원)선거제도개혁

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이룩했지만 그후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인하, 내각개편, 연립 여당 통일을 둘러싼 움직임등으로 정권내부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어 94년 4월 細川 수상은 겨우 재임 8개월만에 퇴진했다.

연립여당 당수중에서 羽田씨가 후임수상으로 선출되었지만 사회당은 결국 정권을 이탈하게 되어 우리 노동조합은 지지정당이 연립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에 빠졌다. 랭고도 羽田내각에 대해서는 정책을 통해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는 시시비비주의로 임한다는 한발자국 거리를 둔 대응을 하게 되었다.

사회당의 이탈에 따라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羽田내각은 이해적으로 지어진 94년도 예산을 성립시키고는 퇴진했고 6월 사회당의 村山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사회당과 자유민주당 선두에 의한 연립내각이 발족케 되었다. 랭고로서는 村山내각에 대해서도 羽田내각과 똑같이 시시비비주의로 임하는 방침을 확인했지만 비자민당정권의 틀이 붕괴된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새로운 선거제도에 의한 선거구 분할이 확정되었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전국 11구역으로 나뉜 비례대표제 선거를 따로따로 투표하는 제도라 대정당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기도 해 구 연립여당 각당(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은 12월 10일 통일하여 새로운 정당, '新進黨'을 결성하였다.

한편 여당측에서는 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리버럴 세력을 결집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다당체제가 새로운 선거제도하에서 어떻게 수렴되어 갈 것인가는 아직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어쨌든 근로자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정치상황을 확인해 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나라는 91년 4월부터 전후 가장 오랜 기간의 불황에 돌입했지만 93년 10월 간신히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실질 GDP의 동향으로 보면 90회계년도에 5.3% 신장율이었던 것이 91년도에는 3.6%로 둔화하고 92년도에는 0.3%로 제1차 석유위기시의 마이너스 성장이래의 낮은 신장율로 되었고 93년도에는 마이너스 0.2%로 전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94년도에 들어서서는 94년 4-6월 전년동기 대비 0.5%, 7-9월 1.0%로 상향추세가 되었다. 특히 개인소비가 전년동기대비 2%대로 계속 신장을 하고 있다는 점, 주택투자가 대폭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등 때문에 내수는 7-9월 전년동기대비 1.5%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순수출(수출-수입)이 93년 2월부터의 엔고로 93년 4-6월기간 이래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 설비투자가 마이너스폭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지금까지 높은 신장율을 보여온 주택투자의 앞길에

불안이 있다는 점등 걱정스런 요소도 적지 않다.

경기의 동향을 광공업생산지수 신장율로 보면 91년 10월이래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던 것이 94년 6월1일에는 겨우 플러스 성장으로 되고 7월에는 일시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8월이래는 플러스로 이동하고 있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서 주목되는 기계수주통계는 대표지표의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로 91년 4-6월기간 이래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지만 93년 7-9월부터 마이너스폭이 축소하기 시작하고 94년 4-6월기간에 겨우 플러스로 전환했다. 수주속에는 해외에 있어서의 설비투자분도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확대기조가 현저해졌다 할 수 있다.

판매통계로 보면 체인 스토아 매출액은 92년 10-12월기간으로부터 94년 4-6월기간까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였던 것이 7-9월기간에는 플러스로 전환되고 승용차 판매대수도 91년 1-3월기간 이래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였던 것이 또같이 7-9월기간에는 5.1%로 플러스로 되었다.

한편, 신설주택착공호수는 92년 1-3월기간까지는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였지만 그후 대도시권 맨션의 호조, 농지 과세강화에 따른 아파트건설등 때문에 대폭확대가 계속되어 왔다.

그간, 소비자물가상승율은 93년 1.2%, 94년도도 4-11월기간에 전년동기 대비 0.5%로 떨어져 가고 있다. 7월에는 전년동기대비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가을에 들어서서 생선식품의 인상이 보여져 조금 양등세로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정세는 94년 10월 실업율이 3.03%로 지난번 불황시의 3.10%(87년 5월)에 육박하고 있다. 3% 정도의 실업율이 근래 4개월간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공공직업안정소의 통계로도 100인의 구직자에 대해 구인수는 64로 매우 저조하다.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고용정세가 '엄한 채로 있는 것은 경기에 대한 고용의 늦은 반응에도 요인이 있는 것이지만 엔고를 계기로 제조업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추진되고 제조업의 고용과 기술의 상실, 즉 국내산업의 '공동화'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우선 엔고의 상황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고 이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산업의 공동화 우려에 관해 얘기하겠다.

금번의 엔고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93년 2월 그 개선을 목표로한 벤센 재무장관의 엔고유도발언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환율은 93년 2월 당시의 최고한계로 보여졌던 1달러 = 120엔을 돌파하고 8월에는 1달러 = 100.40이 되었다. 그후 94년 1월에는 일시 1달러 = 113엔 정도까지 되돌아왔지만 6월에는 결국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1달러 = 100엔을 초과하게 되고 그후도 100엔을 전후로 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각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등도 포함된 일본의 수출기업의 채산성 수준은 110엔 대로 보여지고 또 우리나라의 구매력평가는 1달러 = 160엔정도이어서 어쨌든 현재의 엔 환율의 수준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엔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미국 국내에서는 인플레이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정부도 정책을 전환하여 94년 6월에는 미국정부로서 공식적으로 달러 약세의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렀지만 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2년간에 걸친 엔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무역적자가 계속 증대하고 있고 대일적자도 미국 무역적자 전체에 점하는 비중은 저하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일본의 무역수지에 관해서는 수출은 일시기 저하를 보여주었지만 경쟁력이 강한 분야가 수출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에 따른 자본재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대기조로 되고 있다. 수입은 기간의 흐름에 따라 높은 신장세로 되어 있어 무역흑자는 94년중반까지 증가경향을 계속하고 있지만 7-9월기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이상한 엔고수준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으로 되었다. 94년 4-6월기간의 데이터를 보면 제조업의 국내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8.3%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비해 대외직접투자는 35.2% 대폭 증대하고 있다. 또 고용면에서도 94년 10월에는 제조업의 고용자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2만명이나 감소하는 상황으로 되었다.

우리는 국제분업체제 확립에 따라 세계경제의 발전을 촉진해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속산업은 800만명, 관련 취업자를 넣으면 1200만명을 품고 있는 중요한 기간산업이고 그 고용과 기술을 상실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발전기반이 없어진다는 것에 불과하여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일본경제신문사가 94년 8월에 주요제조업기업을 대상으로 행한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93년도에 대해 99년도에는 국내생산액이 10.5%증가로 예측되고 있는데 대해 해외생산액은 147.3%증가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종업원은 2.3%증가의 예측인데 대해 해외종업원은 54.8%증가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국내설비투자는 10.7% 감소 예상인데 대해 해외설비투자는 39.4%증가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내에서의 고용대책으로는 '퇴직자 불보충등 자연감소'라는 비교적 온건한 고용조정을 행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희망퇴직'의 모집등 단기적인 삭감조

치'를 단행하고 있는 곳도 보여지고 있다.

기업이 생각하는 공동화대책으로서는 '경쟁력있는 독자기술의 개발', '국내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다수를 점해 기업의 전향적인 자세가 보여지는 바이지만 동시에 '규제완화에 의한 국내사업 코스트 감소', '환율의 안정'을 바라는 소리도 많고 공동화 저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는 거시 경제면으로부터 지원해 간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경제신문의 조사는 대상이 대기업이지만 94년 8월에 노동성이 행한 '모기업의 해외진출, 생산에 따라 영향을 받은 기업의 청문'으로는 모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현재 54%의 기업에서 국내종업원이 감소하고 있고 장래적으로는 72%의 기업이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산업공동화의 문제는 진실로 중소기업의 문제인 현실이 떠오르고 있다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조직화가 이루어지지않는 부분도 많고 고용의 안정, 확보가 매우 걱정되게 된다.

IMF-JC는 94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노동성, 대장성, 통산성, 기획청에 대해 엔고 대책등에 관해 요청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94년 10월 공동화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경영자단체연맹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족시켰다.

12월 9일에는 프로젝트의 중간적인 작업보고를 행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내수요를 상회하는 형태로 국내생산력의 정비를 행해왔다는점, 소비억제, 저축장려형의 경제사회가 형성되어 왔다는 점, 이들이 우리나라의 저축, 투자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대폭적인 경상흑자를 낳아 엔고를 초래했다는 반성에 입각해 고령화 사회의 도래나 고도정보화 사회 건설등을 향한 신사회자본, 생활기반정비등 국내투자를 확대해감과 동시에 경제, 산업의 활성화나 저생산성부분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외가격차의 시정을 도모하고 신규산업의 육성이나 경쟁분야의 확대에 따라 고용창출에 결부되어야 할 규제완화의 단행을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IMF-JC와 일경련이 공동으로 정부에 제안을 해가는 것등도 검토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에 관해서는 IMF-JC로서는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앞서 금년 9월 산업정책위원회 보고로서 그 생각을 명확히 해왔다.

전후 일관하여 발전을 계속해온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시스템도 복잡하고 폐쇄적인 면을 갖는 시장구조, 기득권에 얽매어져 불명확한 정책결정등 시장경제에 걸맞지 않는 공정, 공평을 결여한 부분을 내포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시스템으로부터 생기는 왜곡이나 폐해가 이제 단번에 분출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야 시장경제에 입각한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에 의해 고용의 창출, 국민생활향상, 그리고 제조업의 건

전한 발전을 달성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기업,생산자,정부에 대해 근로자,소비자,국민,납세자 입장은 균형을 잃고 있고 이 때문에 노동분배율의 저하,장시간 노동,고물가,불공평 세제등으로 상징된 조직이나 생산확대를 우선하는 경제.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시장경제속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경제주체가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구축해가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근로자,소비자,국민,납세자의 입장을 대표하여 건전한 카운터 파워로서의 역할을 겨냥하여 인간존중의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근로자의 입장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생산력과 생활수준의 커다란 괴리가 결과적으로 대외경제마찰,엔고,거품의 팽창과 붕괴,장기불황을 초래했다는 반성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을 생산력에 상응한 것으로 하고 규제완화나 가격인하와 함께 국민 구매력 확대와 신산업분야의 창출을 도모하고 건실한 실질성장을 실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우려되고 있는 고용에 관해서는 장기안정고용의 틀을 금후라도 유지할 것을 국민전체의 합의로서 확립하면서 세계적인 관점으로부터 균형이 있는 생산을 행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저지하고 고용이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있어서 불리하게 되지 않는 시스템을 확립해 간다. 국제적으로도 WTO의 장을 통해 노동기본권이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확립되도록 우리나라로서는 적극적인 작용을 해간다.

그리고 소비자의 관점에서부터는 농산물,공공요금등 비경쟁분야에 있어서의 고물가에 관해 규제의 정리.철폐,시장개방에 의해 내외가격차의 시정을 도모하고 가격인하를 기해 나간다.

또 국민,납세자로서는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수치목표를 내건 근본적인 정부의 세출삭감,정부사업,특수법인의 민영화를 추진해 간다. 고령화사회를 거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해서도 경제의 활력유지를 기본으로 급부와 부담의 종합적 정리를 해나간다. 세제에 관해서도 소비세에 있어서의 인보이스 도입이나 납세자 번호제의 도입에 의한 종합과세를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지극히 일부이지만 당면 중점을 짜내면서 IMF-JC뿐만 아니라 가맹산별,단위노조 전체가 각각의 입장에서 유기적인 연대하에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 형성'을 조직적으로 전개해가고자 한다.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 형성의 대책 중에 커다란 기둥의 하나로 가격인하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속에서 커다란 지각변동이 보여지고 있어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타선진국에 비해 대략 40%정도 높다는 상황에 있다. 이

이유는 우선 제1로 민간부문에 있어서 유통기구의 근대화가 늦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2로 전력,교통,통신등 공익사업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다수의 규제가 자주적인 경영을 저해하고 신규참여를 제한하며 가격결정도 코스트 플러스 이윤이라는 방식에 얽매어 있는등 합리적인 경영이나 소비자를 위한 코스트 삭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장기에 걸친 불황을 계기로 민간부문에서는 급속히 가격저하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가격혁명이라고도 불리워질 정도로 되어 있다. 당초는 소위 디스카운트 숍의 대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주요 슈퍼, 백화점에, 그리고 유통산업으로부터 제조업으로 확산을 보이게 되었다. 제품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호텔등 서비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격인하는 일부에서는 제품수입이라는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욕구를 적절히 추구하는 제품개발체제의 확립,코스트가 들지않는 제품기술 개발등에 의한 바도 크다.

민간부문의 가격인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공익산업에 있어서도 규제의 정리.철폐에 의해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재촉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공공요금의 가격결정방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코스트 플러스 적정이윤의 방식으로부터 물가상승율을 상한으로해 가격을 결정하는 프라이스 캡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주요곡물인 쌀에 관해서도 전시입법인 식량관리법이 점차 폐지될 상황으로 되고 있다. 가격결정방식의 개정, 참여촉진, 시장개방의 움직임을 더욱더 촉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격인하의 움직임에 대해 2가지 점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우선 하나는 가격인하는 디플레 경제이고 경제의 정체를 초래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요부족에 의한 가격의 저하와 기업의 적극적인 자기노력에 의한 가격인하를 혼동한 논의이다. 지금 행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은 후자이고 가격인하에 의해 국민의 실질구매력은 증대하고 새로운 산업,새로운 상품을 창출해가게 된다. 또 공익산업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경은 소비자의 이익이 됨과 동시에 민간산업에 있어서도 유리해지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을 높이게 된다 할 수 있다.

두번째의 다른 견해는 민간.공익 관계없이 가격인하, 즉 코스트인하의 움직임은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이익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확실히 일부에서는 가격인하의 움직임을 이용해 가격인하를 위한 인건비 억제라든가 물가가 내려가면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좋다는 등 주장하는 경영자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제품개발,제조기술,유통등 개발.제조.판매에 걸친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인건비를 삭감하여 가격인하에 대응하려고 하는

등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경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의 앞길은 매우 곤란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거기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일뿐이며 그러한 근로자의 노력에 대응해나가는 것은 경영층의 책임이고 또 가격인하에 의한 기업체질개선의 성과를 적정히 근로자에게 배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보고의 끝으로 내년봄의 노사교섭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12월 6일 IMF-JC는 95년 임금인상요구기준으로서 고졸 35세.근속 17년의 생산노동자임금을 299,000엔으로 할 것, 평균임금으로는 12,000엔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 요구기준에 기초해 내년 1-2월에는 각 산업별.기업별 조합이 요구를 결정하고 2월 24일까지는 주요 기업별 조합에서는 요구를 제출해 단체교섭을 강화해 간다.

금번 요구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임금인상을 요구로부터 인상액 요구로 했다는 점이다.

94년 봄의 교섭을 되돌아 볼 때 IMF-JC 평균 2.92%, 노동성 집계로 3.13%로 지금까지 가장 낮은 임금인상율에 멈추었다. 댕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거치면서 임금인상율통일에 따른 폐해를 제거하고 임금격차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임금수준의 전반적인 인상을 목표로 하기 위해 요구목표를 임금인상액으로 나타내게 되었고 IMF-JC에서도 이 방침을 받아들여 요구기준을 책정했다.

댕고의 평균인상요구목표는 14,000엔이었지만 전체로서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댕고의 영향을 받아 금속산업에서는 산업마다 상황의 차이가 커 금속산업을 묶는 요구로서 12,000엔을 결정했다.

노동시간단축에 관해서는 89년부터 분투해온 JC시간단축 5개년계획이 93년말로서 일단락을 지었다. 우리는 연간총실노동시간을 영미와 독불 수준의 약 중간쯤 되는 1,800시간 정도로 하고자 노력을 경주해왔다. IMF-JC의 주요 82 기업별 조합에 관해서 보면 상당한 다수의 조합이 1,800시간대에 들어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미 1,800시간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우리는 금후 1,800시간을 IMF-JC전체에, 나아가 일본 전체의 것으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금번 95년투쟁의 추진은 역사적.사회적으로 일본이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구축해갈 것인가 하는 선택에 관련된 문제이고 사회 분배구조의 시정을 통한 내수형경제에의 탈피를 목표로 강력한 노력을 전개해갈 결의이다.

<끝>

2. 해외파견

1) '94 IMF 중앙위원회 파견

(1) 기간 : 1994.5.26 - 5.27

(2) 장소 : 프랑스 마르세이유

(3) 참석자 : 본노련 위원장 박인상

본노련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4) 회의개요

* 80개국 113노조 278명 참석

* 주요 의결사항

ㄱ. 8개조직 가맹인준 및 3개조직 제명

ㄴ. 중앙집행위원 보선

ㄷ. 조선분과 의장 선출(막스 뵈링 덴마크 금속노조 위원장이
피선됨)

ㄹ. 신임사무차장에 브라이언 프레드릭 지명

ㅁ. 차기 중앙위원회 일시 및 장소 결정(95.525-26 캐나다
밴쿠버)

ㅂ. '금속노동자의 경제사회현장' 채택

2) 스웨덴 산업안전 연수단 파견

(1) 기간 : 1994.6.11 - 6.19

(2) 장소 : 스웨덴

(3) 참석자 : 본노련 사무처장 정창영

본노련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본노련 홍보차장 민한홍

(3) 활동사항 : 스웨덴 금속노조 본부 방문

스웨덴 금속노조 트롤해탄 지부 방문

SAAB자동차 공장견학 및 분회방문

에릭슨공장견학 및 분회방문

스웨덴생산기술연구소 방문

우베스타 셰필드 공장견학 및 분회 방문

LO/TCO소장과 지원관계 논의

(4) 사후조치 : 보고서 발간, '스웨덴의 노사관계'(94년 7월)

〈스웨덴의 노사관계 목차〉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1. 스웨덴의 노사관계 100년

2. 노동조합의 구조와 기능

1) 조직형태

2) 노총조직

3) 산업별 노조 - 스웨덴 금속노조

4) 경총조직

3. 교섭 및 쟁의

1) 교섭제도

2) 임금결정의 기준

3) 공동결정제도의 발전

4) 공동결정관련 기타 법률

5) 쟁의관련 제도

6) 쟁의와 정부의 역할

4.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

1) 연차휴가법

2) 질병수당

3) 연금

4) 고용안정법

5) 고용촉진조치법

6) 실업보험기금

7) 교육휴가법

8) 작업장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대표 지위법

9) 작업장에 있어서의 남녀평등법

10) 노동관계보험

5. 노동의 인간화 추진

6. 노동조합과 사민당

3) 제33차 IMF-JC정기대회 및 제30주년 기념행사 파견

(1) 기간 : 1994.9.6

(2) 장소 : 일본 도쿄

(3) 참석자 : 본노련 위원장 박인상

(4) 활동사항 : 대회참석(아시아지역 대표하여 축사)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IMF 아태지역회의 참석(한국 정치.경제.노동정세보고)

(5) 대회특기사항 : 임원개선(도꾸모또 의장 연임, 사무국장에 전기
노련 아지마 유꾸오 피선)

4) 일본자동차총련 제23차대회 파견

(1) 기간 : 1994.9.7 - 9.9

(2) 장소 : 일본 도쿄

(3) 참석자 : 본노련 위원장 박인상

5) 일본철강노련 제85차대회 참석

(1) 기간 : 1994.9.13 - 9.15

(2) 장소 : 일본 도쿄

(3) 참석자 : 본노련 경남지역본부 의장 제선수

6) 94년도 노동부 근로자 해외연수 파견

(1) 기간 : 1994.11.4 - 11.12

(2) 장소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3) 참석자 : 대우중공업노조 부곡지부 지부장 조인곤

본노련 교육부장 김홍룡

7) 일본조선중기노련 초청 일본연수단 파견

(1) 기간 : 1994.11.6 - 11.13

(2) 장소 : 일본

(3) 참석자 :

단장 : 이영호(대동조선노조 수석 부위원장)

단원 : 정학균(조선분과 의장)

임전규(대동조선노조 부지부장)

배창호(대전조선노조 부위원장)
 황태연(강남조선노조 사무국장)
 김상수(강남조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만진(한진중공업울산 수석부위원장)
 최기수(한진중공업울산노조 사무국장)
 한정규(세웅노조 부위원장)
 김근수(세진노조 위원장)
 진영봉(대전조선노조 사무국장)

- (4) 활동내용 : 일본조선중기노련 방문(11.7)
 일본조선공업협회 방문(11.7)
 일본생산성본부 방문(11.8)
 가와사끼중공업 방문(11.9)
 나무라조선소 방문(11.11)

8) 제5회 IMF세계전기전자세미나 파견

- (1) 기간 : 1994. 11. 15-11.17
 (2) 장소 : 방콕 퀸스 파크 호텔
 (3) 참석자 : 37개국 150명(일본 39명, 태국 33명)
 (4) 참석자 : 현대전자 노조 위원장 김영철
 본노련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 (5) 일정 : 11. 15 : 개회식
 각국 노동조합권상태 및 대책에 대한 보고
 11. 16 : 전기전자산업 국제화에 따른 노조예의 영향
 다국적기업 세계전기전자 협의회 활동 보고
 결의문 채택

11. 17 : 공장견학(아사끼 전선 방콕공장)

- (6) 회의 주용내용 : 국제화에 따라 전기전자산업의 국제적 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시아지역의 전기전자산업의 발전속도가 매우 크다. 서아시아 및 동구쪽의 발전도 앞으로 클 것이다. 이런 전자 산업의 세계적 이동에 따라 나타나는 노조운동에의 영향은 조직율의 감소와 교섭력의 약화이다. 조직율이 낮은 동남아시아지역의 이동에 따른 문제점과 선진국에서 이러한 이동을 가지고 노조운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선진국에 있어서 실업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다국적기업노조협의회를 통한 활동과 WTO등에의 사회현장의
삼입등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9) 일본노동재단(JILAF)초청 일본연수 파견

- (1) 기간 : 1994.11.24 - 12.6
- (2) 장소 : 일본
- (3) 참석자 : 본노련 여성국장 정영숙

10) 95년도 근로자 해외연수 파견

성 명	소 속	직 위	방 문 국	기 간
김 영 준	금성사 창원2 지부	지 부 장	미국	95.2.27-3.8
박 효 순	삼화전기노조	위 원 장	독일,영국	95.2.28-3.9
최 웅 길	금속노련	부위원장	미국	95.3.27-4.5
서 갑 순	한국특수공구	위 원 장	중국,일본	95.3.29-4.7

3. 외국인사 초청

1) 본노련 '94정기대의원대회 초청

- (1) 기간 : 1994.5.16 - 5.18
- (2) 초청자 : IMF동아시아사무소 소장 고지마 세이고
IMF-JC부의장 하토리 미쓰로
- (3) 활동사항 : 본노련 대회 참석
노총 방문
노동연구원 방문

4. 외국노조간부 방문

1) 일본전기연합 시가지역간부 방문

- (1) 일시 : 1994.5.19 - 5.20
- (2) 방문자 : 전기노련간부 30명
- (3) 활동사항 : 본노련 방문
대한전선 안양공장 견학

2) IMF-JC간부 방문

- (1) 일시 : 1994.5.14 - 5.18
- (2) 방문자 : IMF-JC간부 26명
- (3) 활동사항 : 한국노동운동 및 노동법에 대한 강연
대우전자 인천공장 견학

3) 일본 조선중기노련 간부 방문

- (1) 일시 : 1994.12.8 - 12.13
- (2) 방문자 : 조선중기노련 쓰쓰이 히데오 산업정책서기차장 외 4명
- (3) 활동사항 : 본노련 방문
금성사 평택공장 방문
한진중공업 울산공장 방문

4) 스웨덴 LO/TCO간부 방문

- (1) 1995.1.16
- (2) 방문자 : 야콥슨 벵트 스웨덴금속노조 국제국장 외 2명
- (3) 활동사항: 본노련,노총,금융노련,보험노련,사무금융노련,병노련,노동연구원,노동교육협회등 방문
- (4) 목적 : 스웨덴 지원사업 연장여부 검토

5. 기타사업

한국시티즌노조 감원문제에 대해 IMF-JC에 협조요청

노사대책 · 법규활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1.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 결성
2. 대한알루미늄건설 탄원서 제출
3. 한보철강 분규건
4. 삼성자동차사업진출반대 성명서 발표
5. 삼성전자 독일지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서 발표
6. 질의회시

평가와 개선방향

노사대책활동에 있어서 특별사업으로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역점을 두었고 분과중 무엇보다도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자동차분과를 구성운영하였다. 이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임금격차나 노동기본권 제약등을 상호 연대하여 해결하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본노련에서는 그간 임금격차해소문제에 주요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수차에 걸쳐 영향력있는 정부당국에도 건의하여왔다. 그리고 94년도 중앙합의시 정책제도개선 사항과 사용자측이 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임금격차해소문제를 삽입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이 모기업노조와의 협력하에 보다 원활히 해결키 위해 자동차분과를 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업종의 경우 요구는 강하나 보복이 두려워 활동에 앞장서려 하지 않는 것이 커다란 맹점이다. 따라서 연맹이 앞장서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연맹이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노조들의 적극적 참여가 없어서는 안된다. 특히 분과운영은 해당 분과에 상당한 자율성을 주어 운영하려 하는 것이 연맹방침이었다. 그러나 각 노조들이 단위노조 업무에 쫓겨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분과위의 자율적 운영이 잘안되고 있다. 따라서 분과 담당자들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청되나 연맹의 재정적 한계로 제도마련이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교류를 촉진하는등 작은 활동이나마 찾아서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사대책활동중 또 하나 미비된 것은 현재 광범히 진행되고 있는 경영합리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합리화는 노사간의 세력관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노조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단기적 대응지침의 마련을 통해 대응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의 보강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1.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 결성

(1) 준비일정

1994.10.20 : 본노련 임원,지역본부 의장회의에서 자동차업종 노동조합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 결성을 결정기로 결의

1994.11. 4 :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1994. 11. 22일 자동차업종노동조합 대표 자회의를 울산에서 개최하여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를 결정기로 결의함

(2)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 : 1994.11.22 71명의 자동차업종 노동조합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자동차분과 위원회를 결성. 이날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후 현대자동차 공장 전학

ㄱ. 분과위원회 임원 명단

의장 : 김경조(본노련 대구,경북지역본부 의장)

부의장 : 경기지역 담당 이병욱(태양금속노조 위원장)

인천지역 담당 박근수(한성실업노조 위원장)

부산지역 담당 오일환(본노련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

울산지역 담당 김복천(정일공업노조 위원장)

대구,경북지역 담당 김무호(평화크랏치노조 위원장)

경남지역 담당 임창수(풍성정밀노조 위원장)

서울,충남북,전남북,구미 담당 김보현(대흥정비노조 위원장)

사무국장 : 김복천(정일공업노조 위원장) *부의장 겸임

회계감사 : 하상순(대성사노조 위원장)

김성천(한국스핀들노조 위원장)

양승종(대동케이블노조 위원장)

이대선(기영산업노조 위원장)

지도위원 : 이영복(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ㄴ. 분과위원회 운영규칙 : 아래 자료

ㄷ. 사업계획 : 다음 사업을 중심으로 분과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

(근로조건등 기초자료 조사 및 자료집 발간, 95임투공동대책 및 정보교류와 공정거래 촉구회의,모기업 방문, 친선모임)

ㄹ. 예산 : 노조당 연간 2만원씩 거출하여 자료발간 및 회의운영비에 사용하
되 그외는 참석노조에서 실비를 분담한다.

ㅁ. 특별결의문 채택 : 아래 자료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 운영규칙

1994년 11월 22일 제정

제 1 조 (근거 및 목적) 본 규칙은 본노련 규약 제11조 및 본노련 업종별 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본노련의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함)의 운영을 도모키 위해 제정한다.

제 2 조 (구성) 본 분과위원회는 본노련 분류에 의한 자동차업종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사업) 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자동차업종 노사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업종 노조간의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업종 산업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
4. 대정부, 대사용자 산업정책수립에의 참여
5.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 4 조 (조직) ① 본 분과위원회는 업종 소분류에 따라 다음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자동차 제조 소위원회
2. 자동차 부품 소위원회
3. 자동차 판매 소위원회
4. 자동차 정비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 신설·통폐합은 본 분과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소위원회 운영은 소위원회 담당 부의장이 관장한다.

제 5 조 (결의기관) 본위원회에는 다음의 회의기구를 둔다.

1. 대표자 회의
2. 운영위원회

제 6 조 (대표자 회의) ① 대표자 회의는 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정기대표자회의는 매년 11월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필요시, 또는 본노련 또는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시 임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④ 대표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본노련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운영규칙 개폐
2.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 예산수립 및 결산
4. 임원선출 및 해임
5. 단체교섭, 쟁의에 관한 사항

제 7 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대표자회의 상정안을 심의하고 대표자회의 수임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 8 조 (임원) ① 본 분과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 명
2. 부의장 약간명(지역별,소위원회별로 배정)
3. 사무국장 1 명
4. 회계감사 약간명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제청으로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① 의장은 본 분과위원회를 관리하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 유고시 의장의 위촉 또는 운영위원회의 선임으로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11 조 (분담금) ① 본 분과위원회는 대표자 회의의 결의로 분담금을 각출할수 있다

제 12 조 (회계보고) 의장은 정기대표자 회의에서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 13 조 (지시사항 준수) 본 분과위원회는 본노련의 규약, 제규정,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연맹의 지원) 연맹은 분과위원회의 요청사항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연맹 사무처내에 담당 간사를 두어 조력토록 한다.

제 14 조 (규칙개폐) 본 규칙은 본 분과위원회 대표자회의와 결의로 행한다.

제 15 조 (준용) 본 규칙 미비사항은 본노련 규약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시행) 본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창립

특별 결 의 문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이며 국제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강력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 확대로부터 우리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튼튼한 기초부터 확실히 다져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부품산업과 노동자 희생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전근대적 방식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분할지배에 의한 불공정 거래 제도화와 부품업체 노조에 대한 감시감독으로 경쟁의 짐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품업체의 지위는 날로 허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기초가 튼튼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모기업이 적극적으로 사고 전환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오늘 자동차업종 노동자의 굳센 단결과 협력을 통해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노동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키 위해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다 음

1.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현장감사를 실시하라!
1. 모기업은 자동차공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부당한 단가삭감조치와 모든 비리를 즉각 시정조치하라!
1. 우리는 부품업체 노사관계에 대한 모기업의 지배개입을 강력 규탄한다.
1. 우리는 모든 자동차업종 노조의 동참을 촉구하며 특히 부품업체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기업노조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3) 자동차분과위원회 임원회의(1994.12.8)

ㄱ. 목적 :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방안 논의

ㄴ. 결정사항

사업계획

- (1) 근로조건 실태조사서를 12월말까지 수거하여 95년 1월말까지 자료를 만들어 배부한다.
- (2) 95년도 임투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95년 2월 15 - 16일경에 대전에서 1박2일 개최한다
- (3) 95년 10월 9 - 10월중에 등반대회를 갖는다.
- (4)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노사간담회 요청건은 연맹,분과위 의장,분과위 사무국장이 협력업체 대표를 만나 조건을 타진한 후 결정한다
- (5) 분담금은 지역담당 부의장의 독려하에 94년 12월말까지 의장에게 송금한다.

(4) '95임금교섭을 위한 자동차업종 실태조사(94.12.20 실태조사서 발송)

실태조사서

1. 노조명:
2. 지역:
3. 주요제품:
4. 납품모기업:
5. 노조설립년도:
6. 회사설립년도:
7. 종업원수 : 남 여 계
8. 일용.임시직인원수 : 용역.소사장인원수: 파트타임인원수: 외국인노동자수:
9. 조합원수 : 남 여 계
10. 노조전임자수 : 11. 전임자 임금수준:통상임금 + (
12. 위원장수당 : ()원
13. 조합원만에게 주는 회사의 특별혜택내용:
- 14.유니온샵 여부: 유니온샵이다() 오픈샵이다()
- 15.비전임자의 노조 활동시간: (주,월) ()시간,

- 16.근무시간중 노조교육시간 : 월 ()시간
- 17.조합원 평균연령: 18.조합원 평균근속년수:
- 19.조합원 평균부양가족수(본인포함):
- 20.초임실태
공고졸()원, 인문고졸()원, 중졸이하()원,
여성미혼()원
21. 조합원 통상임금 평균:
22. 정기호봉승급: 년 ()회, 각회()원정도
23. 각종 수당명과 금액을 적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24. 정기적 상여금 : 연간 (기본급, 통상임금,)의 ()%
25. 94년도에 지급된 특별상여금:
26.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누진내용을 적어주십시오
27. 단체퇴직보험제도에 들어 있는가?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28. 학자금지급제도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29. 주택자금 융자제도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30. 법상의 사내복지기금제도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규정도
첨부할 것)
29. 법외의 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다면 그 적립금액과 용도는 ?
()원
30. 장기근속자에 대해 선물이나 휴가를 주고 있다면 근속별 그 내용을 적어 주십
시오
31. 생일자에 대한 선물지급의 내용은 ?
32. 명일 지급의 선물은 얼마정도인가 ?
94년 신정()원상당, 94년 구정()원 상당,
94년추석()원 상당
33. 중식,석식,야식,조식 제공내용을 적어주십시오(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
중식: 석식: 야식: 조식:
34. 통근 교통비는 ?
월 ()월을 지급한다()
통근버스를 제공한다()
통근교통비 지급도 없고 통근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35. 유급휴일을 전부 적어주십시오

36. 경조휴가일수 및 경조비지급내용을 적어주십시오
37. 통상임금계산시 월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하고 있는가?
38. 다음 근로에 대해서는 그 근로에 대한 100%이외에 얼마를 지급하는가?
 평일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
 휴일연장근로: 통상임금의 ()%
 미사용 연월차휴가: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
39. 토요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매주 근무() 격주제로 근무()
40. 토요일에 4시간이상근무할시 처우는 ?
 잔업으로 처리한다()
 기준내 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 100%만 지급한다()
41. 철야근로시 다음날은 ?
 유급으로 쉬며 근무할시는 150%지급(),
 쉬는 경우 무급이다()
42. 석식시간은? 무급이다() 유급이다 ()
43. 야근시 유급휴식시간은 몇분 주는가? ()분
44. 근무시간외에 예비군훈련을 받을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근무로 간주한다() 무급처리한다()
45. 예비군훈련기간 중 훈련일부를 면제받는경우 유급으로 쉬는가 회사에 출근하는가 ?
 유급으로 쉰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다()
46. 연간 회사 비용부담의 야유회나 체육대회를 며칠 갖는가?
 야유회 ()일, 체육대회()일
47. 94년도하기휴가일수 ()일, 94년도 하기휴가비()원
48. 개인 사정으로 휴직할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49. 산재사고로 휴직할 시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이 있으면 그 내용은?
50. 모기업의 파업이나 휴업으로 회사가 휴업할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51. 정년: 남자 ()세, 여자 ()세
52. 징계위원회 구성
 노사동수 구성으로 노조측 찬성이 없으면 절대 징계못한다()
 노사동수 구성이나 결정권은 사실상 회사측에 있다()
 노조는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53. 단체협약에 공장이전, 하청, 용역, 감원등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적어주십시오

54.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년이며 현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년 월 일)
55. 임금인상시기 ()월
56.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57. 자동차제조업체 노조에 협조요청드릴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2. 대한중석건 탄원서 제출(94.4.7)

- (1) 발송일자 : 94.4.7
- (2) 수신처 : 청와대,민자당,민주당,재무부,노동부
- (3)개요 : 대한 중석이 거평으로 인수된데 따른 고용문제와 주거래은행
한국산업은행이 주식양도에 따라 얻게 된 초과이익을 종업원
복지를 위해서도 사용토록 탄원

3. 대한알미늄건 탄원서 제출

- (1) 사건개요 : 노조 사무국장의 이동통신 사내판매 주선과 관련하여
회사측이 이를 이용,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사건이 확대되어 회사측이 업무 방해등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노조 위원장을 징계해고한 사건임(기타 내용은
탄원서 참조)
- (2) 탄원서 제출 : 1995.1.5 법원 울산지원과 검찰청 울산지청으로 본
노련,한국노총, 노총 울산지역지부, 본노련 울산지역
본부, 울산지역 노조 조합원등의 연서로 탄원서를
제출
- (3) 결과 : 회사측이 법원 및 검찰에 제출한 소를 취하하고 징계해고한
노조 위원장은 감봉 2개월로 경감했으며 나머지 간부에 대
해서도 감봉조치로 경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음.
- (4) 탄원서 내용

단원인들은 (주)대한알미늄의 노사평화 파괴적 조치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의 과감한 조치로써 노사평화가 근원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1.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 대한알미늄의 노사간 현안문제는 사소한 사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94.8.29 이동통신 대여 목적하에 회사의 출입승인을 받고 출입한 부일이동통신 관계자에게 노조에서 책상을 빌려주었다하여 회사 김필호 관리상무가 책상대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노조 사무국장에게 '이새끼야, 이 책상이 니꺼야. 저새끼 건방진 놈이... "등등 폭언을 하자 조합원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노조 위원장이 이에 "할 이야기가 있으면 조합 사무실에서 하지, 조합원들 보는데서 왜 사무장한테 상소리를 하느냐"고 얘기하자 김필호 관리상무가 폭언을 하였고 이에 상호 언성이 높아지자 제3자인 비조합원 이병조(자재부 소속, 4급)가 노조 위원장에게 "네가 뭘데 감히 관리상무님한테 큰소리를 치느냐"며 때리려고 덤벼들자 노조간부 몇명이 이를 만류하는 몸씨름이 있었습니다(회사는 이날 부일이동통신이 대여 목적으로 회사출입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실로 위장하기 위해 경비실 출입증을 사후 위조하여 출입목적을 '이동통신대여관계'에서 '위원장 면담'으로 바꾸어 놓았음).

2. 이병조는 이날 몸씨름에 대해 2주 진단을 받아 94.8.30 노조간부 6명을 남부경찰서에 폭행혐의로 고소했는데 이것은 회사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병조가 고발하기 전인 94.8.29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 노무과장이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노조집행부에 대해 협박을 하였으며 사실 이병조는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다는 약속하에 94.8.29 밤에 노조 위원장을 만나기로 하였었는데 그가 부서 상급자를 만난뒤에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노조에서는 회사측 의도가 노조공격에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여 94.8.30일 이 사건을 대자보를 통해 조합원에게 알렸고 회사도 회사대로 대자보를 통해 내용을 알렸고 그러자 조합원들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요구하였고 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자 대의원들은 파업하자는 요구까지 하였으나 위원장의 만류로 94.9.3 토요일 점심시간에 조합원대상의 설명회를 갖되 근무중인 조합원(교대근무자중 일부)은 제외하되 근무와 관계없는 조합원들만 최대한 참석시키되 이들 미참석 조합원을 위해 추후 순회교육을 통해 알리기로 하였으며 이 결의에 따라 노조에서는 있을 수 있는 위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의 법률자문을 받아 희망자에 한해 토요일 점심시간에 설명회를 갖는다고 공고하였습니다.

4. 노조는 예정대로 토요일 12:05 - 12:50까지 설명회를 가졌는데 회사측 처사에 분노를 느낀 일부 교대제 조합원들이 노조방침과 무관하게 오후 3시까지의 초과근로를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고 9월 10일 토요일에도 일부 조합원이 초과근로분을 근로하지 않은 채 퇴근하여 노조는 9월 15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초과근로를 정상적으로 하여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나 회사는 이들 조합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였고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5. 회사는 사소한 문제에서 발생한 이 분규를 노조측에서는 원만히 해결키 위해 노조 의도와는 달리 발생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하고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함께 회사관계자에게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규를 악용하여 노조집행부를 와해시키려 해왔고 94.9.24에는 업무방해혐의로 위원장을 고소하였고 94.9.27에는 노조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노조 위원장의 노조간부 5명을 징계에 회부하여 94.11.23에 노조 위원장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6.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적,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노, 사, 정 모두가 이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정부와 사용자측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주)대한알미늄 회사측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소한 사건을 악용하여 노조 집행부를 와해시켜보려는 회사측의 태도는 회사경영에도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정착에도 하등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7. 우리는 지역의 노사관계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하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며 우리 노동조합들도 역시 생산적, 합리적 노사관계정립차원에서 이 문제를 엄중히 대처해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한보철강분규건

(1) 경위

94.1.31 : 노조 대의원들의 94년도 임금동결결의(동종업체 최고치 만큼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다음해에 기본급으로 전환시킨다는 회사측의 약속을 전제로 결의가 이루어짐.

이 결의 이후 회사는 2회에 걸쳐 도합 7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음)

94.3.1 : 공장이전에 따라 아산만 진출 종업원처우에 대한 노사간 협약 체결

94.8.30 : 공장이전에 따른 이러한 합의에 대한 불만으로 김종갑집행부 불신임하고 장의진 새 집행부 등장(전출자문제등에 대해 재교섭하여 더 파내겠다고 선거공약)

94.9.10 : 노조측, 전출자 문제 및 임금부분 교섭 요청. 회사측은 교섭불응.

94.10.27 : 노조측 쟁의발생신고

94.11.5 : 부산 지노위서 임금협약은 기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임금협약이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통보. 이에 노조측 중노위에 재심요청

94.11.12 : 노조 파업돌입

94.11.23 : 아산만 조합원 76명 회사방해속에 부산공장으로 이동

94.11.23 : 위원장 장의진, 부위원장 윤광석, 사무국장 유근웅, 교육부장 오재길에 대해 구속영장 발급(노조간부 15명, 조합원 1명에 대해 회사측이 고소고발했음)

94.12.5 : 조업재개하면서 교섭

94.12.31 : 타결(임금동결사례비 150만원, 생계비 50만원,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적용, 95년도 무파업), 노조 위원장등 노조간부 구속됨

95.1.27 : 노조위원장등 집행유예로 석방

(2) 본노련 지원활동 : 현지조사, 회사 및 관계기관통해 공권력 투입없도록 요청, 중노동위원회에 협조요청

5. 삼성자동차사업진출반대 성명서 발표(94.12.6)

<성명서>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허용을 반대한다

그간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지해온 정부가 돌연 납득할만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허용의 입장으로 백팔십도 선회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도에 따르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이유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 정치적 이유로 허용된다면 우리 국민경제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실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경쟁체제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장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산업 상황을 볼 때 삼성의 승용차사업진출로 과잉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지적한다. 과잉중복투자는 결국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고용불안도 야기하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과 전문적 검토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삼성의 승용차사업진출문제에 대해 불허용입장을 견지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부가 입장을 뒤집는다면 그에 따라 발생할 문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또한 우리는 무노조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삼성의 승용차사업진출이 야기할 국내·국제적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삼성의 무노조정책은 결국 타 업체에도 영향을 주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매우 크며, 블루라운드등 국제적 노동권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제적 공격의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현단계에 있어서의 삼성의 자동차사업진출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끝>

6. 삼성전자 독일지사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성명서 발표

성 명 서

삼성전자 독일지사 부당노동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정부의 엄정한 조사 및 조치를 촉구한다

삼성전자 독일지사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국제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보도에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국내에서 반노동자적 '무노조 경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왔음

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고 있는 독일에서 똑같이 비열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의 명예를 일거에 더럽혔다. 지금 '세계화'추진이 한창인 이런 시점에 있어서 이와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 요소로 등장, 국익을 해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이 금번의 물의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독일지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이 사건을 엄중조사하여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삼성전자가 독일지사에 보낸 공문 내용(94.5.16)>

우리는 종업원평의회 대표선출을 위한 종업원총회가 94.5.20일 개최되리라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업원평의회는 노조관련 조직을 필요치 않는 삼성의 경영철학에 배치됩니다.

독일지사의 종업원평의회는 독일에 있어서의 우리 회사의 이전이나 폐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9년 뉴저지의 칼라 텔레비전공장이 노조 때문에 폐쇄됐고 포르트갈의 공장이 같은 이유로 영국으로 이전됐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본사의 경영진은 귀하께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 본노련 성명서에 대한 일간지 보도 내용 >

7. 질의회시

1) 대의원대회 심의사항 총회상정가능 여부

<질의>(금속노련법규 제38호 94.5.11)

갑노조 규약중 결의기관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은데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였다가 부결되자 이를 다시 총회에 상정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와 그경우 의결된 총회의결사항의 적법성 여부를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규약내용

제5장 기관

제22조(기관)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회

제1절 대의원대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제24조(소집공고) 제25조(대의원비율) 제26조(의안제출)

제27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14. 기타 중요한 사항

<회시>(노조01254-697,94.5.23)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나,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대회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가. 귀 질의의 경우, 귀 규약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의 심의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총회에 재차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이는 노조 집행부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참고로 동 내용과 1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93.6.23 시.도지사등에게 업무지시한 바 있습니다.

* 불임<업무지시>(노조68110-722, 1993.6.23)

1. 최근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병행.운영하면서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또는 부결된 안건)을 대의원회에서 번복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안건(또는 부결된 안건)을 총회에서 번복하려고 시도하는등 노동조합 집행부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2. 이는 노동조합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위반되므로 총회 및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여 집행부가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조합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

2)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의 할증관계 지침변경에 따른 효력

<질의>(대일노조 제94-25호)

지침의 강제력 여부 및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제기 가능성 여부

<회시>(금속노련법규 제56호, 94.7.5)

노동부 행정해석(93.5.31 근기 01254-1099)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시 휴일근로 할증 50%와 연장근로할증 50%를 합하여 100%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변경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조치로 각 사업장에는 별도로 통보되지 아니하고 노동부 지방관서로만 시달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법개정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행정해석은 강제집행력은 갖지못하지만 행정관청에 진정을 내게 되면 노동부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지난 3년간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해당 대법원 판례를 보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여부

<질의>(부산지역본부)

<회시>(금속노련법규 제73호 94.8.19)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하여 1990년 3.24일 경기도 지노위가 부천 세종병원 노동쟁의 중재사건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협정은 노동조합법 제 39조 4호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강행법규위반”이라고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는 90년 4.9일 90년도 상반기 전국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전임자임금문제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즉, 중노위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이론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 이유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노사관계의 실태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주체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노사간 정식합의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노동부도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및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가 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노조 01254-7023, '90.5.16)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도 “회사가 조합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은 조합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획득한 것인만큼 이를 가리켜 노동조합법 제 39조 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제 2부 1990.6.28선고, 89구7674)고 하고 있습니다.

3. 동아금속노조의 경우, 노조의 요구에 따라, '92.7.3 노조위원장을 전임제로 한다는 합의를 한 이후 전임자를 인정해온 사실, 이후 조합전임자의 처우에 대하여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추가합의를 한 사실, 전임자인정 이후 최근까지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 현행 우리나라의 노사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합의서 4조 1항의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전임자의 신분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전임자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등의 “경제적인”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연장근로등에대한 회시

<질의>(동일노 제94-29호, 1995.1.7)

가.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20분 근무하는 3교대자의 토요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분의 연장근로 간주여부

나. 월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간주 여부

다. 월 통상임금중 주휴수당 포함 여부

라. 안전교육시간의 근무시간 간주여부

<회시>

1. 질의 1,2에 대해

귀노조 단체협약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 근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만이 연장근로로 될 것입니다. 질의 1의 경우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간주될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연장근로는 위 단체협약대로라면 일 또는 주 단위로만 계산되는 것이며 단체협약 제35조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 184시간은 통상임금산출을 위한 시간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84시간이 연장근로시간 산출을 위한 기준시간으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2. 질의3에 대해

주휴일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있는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여타규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나 단체협약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회사급여규정 제23조에만 유급휴일수당이 월정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월정급여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정급여가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귀노조의 임금체제로 볼 때 기본급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수당이란 통상임금에 상당한 금액이므로 기본급을 제외한 통상임금인 능률급과 환경수당등이 유급휴일수당 산정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3. 질의 4에 대해

‘교대근무자 특별휴가 부여기준’을 볼 때 특별휴가란 법상의 유급주휴일과 관계없이 별도로 부여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유급주휴란 법상 주 소정근로일수 만근자에 게 주는 것이지 위 특별휴가 부여기준 6처럼 여러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상호 상계될 수 없는 것입니다.

4. 질의5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그 생산직종사 근로자에 대해 월 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으로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5) 유니온숍 협정 미적용자의 조합가입자유 여부

<질의>(금속노련 법규 제164호 94.2.8)

갑노조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조합원 가입범위에 관한 여타 규정은 단체협약에 없습니다.

“제0조(가입보장) 회사는 종업원이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권

리를 인정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노동조합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나) 회사의 관리직 사원과 월급여자로 책정된 사원

다) 임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시한부 및 수습견습·실습증인자“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조항을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종전 일급직이던 자를 월급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조합가입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단체협약 조항은 유니온 샵에 관한 협약으로 단서의 각 종업원은 유니온 샵 적용만 배제된다는 의미이지 노조법상의 가입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귀견은 여하한지 ?

<회시>(노조01254-211,1995.2.23)

귀 질의의 경우 노조가입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노조가입범위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한다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회사일방적인 불규칙한 근무조 변경의 적법성 여부

<질의>(전금련연철노 제95-05호, 1995.2.20)

<회시>(금속노련법규 제184호, 1995.3.3)

근무시간제도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르야 하나 노동자의 예정된 생활시간을 보장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노조 단체협약을 볼 때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에는 1일 3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주간 2교대 또는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 제22조 제5항에는 재해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유 발생시에 한하여 취업시간을 변경하거나 비상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들 규정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1일 3교대의 근무조는 원칙적으로 지키되 부득이한 경우(무엇이 부득이 한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나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에 한하여 주간 2교대 근무 또는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보며 귀하가 질의한 경우와 같이 취업시간을 불규칙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재해나 기타 긴급시만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근무시간제를 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시간을 예측 가능토록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보호적 장치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것은 비상시등에 한하도록 하여야 그 취지에 부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규칙적으로 근무조를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조사통제활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향

1. '94 임투지원활동 - 임투사업장 순회 방문
2. '94 임투평가
 - 1) '94 임투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
 - 2) '94임투진행현황
 - 3) '94임투 총괄 및 평가
 - 4)향후 전망
3.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 발간
4. '95 임투준비
 - 1) '95 임금인상 투쟁 활동을 위한 실태조사
 - 2) '95 임금인상투쟁활동 자료집 발간
 - 3) '95 임투지침 발간
 - 4) '95 임투 전국순회교육 실시
 - 5) '95 임투승리를 위한 기업경영분석 교육 실시

평가와 개선방향

조사통계부에서 행한 주요사업으로는 94년도임투상황집계, 94년도 임투평가, 95년도 임금지침 작성, 실질근로조건 및 단체협약분석집 제작등이다. 이들 사업 전개에 있어 가장 애로로 느끼고 있는 점은 실태조사서의 회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수차에 걸쳐 독촉을 하고 지역본부를 통해 직접 회수도 하지만 회수율이 매우 낮다. 타사업장에 대한 자료요구는 많은 반면 자기 사업장 정보는 잘주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노조운동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 전임자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노조에 전임자 한명이상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번회계년도에 시행하려고 준비는 했었으나 실시하지 못했던 것은 고용문제 등 경영합리화나 부품업체문제에 대한 조사였다. 경영합리화 문제는 추후 실질근로조건조사시 일부 반영시키기는 했으나 충분치 못했다. 부품업체문제는 자동차분과 결성과 관련하여 근로조건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수율 저조로 활용치 못했다.

다음 회계년도에는 경영합리화 부문의 조사나 직제개편등 지금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급조직이 노력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1. '94 임투지원활동

1) '94 임투지원 사업장 방문

(1) 방문기간 : 1994년 6월 8일 - 6월 24일

(2) 방 문 자 : 연맹 임직원

(3) 방문결과 요약

- 중앙노사합의로 인해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
- 자동차 부품업체 하청단가 인하에 대한 불만이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일부조직의 노총탈퇴 결의 등 제2노총 건설과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의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수 조직에서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총과 연맹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는 여론
-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맹활동이 적어 조합원이 적어 조합원들 사이에는 연맹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도 높아지고 있음
- 지역 재야단체로부터는 접촉이 많고, 자료보급등의 신속하고 많은데 반해 연맹 지역본부로부터의 연락이나 접촉이 적다.
- 신속하고 현실성있는 자료보급이 안되고 있으며, 산업안전편람의 경우도 수령 못한 경우가 있음
- 동종업체간 근로조건 실태, 복지조사에 대한 비교자료가 부족함
- 연맹의 사업장 방문이 적음

2. '94 임투평가

1) '94 임투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

(1) 국제경제동향

- 현재 세계는 ① 구소련과 사회주의권위의 몰락에 따른 냉전종식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② 세계경제의 세계화 (Globalization)이라는 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냉전 질서가 와해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확립되어가고 있는 중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안보,이념적 대립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각국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어, 경제적대립과 이로 인한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대하고 있음

- 현재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추이는 아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① 자본주의의 세계화 : 과학기술혁명과 초국적자본의 증대된 역할로 인해 경제 활동이 지역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서로 연결, 통합 되고 있으며, 초국적기업들간의 경쟁, 제휴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이런 추세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UR 협상타결임

② 미국이 지배하는 일극체제에서 미국,EC,일본이 각축을 벌이는 다극체제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어, 이들간의 경쟁,대립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선진국간 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신흥공업국들간, 개도국들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개도국내의 분화, 불균등 발전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③ 지역주의의 강화추세 :

- 유럽의 경우 '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이후 통합을 현실화해나가고 있는 중이며,구동구권국가들을 포함하는 EEA(European Economic area)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
- 북미지역은 93년의 NAFTA 타결을 통해 미,캐나다 경제블록에 멕시코를 포함하였으며, 이 경제블록에는 다른 중남미국가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북미,중남미를 통합하는 거대한 지역경제블록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음.

- 동아시아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어,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중임. 동북아지역의 경우 당분간 미-일관계에 의해 결정되리라 보이지만, 중국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국내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현재와 같은성장을 계속해 나갈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군사력과 함께 21세기에 는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역할이 증가하고 지역주도권을 놓고 미국,일본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금년 들어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 미국경제가 활황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경제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규모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93년	'94. 상	'94하	연간
◦ 세계경제성장률(%)	1.4	2.4	2.8	2.6
◦ 선진국	1.4	2.5	2.6	2.5
- 미국	3.0	3.7	3.3	3.5
- 일본	0.1	0.5	1.1	0.8
- EU	- 0.2	1.4	1.8	1.6
◦ 개도국	4.3	4.2	5.1	4.7
◦ 세계무역신장률(%)	1.0	4.3	5.8	5.1

자료 : 경제동향 '94.9, 경제기획원

(2) 국내경제 동향

- 국내경제는 '93년 상반기에 최저점에 도달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여, 금년에도 가뭄, 이상기온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
- '1994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8.1%로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주도하에 1993년 2/4분기 성장률보다 3.3% 높아진 것임.
- 중화학공업은 전년동기대비 13.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경공업은 2.9% 성장하여 지난 1/4분기보다 그 성장세가 확대됨.

(전년동기비 증가율, %)

	93. 1/4	2/4	상	94. 1/4	2/4	상
G N P	3.9	4.8	4.4	8.9	8.1	8.5
제 조 업	1.7	3.0	2.4	9.8	10.2	10.0

자료 : 경제동향 '94.9, 경제기획원

- 소비자물가는 '93년 하반기 미미하게 상승하다가 12월부터 년초에 이르러 급격한 상승세를 구가. 이러한 양상은 정부의 가격규제조치에 따라 4월과 5월에는 주춤하는 기색을 보이지만 6월, 7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음.
- 그러나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양극화현상, 즉 대자본과 소자본간, 중공업과 경공업간 불균등발전의 심화라는 상황과 원자재 및 투자재의 대규모수입에 따른 경상적자의 심화, 그리고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2) '94 임투진행현황

(1) '94년 이전 임금정책

- '93 이전까지는 노총과 경총이 서로 다른 임금인상안을 내고, 이를 기초로 각 기업별로 추진됨.

연도별 노총,경총 임금인상안 추이

(단위 : %)

	노 총 안	경 총 안	격 차
'87	26 - 27	6 - 7	20
'88	29.3	7.5 - 8.5	20.8-21.8
'89	26.8	8.9 - 12.9	13.9-17.9
'90	17.3 - 20.5	7.0	10.3-13.5
'91	17.5	7.0	10.5
'92	16.8	4.7 - 6.7	10.1-12.1

- '93.4.1에는 최초의 문민정부출범, 고통분담론의 득세속에서 4.7-8.9%의 노총,경총간 중앙단위 임금교섭이 이루어짐
- '93.4.1 합의에 대한 평가 ('93.9-10월 실시한 실태조사서 분석결과)
 - ① 4.1 합의에 반대 : 98%, - 절대반대 : 62.3%
 - 절차상 문제로 반대 : 35.7%
 - ② 4.1합의가 임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88.8%
 - 단위노조 교섭의 자율성 침해
 - 경영성파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릴수가 없었다.
 - 정률로 합의되어 임금격차 확대
 - 회사가 4.7%의 범위내에서 교섭하려 함
 - 회사가 교섭도중 교섭안을 하향조정
 - ③ 부대조건이 실현되었다고 가정할때의 견해
 -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 : 56.6%
 - 실현되어도 반대 : 17.6%
 - 찬 성 : 25.5%

2) '94년 임금교섭 진행과정

<1> 중앙단위 임금교섭 진행과정

- ① '94. 1. 11 - 13 : 노총정책세미나 - 각 산별에서 각기 의견을 수렴한후 노총 대표자회의에서 결정기로 함
- ② '94.1.25 : 본노련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 - '93 년과 같은 방식의 중앙합의에는 반대하나,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중앙단위 합의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정. (자료 1)
- ③ '94.2.2-3 : 금속,섬유,화학 제조업 3개노련 공동건의서 채택 (자료 2)
- ④ '94.2.3: 노총대표자 회의 - 중앙단위 교섭사항에 관하여 결의 (자료 3)
- ⑤ '94.3.30 : '94년도 중앙노사 임금 및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타결 (자료 4) - 3.2부터 3.30까지 9차례의 임금교섭대표회의와 12차례에 걸친 정책,제도개선 실무회의를 거쳐 '94년 중앙노사 임금 및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타결

<2> '94 임투진행현황

① 요구현황

임금인상 요구는 '93년 15.92%, 70,331원에서 '94년 15.07%, 72,968원으로, 요구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금액상으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과별 임투현황을 살펴보면 요구에 있어서는 '93년과 동일하게 조선분과가 92,697원 (16.64%)를 요구해 가장 높은 요구율을 보였으며, 작게는 전기전자분과가 64,913원 (14.58%)를 요구하였다. <표 2> 조선업종의 경우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강도가 높고, 여타 산업보다 자동화하기가 어려워 임금인상요구시 조합원들의 욕구가 높은 임금인상 요구율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93년의 경우 90,887원 (16.64%)를 요구하였고 금년에도 다른 분과보다 높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전기전자분과는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약하고 여자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타업종에 비해 낮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액수별 요구현황을 보면, 45,000원 이하로 요구한 노조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45,000-60,000원이 12.4%, 60,000-80,000원이 45.3%, 80,000원 이상이 33.9%로 60,000-80,000원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4>

요구기준별 현황을 보면, 84.6%가 기본급 기준이며, 통상임금 기준이 11.8%, 평균임금기준이 1.5%, 총액기준이 1.0%로 기본급기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93년, '94년 잇달아 요구율은 15%대, 금액상으로는 70,000원대를 요구함으로써, '92년 21.98%, 88,262원에 비해 금액, 요구율 모두 낮아졌다.

'92년 이후 임금인상요구율이 낮아진 이유는 문민정부출범이래의 고통분담론,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강화 논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침체로 노동조합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최근의 산업구조조정과 사용자들의 신경영전략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이 겹쳐 조합원 스스로 예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인정하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구와 타결간의 격차가 '9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임금교섭시 노사 상호간의 신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측면도 보인다.

요구율과 타결률간의 격차

	요구 (%)	타결 (%)	격차 (%)
'92	88,262 (21.98%)	50,034 (12.46%)	38,228 (9.52%)
'93	70,331 (15.92%)	37,953 (8.62%)	32,379 (7.30%)
'94	72,968 (15.07%)	47,952 (9.63%)	25,016 (5.44%)

② 타결현황

타결현황을 살펴보면 '93년 타결액은 기본급 기준 37,953원, 8.62%로 끝이 났으나, 금년의 경우 47,952원, 9.63%의 임금인상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말이후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 상호가 보다 현실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다소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타결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지역 모두 지난해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기록했으며, 가장 많이 임금을 올린 지역은 '93년과 동일하게 경인지역이다. 경인지역은 노동조합이 본조중심으로 되어있고, 공단의 밀집화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임금인상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과별로는 대부분 9%이상에서 타결을 보았으며, 타결율로는 자동차가 10.65%로 가장 높고 금액으로는 조선이 55,226원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현황은 <표2> 참조

액수별로는 45,000원이하가 전체의 38.7%, 45,000-60,000원이 46.7%, 60,000원 이상이 14.7%를 차지하여, 45,000-60,000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이를 '93년의 45,000이하 75.9%, 45,000-60,000원 19.12%와 비교해보면 '93년에 비해 높은 임금인상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쟁의현황

'93년의 경우 쟁의신고를 한 사업장수는 총 72개에 달했으나, 금년의 경우 쟁의발생 신고를 한 사업장은 '94.8.30 현재 28개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행위신고를 한 사업장도 '93년 31개였으나, 금년에는 7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표 6>

<3> '94 임투와 관련한 연맹의 주요활동

① 임투사업장 방문

- 방문기간 : 1994년 6월 8일 - 6월 24일
- 방 문 자 : 연맹의 임직원
- 방문결과 요약
 - 중앙 노사합의로 인해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많음
 - 자동차 부품업체 하청단가 인하에 대한 불만이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일부조직의 노총탈퇴 결의 등 제 2노총 건설과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의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수 조직에서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 있어 노총과 연맹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
-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맹활동이 적음.
- 지역 재야단체로부터는 접촉이 많고, 자료보급 등이 신속하고 많은데 반해, 연맹, 지역본부로부터의 연락이나 접촉이 적다.
- 동종업체간 근로조건실태, 복지 조사에 대한 비교 자료가 부족함
- 연맹의 사업장 방문이 적음

② 쟁의사업장 방문 및 지원

③ 임금교섭에서 필요한 자료지원 및 교육

④ 지역토론회 및 '94. 9. 1. - 2. 정책세미나

⑤ '94. 9. 13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대회개최

3). '94 임투 총괄 및 평가

- '94임투를 맞이하여 정부, 사용자는 연초부터 작년의 고통분담론에 뒤이어 “국제화” “국제경쟁력 강화”논리, 즉 “무한경쟁의 국제질서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고,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노사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켜 나갔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측의 대응이 미미해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 정부 임금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금년초 국가경쟁력 제 1주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금년을 무분규원년의 해로 선포했으며, 임금교섭과 관련해서는 작년처럼 노사 중앙조직들이 권고안을 교섭토록 유도하였다. 본노련에서는 무조건적인 불참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으며, 임금 못지않게 제도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작년도 중앙교섭의 결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접근했다. 즉, '93년에는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안을 내었으나, 금년도의 경우 본노련이 반대를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합의는 결국 일선 단위노조의 임금교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의가 최악의 상태로 가는 것을 막고, 가능한 한 많은결과를 따내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교섭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 금년 중앙합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금수준에 있어 만족할만한 수준을 관찰해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93년도 합의보다는 개선이 있었으며, 특히 93년도에는 정부가 그 합의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를 폈던데 비해 94년도에는 자율교섭이 보장되도록 했다.
- 현재 결과를 보면 임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앙합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고 비록 기본급에 있어서는 중앙합의수준에 머물더라도 타명목으로 얻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우리 금속노련이 중점을 두었던 제도개선부문인데 현재 이 사항이 시행되도록 계속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 특별지시로 정부의 특별점검사항이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보다 정확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노동정책은 철도, 지하철파업이 임박하자 강경쪽으로 급선회하였다. 정부는 초기단계에 공권력을 투입, 진압하였으며 파업주도자들에 대한 파면, 구속 등 가장 강경한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여타 제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하였다. 나아가, 상반기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조사 실시 방침을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동산의료원 노조판례를 계기로 파업시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청구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서울지하철 노조의 경우 노조간부를 상대로 손해청구를 하고 조합소유 통장을 가압류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현대중공업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등 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금년 임투과정에서는 무노동무임금, 파업시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청구, 인사, 경영권에 대한 교섭 거부, 전임자 임금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용자들의 경우 소위 “능력주의” 경영이념에 기초하여 직능자격제도 도입, “유연한” 고용정책 등의 신경영전략을 도입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간관리자들을 포섭하여 현장을 장악,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행해졌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노동조합진영의 분열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노대의 경우 금년초 중앙단위 임금교섭 참여를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회원조직의 반발로 불참을 결정했고, 결국 노총과 경총이 교섭을 하게 되자, 이를 비판하면서, 노총탈퇴, 맹비난부 거부운동을 하면서 조직을 확장하고 95년에 제 2노총을 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철도, 지하철 파업을 계기로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95년도가 되면 법적인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제 2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95년 임금교섭을 무기로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과 아울러 지자체선거 등을 활용하여 정부가 제 2노총을 인정토록 압력을 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전망

(1) 향후 정치, 경제 전망

- 향후 정치정세를 살펴보면, 정치,경제개혁으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바 있던 문민정부는 금년 들어 국가경쟁력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급격한 보수화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재벌에 대해서는 보다 유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적으로는 작년말 이래 한국경제는 회복정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양극화 현상, 즉, 대자본과 중소기업간, 중공업과 경공업간 불균등발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원자재 및 투자재의 대규모수입에 따른 경상적자의 심화, 그리고 물가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UR의 경우 수출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수입증가와 경쟁력없는 국내산업을 와해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①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는 불리한 영향을
- ② 수출기업에는 유리하고 내수기업에는 불리한 영향을
- ③ 의류, 신발, 피혁제품, 완구등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철강,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7 참조>

- UR타결이 임금과 고용에 미칠 효과는 현재 다음과 같이 예상되고 있다.

- ① 중공업과 경공업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고용구조 조정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② 자본집약적인 중공업이 성장하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쇠퇴하면서 경제전체의 고용흡수력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는 과거와 동일한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다고 해도 과거에 비해 더 높은 고용불안문제에 당면할 것으로 보인다. (UR과 노동,한국노동연구원, 1994)
- ③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경영합리화 차원에서의 배치전환, 감량경영과 파견제, 시간제,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금년 중앙합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금수준에 있어 만족할만한 수준을 관찰해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93년도 합의보다는 개선이 있었으며, 특히 93년도에는 정부가 그 합의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를 뒀던데 비해 94년도에는 자율교섭이 보장되도록 했다.
- 현재 결과를 보면 임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앙합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고 비록 기본급에 있어서는 중앙합의수준에 머물더라도 타명목으로 얻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우리 금속노련이 중점을 두었던 제도개선부문인데 현재 이 사항이 시행되도록 계속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 특별지시로 정부의 특별점검사항이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보다 정확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노동정책은 철도, 지하철파업이 임박하자 강경쪽으로 급선회하였다. 정부는 초기단계에 공권력을 투입, 진압하였으며 파업주도자들에 대한 파면, 구속 등 가장 강경한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여타 제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하였다. 나아가, 상반기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조사 실시 방침을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동산의료원 노조판례를 계기로 파업시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청구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서울지하철 노조의 경우 노조간부를 상대로 손해청구를 하고 조합소유 통장을 가압류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현대중공업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등 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금년 임투과정에서는 무노동무임금, 파업시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청구, 인사, 경영권에 대한 교섭 거부, 전임자 임금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용자들의 경우 소위 “능력주의” 경영이념에 기초하여 직능자격제도 도입, “유연한” 고용정책 등의 신경영전략을 도입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간관리자들을 포섭하여 현장을 장악,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행해졌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노동조합진영의 분열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노대의 경우 금년초 중앙단위 임금교섭 참여를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회원조직의 반발로 불참을 결정했고, 결국 노총과 경총이 교섭을 하게 되자, 이를 비판하면서, 노총탈퇴, 행미납부 거부운동을 하면서 조직을 확장하고 95년에 제 2노총을 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철도, 지하철 파업을 계기로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95년도가 되면 법적인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제 2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95년 임금교섭을 무기로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과 아울러 지자체선거 등을 활용하여 정부가 제 2노총을 인정토록 압력을 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95 임금정책과 관련하여

- 향후 임금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앙합의에 대한 입장정립이 중요하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금년과 같은 방식의 중앙합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업종별 교섭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으며, 경총의 경우에는 금년도 중앙합의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내년도 임금교섭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연맹의 향후 임금정책방향은 지난 9.13 전국대회 '새로운 정세와 우리의 대응' <자료 5 참조>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중앙합의에 대해서는 금년말 정부의 제도개선 이행결과를 놓고 결의기관의 토론을 통해 결정할 예정으로 있으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중앙합의에 관하여는 현재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① 찬성론으로는 임금에 관하여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제도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정부로부터도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볼 때 중앙합의란 어디까지나 권고안으로써 실제 기업단위 교섭에서는 그 이상을 얻어낼 수 있으므로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금이 억제될 수 있다 하지만 가령 중앙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직접적으로 임금억제정책을 펴게 되므로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② 이에 비해 반대론은 중앙합의란 임금억제정책에 불과하고 기업단위 노조의 교섭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현재의 세력관계하에서는 제도개선이란 불가능한 것이고 설사 제도개선에 주요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과 별도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강한 투쟁을 배경으로 이를 쟁취해내면 된다는 생각이다.

- 본노련의 경우 반대가 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찬성과 조건부 찬성론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94년도 중앙합의에 적극 참여를 한 결과 조직적 훼손을 크게 입은 것이 사실이나 눈앞의 어려움보다는 무엇이 장단기적으로 조합원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냉정히 타산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어도 제도개선부문이 마무리될 내년초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입장을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물가상승폭이 크며 대중적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에는 중앙합의 방식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 향후 임금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③ 업종별 교섭방식이 제기되고 있으나, 업종별 교섭의 경우 기업별 노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업종별 교섭의 경우, 누가 누구와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업종별 교섭을 위해서는 분과별 사업장의 재분류와 조직화, 구체적 활동방침의 수립,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임,단협 공동교섭 경험의 축적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다 중요하게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가 모두 업종별로 조직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무시하고 논의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업규모면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독자기업과 재벌기업이 하청기업보다 업종별 교섭을 실행하는 비율이 높으며, 둘째, 노동력의 동질성이 강한 금융,유통업이 제조업보다 업종별 교섭을 행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셋째, 국내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내수기업보다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수출기업에서 업종별 교섭 관행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일업종내에서 각 기업에 속해있는 노동력의 동질성 여부와 시장경쟁의 강도에 따라 업종별 교섭의 가능성여부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업종별 교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문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첫째, 재벌기업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독자적 기업과 같이 기업의 지위수준이 비슷한 경우. 둘째, 하청기업의 경우 모기업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나 동일 모기업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규모가 큰 하청기업이 여럿 있을 경우는 업종별 교섭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시장에서 상호 과다한 경쟁에 처하지 않은 업종. 자동차업종과 같이 과다 경쟁에 처해있는 업종의 경우 기업간 경쟁의식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업종별 교섭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경쟁관계라 하더라도 조선평과 같이 내수시장이 아닌 수출시장에서 상호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업종별 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위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95년 임금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중요한 문제는 중앙교섭방식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또는 업종별 교섭이 나은 방식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닥쳐있는 과제,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 중소기업의 재정여건 및 경영능력 강화, 고용안정, 하청단가의 현실화 등 선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임금교섭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이때 현재의 노사관계 실태와 임금교섭관행, 일선 단위노조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지역별 요구 및 타결현황

단위 : 원, %

구분 지역	연도	대 상 노조수	요 구			타 결		
			노조수	요구액	요구율	노조수	타결액	타결율
전 체	'94	665	567	72,968	15.07%	498	47,952	9.63%
	'93	(679)	(512)	(70,331)	(15.92)	(502)	(37,953)	(8.62)
	'92	(754)	(549)	(88,262)	(21.98)	(525)	(50,034)	(12.46)
경 기	'94	171	131	72,274	15.26%	104	52,053	10.21%
	'93	(188)	(151)	(71,170)	(16.23)	(148)	(41,616)	(9.23)
	'92	(207)	(150)	(91,370)	(22.45)	(147)	(58,687)	(14.67)
경 남	'94	79	79	68,849	14.62%	75	42,294	9.23%
	'93	(77)	(62)	(68,136)	(15.01)	(61)	(36,519)	(8.43)
	'92	(84)	(78)	(79,802)	(20.69)	(74)	(44,799)	(11.14)

구분 지역	연도	대 상 노조수	요 구			타 결		
			노조수	요구액	요구율	노조수	타결액	타결율
대 구. 경 북	'94	80	65	82,460	16.52%	61	57,330	12.08%
	'93	(79)	(58)	(77,392)	(18.12)	(58)	(37,226)	(8.61)
	'92	(82)	(57)	(91,546)	(26.23)	(53)	(58,971)	(16.63)
구 미	'94	28	28	-	14.38%	19	47,700	10.22%
	'93	(23)	(14)	(56,264)	(15.17)	(14)	(30,258)	(7.54)
	'92	(24)	(15)	(71,257)	(19.03)	(14)	(30,258)	(9.86)
부 산	'94	76	75	75,361	15.10%	75	45,365	9.10%
	'93	(77)	(64)	(73,867)	(15.80)	(63)	(37,996)	(8.34)
	'92	(94)	(91)	(99,943)	(24.02)	(85)	(57,857)	(14.40)
서 울	'94	35	25	59,663	12.46%	19	46,111	9.76%
	'93	(46)	(30)	(73,587)	(15.44)	(28)	(43,756)	(9.41)
	'92	(50)	(28)	(80,053)	(18.96)	(28)	(52,645)	(12.06)
울 산	'94	24	23	77,658	14.97%	22	46,664	8.73%
	'93	(23)	(20)	(77,467)	(16.43)	(20)	(36,144)	(7.25)
	'92	(31)	(15)	(94,004)	(23.99)	(14)	(51,298)	(12.28)
인 천	'94	84	73	70,116	14.76%	67	43,245	8.90%
	'93	(69)	(59)	(64,052)	(14.60)	(57)	(37,265)	(8.43)
	'92	(68)	(41)	(83,553)	(20.28)	(38)	(47,942)	(11.85)
전 남	'94	21	17	66,591	12.94%	17	50,646	10.42%
	'93	(23)	(7)	(53,240)	(13.28)	(7)	(29,067)	(7.24)
	'92	(29)	(20)	(89,327)	(24.76)	(18)	(39,692)	(10.88)

구분 지역	연도	대 상 노조수	요 구			타 결		
			노조수	요구액	요구율	노조수	타결액	타결율
충 남	'94	25	18	75,339	18.97%	11	45,675	9.73%
	'93	(25)	(11)	(68,701)	(17.70)	(11)	(35,245)	(9.58)
	'92	(28)	(16)	(79,381)	(24.97)	(16)	(46,077)	(15.54)
충 북	'94	23	16	62,279	13.93%	13	47,417	10.21%
	'93	(21)	(17)	(57,766)	(17.64)	(17)	(34,818)	(10.08)
	'92	(23)	(14)	(76,330)	(21.34)	(14)	(43,092)	(12.68)
포 향	'94	19	17	65,322	12.43%	15	43,828	7.88%
	'93	(21)	(1)	(64,133)	(13.44)	(18)	(24,096)	(5.66)
	'92	(28)	(24)	(80,844)	(17.08)	(24)	(37,042)	(7.47)

<표 2> 분과별 요구 및 타결현황

단위 : 원, %

구분 분과	연도	요 구			타 결		
		노조수	요구액	요구율	노조수	타결액	타결율
기계금속	'94	138	74,394	14.48%	122	49,782	9.39%
	'93	(149)	(74,503)	(15.95)	(148)	(40,796)	(8.66)
	'92	(172)	(92,805)	(22.33)	(164)	(57,298)	(13.29)
전기전자	'94	100	64,913	14.58%	84	45,344	9.67%
	'93	(107)	(63,847)	(15.40)	(104)	(36,626)	(8.95)
	'92	(115)	(76,765)	(20.94)	(110)	(47,370)	(12.57)
자 동 차	'94	102	75,839	16.23%	88	49,165	10.65%
	'93	(113)	(70,484)	(16.53)	(113)	(39,611)	(9.16)
	'92	(118)	(89,896)	(20.31)	(113)	(56,840)	(13.83)
비철금속	'94	38	69,475	15.61%	31	46,521	9.92%
	'93	(48)	(69,581)	(16.66)	(46)	(36,271)	(8.71)
	'92	(43)	(86,444)	(22.35)	(41)	(51,335)	(12.87)
조 선	'94	17	92,697	16.64%	14	55,226	9.14%
	'93	(14)	(90,887)	(16.15)	(14)	(38,691)	(7.09)
	'92	(12)	(103,823)	(23.77)	(11)	(59,379)	(13.03)
철 강	'94	57	71,142	14.24%	50	42,629	8.43%
	'93	(68)	(66,717)	(14.48)	(64)	(31,446)	(7.12)
	'92	(64)	(88,874)	(20.71)	(62)	(42,094)	(9.90)
기 타	'94	18	66,361	15.50%	17	50,114	11.02%
	'93	(13)	(69,880)	(16.89)	(13)	(38,015)	(9.16)
	'92	(25)	(82,608)	(22.21)	(24)	(49,625)	(13.23)

<표 3> 규모별 요구 및 타결현황

단위 : 원, %

구분 규모 (명)	요 구			타 결		
	노조수	요구액	요구율	노조수	타결액	타결율
10-29	25	78,289	16.18%	18	48,951	10.73%
30-99	179	74,840	15.08%	159	49,972	9.72%
100-299	188	71,318	15.39%	163	46,397	9.57%
300-499	49	73,282	15.14%	38	50,792	10.14%
500-1,000	33	75,560	14.10%	25	46,899	9.57%
1,000 이상	22	66,445	13.83%	20	39,116	8.21%

<표 4> 액수별 요구현황

구 분	노 조 수	비 율 (%)
45,000 이하	25	9.7
45,000 - 60,000	37	12.4
60,000 - 70,000	66	22.1
70,000 - 80,000	69	23.2
80,000 - 90,000	55	18.5
90,000 - 110,000	32	10.7
110,000 이상	14	4.7

〈표 5〉 액수별 타결현황

구 분	노 조 수	비 율 (%)
30,000 이하	17	6.4
30,000 - 35,000	15	5.6
35,000 - 40,000	25	9.4
40,000 - 45,000	46	17.3
45,000 - 50,000	60	22.6
50,000 - 55,000	42	15.8
55,000 - 60,000	22	8.3
60,000 - 80,000	30	11.3
80,000 이상	9	3.4

〈표 6〉 쟁의 사업장 ('94.8.30 현재)

지 역	노동조합명	인원	쟁발신고	행위신고	쟁 점 사 항	타결일
충 북	맥슨 전자		5/2		임 금	5/13
서 울	동해		6/21		임 금	
서 울	동부 제강 (철강)	500	8/24	쟁의 행위		타 결
경 기	기아서비스		6/28	7/11	단 협	타 결
경 기	경원 산업		6/23		임 금	7/4
경 기	동광 제작소		6/ 3		임 금	6/10
경 기	동양 기공		5/25		임 금	6/2
경 기	우신 공업		5/24		임 금	5/27
인 천	신창 튜빙(기계)	100	4월 초			5/6
인 천	쌍용자동차 지부	260	7월 초	쟁의행위		7/23
인 천	인천자동차(자동차)	40	7/25			진행중
인 천	대우 중공업	1300	7/14		“	7/25
인 천	한양 공영 (기계)	200	8/27			진행중
경 남	제일 정밀	140	4/8		임 금	6/21
경 남	삼 송	25	5/2	5/17		
경 남	세방 전지	700	6/16		임 금	6/24
경 남	기아 정기	782	6/20	7/4	“	7/27
경 남	신동광학	132	7/2		“	7/18

지 역	노동조합명	인원	쟁발신고	행위신고	쟁 점 사 항	타결일
경 남	동양 물산	406	7/12		“	7/28
경 남	진흥 철강	97	6/22	7/4	“	7/12
경 남	세신 실업		5/25	6/10	임 금	
경 남	삼천리 자전거	230	7/20		임 금	7/25
경 남	양지 금속	33	6/14		“	6/25
부 산	태 양 사	49	6/12		임 금	6/25
부 산	동아 금속	276	5/30		임 금	6/10
부 산	형진 공업	61	6/16		임 금	6/27
부 산	부영 철강	70	6/20		임 금	6/27
부 산	한국 선재	110	6/20		임 금	6/28

〈표 7〉 UR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해 당 산 업	경쟁력 변화	UR 의 영향
구조조정 대상산업	신발, 의류, 완구, 피혁제품	경쟁력 상실	불리 - 단기 : 수출증가 - 장기 : 수출감소 수입증가
성숙산업	합섬, 직물,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철강	경쟁력 유지	유리 수출증가
유치산업	건설, 농업기계, 증전기 메모리 반도체, 통신장 비, 우주항공, 정밀화학	경쟁력 미확보	불리 - 수입증가 - 산업발전에 애로

우르파이라운드와 한국경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4

<자료 1> '94 중앙임금합의에 대한 공식의견

1. '93년도 4.1합의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
2.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중앙단위 합의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이들 전제조건들의 이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시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노련의 입장을 정립해 나간다.

- 가. 노총과 경총뿐만 아니라 정부도 참여하여야 한다.
- 나. 참여여부 결정은 각산별의 독자적 여론수렴후 노총 대표자회의에서 한다.
- 다. 합의를 위한 절차를 사전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라. 잠정합의안은 노총대의원대회에서 충분한 토론후 비밀 무기명투표로 결정 한후 조인되어야 한다.
- 마. 부대조건중 반드시 관철되지 않으면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바. 중앙합의 결렬시 가맹노조가 독자의 교섭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2월말로 시한을 정한다.

3. 중점적 부대조건으로 본노련은 다음 사항을 제기한다.

- (1) 조세감면 : 갑근세 면세점 인상
상여금 세율인하
연장근로수당 면세금액 인상 및 생산직 이외로의 확장
- (2) 임금격차 해소 : ㄱ. 정액으로 합의하는 방향 또는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율을 설정하는 방향 또는 정율로 하되 일정금액이상으로 합의 해야 한다는
 - ㄴ. 하청단가 인상 및 대금결제지침 설정 (정부)
 - ㄷ. 주요 모기업들의 중소기업복지기금에의 기여

(3) 경영참여법 제정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강화
ㄴ. 노조산업안전담당 유급활동시간 부여

(5) 물가안정 : 물가억제선 초과시 추가인상

(6) 고용안정 : ㄱ. 고용보험법 시행령 골격에 대한 합의
ㄴ. 고용보험법 시행이전의 고용안정을 위한 잠정적 조치
(감원에 대해 노,사,정 3자기구의 사전승인장치 마련)
ㄷ. 파견법,파트타임법 제정않는다는 약속
ㄹ. 임금삭감을 위한 고용변경 중단 약속

(7) 노동관계법을 개악않는다는 약속

(8) 노조활동에 따른 부당해고자 복직

<자료 2> '94 중앙노사교섭에 대한
제조업 3 개 산별노련의 공식건의

1994년 2월 2일

우리는 '94년 중앙노사교섭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동건의합니다.

1. 노총.경총 중앙단위교섭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2. 중앙단위 교섭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 1) 중앙교섭은 반드시 정부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2) 중앙교섭 실시에 대한 결정은 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한다.
 - 3)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중앙교섭실시가 결정되는 경우는
 - (1) 교섭 및 합의과정을 사전적으로 명시.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교섭의 시한은 3 월중순까지로 한다.
 - (3) 교섭요구안은 산별노련의 요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4) 잠정합의안은 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충분한 토의후 결정하되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규약상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소집한다.
- (5) 중앙교섭실시안이 부결되거나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제조업 3개 산별노련 독자의 공동입투에 들어간다.

(6) 중앙교섭에서는 다음 부대조건이 중점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7) 산별체제 도입

(ㄴ) 조세감면 : ○ 갑근세 면세점 인상

○ 상여금 세율인하

○ 연장근로수당 면세금액 인상 및 생산직 이외로의 확장

(ㄷ) 임금격차해소 : ○ 정액으로 합의하는 방향 또는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을 설정하는 방향 또는 정율로 하되 일정금액이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방향

(ㄹ) 경영참여법 제정

(ㄹ)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기능강화

○ 노조산업안전담당 유급활동시간 부여

(ㅁ) 물가안정 : ○ 물가억제선 초과시 추가임금인상

(ㄷ) 고용안정 : ○ 고용보험 시행령 골격에 대한 합의

○ 고용보험법 시행이전의 고용안정을 위한 잠정 조치

(감원에 대해 노사정 3자기구의 사전 승인장치 마련

○ 파견법, 파트타임법 제정않는다는 약속

○ 임금삭감을 위한 고용변경 중단 약속

(ㅇ) 노동관계법을 개악않는다는 약속

(ㅈ) 노조활동에 따른 해고자 복직

4) 위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우리는 중앙노사교섭을 성사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임금안정을 정책의 우선과제로 설정한데 걸맞는 중앙교섭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자료 3> 제 153 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결의사항

1994. 2. 3.

1. (생 략)

2. 94 년도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 1) 94 년도 임금정책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결의하되 정부도 참여토록 하며 임금과 정책제도 개선을 연계하여 교섭하도록 하고 정책제도 개선 요구와 임금인상요구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정 결의한다.
- 2) 정책 제도개선 요구
 - (1) 94 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이내로 억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95 년 임금인상시 초과분 반영함.
 - (2) 고용보험제의 확대실시와 운영에의 노조참가를 보장하고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함.
 - (3) 숙련 형성기금의 조성을 통한 노동자의 직업훈련 강화등 직업능력 개발제도의 도입.
 - (4) 근로소득세 감면 및 자산관련 세제의 강화를 통한 형평과세 실현
 - (5) 복지기금의 확대조성 및 각종 복지제도 확충
 - (6) 근로자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의 확충을 통한 주거안정의 실현
 - (7) 경영참가법 제정을 통한 노동자의 경영참가 제도화
 - (8) 재정지출 억제 및 복지관련 예산의 확대
 - (9) 하청단가의 적정한 조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
 - (10) 산별체제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 (11)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
 - (12)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구속노동자 석방등을 통한 산업평화 달성

3) 임금 인상요구를 적용

- 1 그룹

초과급여를 제외한 조합원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산업 평균 88만 5천원 보다 30%이상(115만원) 높은 사업장은 93년 기본 생필품 물가상승률과 노총 생계비 상승률의 평균인 6.6%(추정치)를 적용한다(정액:75,900 원)

- 2 그룹

초과급여를 제외한 조합원 월평균 임금총액이 88만 5천원이상 115 만 원이하인 사업장은 6.6% - 10.8%사이에서 교섭하게 한다.
(정액 : 75,900 - 95,580 원)

- 3 그룹

초과급여를 제외한 조합원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산업 평균 (88만 5천 원이상 115만원)이하인 사업장은 10.8%를 교섭하게 한다.
(정액 : 95,580 원)

<임금인상요구를 적용사업장의 구분>

구 분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평균 임금총액	임금인상율	임금 인상액
1 그룹	115 만원 이상인 사업장	6.6%	75,900 원
2 그룹	88만5천원 -115만원인사업장	6.6% - 10.8%	75,900 원 - 95,580 원
3 그룹	88만원 5천원 이하인 사업장	10.8 %	95,980 원

- 단위사업장 임금인상은 생산직 노동자 우대와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격차를 축소하여야 한다.
- 이상에도 불구하고 초과급여를 제외한 조합원 월평균 임금총액이 53 만 원(노총 1인 생계비) 이하인 사업장은 10.8% 이상의 수준에서 자율교섭하게 한다. (이하 생략)

<자료 4> '94년 중앙노사 임금 및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1994년 3월 30일

세계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국민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실질생활 개선 및 노동의욕 제고와 노사안정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노,사,정은 자율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자의 창의와 참여에 기초한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만이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차례의 임금교섭대표 회의와 12차례의 정책,제도개선 실무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94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

- 1) 94년도 임금인상률은 5.0-8.7%로 한다.
- 2) 위 임금인상률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호봉승급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위 임금인상률은 전산업에 적용한다.
- 4) 위 임금인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1)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평균임금이 88만 4천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5.0-6.85%로 한다.
 - (2)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평균임금이 88만 4천원 이하인 사업장은 6.85-8.7%로 한다.
- 5) 임금인상 재원의 배분은 생산직 노동자 우대와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른다.
- 6) 생산성 향상으로 발생한 경영과실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 7) 이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평균임금이 53만원 이하인 사업장은 본 합의와 관계없이 노사 자율적으로 인상하여 기업간, 직종간 임금 격차를 완화해 나간다.

2. 정책,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하여 소비자물가와 주요 생필품가격이 정부의 억제목표선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2) 고용안정을 위하여 실시될 고용보험제는 95년 7월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98년 이내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며, 고용보험제 운영에 있어 노사대표의 참여를 보장한다.
 - * 중소기업 대표의 반대가 있었음
- (3)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단의 주요사항 결정시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한다.
- (4) 기업경영정보의 공개 및 근로자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시 노사협의회 제도를 발전적으로 보완한다.
- (5) 노동관계법 개정시에는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 (6)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노동관계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산업평화를 달성한다.
- (7) 소득공제의 조정등에 의한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및 자산관련 세제의 강화를 통하여 형평과세를 실현하며, 향후 관련 세법개정시 노사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8) 근로자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 주택금융의 확충 및 근로자주택 입주업종의 확대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 (9)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기금, 공공 보육시설 및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사업장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권장한다.
- (10)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제도개선 및 투자를 확대한다.
- (11) 노조활동과 관련된 구속자증 개전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상의 특별조치를 강구하여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
- (12)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대하여 노력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직업능력 개발 등에 관한 대기업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도한다.

3.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

발간일자: 95년 2월 27일

1. 머리말

2. '94단체협약분석 및 실질근로조건조사

- (1) 조사목적
- (2) 단체협약,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일정
- (3) 조사세부 일정
- (4) 단체협약 분석내용
- (5) 실질근로조건 조사서 분석내용
- (6) 단체협약 제출 사업장

3. 단체협약 분석

- (1) 총칙
- (2) 조합활동보장
- (3) 근로조건
- (4) 인사
- (5)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 (6) 교육 및 복지후생
- (7) 재해보상
- (8) 노사협의회
- (9) 단체행동
- (10) 노동쟁의
- (11) 부칙

4. 실질 근로 조건 조사 분석

<부록> 실질근로조건 조사서
연맹 단체협약 모범안

4. '95 임투준비

1) '95임금인상투쟁활동을 위한 실태조사

- (1) 기간 : 94.12 - 95.1
(2) 본노련 실태조사 결과

1. 임금인상시기

1-2월(5.3%) 3월(23.2%) 4월(58.5%) 5월(9.7%) 이후(3.4%)

2. '95임투요구자료 준비시기

1월초순(9.5%) 1월중순(10%) 1월하순(2.6%) 2월초순(2.2%) 2월중순(10.4%)
2월하순(8.2%) 3월초순(20.8%) 3월중순(3%) 4월초(3.5%) 4월초순(7.4%)

3. '95임투요구안 확정시기

2월중순이전(3%) 2월중순(5.7%) 2월하순(11.3%) 3월초순(5.6%)
3월중순(16.7%) 3월하순(16.1%) 4월초순(14.4%) 4월중순(6.1%)
4월하순(6%) 4월이후(8.7%)

4. '95임투 요구안 제출시기

2월하순이전(5.1%) 2월하순(5.5%) 3월초순(10.2%) 3월중순(1%)
3월하순(13.9%) 4월초순(21.1%) 4월중순(11.8%) 4월하순(5.9%)
5월초순(1%) 5월초순이후(5.5%)

5. 교섭결렬시 쟁의발생예상시기

4월중순이전(3.1%) 4월중순(3.1%) 4월하순(7.6%) 5월초순(1.1%)
5월중순(17.1%) 5월하순(13%) 6월초순(13.5%) 6월중순(13.5%)
6월하순(8.3%) 7월초순(4.7%) 7월중순(4.7%) 7월이후 (6.2%)

6. 귀하께서는 상급단체에서 요구율(액)을 제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①그렇다(49.2%)
②그렇지 않다(50.8%)

7. 상급단체에서 요구율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면 다음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 ①노총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2.9%)
- ②금속노련에서 단일안을 제시하여야 한다(21%)
- ③금속노련에서 세부 업종별로 제시하여야 한다(61.3%)
- ④금속노련에서 범위로 제시하여야 한다(13.3%)

8. 상급단체에서 요구율(액)을 제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①율로(20.2%) ②금액으로(24.5%) ③금액과 율 모두로 (55.3%)

9. '95임투에서 몇%(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5.3%)

<분과별>

기계금속(16.5%) 전기전자(14.7%) 자동차(15.4%) 철강(14.3%)
조선(13.3%) 비철(15.3%) 기타(16.3%)

<지역별>

서울(12.4%) 경기(15.4%) 인천(15.8%) 충남(15.3%) 충북(15.8%)
전남(14.7%) 부산(15.3%) 경남(14.6%) 울산(18.4%) 대구(15.7%)
포항(15.1%) 구미(19.8%) 강원(15.0%)

<종업원수 규모별>

100명 미만(14.9%)	100 - 300명 미만(15.4%)
300 - 500명 미만(15.6%)	500 - 1000명 미만(14.7%)
1000명 이상(15.9%)	

10. '95임투에서 몇%(원)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분과별>

기계금속(13.5%) 전기전자(12%) 자동차(15.4%) 철강(11.6%)
조선(12.3%) 비철(12.3%) 기타(15.4%)

<지역별>

서울(11.3%) 경기(13%) 인천(13.2%) 충남(11.9%) 충북(13.4%)
전남(12.6%) 부산(12.8%) 경남(12.6%) 울산(14.5%) 대구(13.7%)
포항(13.1%) 구미(16.1%) 강원(12%)

<종업원수 규모별>

100명 미만(13.4%)	100 - 300명 미만(13%)
300명 - 500명 미만 (12.8%)	500 - 100명 미만(12.8%)
1000명 이상(13.3%)	

11. 귀사는 94년도 경영상태가 어떠한가?

- ① 아주 안좋다(14.1%) ② 보통이다(46.3%) ③ 좋다(30.6%) ④ 아주 좋다(9%)

12. 귀사는 95년도 경영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 ① 아주 안좋다(5.3%) ② 보통이다(43.4%) ③ 좋다(44.3%) ④ 아주 좋다(7%)

13. 귀 노조는 95임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가?

- ① 기본급(68.5%) ② 통상임금(28.2%) ③ 기타(3.3%)

14. 귀 노조는 95임투에 있어서 다음 어떠한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가?

- ① 정액으로(31.2%) ② 정율(19.8%) ③ 정액+정율(49.0%)

2) '95임금인상투쟁활동 자료집 발간

1. 발간사

제1장 국내외 정세전망

제1절 세계경제 전망

제2절 국내경제 전망

<참고자료> 남북교역 동향

제3절 노동경제동향

제4절 '95임투를 둘러싼 국내정치 정세

제2장 '95 임투의 방향과 목표

제1절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1. 주44시간 노동으로 생계비 확보

2. 최저생계비의 내역과 타당성

제2절 임금구조의 개선

1. 차별임금 철폐
2. 임금구조의 개선

제3절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전개

제4절 복지제도의 신설과 확충

<참고자료> 고용관련법 신설에 따른 노동조합의 활동

제3장 임투준비의 실제와 마무리

제1절 임투준비와 마무리

제2절 임금인상 요구서의 작성

제4장 정부 사용자의 논리 비판

제1절 세계화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2절 생산성 임금론 비판

제3절 능력주의 신인사제도 도입에 대한 노조의 대응

<참고자료> 능력주의 인사제도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과제와 전망

제4절 성과배분제

제5절 물가상승의 주범은 누군가

제6절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대하는 노동조합의 자세

<참고자료>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응방안

제5장 금속산업 업종별 동향

제1절 금속산업 업종별 동향

제1차금속

- 철강
- 비철금속

기계

-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 중전기
- 전선
- 가전
- 통신기기
- 컴퓨터
- 반도체

운수장비

- 조선
- 자동차
- 자동차부품

제2절 '94년 상반기 업종별 기업경영분석

제3절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6장 한국노총 1995년 최저생계비

<부록>참고자료

통계자료(주요 경제지표, 고용, 임금, 물가, 가계지수, 기타)

3) '95임투지침 발간

1)임투의 주요목표

- (ㄱ) 임금수준개선 및 임금격차 해소
- (ㄴ) 노조운동역량강화 - 퇴조국면으로부터의 재도약(조직간 연계강화, 공동임투)
- (ㄷ) 일방적 추진의 세계화 저지 및 노조의 참여강화
- (ㄹ) 일방적 추진의 경영합리화 저지 및 노조의 참여강화
- (ㄴ)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위한 성숙된 노사관계로의 유도
(합리적.합법적 원칙 견지)
- (ㅅ)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구(공정거래 확립)
- (ㅇ) 종합적 생활개선(사내복지,사회복지,생활정보)
- (ㅇ) 고령자.맞벌이 가계를 위한 대책(퇴직금 누진제,생활정보 및 편의 제공)

2) 본노련의 임투 요구지침

가. 임금

- ① 통상임금 기준 84,406원,14.1%(호봉승급분 제외)를 중심으로 요구한다
- ②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임금 업종은 율(14.1%)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저임금업종은 금액(84,406원)을 중심으로 요구한다
- ③ 각 노동조합은 이상의 지침을 중심으로 자체의 요구안을 작성하되 기업사정
이나 임금현황이 특이한 경우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한다.

나. 단체협약.정책제도개선

(1).노총차원 : 다음의 정책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한다.

ㄱ. 실질소득의 보장

(ㄱ) 근로자 주택 건설 및 근로자 주택기금 확충

- 근로자주택 공급 확대 및 분양면적의 확대 (전용면적 18평으로)
- 장기저리의 근로자 주택금융의 확대 실시 (채특기금의 평화은행 예치를 통한 기금조성 - 95년도 1,000억원 추가 예치, 목표 1조원)
- 대기업 사원주택 확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임대.분양

(ㄴ) 공교육 재정 확충으로 사교육 수요 감축

- 독과점 대기업의 초과이윤이 교육투자화 되도록 유도
- 노동자 평생교육제도 도입

(ㄷ) 근로자 재산형성 프로그램의 확충

- 재형저축 가입대상 근로자의 확대 (월급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ㄹ)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세제도 개혁으로 근로소득세 경감

- 교통비 공제 및 조합비 공제제도 신설
- 교육비 공제의 확대(대학원 및 유치원)
- 재형저축 가입대상 근로자의 확대(월급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전직종으로 확대

(ㅁ) 물가안정

-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노.사.정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 공공서비스중 종회서비스(대중교통수단, 우편요금등) 관련 요금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낮추고, 종량서비스(전기, 수도, 가스등) 관련 요금은 종량누진제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장
- 주요 농산물 및 생필품은 물류개혁을 통해 가격안정 실현
- 민간서비스요금은 규제완화 및 조세개혁으로 지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
- 중앙은행 독립으로 통화정책의 투명성 확보

ㄴ. 사회적 형평성 제고 : 노동관련 복지프로그램의 확충

- (ㄱ) 의료보험제도 개혁 : 통합의료보험제도의 개혁
- (ㄴ) 남녀고용평등법 정착 및 탁아시설 확충
- (ㄷ) 산재근로자 재활프로그램 확충
- (ㄹ)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대기업/정부)
- (ㄴ) 근로자 복지요원 설치
- (ㄷ) 직장신탁의 통합운영으로 자주복지 확대, 구판사업 확대 (주요공단에
창고형 구판장 운영)

ㄷ. 근로조건, 작업환경 개선

- (ㄱ) 산업안전보건
 - 작업환경 개선에 투자 확대
 -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
- (ㄴ) 산업재해
 - 산재예방, 보상, 재활프로그램의 통합운영
 - 산재예방투자 확대
 -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
 -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2+1]공고생등 모든 훈련생에게 산재보험 적용
- (ㄷ)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급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인상

ㄹ.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제고

- (ㄱ) 고용보험제 확대 적용
 - 직업훈련분담금제도 고용보험제도에 통합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노사 공동운영
 - 94년 사회적 합의 준수
- (ㄴ) 능력개발기금 설치 : 중소기업 노동자 교육훈련 확대
- (ㄷ) 사내의 교육훈련규모 대폭 확대
 - 산업기술대학 설립하여 노동자의 평생교육제도 확충
 - 기능대학에 학위 인정
- (ㄹ)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과 고용을 철저히 단속하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은 보호
 - 노동허가제도 도입
- (ㄴ) 유급교육훈련 휴가제 도입

ㄱ. 산업민주주의 실현

(ㄱ) 기업단위 작업환경 개선, 능력개발, 근로복지개선 등에 노동자(노동조합)의 참여제도 도입

(ㄴ) 기업단위 노동자 참여경영의 확대

- 고용안정을 제고하는 노사의 사전협의제도 도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리해고)
- 작업장단위 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하여 산업민주주의 및 생산성 제고

(ㄷ) 중앙단위 산업민주주의 제고

- 정부정책 입안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폭 확대
- 노총의 정치활동 보장
- 노.사.정 협의기구의 상설화
- 업종, 지역단위 노사협의회 운영
- 중앙단위 노.사.정 협의기구를 상설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제정책에 대해 사전협의

(2) 본노련 차원

(ㄱ) 노총의 정책, 제도개선사항을 지원하되 중점적인 부분이 관철되도록 한다

(ㄴ) 임금을 제외한 정책, 제도개선부분에 대하여 노사정간의 교섭을 선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참다운 사회적 합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ㄷ) 경영참여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본노련 단체협약 모범안 제공)

- ① 감원, 공장통폐합, 이전, 휴폐업, 하청, 외국인 노동자(연수생) 채용, 정원, 비정규직 채용, 용역등 제도 도입시 노조 의견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
- ② 임금제도 개편, 조직개편, 노무관리제도 개편에 있어 기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노조의 참여 보장(임금제도 개편에 관하여는 첫째 노조의 참여에 의한 제도 개편, 둘째 노조 참여에 의한 고과기준 책정, 세째 충분한 기능형성 기회부여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③ 경영에 관한 정보 공유권 강화

④ 산업안전활동에의 노조 참여권 강화

⑤ 적대적, 비생산적 노사관계 해소방안 강구

(ㄹ)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제도를 강구한다

- ① 사내 복지 체육 오락시설 확충, 주차장 확보
- ② 문화 교양 오락 체육 씨클 활성화
- ③ 과외 교육훈련제도 확충(컴퓨터, 어학등)
- ④ 주택보유율 제고

- (ㄱ) 고령자.맞벌이 가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 퇴직금 누진제,사적 연금제,정년연장 강구
 - ② 생활정보실 운영 및 생활편의 제공 제도 마련
 - ③ 탁아시설 확충
- (ㄴ)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요구활동을 전개한다
- (ㄷ) 통상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191시간을 목표로 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3) 가맹노동조합 :

- (ㄱ) 연맹지침 및 단체협약 모범안을 중심으로 하여 가맹노조 독자의 요구안을 작성한다.
- (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병행하는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안을 작성한다.
- (ㄷ) 임금교섭만 하는 노동조합은 연맹지침을 중심으로 하여 각 가맹노동조합 안을 작성한다(합의서는 반드시 단체협약서의 일부로 남길 필요는 없음)
- (ㄹ) 각 가맹노동조합은 주요 당면문제를 임투와 결합시켜 해결해나간다.
조고를 통상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191시간을 목표로 하여 점진적

3) 본노련 '95 임투활동지침

(1) 활동기조

- (ㄱ) 합법성을 견지한다
- (ㄴ) 지역별 공투체제를 강구한다
- (ㄷ) 대표적 부당노동행위업체를 선정하여 집중공략한다
- (ㄹ) 임금억제정책이나 탄압이 강화될 시 단호한 행동으로 이에 대응한다
- (ㅁ) 임투일정 : 1994년 4월 15일 요구안 제출완료

94년 5월 20일 타결가능노조 마지막 교섭개시. 5월말까지 타결,
전망불투명노조 쟁의발생결의
94년 6월 초순 미타결노조 쟁의행위

(2) 본노련 지원활동

- (1) 임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94년 12월)
- (2) '95임투실무대책위원회(95.1.17)
- (3) 95임투자료집 제작 배부(95년 1월 하순)
- (4)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회의(95년 2월 27일)
- (5) 중앙위원.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95년 2월 27일) - 임투지침 확정
- (6) 임투지침 배부(95년 3월 초순)
- (7) 포스터 제작 배부(95년 3월 중순)
- (8) 지역별 임투지원교육(95년 3월 7 - 3.17일, 6개 권역)
- (9) 경영분석 교육(95년 3월 21일 - 22일, 2개 권역)
- (10) 임투상황실 설치(3월)
- (11) 기업에의 협조공문 발송(3월)
- (12) 임투자료 제공(수시)
- (13) 임투특보 제작 배부(3월 하순 - 4월)
- (14) 지역별 임투결의대회등 지원
- (15) 임투진행상황 제공(금속노련 통신)
- (16) 임투.쟁의사업장 방문(4월 - 7월)
- (17) 임투평가회(8월)

<표1> 가구주 생계비 충족율

	가구당 인원수	가구당 취업자수	가구당 생계비	가구주 소득율	가 구 주 필요소득	금속 생산 직 고정급	가구주소득 생계비충족율
1990	3.97	1.39	869,308	85.38	742,215	493,770	66.5%
1991	3.96	1.42	1,103,792	84.12	928,509	568,449	61.2%
1992	3.90	1.40	1,227,403	85.25	1,046,361	662,217	63.3%
1993	3.80	1.41	1,312,809	83.62	1,097,771	735,685	67.0%
1994	3.72	1.45	1,450,924	81.24	1,178,731	788,436	66.9%

자료 :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서
노총, 생계비

- 주:1)94년도가구당인원수,가구주 소득율은 2/4분기 것임
- 2)임금은당해년도평균치이고94년도는11월까지의평균치임
- 3)생계비는각년도12월10일기준임
- 4) 금속생산직 고정급은 정액급여에 특별급여(상여금)를 합한 것임

4) 임금요구안 작성

(1) 요구안 작성의 기초

- ㄱ.생계비 충족율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 ㄴ.통상임금 기준으로 요구한다
- ㄷ.금액과 율로 표시하되 평균미만의 저임금업종은 연맹제시금액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평균이상의 고임금업종은 연맹제시율을 중심으로 요구한다
- ㄹ.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되 완전관철을 목표로 한다.
- ㅁ.임금격차개선은 각 노조의 노력과 함께 공정거래등 제도개선투쟁을 한다

(2) 임금실태

- ㄱ. 임금통계는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동부 통계를 사용하였음
- ㄴ. 본노련 가맹조직에 가구 및 악기제조업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속산업에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임금을 합하여 계산한 것임
- ㄷ. 정액급여(기본급+고정적 제수당)은 94년도 임금인상분 및 호봉승급분이 모두 포함되었다 할 수 있는 94년 11월 임금통계를 사용하였고 특별급여(대부분이 상여금)은 월별 변동이 크기 때문에 93.12 - 94.11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비율을 구하여 94년 11월 정액급여에 이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표2>금속·가구산업 생산직 임금실태(94.11월 임금 추정)

업 종	정액급여 (1)	특별급여 비율(2)	특별급여액 (3)	총액임금 (1+3)	임금평균에 대한 퍼센트
제1차금속	703,681원	56.16%	395,187원	1,098,868원	131.7%
조립금속제품	564,026원	23.30%	131,418원	695,444원	83.3%
기계. 장비	644,977원	29.63%	191,107원	836,084원	100.2%
사무. 계산. 회	445,740원	34.02%	151,641원	597,381원	71.6%
계용기계					
전기기계. 전	508,187원	34.30%	174,308원	682,495원	81.8%
기변환장치					
영상. 음향. 통	480,211원	44.37%	213,070원	693,281원	83.1%
신장비					
의료. 정밀. 과	540,527원	25.08%	135,564원	676,091원	81.0%
학기기. 시계					
자동차. 트레	686,552원	50.82%	348,906원	1,035,458원	124.1%
일러					
기타운송장비	789,783원	52.55%	415,031원	1,204,814원	144.3%
가구. 기타제	523,958원	24.54%	128,579원	652,537원	78.2%
조업					
평 균	600,169원	39.10%	234,496원	834,664원	100.0%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주 (1) 정액급여(통상임금과 유사)는 94년 11월의 임금임

(2) 93년 12월- 94년 1월간의 정액급여에 대한 특별급여의 비율임

(3) 특별급여(상여금등의 성격)는 정액급여에 (2)의 비율을 곱하여 100으로 나누었음

(4) 위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1차금속 : 철강산업, 비철금속산업

조립금속 : 기계장비제외의 금속제품

기계장비 : 기계, 엔진, 터빈, 펌프, 압축기, 밸브, 베어링, 기어, 산업용 오븐, 노용
버너, 산업용 트럭, 적하기, 물품취급장비, 저울, 산업용 냉장.냉동
장비, 공기조절장치여과기, 소화기, 분사기, 포장기, 용기세척기, 송풍
기등등

사무계산회계장비 : 컴퓨터, 타자기, 계산기, 복사기

전기기계 : 전동기, 발전기, 전기변환장치, 변압기, 전기회로개폐기, 배전반, 절연선, 케이블, 축전지, 전구, 조명장치, 내연기관 전장품, 전기경보 등등

영상.음향.통신장비 :

의료.정밀.광학.시계:

자동차.트레일러 : 승용차.특장차.트레일러, 컨테이너, 선박, 철도장비, 기관차, 항공기, 자전거 제조 및 부품생산

기타 운수장비 : 특수 산업용 손수레, 트롤리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금속 및 목재 가구, 악기, 스포츠용품, 장난감등

5) 생계비 산출

ㄱ. 노총생계비를 기준으로 함

ㄴ. 가족규모는 통계청 자료에 의한 94년(1-9월)의 3.72인을 사용

ㄷ. 가구주의 소득비율은 통계청 자료에 의한 94년(1-9월)의 81.24%을 사용

(ㄱ) 3.72인가계 생계비(95년 6월말기준) :

$$\begin{aligned} 3인가구 생계비 + (4인가계 생계비 - 3인가계 생계비) \times 0.72 &= 1,450,924원 \\ \text{생계비충족을 위한 가구주 필요소득} &= 3.72인 가계생계비 \times \text{가구주 소득율} \\ &= 1,450,924원 \times 0.8124 = 1,178,731원 \end{aligned}$$

$$\begin{aligned} &\text{95년도 평균물가를 반영한 95년도 가구주 필요소득(95년도 물가를 정} \\ &\text{부목표인 5\%로 가정: 1-6월 물가는 } \sqrt{5} = 2.236\%) \quad 1,178,731원 \times 1.0224 \\ &= 1,205,135원 \end{aligned}$$

< 노총생계비 >

① 조사기간 : 1994.12.10 - 12.15

② 조사 대상 지역: 전국 52개 도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등 에서 각각 공단 근처에 있는 시장의 물가를 조사하였다.

③ 조사대상 총 품목수 : 312개 품목

<표3> 노충 최저생계비

(1994. 12. 10.기준)

	1인 남	1인 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식 품 비	154,266	133,307	248,717	366,606	508,935	616,761
주 거 비	112,209	112,209	224,345	268,861	291,143	380,176
광열수도비	21,469	21,469	28,080	34,187	42,042	48,776
가구집기비	28,481	28,981	50,903	56,520	59,116	63,261
피복신발비	36,527	32,441	73,135	85,206	105,178	132,774
교 육 비	28,529	28,529	20,964	45,056	160,205	301,686
교통통신비	33,940	33,940	47,200	47,200	47,200	74,300
보건위생비	22,903	52,214	59,688	74,698	92,458	108,368
교양오락비	56,533	53,533	63,847	74,547	86,580	97,947
소비지출계	494,857	496,623	816,879	1,052,881	1,392,857	1,824,049
저 축	53,703	53,703	48,333	48,333	48,333	48,333
조세공과금	37,817	37,877	56,297	76,667	115,917	205,237
생계비 합계	586,377	588,203	921,509	1,177,881	1,557,107	2,077,619
증 가 율	10.4%	11.0%	10.4%	11.3%	13.1%	12.5%

6) 본노련 '95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출

- ㄱ. 생계비를 기준으로 요구하되 가맹노조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안을 결정한다(표14 의 인상율을 참조하여 결정)

<표4> 평균임금인상률에 따른 생계비충족 및 인상금액

인상률	11%	12%	13%	14%	14.1%	15%	15.5%	16%
인상 임금총액	926,477원	934,824원	943,170원	951,517원	952,057원	959,864원	964,108원	968,210원
생계비 충족률	76.9%	77.6%	78.3%	78.96%	79.0%	79.6%	80.0%	80.3%
인상금액								
총액기준	91,813원	100,160원	108,506원	116,853원	117,393원	125,200원	129,444원	133,546원
통상기준	66,014원	72,015원	78,016원	84,017원	84,406원	90,018원	93,070원	96,020원
기본기준	55,730원	60,797원	65,863원	70,930원	71,258원	75,996원	78,573원	81,062원

자료 : 노동부 매월통계, 노동연구원 자료, 노총 최저생계비

주 1) '통상임금기준'은 '총액기준'금액에 0.719(위의 금속,가구산업 임금통계에서 산출)를 곱한 것임

2) '기본급 기준'은 '총액기준'에 0.607(노동연구원 추계 이용)을 곱하여 구한 것임

* 제조업 93년도 임금구성비 : 기본급은 정액급여의 84.4%(노동연구원 조사)

총액임금(정액급여+특별급여)에 대한 기본급의 비율=84.4% x 0.719 = 60.7%

<표5> 평균인상률에 따른 업종별 인상률 조건표

	12%인상시	13%인상시	14%인상시	14.1%인상시	15%인상시	15.5%인상시
1차금속	9.1%	9.9%	10.6%	10.7%	11.3%	11.8%
조립금속	14.4%	15.6%	16.8%	16.9%	18.0%	18.6%
기계.장비	12.0%	13.0%	14.0%	14.0%	15.0%	15.5%
사무.계산 회계용기계	16.8%	18.2%	19.6%	19.7%	21.0%	21.7%
전기기계	14.7%	15.9%	17.1%	17.2%	18.3%	19.0%
영상음향통신	14.4%	15.7%	16.9%	16.9%	18.1%	18.7%
의료.정밀.광 학.시계	14.8%	16.0%	17.3%	17.4%	18.5%	19.1%
자동차.트레 일러	9.7%	10.5%	11.3%	11.3%	12.1%	12.5%
기타운송장비	8.3%	9.0%	9.7%	9.7%	10.4%	10.7%
가구.기타제 조업	15.3%	16.6%	17.9%	18.0%	19.2%	19.8%

<표6> 평균 인상률에 따른 업종별 생계비 충족률 조건표

	생계비충족 률(94.11)	12% 인상시	13% 인상시	14% 인상시	14.1% 인상시	15% 인상시	15.5% 인상시
1 차금속	93.2%	99.5%	100.2%	100.9%	100.9%	101.9%	101.9%
조립금속	59.0%	66.0%	66.7%	67.4%	67.4%	68.1%	68.4%
기계. 장비	70.9%	77.7%	78.4%	79.1%	79.1%	79.8%	80.1%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50.7%	57.9%	58.6%	59.3%	59.3%	60.0%	60.3%
전기기계	57.9%	64.9%	65.6%	66.3%	66.3%	67.0%	67.4%
영상. 음향. 통신장비	58.8%	65.8%	66.5%	67.2%	67.3%	67.9%	68.3%
의료. 정밀. 광학. 시계	57.6%	64.4%	65.1%	65.8%	65.8%	66.5%	66.8%
자동차. 트레일러	87.8%	94.2%	94.9%	95.6%	95.7%	96.3%	96.7%
기타 운수장비	102.2%	108.3	109.0%	109.7%	109.7%	110.4%	110.7
가구. 기타 제조업	55.4%	62.5%	63.2%	63.8%	63.9%	64.5%	64.9%

4) '95임투 전국순회교육 실시

일 자	장 소	대 상 지 역	참 가 인 원
3월 7일	서울 노총회관 대강당	서울, 인천, 경기, 강원	40명
3월 8일	대전 노총회관 대강당	충남북, 전남북	61명
3월 9일	대구 노총회관 대강당	대구경북, 구미, 포항	101명
3월 10일	부산 노총회관 대강당	부산, 울산	97명
3월 14일	경남 노총회관 (창원)	경남지역 전역	115명
3월 17일	안양 노총회관 대강당	경기지역 전역	50명

임투교육 시간표

시 간	강 의 주 제	담 당 강 사
13:30 - 14:00	등 록	
14:00 - 15:00	'95년도 임투의 정세와 연맹지침	노진귀(연맹 노사대책국장)
15:00 - 15:10	휴 식	
15:00 - 16:30	'95년도 임투요구안 작성요령	김홍룡(연맹 교육부장)
16:30 - 16:40	휴 식	
16:40 - 18:00	임금교섭의 전략과 전술	김순호(연맹 노사대책부장)

5) '95 입투승리를 위한 기업경영분석 교육 실시

일 자	장 소	대 상 지 역	참가인원
3월 21일	서울 노총회관 대강당	서울 인천 경기 강원	57명
3월 22일	대전 노총회관 대강당	충남북 전남북 대구경북 경남	82명

< 교육내용 >

1. 산업(업종) 분석론
2. 재무제표 보는법
3. 각 재무제표 계정과목 설명
4. 재무제표를 이용한 경영분석 방법론
5. 경영분석의 실제

산업안전활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 1. 교육사업
 - 2. 산업안전법 개정요구
 - 3. 출판사업

평가와 개선방향

금번회계년도의 산업안전활동은 노조 산업안전요의 지역모임활성화와 산업안전법 개정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세미나를 개최, 지역적으로 중심적인 산업안전 요원들을 모아 노조의 산업안전활동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가진 후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모임을 꾸려가려고 계획을 했었다. 그러나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대부분 경험이 부족한 요원들 뿐이어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두번째로 산업안전법 개정은 당초 95년 6월을 목표로 실태조사와 산업안전요원 대회를 갖고 법개정활동을 전개하려 했었으나 94년도 정기국회에 동법 개정안이 갑자기 상정되어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연맹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본노련의 요구를 작성 노총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는 선에서 그치었다.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아직도 임금이나 복지문제가 노조활동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조 집행부가 자주 교체되는 관계로 안전담당은 별 경험을 갖지 못한 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새로운 미경험자가 담당을 하게 된다. 안전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 현실은 너무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요원의 장기 재직제도를 마련토록 지도해나가야 하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지역순회 산업안전 교육을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교육사업

1) 스웨덴금속노조 지원 산업안전세미나

- (1) 기간 : 1994.10.18 - 10.21
- (2) 장소 : 성프란체스코 회관
- (3) 참석자수 : 지역본부 및 단위노조 산업안전간부 24명
- (4) 세미나 주제 노조 산업안전활동 방향
 스웨덴의 산업안전활동
 안산지역 산업안전활동(지역차원)사례발표
 산업안전보건법의 활용과 개선방향
 재해예방 비디오 관람
 안전점검표 작성 실습
 조합원 교육실습
 산업안전관계 단체협약 조문 작성
 금속노련 산업안전활동
 종합평가

(5) 평가

1. 산업안전위원회 모의교섭시간을 넣어달라
2. 교육시간을 짧게하거나 노동문화시간을 넣어달라
3. 스웨덴 강사에 대한 문제(우리 현실과 안맞다.요점을 잡지 못하겠다)
4. 질의응답시간엔 사전안내강의를 넣어달라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해 지원해달라(작업환경.건강검진대책지침 발송)
6. 산업안전관리공단 교육일정표를 보내달라
7. 산업안전자료목록을 보내달라
8. 산업안전국을 신설하여 담당자를 두어달라
9. 법개정시 그 내용을 보내달라
10. 산업안전법 개정에 대해 적극 활동해달라(특보발송)

(6) 연맹활동의 향후 당면대책

- ㄱ. 산업안전법 개정에 대한 대책
- (1) 노총에의 건의

(2) 특보제작

- ㄴ. 작업환경,건강검진 대응지침 제작 배부
- ㄷ. 산업안전관리공단 교육일정표 입수 발송
- ㄹ. 산연맹산업안전자료 목록제작 및 자료정비
- ㅁ. 산업안전국 신설검토(규약개정)
- ㅂ. 스웨덴 지원사업 일부 수정(지역순회교육검토,조합원교육용 특보제작)

2) 노총지원 산업안전교육 실시

- (1) 기간 : 1994.11.15 - 11.18
- (2) 장소 : 노동부 산업안전교육원
- (3) 참석인원 : 단위노조 간부 52명
- (4) 교육주제 노조의 산업안전 보건활동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요
 - 산업안전정책방향
 - 안전보건교육훈련
 - 직업병과 예방대책
 - 산재보상법
 - 안전점검 및 개선요령
 - 작업환경측정 개요 및 실습
 - 무재해운동
 - 기계설비의 안전대책
 - 노동문화활동

2. 산업안전법 개정요구

'94. 11. 7 노총에 다음의 법개정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노총은 국회에 건의서 제출

본노련 요구

(1) 개정요구의 취지

산업안전보건문제는 당해근로자나 가족의 생존과 안녕이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재산의 파괴를 가져오고 머지않아 국제무역의 애로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산업안전문제는 장기적 계획하에 노사정이 합심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의 안전보건기준설정과 감독및 재정적 지원, 사용자의 안전보건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투자,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나 사업소 차원의 안전보건 정책수립과 그 이행과정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안전보건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중대한 미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의 보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요구안을 제출한다.

(2) 개정요구 사항

제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1(산업안전보건정책자문위원회) ①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정책결정을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공익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정책자문위원회를 노동부에 둔다.

②산업안전보건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③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 대표의 선임은 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에 의한다.

②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하며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산업안전위원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저기준은 산업안전보건 자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 근로자 또는 근로자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등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자위행위를 전후하여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재개를 명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노동부와 같이 개정하되 벌칙 제69조 제1호에서 '제41조'를 삭제하고 제69조 제1호에 "제41조"를 삽입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등)①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주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산업위생지도사는 산업위생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주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받고 근로자의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의 자격,업무,영업,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출판 사업

1) 산업안전.재해보상 편람 제작

(1) 발행일시 : 1994.5.10

(2) 4x6배판 575 페이지

- (3) 주요수록내용 노조의 산업안전활동
산업안전관련 단체협약사례 및 모범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사례
작업환경개선
유해물질
금속산업의 유해요인 및 대책
직업성 요통
산업안전활동 단체 목록
안전점검표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재해보상법 및 실무요령,판례,유권해석,재해
보상 서식
교통사고시의 대책
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관련 ILO조약,권고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특보제작

(1) 제작일시 : 1994.11.10

4. 스웨덴금속노조 지원사업요청

1) 산업안전 세미나

(1) 94년 10월 및 95년 2월, 3박4일

(2) 사업목적

1차 : 한국금속노련 산업안전위원회 구성 준비 및 '94년도 산업안전사업의 성공적 전개를 위한 논의

2차 : 전국 산업안전결의대회 준비건

(3) 대상

1차 : 산업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단위노조 간부 30명)

2차 : 전국산업안전 결의대회 실무준비자(단위노조간부 30명)

2) 전국산업안전결의대회

(1) 1995년 6월 개최, 1일간

(2) 목적 : 산업안전법 개정의 공개적 요구

단위노조 산업안전활동의 활성화 도모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여론 환기

(3) 참석자 : 단위노조 간부 200명

(4) 예산 : 5,000,000원

3. 실태조사

(1) 조사기간 : 1994년 11월 - 1995년 2월

(2) 조사사항 : 직업병 및 산재 실태, 산업안전활동, 단체협약

(3) 용도 : 전국산업안전결의대회 자료로 활용

(4) 예산 : 10,000,000원

4. 월간 산업안전 뉴스 발간

(1) 예산 : 3,200,000원

5. 산업안전 교육 전단 모음집 발간

(1) 목적 : 단위노조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복사하여 벽에 부착하여 조합원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함

(2) 예산 : 5,000,000원

6. 시청각 교육자료 구입

(1) 예산 : 6,000,000원

* 이상의 지원 요청중 3,900만원 상당의 지원(스웨덴 금속노조 지원강사
여비포함)을 약속받았으며 94.10 개최된 산업안전세미나 참석자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의 변경을 제안하였음.

(1) 산업안전법 개정(특보발간 3회 및 회의 3회, 94년 11-12월 실시)
3,000,000원

(2) 조사사업(94.11-95.2) 6,000,000원

(3) 지역순회교육(6개지역 1일 교육, 95년 2월 또는 6월 실시)
5,000,000원

(4) 산업안전 교육특보 제작(95년 6월 4회 발간) 4,000,000원

(5) 산업안전교육자료 모음집(95.3-6) 5,000,000원

교 육 활 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1. 본노련 주관 교육활동
 - 1) 신임/신규 대표자 교육
 - 2) 신임/신규 사무국장 교육
2. 노총 주관 노조간부 위탁교육
 - 1) 정기노조 간부교육
3. 지역본부 및 단위조합 교육지원현황

평가및 개선방안

교육부에서는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 교육사업계획을 완수하여 노동운동의 발전과 단위조합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교육횟수의 축소, 교육실행시 참여율 저조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신입/신규 대표자 및 사무국장에게 꼭 필요한 노동조합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단체교섭능력강화, 조직운영 및 실무행정능력 강화, 간부의 자세확립등에 목표를 두고 계획되었던 4회의 신입/신규 대표자 교육 및 사무국장교육이 2회로 축소 운영되었으며, 상집간부의 자질향상을 위한 상집간부 전문교육, 그리고 강사양성교육등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나마 어려운 재정형편속에서 실시되었던 교육마저 참여율이 저조하여 크나큰 아쉬움을 남긴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본노련 교육부가 '94 교육사업을 결산하며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보고하며 '95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여 좀더 나은 노동운동과 경쟁력 있는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첫째, 문제점은 교육예산확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예산은 외국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OECD 가입이라는 상황하에서 외국지원에만 의존한다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지원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노동조합교육사업도 재정자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전제하에서 교육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참여율 저조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집행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구미가 당기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충분한 홍보, 교육시기의 적정선택, 교육장소를 적당한 위치에 선정한다면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5 년 교육사업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보완, 개선하여 좀더 나은 교육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본노련 주관 교육활동

1) 신입/신규 대표자 교육

가. 목표

- 노동조합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 단체교섭능력 강화
- 조직운영 및 관리능력 강화
- 정보교류 및 지도자의 자세 확립

나. 개요

- 교육기간 : 2 박 3 일 합숙교육
- 대 상 : 94 년도 신규 및 신입 대표자(지부장 포함)
- 참 가 비 : 20,000 원 (숙식, 교재, 문구 일체지급)

다. 당초계획

횟수	계 획 일 정	대상지역	대상인원	비 고
1 차	94.10. 5 - 10. 7	전 지역	60 명	
2 차	94.10. 11 - 10.13	전 지역	60 명	

라. 실시현황

횟수	계 획 일 정	교 육 장 소	대상인원	비 고
1 차	94.10.25 - 10.27	노총중앙교육원	30 명	

마. 교육내용

- 금속노련 현황 및 운동기조
- 현 노동운동 문제점과 과제
- 노동조합 회계실무
-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 지도자의 자세
- 노동조합론 연구 및 노동문화
- 단체교섭 실무 및 질의응답
- 한국노동운동사
- 연맹과의 대화 및 토론
- 그룹토의

박인상 위원장
장명국 내일신문 주주운영위원장
윤창열 총무국장
이진우 조직국장
정학균 부위원장
최응길 부위원장
김홍룡 교육부장
김성문 부위원장
의장단
교육 진행자

바. 평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강생 참여 저조 (사유 : 내부조직 불안정, 단체교섭, 행사집행등)로 애로가 있었으며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강의 60 분, 질의응답 30분 구성으로 호응도가 좋았음.
그러나 교육장소가 여주 노총교육원인 관계로 너무 멀다는 지적이 있었음.

2) 신입/신규 사무국장 교육

가. 목표

- 노동조합 일반 이론에 대한 이해
- 단체교섭 능력강화
- 조직운영 및 실무능력 강화
- 정부교류 및 상호연대 강화
- 간부로서의 정신무장

나. 개요

- 교육기간 : 2 박 3 일 합숙교육
- 대 상 : 94 년도 신규 및 신입 사무국장(지부사무장 포함)
- 참 가 비 : 20,000 원 (숙식, 교재, 문구 일체지급)

다. 당초계획

횟수	계 획 일 정	대상지역	대상인원	비 고
1 차	94. 11. 1 - 11. 3	전 지역	60 명	
2 차	94. 11. 8 - 11.10	전 지역	60 명	

라. 실시현황

횟수	계 획 일 정	교 육 장 소	대상인원	비 고
1 차	94.11.29 - 12. 1	대전유성경하장	55 명	

마. 교육내용

- | | |
|-------------------|------------------|
| ◦ 금속노련 현황 및 운동기조 | 박인상 위원장 |
| ◦ 현 노동운동 문제점과 과제 | 장명국 내일신문 주주운영위원장 |
| ◦ 단체교섭 실무 및 질의응답 | 김홍룡 교육부장 |
| ◦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 이진우 조직국장 |
| ◦ 고용문제에 대한 노조 대책 | 홍성진 노총 정책연구위원 |
| ◦ 지도자의 자세 | 정학균 부위원장 |
| ◦ 노동조합 회계 실무 | 윤창열 총무국장 |
| ◦ 노동조합론 연구 및 노동문화 | 최웅길 부위원장 |
| ◦ 한국노동운동사 | 김성문 부위원장 |
| ◦ 연맹과의 대화 및 토론 | 의장단 |
| ◦ 그룹토의 | 교육 진행자 |

바. 평가

교육 진행에 적당한 인원 참여로 교육분위기가 좋았으며 상호 정보교류 및 경험 사례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연맹 교육사업에 적극 참여 할것을 다짐하였으며 사회적 합의 문제, 노동법 개정문제, 의무금 납부 문제등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있었음.

2. 노총 주관 위탁교육

1) 정기노조 간부 교육

- 일 시 : 1994. 3. 22 - 94. 11. 4.
- 장 소 : 노총 중앙교육원
- 교육기간 : 3 박 4 일

기 수	배정인원	참 석 자		비 고
		금속	전체	
261 기	50	12	57	94. 3. 22 - 3. 25
262	50	30	73	94. 3. 29 - 4. 1
263	50	33	122	94. 4. 12 - 4. 15
264	50	22	76	94. 4. 26 - 4. 29
265	50	17	82	94. 5. 10 - 5. 13
266	50	10	62	94. 5. 24 - 5. 27
267	50	19	85	94. 6. 14 - 6. 17
268	50	21	65	94. 6. 21 - 6. 24
269	50	14	71	94. 7. 5 - 7. 8
270	50	30	71	94. 9. 6 - 9. 9
271	50	53	102	94. 9. 27 - 9. 30
272	50	39	101	94.10. 11 -10. 14
273	50	35	77	94.10. 18 -10. 21
274	50	43	82	94.11. 1 -11. 4
계	700 명	378	1,126	

※ 전체 교육 수료자 1,126 명중 금속간부가 378 명 수료하여 34%를 차지함.

3. 지역본부 및 단위조합 교육지원 현황

월 별	강의 지원건수	월 별	강의 지원건수
94 년 4 월	24	94 년 11 월	12
5 월	4	12 월	13
6 월	3	95 년 1 월	9
7 월	5	2 월	6
8 월	6	3 월	12
9 월	4	계	110
10 월	12		

※ 본노련 주관 교육 강의는 산입하지 않음

※ 노총 중앙 교육원 출강은 산입함

※ 주요 교육 요청 내용

- . 현정세하의 노동운동 방향
- . 간부의 역할과 자세
- . 조합원의 역할과 자세
-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 임금 및 단체교섭 관련 내용

‘94 교육 참석자 분석 현황

순번	조 합 명	대 표 자	사무국장	노동문화	여성간부	계
1	동 일 제 강	1				1
2	롯데알미늄	2		2	1	5
3	한국음향	1				1
4	기 경 실 업	1				1
5	대 일	1				1
6	대한전선	1	5			6
7	동 회 산 기	1				1
8	두 산 기 계	1				1
9	서울주철	1				1
10	오 공 금 속	1	1			2
11	태 양 강 업	1				1
12	한국키스톤발브	1				1
13	한국 브레이크	1				1
14	한 일 제 관	2	2	2	4	10
15	영 창 악 기	1				1
16	방 원 금 속	1				1
17	세 진 다 지 마	1				1
18	우 진 정 밀	1				1
19	경창 브레이크	1	1			2
20	경 창 와 이 퍼	1				1
21	대 원 기 계	1		1		2
22	영 남 주 물	1				1
23	오 리 온 금 속	1	1	1		3
24	조 선 선 재	1				1
25	세 일 공 업	1				1
26	태 주 실 업	1				1

순 번	조 합 명	대표자	사무국장	노동문화	여성간부	계
27	태 성 기 공	1	1			2
28	화 천 기 공	1				1
29	진 도		2	2		4
30	정 일 공 업		1			1
31	동 회 산 업		1			1
32	금 강 공 업		1			1
33	흥 화 공 업		1	2		3
34	삼 정 강 업		1			1
35	포 철 노 재		2			2
36	태 평 양 금 속		1			1
37	화 신 테 크		1	1		2
38	신 삼 익		1			1
39	삼 협 산 업		1			1
40	대 동 금 속		1	1		2
41	남 양 금 속		1			1
42	한 국 철 강		2	2		4
43	태 주 실 업		1			1
44	세 일 공 업		1			1
45	동 아 건 설		1			1
46	금 성 알 프 스		1		3	4
47	태 광 밴 드		1			1
48	서 일		1			1
49	삼천리열처리		1			1
50	건 화 전 기		1	2		3
51	삼 화 전 기		1		2	3
52	동신오미야법랑		1			1
53	뉴 맥 스		1	1		2

순 번	조 합 명	대표자	사무국장	노동문화	여성간부	계
54	국제종합기계		1	3		4
55	한 성 실 업		1			1
56	승 일 제 관		1			1
57	동 국 제 강		1			1
58	회 승 산 업		1			1
59	한 국 체 인		1			1
60	장 안 공 업		1			1
61	이화다이아몬드		1	1	2	4
62	삼 화 제 관		1			1
63	금 성 공 업		1			1
64	금 성 통 신		1	1	3	4
65	경 원 산 업		1			1
66	풍 성 전 기		2		1	3
67	오 트 론		1			1
68	서 울 차 체		1			1
69	극 동 전 선		2			2
70	대 덕 산 업		1			1
71	대 덕 전 자		1	4		5
72	대 성 전 선		1			1
73	대 부 기 공		1			1
74	대광다이케스트		2			2
75	동 해 전 장		1			1
76	대 우 전 자		1	4		5
77	미 진 금 속		1			1
78	맥 슨 전 자		2	2		4
79	범 양 냉 방		2			2
80	삼 목 강 업		1			1
81	삼 선 공 업		2			2

순 번	조 합 명	대 표 자	사무국장	노동문화	여성간부	계
82	삼 영 전 자		1	2		3
83	삼 협 산 업		1			1
84	세 진 전 자		1		3	4
85	쌍 용 중 공 업		1			1
86	이 천 전 기		1			1
87	태 양 사		1			1
88	평 화 발 레 오		1	1		2
89	평 화 크 랫 치		1			1
90	현 대 전 자		2	2		4
91	한국쌍신전기			2		2
92	한 국 알 미 뇨			2		2
93	한 국 전 자			1		1
94	한 국 중 천			2	2	4
95	한 국 G M B			2		2
96	화 신 제 작 소			1		1
97	해 태 전 자			5	5	10
98	현 대 발 브			1		1
99	한국시그네틱스				2	2
100	대 우 통 신				2	2
101	우 진 정 밀				1	1
102	영 신 정 공				1	1
103	동 호 전 기				2	2
104	적 고				2	2
105	금 성 사				7	7
106	한국신광 전자				2	2
계	참가 인원수	30	55	66	60	211
	참가사업장수	28	46	44	24	106

홍 보 활 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안

- 1. 금속노보 발행

- 2. 기타 선전활동

평가와 개선방향

시사성있는 정보전달을 위해 월 1회 발간하던 금속노보를 매 10일마다 1회씩 발간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개편은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판'을 타브로이드판'으로 바꾸어야 했고 비용절감을 위해 연맹 컴퓨터로 많은 것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해 연맹소식을 그때그때 전달할 수는 있었지만 노보의 품질이 저하된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가맹노조당 신문부수가 6매씩 배부되는 관계로 조합원용으로 발간되는 노보 본래취지를 달성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본노련에서는 특수한 부분에 대해 특보를 발간하는등 새로운 대응을 해왔지만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앞으로 개선해야할 당면사항 몇가지를 들면

첫째 지금의 금속노보는 조합원에게 1매씩 배부될 수 있도록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는 대판으로 월2회씩 발간하고 다양한 정보와 연맹입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둘째 보다 구체적 정보는 지금까지처럼 금속노련통신으로 전달하며

셋째 조합원 대상의 홍보는 현행의 특보를 더욱 발전시킴과 아울러 각 단위노조가 복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전단을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다.

한편 연맹의 홍보에 있어 발전시켜나가야 할 부분은 사회에 대한 홍보이다.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언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일반 언론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일반 언론에 타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은 일반 언론의 협조없이 어렵다. 따라서 대외홍보를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1.금속노보 발행

판형 : 타블로이드 4면

발행부수 : 4천부

발행실적 1994년 5월 23일 제 114 호
6월 3일 제 115 호
6월 30일 제 116 호
7월 11일 제 117 호
7월 23일 제 118 호
8월 22일 제 119 호
9월 6일 제 120 호
9월 29일 제 121 호
10월 31일 제 122 호
11월 11일 제 123 호
11월 25일 제 124 호
12월 8일 제 125 호
12월 26일 제 126 호
1995년 3월 10일 제 127 호
3월 30일 제 128 호
4월 20일 제 129 호
4월 30일 제 130 호
5월 10일 제 131 호

2.기타선전활동

- 각종 보도자료 및 속보제작 배포
- 가맹노조 노보 수집분류

94년도 중점사업
조직통일 및 활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 민주주의 구현
산업재해 추방

금속노동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서울	(021)	863-1983
경기	(0343)	42-3666
충청	(042)	273-5786
전북	(0431)	67-1418
전남	(0551)	84-4021
경북	(053)	844-4813
경남	(0522)	74-9631
충남	(051)	564-0128
대전	(042)	524-8581
광주	(05621)	83-3728
대구	(05461)	464-3643

발행인: 박인상 편집인: 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새로운 개혁과 전진 힘차게 다짐

본노련 1994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 한국노총대강당에서 대의원 2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대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금속노련기 입장, 국민의례가 있었으며 정창영부위원장의 대회선언문 낭독과 모범조합원 표창순으로 이어졌다.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은 이어 있는 대회사에서 사업추진원칙으로 현장주의 운동노선과 실질적 민주주의 운동노선의 제창, 노조운동의 새로운 전략과 정책 개발, 조직통일노력 경주 등을 주장하고 힘과 마음을 합쳐 현재 놓여 있는 난관을 헤쳐나가자고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대회는 박종근노총위원장의 격



대회를 하고 있는 박인상위원장. 이번 선거에서 단독 출마, 93%의 지지율을 획득하였다.

려사와 전일본 금속산업노동조합 협의회(IMF-JC)부의장 하토리 미쓰로등지의 축사, 국제금속노련(IMF)동아시아 사무소 소장 고지마 세이고 동지의 연대사로 진행되었다.

이후 대회는 2부행사로 성원보고와 안전토의로 진행되었다. 안전토의는 1993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올해가 본노련의 임기대회이므로 임원과 중앙위원 선출 및 노총파견대의원 선

출이 있었다. 또한 1994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수립이 있었으며 기타토의로 지난 1993년도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명비인상을 토의하여 1994년 10월 1일부터 명비를 조합원 1인당

100원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명비가 몇년간 동결되어 물가인상과 조합수의 증가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의원들은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1994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새로 선출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인상, 부위원장 김성문 정창영 최종길(이상상임) 유재섭 정학균 안영환 김영철 박천석 전재환 박영호 김동교 채선수 오봉출 하영일 박한수 김경조 박영규 정기춘 백종부 김운주, 사무처장 정창영, 회계감사 김두형 김홍수 박순자 김종국 최창기 박한섭 임문택

임금교섭지원 지역순회

본노련은 현재 단위조합의 임금교섭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14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전지역을 순회하기로 하였다.

현재 각 지역의 단위조합의 임금교섭이 진행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사용자의 불성의로 인하여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일부 단위조합은 쟁의 발생신고를 내거나 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맹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단위조합의 임금교섭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전 임직원의 지역순회를 계획한 것이다.

또 연맹은 이번 임금교섭지원 지역순회를 통해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수립한 단위조합과 연맹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주의의 운동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동안 지역과 단위조합의 문제점과 의견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맹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부 의견차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강고한 조직력을 재수립하는 이번 지역순회에 단위조합의 적극적인이 활발한 지원을 바란다.

IMF-JC 연수단 방문

전일본 금속산업노동조합협회(이하 IMF-JC)연수단 30명이 5월 16일 본노련을 방문하여 박인상위원장과의 회담을 가진 뒤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노총의 조한천 정책실장의 강의로 한국노동운동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본노련과 돈독한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IMF-JC의 이번 연수단

은 본노련의 대회를 앞두고 방문하여 현재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한 정보교류와 국제연대를 꾀한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는데 IMF-JC에서도 매년 한국의 금속노동자를 초청하여 연수를 통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단은 5월 17일 대우전자 인천공장을 방문하고 견학하였다.

위원장에게 듣는다. //



문 : 먼저 당선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답 : 후보 단일화를 하여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동지들과 대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지지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살려 우리 금속노련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 신평을 다바치겠다.

문 : 현재 금속노련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세계는 지금 너무나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새로운 경영전략이나 노무관리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경쟁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금속산업으로서는 중대한 문제다. 노조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변화를 따라잡을 때만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지금 세계 어느 노조를 보더라도 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따라잡는 노

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여기다가 조직간의 분열과 반목이 더욱 확대될 조짐도 크게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운동chaft정립과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둘째는 조직적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가지로 예산결감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낭비요인을 찾아내 절감해갈 방침이다. 그리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 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 : 앞으로의 활동기조를 말씀해주십시오

답 :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금 기업들도 기존의 관료조직을 떠나 사안별로 종업원 각층에서 적절 한 사람을 뽑아 사업팀, 문제해결팀등을 구성해 종업원 각층의 좋은 생각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나라를 대표 좋은 생각들을 발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만 불가피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고 해계모니 잡는것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한 정책과 실천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힘이 아니라 설득력과 실력으로 경쟁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내적으로 볼 때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하며 지역조직과 업종별 조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직력을 공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장중심의 운동 강화할 터

문제는 예산문제다. 우리 재정수입은 순수히 조합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간 여러가지 이유로 조합원수가 줄어들고 조합비는 오르지 않았다. 거기다 나중에는 조합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었다. 다행히 금년에 금년 10월부터 조합비를 100원 더 인상시켜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여

동현장중심의 운동을 더욱 강화할 생각이 다.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은 언제나 본인의 기조였고 또 그런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가맹노조수가 800개가 넘는 현실속에서는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는 현재의 적은 인력이나마 총가동하고 또 필요인력을 차출하는 한계도 있었을 것이다. 또 연맹정책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문 : 조직의 결속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답 : 결속을 위해서는 운동chaft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이 부분에 노력하면서 일선의 간부들과 직접대화하고 토론했다가겠다. 현재 왔을 때 얼마간 조직 분열과 반목,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한 조직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문 : 끝으로 가맹조직에 당부하실 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답 : 본인과 우리 집행부는 정말로 심기일전하여 될 생각이다. 우리가 아무리 뛰려해도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한계가 클 것이다. 연맹을 믿고 모두가 열심히 뛰어오날의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본인의 간절한 소망이다.

환경보호운동과 노조의

역할

대우전자노조 김종각

최근 노동조합의 개념도 점차 변하고 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으로 알고 있던 노동조합 역할의 개념이 이제는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문제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광범위 해졌다.

그 첫번째 변화는 무엇보다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환경보호운동이다.

이미 일부 언론보도처럼 몇몇 단위노동조합은 환경보호와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입농산물 대신 식탁에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운동이다. 거세게 지나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농산물 애용하기 운동이 노동조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환경보호운동은 몇몇 시민단체나 환경보호운동단체만 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도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와 동참을 해야 한다.

높이 날으는 새가 멀리 보듯이 이제 노동조합도 미래지향적이고 경제건설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말 것이다.

아직은 일부 단위조합만 환경보호운동과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이나 지역민과 유대강화에 그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 단위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느끼면서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 개개

인도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상급단체에서 홍보물연구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환경보호운동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노동조합이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노동조합이 적극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모두의 손으로 환경보호하여 자자손손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모두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여야 하겠다.



일본전기노련 연수단 방문

일본전기노련(명기행고) 시가지협회의회 연수단(이하 연수단) 12명이 5월 19일부터 21일 까지 한국연수를 위하여 입국하였다. 연수단은 5월 19일 본노련을 방문하여 본노련의 현황과 한국노동운동의 현단계, 그리고 한일 금속노동자들의 연대에 대하여 2시간동안 간담회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5월 20일에는 대한전선 안양공장을 방문하여 견학하였다.

연수단의 공장방문에 협조해준 대한전선과 대한전선노동조합에 감사사를 드린다.

94년도 증점사업

조직 통일 및 활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 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서울	4021	863-1983
부산	10343	42-3666
대구	10321	437-8505
인천	10421	273-5786
대전	10431	87-1418
전주	10511	84-4021
광주	10511	644-4613
울산	10522	74-9631
경북	10531	564-0128
충북	10621	524-8548
충남	10562	83-3728
전남	10546	464-3643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서울시관악구신림동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대우전자노조 신영자동지 대상 수상

한국노총은 '제29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5월 26일 오후 2시 노총회관 대강당에서 '94년도 전국 여성노동자대회'를 갖고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과 유급생리휴가 폐지방침 철폐를 정부에 촉구하였다.

전국의 여성노동자 대표와 노동부장관, 정부 2장관등 관련인사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대회에서 본노련 산하 대우전자노동조합 구미지부 여성부장인 신영자 동지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신영자동지는 여성조합원에 대한 교육확대와 직장타아스 설치, 남녀단일호봉제의 도입 등에 기여한 공으로 여성노동자의 지위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받았다.

대회참가자들은 정부

와 기업에 대해 국공립 타아스의 확대 및 어린이 위탁 공동회관, 중소기업체의 공동탁아시설 확대 설치, 유급생리휴가 폐지철폐 철폐, 직업훈련제도와 영유아 보육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용보험제도 및 의료보험제도 효율적 시행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전산업계노동조합

체육대회 열려

전국 전산업계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의장 대원전선노동조합 장정환위원장)이 정탈 체육대회가 5월 29일 오전 9시부터 포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대성전선노조, 대원전선노조, 대륙전선노조, 극동전선노조, 경성공업노조, 연합전선노조, 동진전선노조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육상등의 종목들 가지고 서로 친목과 우의를

나눴다. 종합우승은 경성공업노조가 차지하였으며 종합준우승은 대성전선노조가 3위와 용원산은 대원전선노조와 극동전선노조가 각각 차지하였다.

본 체육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로 제6회에 이르고 있다.

연맹에서는 김성문부위원장등이 참석하여 체육대회를 격려해 주었다.

올해 임금타결률

중앙합의보다 높아

올해 임금타결률이 노총과 경총이 권고한 5.0 - 8.7%보다 높은 범위에서 타결되고 있다.

본노련이 집계한 94년 임금인상률은 5월 19일 현재 전국 각지역에서 60여개의 단위조합에서 임금인상 교섭이 타결되었는데 그 인상률은 평균 9.5%에 달하고 있다.

한편 임금인상요구율을 보면 5월 19일 현재 42.3%가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으며 평균요구율은 14.23%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18.69%로 가장 높으며 분과별로는 조선업종이 16.47%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아직 임금교섭이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기업과 노조에서 자체의 교섭력으로 노경총의 임금 권고안보다 높은 인상률을 얻어내고 있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먼저 노조에서 인상요구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올초부터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생활필수품의 인상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으며 전세가격의 인상 등 주택가격의 인상으로 생활안정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인력난의 가중이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영실적과 수출호조로 인한 매출액 신장도 임금인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특히 기존의 임금이 낮은 충남과 대구,경북지역의 요구가 높은 편이며 노동

강도가 높은 조선이나 경기가 좋은 자동차의 요구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에서는 노경총의 권고안보다 낮게 임금을 합의하는 경유도 있으나 이는 경영의 악화나 매출액의 감소 그리고 수출물량 감소 등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조합에서는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에 역점을 둔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임금 타결현황을 연맹에서는 금속노련통신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단위조합에 전달하여 임금교섭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6월 8일부터는 각 지역별로 현지를 방문하여 교섭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의 임금인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된다면 커다란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다.

국제금속노련 중앙위 개최

1994년도 국제금속노련(IMF)중앙위원회가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각국으로부터 350여명의 노조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중앙위원회의 토론 주제는 '세계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금속노동자의 대안'이었다. 경제의 세계화가 다국적 기업들 자본축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데 따른 인권, 노동조합권,환경, 실업문제등에 노동조합측이 국제적 연대와 독자적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고 논의 결과는 현장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 관여하는 이 지역이 세계공업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 조직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공동대처방안도 논의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하여는 현대자동차등 자동차산업의 설비확장문제가 거론되었고 선진국의 논의기구인 OECD에의 가입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이 OECD 관계자로부터 밝혀졌다.국제금속노련은 82개국으로부터 165개 노동조합, 1800 만 금속노동자가 가맹해 있는 세계최대의 산업별국제노동조직이다.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국제금속노련의 위상도 매우 강화되고 있다.

금번 중앙위원회에는 본노련 박인상 위원장과 노진국 노사대책국장등이 참석하였다.

금속노보 시현판 발행

본노련의 기관지 금속노보가 제114호부터 시현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개월에 1회씩 발행하던 것을 소식지

의 기능을 높이고 조합원에게 빠르게 다가가기 위하여 타블로이드 2면으로 축소하여 10일에 1회씩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씨티즌 상습적 인원감원 보고서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있는 일본의 자기업인 (주)한국씨티즌이 대량의 감원조치를 하고 또다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량감원을 강행하려하고 있어 조합원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1989년부터 3차례에 걸쳐 1700여명의 감원을 하고 이제 400여명의 주

가 감원을 하려는 (주)한국씨티즌의 반노동자적 반인간적 작태를 고발하고 전국 금속노동조합원의 단결된 지지를 모으고자 5월 25일 (주)한국씨티즌 노동조합(위원장 김기선)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전면 게재한다. 한편 연맹에서는 (주)한국씨티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

으며 일본금속노련(IMF-JC)과 협조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원의 많은 지지와 지원을 바랍니다. <편집자 주>

주소: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54-4 한국씨티즌노동조합
전화번호: (0551)96-5041 팩시밀리: (0552)92-7801

-1989년 8월부터 1994년 5월 현재까지 3차례 감원(1차:1192명, 2차:300명, 3차:200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마산 수출자유지역 3공구에 위치한 (주)한국씨티즌은 1978년 60여명으로 시작하여 88년까지 2,700여명의 대기업으로 성장해 오면서 135억원 이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해 왔던 일본 씨티즌 100%투자의 시계생산업체 이다.

이처럼 회사가 급성장하기까지는 한국씨티즌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 노무관리,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산업재해와 관철염, 시력저하 등의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기계처럼 열심히 생산에 힘써 왔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엄청난 흑자경영 속에서 일시적인 불경기에 대한 대책 및 재무자로 기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까지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11월 노동조합이 결성되자마자 1988년, 창원공단에 (주)한국씨티즌정밀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계만을 및 인원을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금기가 1989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2,067명의 사원중에서 절반이 넘는 1,192명의 사원을 감원하였던 것입니다.

회사는 금기가 임금인상에 따른 고임금, 시계시장의 불황과 15억원의 적자발생을 감원의 이유로 내세웠으며, 감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큰 폐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으니 회사의 재건을 위해 노사가 상호 신뢰와 협조속에서 냉철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조합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대적인 감원계획을 반대하고 나선 노동조합 간부 11명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중성을 보이기조차 했습니다.

당시 수출자유지역에서는 한국티씨, 한국동경전자, 한국수미다 등에서 감원 및 철수문제가 집중되어 각 노동조합에서 치열하게 생존권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주)한국씨티즌에서 2개월만에 1,000여명이 넘는 집단감원 사태는 그 심각성이 더욱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

다. 이에 회사와 노동조합에서는 집단감원에 따른 조합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회사재건을 위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9년 11월 1일부터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870명에 대해서는 재차 감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재건을 위해 고부가가치의 시계 수주를 최저 월 40만개 선으로 유지'할 것을 노사 대표 연대서명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와의 합의를 믿고 노동조합은 '고용보장'이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신중한 회사재건을 위해 여유설비의 매각에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동결, 1990년도 임금인상 동결 및 휴무일수 삭감이라는 공통까지 감수하고 생산성향상에 총매진하여 계열사 중에서 생산출하율도 1-2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차 감원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90년 7월 21일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달린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자본의 논리'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습니다. 회사는 '노사합의서'에서 약속한대로 월 40만개의 수주확보에 대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월 25만개 수준으로 줄여 나갈 계획을 밝혔으며, '10월 21일 노사협의회의에서는 실제로는 2여천의 흑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5여천의 적자라는 조작된 수치를 들고나오면서 또다시 400명 정도의 감원을 해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우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2차 감원계획을 통해 회사는 애당초 1989년 11월에 작성한 '노사합의서' 자체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회사재건이라는 미명 아래 철저하게 한국씨티즌 노동자를 이용하여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변변스럽게도 '회사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맞지 않는 제품은 없애면서 인원을 삭감하는 등 감당경영을 하는 동시에 임금삭감, 상여금삭감, 무보수 시간연장 등을 통해 인건비 삭감과 생산성향상에 따른 비용절감을 철저히 해나가야 하나, 한편으론 이익이 나지 않으면 생산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협조해 달라'는 자본의 논리를 강요하면서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노사협조', '상호신뢰' 정신을 한

심략처럼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결국 회사는 1991년 2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320여명에 대해 2차 감원을 실시, 다국적기업의 형상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2차감원 이후 지금까지 회사는 부속인원에 대해 재충원하지 않고 임시직을 사용하였으며, 수주량이 월 40만개로 1인당 잔업 160시간이라는 엄청난 고통으로 조합원들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였으며, 최근 2월까지만 하여도 1인당 평균 잔업시간이 월 55시간이었으며, 3월에는 1인당 평균 잔업시간이 11.6시간이었으나, 5월 갑자기 수주가 10만개로 낮아져서 또다시 1994년 4월 20일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400여명의 인원으로는 흑자로 전환할 수 없다고 경영혁신과 재건을 위해 200여명을 감원하겠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회사의 3차 감원계획에 대해 노동조합은 조합원 단 1명의 감원으로 응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철저한 단결과 조직, 홍보, 규탄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끝까지 저지시킬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연속적이라는 이유속에는 고용안정을 갈망하면서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본가의 비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분명히 하고 경영의 책임, 적자의 책임은 분명히 회사에 있음을 경고해 왔습니다.

회사는 필요할 때는 인사권, 경영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임을 주장하면서 책임이 뒤따를 때는 항상 노사 공동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임금 때론, 생산성 저하 때문 동등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회사를 내일처럼 하자,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하면서, 필요 없을 때는 감원만이 회사를 살릴 길이니 회사를 위해 나가달라고 협박까지 일삼는 일본기업에 대해 우리 씨티즌 노동자들은 더이상 생존권을 내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씨티즌 노동조합은 400여 노동자의 목숨을 가차없이 자르고 거리로 내모는 회사의 상습적인 살인행위인 감원조치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국내외 언론과 국제노동기구, 국내의 노동계 등을 동원하여 씨티즌의 야만적인 인원감원을 규탄하며 이를 저지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94년도 중점사업
조직 통일 및 활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 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서기	김기현	(02)	863-1983
부기	김기현	(0343)	42-3666
총무	김기현	(032)	437-8505
인사	김기현	(042)	273-5786
교육	김기현	(043)	67-1418
연구	김기현	(0511)	84-4021
노무	김기현	(051)	644-4613
기타	김기현	(0222)	74-8627
노련	김기현	(053)	564-0128
지부	김기현	(062)	524-8581
회	김기현	(063)	83-3728
지	김기현	(064)	464-3543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 서울시관악구신림동1570-2 전화 864 2901~2 FAX 864-0457



쟁의발생 신고 노조

전국 19개 달해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자세가 원인

본노련 산하 단위조합 중에서 19개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거나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적으로는 경남지역이 6개노조로 가장 많고 부산지역이 5개노조로 그 다음이며 서울지역이 3개노조, 경기지역이 2곳, 인천과 충북, 대구지역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충북지역의 백성전자노조, 경남지역의 제일정밀노조와 세방전지노조, 부산

지역의 태양사노조 및 형진공업노조는 현재 임금미 지급이 타결되었으며 서울지역의 남부금속 호성정밀 분회와 안성에 있는 한국AMP노조는 6월 27일 현재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교섭에 임하고 있는 노조는 서울지역의 동해노조, 영로코리아노조, 남부금속 호성정밀 분회, 경기지역의 경원산업노조, 한국AMP노조, 인천의 희성금속

노조, 경남의 기아정기노조, 양지금속노조, 진흥철강노조, 삼송노조, 부산의 동아금속노조, 부영철강노조, 한국선재노조, 대구의 대한중석노조 등 14개노조이다.

한편 서울 남부금속노조 호성정밀 분회는 3명의 노조원이 해고되었으며 경남의 삼송노조는 6월 22일부터 파업을 일시중단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교섭을 하

거나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자세인데 임금억제와 노동조합활동의 억제목적으로 사용자의 교섭불성실이 나타나 노동조합에서는 최저생계비 확보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행은 일부 전국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와 관리자들이 온존하고 있는 까닭인데 부당노동행위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가하면 이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사용자의 모습은 전 노동자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사무실 배치변경

본노련은 연맹회관의 효율적사용과 회관운영비의 절감을 위하여 정기대의원대회이후 사무실배치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배치는 기존에 사무처로 사용하였던 1층은 자료실을 확충하고 도서실을 만들며 남은공간은 회의실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위원장실과 사무처장실, 그리고 총무국이 자리했던 2층은 사무처와 사무처장이 사용하고, 위원장실과 부

위원장실이 있던 3층은 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 그리고 노사대적국과 홍보부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사무실 배치를 다시한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층 : 위원장, 부위원장, 노사대적국, 홍보부, 2층 : 사무처장, 총무국, 조직국, 여성국, 교육부, 노사대책부, 국제부, 재정부, 1층 : 도서실, 자료실, 회의실, 지하층 : 강당.

스웨덴 금속노조(SMU)연수활동 마쳐 산업안전활동 견학후 귀국

스웨덴금속노조(SMU)의 초청으로 산업안전연수단이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스웨덴을 방문하여 귀국하였다. 스웨덴금속노조는 그동안 4년에 걸쳐 한국의 금속노조 산업안전을 위한 교육 및 자료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연수단은 6월 13일 스웨덴금속노조 국제부를 방문하여 국제노조협력위원회 대표의 스웨덴금속노조의 현황과 스웨덴 경제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후 산업안전 및 교섭부를 방문하여 스웨덴의 산업안전활동과 임금교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다.

6월 14일에는 트롬헤르 지역으로 이동하여

SAAB자동차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공장의 산업안전활동을 견학하였으며 스웨덴금속노조 112지부를 방문하여 지부활동 및 지부의 산업안전활동을 설명받았다.

15일에는 요테보리지역의 에릭슨 레이다 시스템 공장을 견학하고 산업안전활동을 둘러보았으며 정부에서 세운 기술연구소를 방문하여 기술개발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활동을 살펴보고 금속노조 제41지부장의 지부활동 소개를 청취하였다.

16일에는 오베스타지역의 금속노조 제32지부장과 오베스타 웨빌드 공장(스테인레스공장)의 간부들과 지역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누웠으며 17일에는 오베스타 웨빌드 공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활동을 견학하였다.

스웨덴금속노조는 1894년에 결성되어 올해로 106년의 역사를 가진 노조로 산별노조 형태를 하고 있으며 40만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주된 활동으로는 임금교섭과 산업안전활동, 그리고 국제연대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금속노련과는 국제연대활동의 일환으로 산업안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금속노조의 산업안전활동은 노동조합의 근간의 활동으로 단위조합의 대표자와는 별도로 안전담당자를 전임으로 두고 있으며 수석담당자를 제외하고

도 여러명의 안전담당자들이 있어 직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전임자로 활동하며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작업중단권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작은단위(스웨덴에서는 50명이하의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함) 사업장의 안전문제에 지부의 안전담당자가 있어 안전문제를 담당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노 전임은 아니지만 안전담당자가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금속노조는 다음 회계년도(시작은 7월 1일부터)도 한국금속노련의 산업안전활동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연수단은 정창영사무처장, 노선길노사대적국장, 민한홍홍보부장 등으로 이루어졌다.

코리아씨키트 부당노동행위 저질러

소사장제를 통한 노조와해 기도

안산시 성곡동에 있는 전자부품회사인 (주)코리아 씨키트(대표이사 송동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노골화 하고 있다.

대표이사 송동호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으로 인해 노조설립이 불가능해오다 지난 93년 노사협의회를 결성하여 노동자권익보호에 나섰지만 좌경·용공운하며 노동자의 자주적권리인 노동운동을 위협하여 왔다.

이후 회사에서는 94년 3월이후 소사장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노사협의회에서 반대하자 노사협의회의 위원장을 정리하고 시켜버리겠다는 위협을 자행하였다.

5월 30일 화사측은 6월 1일부터 전공정에 소사장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직서를 쓰고 소사장제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퇴직하

로금(1년미만 경우)을 지급할테니 사직서를 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6월 1일부터 전라인에 소사장을 임명하고 조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소사장과는 단가책정,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 등을 밟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소사장들은 코리아 씨키트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쫓아내었다.

이에 노사협의회를 주축으로 각부서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가졌다. 6월 3일 160명의 사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설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총무과 직원, 소사장들의 폭력과 폭언으로 설립신고를 탈취하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안산노동 박수원 상담부장이 천치2주의 상해를 입었

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위원장 김병화) 회사는 관리직을 동원하여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였으며 조합원의 집을 개별방문하여 불순세력 개입, 형사처벌 등을 운운하며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협박하였다. 또한 조합간부들에 대한 회유, 미행, 감시 등을 자행하여 노조활동을 탄압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권리와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회사를 고발하였으며 노동사무소장은 회사의 노조가 참석한 가운데 소사장제의 일방적 추진은 문제가 있으며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측도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회사도 이를 인정하

였다. 그러나 회사는 6월 14일 합의사항을 조인하기 전 사장은 근로감독관을 내보내고 8시간 근무제 전면부정, 파견근무대신 2개월 유급휴가 등 고의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

이후 회사는 6월 15일부터 조업중단과 협상결렬이 조합측의 책임이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조합간부와 대책위원 중에 불순세력이 있어 회사를 단게 하려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코리아 씨키트의 이같은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자의 생존권 침탈은 문민시대에 볼수 없는 전근대적이고 구태의연한 노조관에서 발생한 것이며 순간의 이익에만 눈이 먼 일부 소사장의 모습에서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전체 노동자의 이익과 생존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은 그 어느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연맹과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안산노동사무소와 노동부, 그리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코리아 씨키트의 부당노동행위를 문제제기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승리하는 날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다.

임금인상투쟁으로 여념이 없는 많은 금속노동조합원들도 노동자의 권익과 단결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코리아 씨키트 노동조합원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고 코리아 씨키트 사장 송동호에게 항의전화를 합시다.

노동조합 :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06-4 전화 : (0345)491-3601 (구내 319)
회사 :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06-4 전화 : (0345)491-360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

조향원의 안전학통 높여야

1994년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설정되었다.

산재예방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노.사.정의 인식제고, 유해.위험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능동적 전개, 산재예방의 노.사.정 공동대행방안 촉구, 산재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분위기 확산 등을 목적으로 설정한 이번 강조기간은 년중 산재발생율이 가장 높은 7월을 설정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단위조합에서는 특히 이 기간동안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대사용자 요구활동과 단체협약 갱신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산재예방 및 재해자 보호활동

을 강화하고 노.사.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며, 산재예방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산재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 강조기간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조합원의 의식을 높인다는 목적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의 갱신이 많이 있는 단위조합에서는 안전조항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더욱 강화하여 조합원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안전이 기업의 경제적 손실도 줄인다는 보다 적극적인 사용자 설득으로 단체협약에 안전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매년 이맘때면 실시한

안전보건 강조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활동적인 안전보건 강조기간이 되어야 하겠다.

노동 새책

생활노동법 Q & A

"이 책은 직장에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수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인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고 쉽게 들려줍니다."

지은이 신종철씨의 말이다. 이 책은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재해보상법까지 각종 법적인 문제를 근로조건, 근로계약 등 우리 노동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최근

산업안전 재해보상편람

수령 공고

연맹에서는 단위조합의 산업안전보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과 재해보상에 관한 편람을 제작하여 전국 각 지역본부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위조합에서 임금인상 투쟁 등 바쁜 일정이 있거나 배포 사실을 잘 몰라 현재 완전하게 배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본부에 배치되어

있는 산업안전.재해보상편람은 그 내용이 쉽고 단위조합의 간부들이 지침서로 쓰기에 적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각 지역본부에 가서 산업안전.재해보상편람을 수령하시어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산업안전.재해보상편람은 무료로 배포됩니다.

의 대법원판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등에 기초하여 알기쉽게 서술한 책이다.

그 동안 각종 법의 어려움과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제권리를 포기하였

던 경우가 많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지은이의 글 쓴 의도가 돋보이는 책이다.

1994년 5월 25일 발행
사계절출판사 발행
총 268쪽 5,300원

94년도 중점사업

조직 통일 및 활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 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구분	인원	회비	기금
서울본부	1,021	853,198	42,366
경기본부	1,034	437,850	773,576
충청본부	1,042	67,141	84,402
전라본부	1,043	644,483	74,963
전남본부	1,051	564,012	524,858
경남본부	1,052	83,372	464,364
제주본부	1,056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 서울시관악구신림동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노련산하 임투 61.3% 진척 6.30기준, 평균타결 9.6%선

본노련 산하 단위조합의 임금인상투쟁은 6월 30일 현재 61.3%가 타결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맹 조사 통계부에서 집계한 1994년도 임투현황을 보면 요구안 확정노조 424개 노조 중 260개 노조가 타결되어 61.32%의 타결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타결액을 보면 평균 49,363원이며 타결액은 기본급기준 평균 9.5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구미지역이 89.5%로 가장 진척률이 높았으며 울산지



94임투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임투결의를 다지는 풍성전기노조 이대영위원장

역이 40%로 가장 낮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교섭을 연기한데

일부 요인이 있다. 또 분과별 진척률을 보면 기계금속분과가 66.7%로 가장 높은 진

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선분과가 46.6%로 가장 낮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타결률을 보면 충북 지역과 대구, 경북지역, 경기지역이 각각 10.54%, 10.45%, 10.1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과로는 조선분과가 10.15%의 평균타결률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도 9.5%가 넘는 타결률을 보여 전체 평균 9.6%이상의 타결률을 보여주고 있다.

거양로공업이 취임행사

포항과 광양에 있는 거양로공업위원장 이. 취임식과 창립 6주년 기념식, 그리고 조합원총회가 7월 4일 포항의 본소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이. 취임식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을 이끌었던 정용길위원장에 이어 거양로공업 노동조합을 지도할 송만현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선했다. 집행부 구성을 한 것이다.

한편 거양로공업노동조합은 이날 이. 취임식과 더불어 창립 6주년 기념행사를 가졌고 또한 조합원 총회도 함께 열어 조합원의 단결과 노동조합의 힘찬 전진을 결의하였다.

범양냉방노조

대의원대회 및

창립기념식 개최

군포에 위치한 범양냉방노동조합(위원장 경홍식)은 '9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7월 2일 개최하였다.

1977년에 노동조합을 결성한 범양냉방노동조합은 오랜 활동의 경험을 살려 군포지역의 모범적인 노동조합 중의 하나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확고히 하였다.

범양냉방노동조합은 대회를 마친후 전체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17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전국무재해 경연대회 열려

금성사, 거양로공업 등 참가

7월 5일 한국종합건설장에서 개최된 '94년도 전국무재해운동 추진 경연대회에서 본노련 산하 금성사노조 창원1지부(지부장 정한식)와 거양로공업 광양지부(지부장 정용길)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94년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맞춰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금성사 창원1공장은 "현장개선학교의 저비용 고효율 안전활동 기법"을 주제로 그동안 현장에서 실시해온 재해예방 활동을 소개하였는데, 금성사 창원1공장의 '94년 환경안전관리 추진방향은 "안전관리 체계화와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 제공"이라는 선진환경

안전 사업장 조성"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안전, 환경의식 생활화, 안전, 환경자율관리체계 확립, 안전, 환경설비의 최적관리, 폐기물처리 합리화"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93년 대비 재해 50% 감소와 화재 0사업장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 86년부터 무재해 목표를 설정하여 무재해운동을 실시하여 86년부터 93년 말까지 1,150만시간 무재해 목표를 진행중이며 86년4월과 6월에는 노동부 은상과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거양로공업 광양공장은 "작업방법 및 환경개선을 통한 작업 수행"이라는 주

제로 산업안전활동을 소개하였는데 안전보건관리 활동으로 '94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중,장기 안전보건관리 중점 추진전략,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점검과 순찰방범, 안전보건 관련 행사, 재해예방 시설투자 및 시설개선 등을 소개하였다.

거양로공업의 무재해운동 추진현황을 보면 94년 2월 말까지 1백5십만 시간 무재해 달성(3배수)을 하였으며 93년부터 현재까지 재해수가 단 1명도 없는 사업장으로 재해율 0%를 자랑하고 있다.

주요 무재해운동 실시로는 위험예지활동 추진과 주요 무재해 추진기법 활용, 그리

고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신기법 연구개발 및 성과 획득, 저비용, 고효율 재해예방기법 추진 등이다.

새한전자

대의원대회

구미공단에 위치한 새한전자노동조합(위원장 석경오)의 정기대의원대회가 7월 7일 개최되었다.

지난 1988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6년에 걸쳐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새한전자노동조합은 구미지역의 전자종 노동조합의 구심체 중의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이 날 대회는 지난해의 활동을 평가 반성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넘친 대회였다.

코리아씨키트 부당노동행위 계속

노동조합 탄압 극악화

코리아씨키트의 부당 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방적인 소사장제 도입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더니 급기야 노동조합사무실로 사용하던 노사협의회의실을 강제들을 동원하여 부서버리고 조합원들을 출근저지하고 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밤 열시경 제1공장에 있는 노동사무실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수고 조합원들을 회사 밖으로 내몰았다. 회사는 철거용역회사에 의뢰하였고 강변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의실을 노동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는 강제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해체시키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1공장에서 떨어져 있는 제2공장에 공장

을 짓고 소사장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시킨다며 제2공장사무실과 출근을 제2공장으로 옮기라고 강요하면서 조합사무실을 해체하더니 제1공장으로 출근하는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2공장의 조합원들의 작업공장은 설치되지도 않았으며 2공장에는 조합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이나 사무실이 전혀 없어 회사측의 주장은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7월 7일에는 김미정조합원과 이마자수습사원을 작업거부라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며 이러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제1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

이고 있다.

한편 연맹의 이진우 조직국장과 김순호노사대책부장, 그리고 본노련 경기지역본부 김길동 부의장과 박정화 사무국장이 노동부 안전사무소를 방문하여 코리아씨키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그 구체적인 활동을 알아본 결과, 노동부 안전사무소는 소장의 지시로 7월 6일 근로감독과장과 4명의 감독관을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일지리를 없앤 것, 소사장제 실시 불법여부, 노동사무실 폐쇄, 출입봉쇄, 해고 문제 등을 감사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 사장을 구속하기로 지침을 마련하였다.

코리아씨키트 송동호 사장은 안산지역에서

도 노사관이나 경영방침이 전근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등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노동조합과 합리적인 경영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악덕기업주로 손꼽히고 있다.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거

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억압하려는 구태의연한 사고로 인하여 산업민주주의와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악덕기업주는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응징되어야 한다.

'94중앙합의중 정책사항 점검

- 7월 6일 경사협회의에서

경사협(공동의장: 박종근 노총위원장, 이동한 경총회장, 김수근 경희대교수)은 7월 6일 팔레스호텔 1층 토론회를 통해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홍재성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사회책임에 대한 정부의 추진사항을 들었다.

홍장관은 이날 "96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중산층 이하 소득자에 대하여는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세무신고 때 정산하여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으로 20%의 세율로 균등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종합과세

를 하게 되면 자기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월소득 80만원 이하 과세미달자의 이자소득세는 환급하고, 2백만원 이하 노동자도 절반을 환급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되면 전국의 노동자들 중 약 4백만명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가운데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게 되어 저임금노동자는 지금보다 훨씬 이익을 보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30사회적 합의에서 "소득공제의 조정 등에 의한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및 자산관련 세제의 강화를 통하여 형평과세를 실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집부서부장회의 개최예정

대표자대회 개최 논의

본노련은 7월 13일 오후 2시 노련회의실에서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부서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의 안건은 중앙집행위원 및 부서부장의 임명장 수여와 가맹노조 대표자 대회(가칭)개회, 그리고 당면문제 토의 등이다.

특히 가맹노조 대표자 대회 개최는 각 단위노조에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연맹과 다른

지역의 대표자 및 다른 업종의 대표자와의 교류가 미흡했다는 그동안 지적과 단위노조와 하나되는 연맹활동을 위해서 개최되는 것으로 금속노동조합의 긴밀한 연대와 유대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대회라고 생각된다.

현장활동 강화와 연맹활동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다시태어나는 금속연맹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노조측 퇴장하에 최저임금 결정

노총, 이에 불복 이의제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측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8%오른 시급 1,170원(일급 9,36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현재의 시급 1,085원에서 고작 7.8% 인상된 것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여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임금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 현재 정부가 여계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물가 인상이 6%인 점을 감안하고 그 여계선이 무너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7.8%인상은 최저임금제도의 취

지에도 벗어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이라는 것이 증론이다.

사용자측위원들은 '국제경쟁력 제고' 운운하면서 무조건 낮은 수치만을 고집하였고 노동자측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1,17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특히 공익위원들의 행동은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생계와 경제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결정이 필요한 데 생계비에 미달하고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최저임금을 강요한 것은 공익위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용자측을 막지 못한 처사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절대 순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저임금안이 고시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을 천명하였다.

대원전선

조합원총회

경기도 태안에 있는 대원전선노동조합(위원장 장정환)은 7월 9일 '94경기 조합원총회를 갖고 더욱 힘찬 전진을 결의하였다.

대원전선노동조합은 전선업계노동조합으로서 전선업계노동자들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전국 전선업계노동조합협의회 노조 중의 하나이며 장정환위원장은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94년도 중점사업
조직 통일 및 활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 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사	(02)	883-1983
영	(0343)	42-3888
기	(032)	437-8505
안	(042)	273-5789
충	(0431)	87-1418
청	(051)	84-4021
경	(051)	84-4813
남	(0523)	74-8833
도	(053)	584-0128
전	(062)	524-5981
북	(0562)	57-3728
부	(0546)	484-3743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 서울시관악구신림동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연맹발전모색을 위한 전국대회 개최기로 본노련 중집위서 심의결정

본노련은 7월 13일 오후 2시 연맹회의실에서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실국부서부장회의를 개최하고 본노련 집행회에서 내놓은 조직강화와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대회 개최건에 관하여, 이를 적극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중집위원장 및 실국부서부장들은 현재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속노동조합의 운동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전국의 산하 노동조합 대표자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국대회를 결의하고 있는 박인상위원장

간부들 1천여명이 참석하여 대토론을 전개하는 전국대회를 9월 13

일경에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전국대회의 토론은

94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에 개최되는 정책세미나의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일선 노조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간담회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책세미나에는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부서부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하게 될 것이며 현재세와 노동조합운동의 방향, 금속노련 활동의 내실화 방안과 조직강화 방안, 노동법 개정문제, 임금중앙합의에

대한 평가문제,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의 정립 등 당면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토론결과는 전국대회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토론이 조직될 것이며 그 결과는 선언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한편 연맹은 전국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연맹 업무의 개선과 내실화를 위한 내부 토론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안산 지역 대표자간담회 지역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

연맹과 지역간의 의사소통과 단결을 위한 지역대표자와 연맹위원장의 간담회가 제1차로 7월 11일 안산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안산노동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본노련 박인상위원장 및 간부와 경기지역 본부 하영일 의장 및 간부, 그리고 안산지역에 있는 금속노동조합 대표자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금속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하여 토론과 건의를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토론내용 3번>
경기지역본부 박정화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연맹 박인상위원장은 "그 동안 지역의 대표자와 조합원들과 만남의 자리가 부족했다"고 양해를 구한 뒤 "급변하는 경제속에서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많은 이 때 지역과 단위조합, 그리고 연맹이 하나가 되어 노동조합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참가한 대표자들은 건의와 토론을 통해 연맹과 지역과의 만남 정책화, 지역활동가의 연맹활동 보장, 안산지역 사무소 개설 등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안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리아 씨킴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 응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후 간담회에서 참석한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결의를 마치고 안산지방노동사무소와 코리아 씨킴트를 방문하여 항의를 하였고 코리아 씨킴트 정문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연맹에서는 이진우조직국장이 참석하여 코리아 씨킴트의 부당노동행위 과정과 연맹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였다.

성림기업노조 창립기념식

포항에 있는 성림기업노동조합(위원장 강학중)의 창립 6주년 기념식이 7월 11일 10시 사내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스핀들노조

조합원총회

경남 김해에 있는 한국스핀들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현)의 94년도 정기 조합원총회가 7월 16일 오후 1시 스핀들사내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번디노조

조합원총회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국번디노동조합(위원장 백광인)의 94년도 정기 조합원총회가 7월 19일 10시 30분에 사내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코발트전기노조

조합원총회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코발트전기노동조합(위원장 조경희)의 94년도 정기 조합원총회가 7월 18일 오후 3시에 사내 강당에서 있었다.

삼양중기노조

대의원대회

경기도 부천에 있는 삼양중기노동조합(위원장 신규복)의 94년도 정기 대의원대회가 7월 20일 오후 3시 사내 새마을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룸코리아노조

대의원대회

서울에 있는 룸코리아노동조합(위원장 박순자)의 정기 대의원대회가 7월 23일 10시 30분에 사내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포철 노조정상화 의지 희박

본노련 포철 휴면노조 해산 공식요구

국민기업 포철은 본노련의 계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 정상화의지는 보이지 않는 채 노사협의회의 직장협의회를 강화시킴으로써 삼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노동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헌법상의 노동3권을 그 어느 기업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존중해야 할 국민기업이 선도적으로 의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포항제철 노동조합은 지난 90년 7월 27일의 박근혜 정부 등장과 함께 새로운 활황화가 모색되어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조합원이 대거 탈퇴하게 되고 결국 조합원 14명만 잔존케 되는 '휴면노조'로 전락케 된다. 이 '휴면노조'는 오는 7월 31일이 되면 2년이 되어 노조법 제

3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해산조치되는 것이 마땅하나 포철이 무슨 재주를 부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본노련은 그간 포철노조의 정상화를 위해 본노련 포항지역본부와 함께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94.1.27일에는 노총, 본노련, 노총 포항지역본부, 본노련 포항지역본부, 포항지역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철노조정상화를 위한 결의를 채택한 바 있고 대화를 통한 해결소재의 제1단계, 기존노조 해산 및 신규노조 결성의 제2단계, 공개투쟁의 제3단계 등 3단계 활동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본노련은 등 활동계획에 따라 정부 및 포철측에 대해 조속히 노조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회사측은 노조 정

상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대신 1년전에 결성된 직장협의회의 노사협의회의 회적 조직을 강화시키고 있다. 직장협의회의 노사협의회의처럼 노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전 회사 차원의 전사협의회의 - 포항과 광양의 소협의회의 - 부 법의회의 - 공장협의회의와 같은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측 위원장은 공장협의회의 차원에서는 직선선을 하나 소협의회의, 전사협의회의 위원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협의회의는 임금등 근로조건이나 산업안전, 생산성향상 등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물론 파업권은 없다. 또한 협의회의에는 총 21명(전사협의회의 7명, 포항소협의회의 7명, 광양소협의회의 7명)의 상근자를 두고 있다. 본노련은 포철측이 문

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판단하에 제2단계의 방안에 따라 지난 94.7.18일 휴면노조를 법에 따라 해산시켜줄 것을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일단 휴면노조가 해산되면 본노련은 노조를 새로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포철이 이를 방해할 경우 제3단계의 공개투쟁 및 다양한 연대투쟁을 통해 이를 적극 저지해나갈 방침이다.

포철노조의 정상화는 이미 포철 노동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명예에 들어갔다. 포철은 노조의 휴면화 이후 매년초 형식상의 임금동결조치를 발표함으로써 포철협력업체의 교섭이나 철강업체의 교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을 선도적으로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포철은 협력업체 통제합동 문제를 주도하면서 노조측의 사전 협의요구를 묵살하면서 강행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지역 모임이 본노련 주도로 이루어지자 참석노조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등 반노동자적 행위를 계속해왔다. 포철 노조 정상화문제는 포철 노동자들에게는 관심을 못쓰는 것처럼 선험되고 있지만 만일 포철노조가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포철 노동자들 자신이 감원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직장협의회의가 포철노동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한계는 머지않아 경험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산재보험 이관

공청회 열려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7월 18일 오후 3시 노총 대강당에서 '산재보험이관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수복소장을 사회로 하여 개최된 공청회는 한국노총 한창석산업안전국장 겸 경총의 김영배이사, 서울산업대학교 김한오교수, 한국화재보험협회 박현식부장, 노동과건강연구회 공동대표 이경우변호사, 한국개발원 민재성실장, 노동부 재해보상과 염현택과장 등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노동부 염현택과장은 그동안 노동부가 산재보험업무의 이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설명에서 고용보험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산하 정부부처가

관으로 이관할 수 밖에 없고 그 시기는 내년 5월 1일부터 된다고 설명하면서 노동부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이관단체는 근로복지공사라고 말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서울산업대 김한오교수는 산재보험은 예방이 주 업무여야 하므로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경우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발원의 민재성실장과 화재보험협회 박현식부장은 예방과 보상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의 한창석국장은 이관단체의 결정시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노총과 경총의 의견을 충분히 검

토한 후 결정하라고 주장하였으며 이관단체는 재해예방과 보상업무를 함께 수행할 단체로 지정하고 그 업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판례

0 경영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1994.2.17 고법 선고, 93구 5729)

0 뇌경색 질환은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겹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해의 발발유인이 뚜렷하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1994.1.20 고법 선고, 93구 22601 제10특별부 판결)

코리아씨킷트 항의방문

1개월에 걸쳐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안산 코리아씨킷트 노동조합에 연맹 박인상위원장과 이진우조직국장 경기도본부 하영일의장과 김길동부장의장, 박정화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안산지역의 단위노동조합대표자 50여명이 함께 방문하여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정문앞에서 농성중이 있는 코리아씨킷트 조합원을 격려했다.

이 날 방문은 안산지역 대표자 간담회가 끝난 후 안산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한 뒤 있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악덕기업주를 응징하겠다는 연맹과 지역본부, 그리고 안산지역의 금속노동조합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었다.

코리아씨킷트 사장은 정문에서 노동조합대표자들을 저지하였으며 항의를 하는 대표자들을 비디오키타로 찍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였으며 용역회사에서 고용한 경비직원을 동원하여 회사출입을 막았다.

한편 연맹 박인상위원장과 경기도지역본부 하영일의장이 회사 송동효사장과 교섭하여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도록 하였으며 2시간 넘은 항의방문을 마무리 하였다.

방문한 안산지역노동조합 대표자들은 퇴각실에서 농성중이 있는 코리아씨킷트 조합원들을 격려했으며 즉석에서 지원금을 모금해 전달하면서 투쟁의지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안산지역대표자 간담회

위원장 :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동지들이 안산지역에서 노동조합을 이끌면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의 금속노동조합원의 심부름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 임금과 단협투쟁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지역간담회를 수시로 마련하여 여러 동지들의 의견과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전국적인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그러지 못하는데 대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금속연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러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5월 대회를 마치고 그 동안 활동해 왔던 연맹의 모습을 평가반성하고 문제점들은 극복하고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개선부분은 정리가 되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러 동지들과 함께 논의해 가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여러 동지들도 애정을 가지고 함께 연맹을 이끌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현재의 노동계를 둘러싼 제반정세를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 다음 여러 동지들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신경계정제를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속으로 신노동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계정제와 신노동정제에 그 동안 제법 위주의 정책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부수적인 것만을 노동자를 위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중심적인 것은 모두 재벌과 독점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산업민주주의를 향한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지들도 아시다시피 무투파 이라온드 이후 세계 무역질서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



안산지역대표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박인상위원장

기존 강화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국제노동기준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과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과의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개발도상국은 수출 감소로 인한 고용저하 및 임금과 노동조건 악화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경쟁력을 이야기하면 마치 사용자편에 서 있다는 주장은 변화하는 세계질서 및 자국이 기주의가 평배해진 현재의 상황을 무시하는 편협한 사고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전반적인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요구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정부는 끊임없이 임금억제 정책에 몰두하고 있으며 기업의 법제정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완화와 근로기준법 악화기도는 그 좋은 예입니다. 또한 최근에 보이듯이 노동탄핵을 사용자위주로 한 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법과 행정지침으로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사용자 및 정부의 편에

서서 노동에 대한 공세를 합리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비호아래, 기업은 노동자의 안정된 고용을 위협하는 소사장제, 일급제, 파견제, 임시고용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임금체제도 직급금, 직무금, 성과금 등을 도입하여 노동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인 기업과 정부의 노동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대응은 매우 시급하고 과감적이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과제는 조합내의 민주화 및 사회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내의 민주화는 노동자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하며, 사회민주화는 정치적인 역할과 노동자의 자위향상의 기본적인 조건

이 됩니다. 다음은 경제 및 정치의 독점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경제독점은 산업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가장 독소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경제독점을 방지하는 길은 가장 기초적으로 대기업노동조합과 중소기업노동조합이 연대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창출하는 것입니다.

공장내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도 시급합니다. 부정부패와 합리적 경영을 위한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공장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기본입니다. 또 부정부패를 막고 경제적 독점을 방지하며 적극적인 근로의식 고취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과제 중의 하나가 평화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우리 노동자에게는 있으며 이는 분단된 현실에서 평화적 통일을 담당할 주체가 바로 국민과 노동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과제해결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것은 먼저 국제경쟁력의 강화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지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생활에서도 선진국의 수준을 뛰어넘어 노동조건을 이유로 한 선진국의 자국이 기주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속에서 고립된 노동조합은 그 활동과 의미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매도되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자의 정의의 뜻을 항상 매도하고 국민과 노동자를 이간하려는 세

력들이 항상 우리 노동조합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과 국민이 결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자의 요구가 국민의 발전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노조야말로 그 활동이 민주적이며 노동자의 대의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먼저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부의 단결업이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의견대립이나 조합원의 이익을 도외시한 선명성 경쟁은 노동조합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조합 발전에 저해가 될 뿐입니다.

대략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며 우리 노동조합이 해 나갈 과제와 역할입니다.

이제 지역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시는 여러 동지들께서 금속노동조합의 발전과 연맹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아전기 신은철위원장 : 안산지역에는 1,400여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노동조합은 약 170여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금속노동조합이 70여개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렇게 많은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한데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또 연맹위원장님과의 자리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매우 유익한 자리라 생각하며 단위조합의 대의에 위원장님이 자주 참석하시어 지역의 금속노동자와 함께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도 정기적으로 만들어 지

역의 활동과 어려움도 함께하고요.

또다른 하나는 안산지역의 금속노동조합의 중심점과 활동의 핵을 조직하고 조직확대 및 관리, 그리고 조직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지부를 결성하였으면 합니다. 연맹차원에서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 앞으로 연맹과 지역의 소원함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동가와 대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연맹의 활동을 현장중심으로 하기 위하여 지역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지부 문제는 사실 등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무소 및 지역지부 문제는 규약상 경기도본부에 본부를 두고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운영문제를 감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입니다. 연맹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며 도본부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지들이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연맹의 방침입니다.

기린산업 노원숙위원장 : 저는 새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급단체의 대의원, 중앙위원 등을 배정할 때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을 추가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지원으로 평화은행에서 1천여원의 근로자 주택지원금이 있습니다만 그 조건이나 대출여건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주택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맹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자금으로 평화은행이 발족하고 또 생명보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지만 그들간의 관계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위조합원

에게는 혼선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먼저 대의원 및 중앙위원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원수에 비례한다는 것은 조직의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원숙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활동을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연맹에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대조직은 부자를 해서 소조직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연맹이 해야 하고요. 앞으로 각종 제도개선과 의견취합을 통해서 모든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화은행의 근로자주택 지원사업인데 현재 지원된 금액 1천여원은 우리가 요구한 3천여원 중 1차분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까다롭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재무부 등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화은행과 생보문제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평화은행은 노동은행의 성격으로 특수은행을 요구하였지만 정부가 일반은행으로 설립하여 현재 일반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관에 근로자 후생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고요. 생명보험은 노동의 운영자금 확보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노동의 재정자립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기획된 몸부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와 특성을 조합원들에게 잘 설명하여 오해가 없기를 여러 동지들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 동지들은 아마 임금인상투쟁을 하면서 3.30중앙합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임무를 진행하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중앙임금합의에 참가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참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지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의 임금투쟁은 거의 중앙합의안에서 결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도개선부분을 강조하고 임금이 일정정도의 비율에서 타결된다면 각종 제도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으며 현장노동자의 요구는 임금인상부분이었습니다. 즉 상급단체와 현장과의 요구에 있어서 괴리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괴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와 사용자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어서 결국 3.30중앙합의는

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노동자는 이러한 노동자의 실질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박정화 경기도본부사무국장 : 다음은 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로 되어 있는 코리아씨키트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리아씨키트 김병화위원장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설명(금속노보 116.117호 참조)

이진우 연맹 조직국장 : 연맹의 활동 설명(금속노보 116.117호 참조)

위원장 : 연맹에서는 코리아씨키트 문제를 가지고 이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지

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격려방문 등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영전자 이상철위원장 : 행정적인 노력에 덧붙여서 지역에 있는 많은 위원장들이 지역신문과 시민들에게 코리아씨키트노동조합의 정당성과 사용자의 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 동지들도 조합원들에게 이문제를 적극 교육하고 홍보해야 하며 지역시민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연맹에서도 지역본부와 함께 지역과 전국에 이문제를 여론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양기공 김인중위원장 :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실천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성실업 박동우위원장 : 이 문제가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인물도 없었고요. 뒷집만 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소사장제, 용역등이 있습니다. 우리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걸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문제는 노동, 재야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등심전용 용원삼위원장 : 직접 우리 모두가 사장을 만나 항의를 하고 노동부에 항의방문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코리아씨키트로 가서 현재 정문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코리아씨키트 노동조합원을 격려합니다.

임동 : 찬성합니다. 모두 노동부 및 코리아씨키트로 출발합니다.



지역대표자들의 진지한 토론모습

임금역제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대회에서 대의원동지들에게 솔직히 이러한 부분을 사과한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입니다. 결국 3.30중앙합의는 년말까지 제도개선의 진척여부를 보면서 그 성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대등하면 제도개선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임금인상률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제도개선과 3.30중앙합의의 문제는 하반기 노동법개정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와 사용자는 파견법 등 개별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법률을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여질 노동법개정은 집단 노사관계법은 풀어주면서 개별노사관계법을 악화시키려

여분부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집회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에서 총단결해서 이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연맹에서도 행정적인 문제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할 때 여러 동지들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지들도 아시다시피 소사장제는 중소기업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최대의 원흉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다른 노동조합으로 파급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



94년도 중점사업
조직 통일 및 활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 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동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구분	단위	인원	비고
전국	총합	863,193	
전국	남자	42,366	
전국	여성	42,375	
전국	노조	273,576	
전국	비노조	67,148	
전국	합계	340,724	
전국	노조	844,413	
전국	비노조	74,941	
전국	합계	919,354	
전국	노조	83,378	
전국	비노조	54,651	
전국	합계	138,029	
전국	노조	464,364	
전국	비노조	464,364	
전국	합계	928,728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관악구신림동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단회의 개최 전국대회 및 정책세미나 결정

본노련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단 연석회의가 8월 16일 오후 2시 대구 경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본노련 박인상 위원장의 개회사와 본노련 대구 경북지역본부 김경조 의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회의는 9월 1일과 2일에 걸쳐 실시 예정인 정책세미나 개최와 9월 13일에 대구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예정인 전국대회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집행부에서 계획한 방안을 큰 수정없이 통과



9.13 전국대회장소를 둘러보고 있는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단들

시켰다.

먼저 정책세미나는 9월 1~2일 양일간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개최하며 대상은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실, 국부서부장 전원으로

하며 그 취지는 급변하는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금속노련의 운동기조를 정립하고 실질적인 조직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연맹의 활동에 방향성을 주고 아울러 구체적 개선요

구하리는데 있으며 이를 토론의 성과를 9월 13일에 개최하는 전국대회의 토론자료로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전국대회는 9월 13일 대구 시민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참석대상자는 전국의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로 하였다. 전국대회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선언하자'이며 토론주제로는 '우리의 운동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 '우리 모두 조직강화를 위해 뭉치', '금속노련의 발전을 위한 재연' 등으로 하

고 하였다.

주요 슬로건으로는 '일과나눔 삶을 위한 투쟁', '평등한 세상을 위한 연대', '착한 민주화를 위한 실천', '자본 재배를 위한 단결', '착한 산업민주주의 정

차' 등이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들은 회의에 앞서 전국대회 개최예정지인 대구 시민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을 직접 답사하여 돌아보았으며 전국대회를 치루는데 좋은 장소라는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끝내 회의는 전국대회 장소가 대구라는 점도 있고 또 앞으로는 가능하면 회의를 연대강화위원회에서 지역을 돌면서 한다는 연맹의 원칙에 따라 대구에서 개최되었다.

울산지역대표자 간담회 단위조합 순방과 병행

연맹과 지역을 잇는 연맹위원장과 지역대표자 간담회가 제 2차로 8월 10일 울산지역에서 개최되었다.

금강공업 대의원대회를 마친 후 인근 식당에서 개최된 울산지역 대표자 간담회는 본노련 박인상위원장과 울산지역본부 오진현의장 및 지역본부 간부, 그리고 울산지역의 금속노동조합 대표자 및 간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어 토론과 건의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토론내용 34면)
울산지역본부 이용우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질의와 응답 또한 진지한 분위기에서 참석한 대표자 및 간부들이 매우 흡족해 하였다.

박인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임기를 맡으면서 그 동안 갈로 있었으나 단합된 모습 보여준 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총력

을 다해 금속노동자의 심부름을 수행한 것이며 운동역량을 총 집결해 마지막 선명을 다한 것"을 다짐하면서 "잔 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함께 노동운동을 이끌어 가자"고 역설했다.

참석한 대표자와 간부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등을 보는 연맹의 입장, 노총의 개혁과 금속노련의 입장, 위급중앙합의 문제 등과 노동조합의 정치역량 강화 등에 대한

건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하반기 노동법개정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연맹과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과 회사를 방문하여 교섭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며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인식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단위조합의 대표자의 말을 들은 박인상 위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위조합을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위상을 높이고 회사측에서도 노동조합을 인식 여기는 전국대회의 의의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울산지역 대표자와 간부들은 앞으로 더욱 엄밀히 활동하여 조합원의 권익진장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상급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금속노동자의 위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편 연맹 박인상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단위노동조합을 방문하였으며 간담회를 마친 후 전도노동조합(위원장 양용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울산지역 순방을 마무리하였다.

연맹에서는 민한홍 홍보차장이 박인상위원장을 수행하였다.

부산.울산지역 강사회의 열려

본노련 부산.울산지역 강사회(회장 문창수)의 강사활동 후속세미나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동성 유스호스텔에서 총 23명의 강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핀란드 금속노조 지원으로 그동안 개최되었던 강사양성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강사활동을 벌이던 강사회의 후속활동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박인상연

맹위원장과 김홍룡교육부장이 참가하여 강사 세미나를 격려했다. 박인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교육받은 강사활동을 단위조합의 교육을 위해 활동하신 강사회 동지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육활동의 선봉에서 서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세미나는 현재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구체적인 고 체계적인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현상과, 문제점, 대책, 결론의 과정으로 정리하여 전반적인 노동현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을 다시한번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토론하였으

그 결론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교육형식도 그동안의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

과 교육생 스스로 발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울산지역본부 수련회

본노련 울산지역본부(의장 오진현)의 '94년 하계수련회 및 임.단협 평가회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주에 있는 청도 국민 청소년 수련장에서 개최되었다.

울산지역본부 대표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대회는 울산지역의 대표자 및 지역본부 임직원이 참석하여 94년도 임.단부 평가회와 지역본부 상반기 활동을 평가 반성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열린 것인데

이번 대회는 한국노총 울산지역상담소 하영주 소장의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주제의 초청강연과 울산지역 대표자 단결의 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 해설'에 대한 강의와 '94년 임.단협평가 및 향후 문제점 보완' 등의 토의로 이루어졌다.

이후 울산지역 대표자들은 족구대회를 마지막으로 울산지역 간부들의 단결을 도모하면서 '94년 대표자 하기 수련대회 및 임.단협평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노총중앙교육원에서 개최

본노련 고위간부 정책세미나(이하 정책세미나)가 9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된다.

본노련 임원, 지역본부 의장,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실국부서 부장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금속노련의 운동방향과 조직강화방안에 대해 조직한 고민과 의견집약목표로 새로운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이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토론되어질 내용은 '현정세와 바람직한 노동조합운동의 방향', '국제화시대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운동의 방향', '운동기조 및 조직강화방안에 관한 연맹의 입장 발표' 등의 주제발표와 계속적인 분임토의가 진행된다.

분임토의의 주제로는 먼저 금속노련의 운동기조에 관한 사항으로 '금속노련의 운동기조', '중앙임금교섭에 대한 노조의 바람직한 입장', '노동법 개정에 대한 입장', '국가경쟁력 강화문제에 대한 노조의

바람직한 입장'과 조직강화 방안으로 '조직확대.강화 방안', '교육.홍보 개선방안', '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 '노조간부의 의식강화 방안' 등이다.

이번 고위간부 정책세미나는 그 토론 결과를 가지고 금속노련의 운동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점검을 할 것이며 그 결과를 기초로하여 9월 13일에 있을 금속노련 전국대회에서 전국의 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에게 검증되어 새로운 출발과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서울지역본부 하기수련회개최

본노련 서울지역본부(의장 안영환)의 94년도 하기 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일영에 있는 은행나무집에서 실시되었다.

서울지역의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하여 가진 수련회는 오후 3시부터 연맹 김성문부위원장의 '하반기 정세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진로와 금

속노련의 향후 방안'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5시 30분부터는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저녁을 마친 대표자들은 저녁9시부터 8월 운영위원회와 하반기 서울지역본부의 사업수립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으며 회의는 다음날까지 계속되어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천지역본부 대회

본노련 인천지역본부(의장 박한주)는 7월 28일 10시 인천본부 대강당에서 대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4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이번 대회는 박인상연맹위원장을 비롯한 약 50여명의 대의원 및 내

외위원이 참석하여 대회를 빛내주었다.

대의원대회는 임원변경으로 그동안 지역본부 사무국장으로 열심히 활동한 이길훈 한국화학장차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지역본부 정치부장이었던 한국사프 박재혁위원장을 신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였다.

성신

성신 노동조합(위원장 이종진)이 7월 26일 오후 2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동명중공업

동명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송근호)은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태광특수기계

태광특수기계 노동조합(위원장 김상목)은 8

월 9일 오후 2시 정기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금강공업

금강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장병문)의 정기대의원대회가 8월 10일 오후 3시에 개최되었다.

진도

진도 노동조합(위원장 양용진)은 8월 12일 오전 11시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삼선공업

삼선공업 노동조합(위원장 남상규)이 8월 12일 오후 2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일진전기

일진전기 노동조합(위원장 가재두)은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태평양금속

태평양금속 노동조합(위원장 김길득)은 8월 16일 오전 10시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울산지역대표자 간담회

위원장 :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노동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의 행동방식에 대해 의견을 마련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8백여개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생각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소홀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여러 동지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자리는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한 자리라 생각하시고 여러 동지들의 어려운 점 그리고 연맹에 바라 점,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한 점에 대해서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모임은 우리 자신은 물론 지역의 금속노동자, 그리고 전국의 금속노동자, 아울러 전국의 노동자를 위한 한걸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스스로의 결의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여러 동지들의 심부름꾼으로 복무하면서 지역의 소홀함과 많은 부분 아쉬웠던 점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동지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제진을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동지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투쟁의 산물입니다. 동지들의 경험과 투철한 마음가짐은 금속노련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고 동시에 동지들이 무엇이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지속에선 아무런 막힘이 없을줄로 알며, 동지들의 열기가 전국 곳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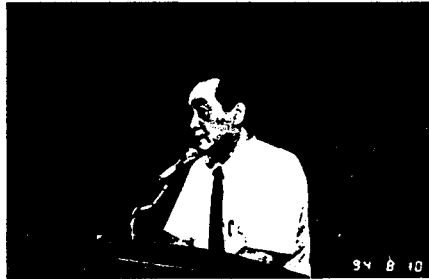
떨어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철 현대강관노조 전위원장 : 현재 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의 일부가 쟁의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 사실 현대중공업은 7월 23.4일 경이 해결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현대

은 많은 중소기업장의 노동자들의 생존과 생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철전위원장 :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노총의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노총으로 거듭 태어나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금속노련에서도 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혁노총을 주도하기 위한 위원장님의



금강공업 대회에서 격려사를 하는 박인상위원장

중공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소강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 듯하고요. 정부에서도 현재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보다는 자율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8월 말경이면 어느 형태로는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노동조합에서 투쟁을 전개할 때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고 사회적 여론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이제는 상황을 고려하고 조합원들의 단결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중공업이 타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혁하면서 남보고 변화하고 개혁하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남보고는 변화하고 개혁하라는 것은 아집과 독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의 자멸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금속노련 내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의도 논의지만 그러한 논의속에서 도출된 결론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론도 실

천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니깐요. 또 연맹에서만 실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맹은 곧 전국의 금속노동자들이 집결되어 있는 단결체이기 때문에 여러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논의의 문제와 실천의 문제는 9월 초 고위간부 정책세미나와 9월 13일로 예정된 전국대회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라철강노조 박홍근위원장 : 올해 임.단협 교섭을 하면서 단협부본에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노동조합이 가지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교섭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인데 상급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급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 올해 대회를 마치고 바로 전국적으로 연맹의 전간부를 지역본부와 함께 임.단협 교섭을 지원하라고 파견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직을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애로가 많지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커다란 무리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작은 인원이지만 지역본부와 협조해서 더욱 적극적

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대공업노조 최상돌위원장 : 그 동안 상급단체에서 우리 조합에 온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도 노동조합을 약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을 방문하니까 회사측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단위노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철강 노조 박홍근위원장 :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주의 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공업 최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을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면 사업주의 태도변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운공업노조 박용도위원장 : 올해 노사 중앙합의 중에서 정부가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 올해 안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 아마도 이번 중앙합의에서 제시된 사항들은 국회가 개회하고 끝나는 과정에서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 세제부분과 물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과 물가인상억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

가는 역설했던 위협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반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가억제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임금상승은 약 10~12%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중앙합의가 작년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었으며 권고안으로 제시된 사항이었으며 단위조합에 교섭권이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억제된 임금으로 기업에게는 지급여력이 있었던 결과입니다.

우리 임금장에서도 올해의 권고안이 이루어지는 것 중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다시 중앙권고안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파연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앙합의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분석이 없으면 안된다는 인식하에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응모색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부분이 정부와 기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합의를 꼭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사를 해보니 임금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을 정리할 것입니다.

고려아연노조 기한도 위원장 : 실제적으로는 임금합의에 접근하면서 합의의 비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운공업노조 박응도 위원장 : 이번에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연맹의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합의와는 상관없이 자사에 맞게 교섭을 합니다. 실제 임금합의를 이용하는 측도 있지만 피해보는 측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꼭 합의를 해야하느냐의 의문이 듭니다만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 개인적인 입장은 반대를 합니다. 또 한다고 해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여러 동지들도 아시다시피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투자기관의 3%억제를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범위를 제시한 것입니다. 호봉승급제도 제외하고요. 이러한 결과로 약 9.3%정도는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기업이 지불능력도 있고 해서 임금인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당한 해였습니다. 대기업들은 변칙적으로 인상하는 등 대부분 임금억제선을 넘겼지만 중소기업은 금융, 세계 등의 제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의 8.9%는 약 12%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단결이 담보된 속에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높은 인상을 제시하고 지급능력이 있다고 해도 노동조합이 단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섭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자본의 노동단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도 국민전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면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 정신입니다.

고려아연노조 기한도 위원장 : 현재 노동법 개정 실무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위원장 : 활동도하고 있고 개정안도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노조 기한도



사업장의 노조간부들과 환담하는 박인상위원장

위원장 : 연맹의 정치국장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을 둘러싼 제도적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치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치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정치적인입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 제반 악법과 조항들을 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정당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자 나름대로 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곧 있을 지방자치를 대비하여 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입지와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노동법 개정 실무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서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노동법개정 실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도 워낙 노동조합을 둘러싼 악법과 개정할 것이 산적해 있는 것도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법을 고치지 않고 정치활동금지조항만 풀다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할

지도 임금 등 생활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조합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정도 충족되어야 제도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제도개선과 정치적 역량강화에 노력해야겠지요.

이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훈련의 기회를 증대해야 합니다. 연맹에서도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방식을 변화하여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지들도 연맹의 이같은 취지와 활동을 적극 전파하시고 이해하여 단위조합의 조합원교육에 활발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연맹과 지역, 그리고 단위조합과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지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가 곧 연맹에서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노동자가 보는 시각은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서로의 공감대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단위조합과 전국에 전파하고 서로의 의지와 단결된 힘을 모아 급속노동자를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 동지들의 노력이 바로 연맹의 노력이고 이러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전국노동조합의 선봉으로서의 급속노동자의 위치는 더욱 확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중점사업
조직 통일 및 합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 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서기	(021)	863-1983
재무	(0343)	42-3666
인사	(032)	437-8505
법률	(042)	273-5786
총무	(031)	87-1418
교육	(0551)	84-4021
노동	(051)	844-4813
문화	(0522)	74-8631
체육	(053)	564-0128
의료	(062)	524-8581
모회	(0562)	83-3728
기타	(0546)	464-3643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50-021서울시관악구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우리모두 한번 열심히 뛰어 봅시다!”

변화의 시대. 새 노동운동 정립을 위한 토론

-본노련 고위간부 정책세미나

본노련은 지난 94.9.1 - 9.2까지 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본노련의 임원과 지역본부 의장,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각 부서부장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본노련의 발전을 위한 고위간부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본노련 박인상 위원장은 지난 5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속노련 발전을 위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하면서 고위간부 모두가 같이 열심히 뛰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금번 정책

세미나는 우리 금속노련의 운동방향 골격을 정하여 오는 9월 13일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제출할 것인 바 진지하게 토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세미나는 우선 '현정세와 바람직한 노조운동의 방향', '국제화시대에 있어서의 노조운동의 방향'에 대해 노동운동 이론가인 장명국 선생과 서울대 법대 교수인 박세일교수로부터 기본강의를 들은후 연맹 집행부가 마련한 '새로운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연맹 운동기조 및 방향 초안과



고위간부 세미나에서 회의를 하는 박인상위원장

조직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분임토의와 종합토의를 갖고 본노련 박인상 위원장이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명국 선생은 현국면

에 있어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고 박세일교수는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노조운동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국민적 조합주의

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올바른 강한 노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본노련은 정세분석과 운동기조 및 방향을 담은 '새로운 변화와 우리의 대응'(본지 3면 참조)과 조직확대, 강화 방안, 교육, 홍보활동 개선방안, 재정자립 및 확충 방안, 의식강화방안등 주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해당 부서별로 제시하였으며 8개분임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에서 발표한 내용은 본지 4면과 같다.

모이자!! 대구로!!

금속노동자의 함성으로!!

9월 13일 대구실내체육관

금속노련 전국대회

산업안전담당자 회의 개최

현장중심의 산업안전활동 논의

본노련은 지난 8월 30일 본노련 회의실에서 단위노조 산업안전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94회계년도 연맹 산업안전보건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연맹의 산업안전보건 활동 계획을 단위노조와 함께 논의하여 실질적으로 단위조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는데 사업계획은 스페덴 금속노조 지원사업, 노총지원사업, 본노

련 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논의 되었다.

먼저 스페덴금속노조 지원사업은 산업안전세미나의 2회 개최, 전국 산업안전 결의대회, 산업안전 관련 실태조사사업, 월간 산업안전뉴스 발간, 시청각교육자료 수집, 등이며 노총지원 사업으로는 금년 11월 중에 산업안전교육원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연맹사업으로는 지역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활성화 사업

으로 각지역본부와 업종별 산업안전부장 모임과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차적으로 지역별도 산안부장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안전활동 사례수집 및 안전활동 전파, 지역별 산안활동 소책자 발행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맹에서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본부와의 교류와 단위노조의 산업안전 담당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부산지역 간담회 개최

지역과 연맹의 적극적인 교류와 연맹의 현장 활동 강화를 위한 연맹 위원장과 지역노조 간부들과의 간담회가 부산지역과 울산지역에서 이어 부산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8월 19일 11시부터 부산지역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지역의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51명이 참석하여 연맹의 활동과 지역본부의 활동 그리고 단위노조의 활동과 노동계의 전반적인 상황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박인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의 활동을



부산지역 간담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부산지역 간부들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조간부들을 격려했으며 연맹이 새롭게 발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9월 13일 전국대회에서 금속노동자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노조 간부들은 현재 활동이 미흡하거나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조직에 대한 연맹의 적극적인 지도와 본부재정 문제, 사업장의 이전으로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감소 등에 대해서 그 대책을 논의하였다.

개회사, 연맹 박인상위원장의 격려사, 대구지방노동청장의 축사 등으로 대회전 행사를 가진 후 본대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축구대회의 우승은 평화발레노동조합이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평화정공 노동조합, 3위는 창원기화기 노동조합과 삼립전기 노동조합이 각각 차지하였다.

포스틸노조

포항에 있는 포스틸노동조합(위원장 예정오)의 조합원교육이 8월 23일 있었다.

홍화공업노조

포항에 있는 홍화공업노동조합(위원장 강진포)의 창립기념식이 8월 24일 거행되었다.

동양철관노조

인천에 있는 동양철관노동조합(위원장 양사준)은 8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금성기전노조

인천에 있는 금성기전노동조합(위원장 이종교)의 정기대의원대회가 8월 25일에 있었다.

한국세인노조

안성에 있는 한국세인노동조합(위원장 한정원)의 조합원총회가 8월 25일에 있었다.

공성통신전자노조

시흥에 위치한 공성통신전자노동조합(위원장 박경이)은 8월 25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동방제강노조

인천에 있는 동방제강노동조합(위원장 장영일)의 조합원총회가 8월 26일에 있었다.

롯데알미늄노조

서울에 있는 롯데알미늄노동조합(위원장 정기흥)은 8월 26일 노조간부교육을 실시하였다.

계산산업노조

여주에 위치한 계산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춘기)의 조합원총회가 8월 26일에 있었다.

반도기계노조

부천에 위치한 반도기계노동조합(위원장 오

광수)은 8월 27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신한전기노조

서울에 있는 신한전기노동조합(위원장 엄종원)의 조합원총회가 8월 27일 개최되었다.

맥슨전자노조

청주에 있는 맥슨전자노동조합(위원장 박재형)은 8월 27일 노조간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진노조

안산에 있는 일진노동조합(위원장 최진하)의 정기대의원대회가 8월 30일 개최되었다.

오양공조기노조

안산에 있는 오양공조기노동조합(위원장 조재천)의 조합원총회가 8월 30일 개최되었다.

현대전자노조

이천에 있는 현대전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철)은 8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동아정기노조

용인에 있는 동아정기노동조합(위원장 조동진)은 8월31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동승기업노조

부산에 있는 동승기업노동조합(위원장 백진현)의 조합원총회 및 노조창립 기념식이 9월 3일 개최되었다.

롯데전자노조

서울에 있는 롯데전자노동조합(위원장 차명재)의 조합원총회가 9월 3일 개최되었다.

한일제관노조

양산에 있는 한일제관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의 정기대의원대회가 9월 6일 개최되었다.

대구지역본부 축구대회 개최

올해 9회, 친목과 단결 과시

본노련 대구·경북지역본부(의장 김경조)는 9월 3일, 4일 대구 두류공원 운동장에서 제9회 공원본부의장기제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의 금속노조 총 3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축구

대회는 조합원 2천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는 지역의 노동조합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 대회로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9회에 이르렀다.

대회는 김경조의장의

금속노련의 운동기조와 방향

1. 새로운 정세

주요 공산권 붕괴와 국제화, 개방화로 두가지의 세계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노조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나의 사상의 보수화이다. 진보적 사상은 보수적 사상에 짓눌려 기력을 잃거나 스스로를 변신시켜갈 전망이다. 이것은 진보적 사상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노조운동에 커다란 저해요인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 제1주의의 득세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으로 인해 정부정책이든 국민의식이든 경제 제1주의가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정의의 강하게 추구하는 노조운동은 일정기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추세속에서 초기에 개혁정책을 폈던 문민정부는 보수화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정세의 이러한 냉엄성에도 불구하고 노조운동의 주체적 역할은 날로 쇠퇴하고 있다. 노조운동의 의식도 날로 약해지고 있다. 지도력 취약으로 변화에의 적응능력은 매우 약하다. 노조 지도부가 자꾸 바뀌어 노조간부의 경험축적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새로 산업계에 들어오는 신규노동력의 노조의식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운동과제이다.

불온 상황의 어려움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보수적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정의의 회생되고 결국 민주화 사회정의에 대한 각종 요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 진보전영의 운동은 다시 얼마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호전까지는 노동운동의 발전에 있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전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2. 4대운동기조

대내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와 '현장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대외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노선'을 발전시키고 '실용적 운동'을 발전시킨다. 이 대외적 운동기조는 노조를 집단이기주의 및 일방적 주장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일반적 국민의식과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노조의 생존과 노동자의 권익개혁의 전략을 감안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대외적 기조의 천명과 실천을 통해 노조운동을 국민속에 뿌리박고 국민과 함께 갈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려고 하며 노조를 사회적으로 인정시켜 노조의 존립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한다.

3. 주요운동방향

정치활동 강화: 선거참여뿐만 아니라 입상적인 노조 독자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정치교류와 정치관련 정보지를 개발한다.

경제정의 실현: 중소기업

업, 하청기업 노동조합과 모기업 노조의 협력으로 과점집회에 대한 규제강화 및 공정거래제를 확립한다.

남북민족문제: 아직 노조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르지 않고 있으나 우선 조합원이 공감하는 노조의 입장성립이 중요하다.

경쟁력강화대응: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 참여하여 정부, 경영, 노사관계제도에 내재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를 위해 법제정과 함께 조직대식 합의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조직강화: 운동노선 정립, 지역별, 업종별 조직 활성화, 기간활동가 발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연대제구축, 교육, 홍보활동 강화로 조직강화를 해나간다.

상화를 위해 경영참여는 필수적이나 산별제도 도입, 기업회계제도 개선, 노조의 경영과약 능력 제고등의 조건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산업정책 참여: 정부의 산업정책에 참여하여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동자 입장의 요구를 제정한다.

고용대책: 장기적, 종합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에 적극 반영하여 노동자 고용안정이 도모되도록 한다.

산업안전, 환경개선운동: 산업안전활동과 환경개선활동을 결합하여 전개한다. 산업안전활동의 실질적 전개를 위해 법제정과 단체협약 개정을 도모한다.

노조활동영역 확대: 조합원의 욕구충만에 대응하기 위한 교양, 레저 활동, 생활정보제공 활동, 주부 노동력, 교양자 중대에 따른 특별대책등을 강구해 나간다.

국제활동: 노동외교배턴, 인턴, 전문가 육성운동을 도모해간다.

재정운영의 합리화: 조직관 중독된 역량의 조성, 예산 절약, 수익자 부담 사업 확대, 상급노조 조합비의 징출제로의 전환, 수익사업 개발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한다.

정보관리체계 확립 및 전산화: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전산화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도모하며 전산화를 통해 조직간 업무의 통일 및 간소화를 도모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단위조합 간부들의 진지한 모습

는 경쟁력 지해요인을 밝히어 시정요목 하고 노조 스스로도 직업훈련, '노동의 인간화, 의식 변화에 의한 긍정적 기여'를 하도록 노력한다.

부당노동행위 일소 요구: 기업으로 하여금 진정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적으로 일소토록 한다.

조직확대: 임시직, 사무관리직, 영세기업 노동자, 공무원의 대대적 조직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유령노조 해체운동을 전개하며 장기적으로는 노조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켜 노조 조직율을 높인다.

산별체제 구축: 원칙적으로 산별체제 구축의

이바지 한다.

노조간부 경험축적 도모: 지도부의 안정과 전문역량의 장기 임기 보장, 집행부 교체시 업무 일개인수 전지를 통해 노조활동의 연속성과 경험축적을 도모한다.

노동법 개정: 불순노조를 물려싼 분업을 해소하여 선거국면에 개정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급속노련은 산업안전법 개정을 주도키 위한 노력을 한다.

임금교섭: 내년도 임금중앙합의에 대해서도 급년도 합의사항인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민주적 평가를 급년말에 실시하여 결정한다.

경영참여: 노사관계 정

세미나 분임토의 내용과 결과 정리

국민과 함께 하는 합리적 노동운동 기조에 대해

방향제시가 없는 현 노동운동에서 볼 때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 있고 노동운동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단 이러한 운동기조가 조합원이 함께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과 세금동 국민의 이해관심사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서 관철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기업내에 있어서는 생산과 품질은 노동자가 책임지고 최고의 임금과 복지는 기업이 책임지는 풍토도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제경쟁력에 대해

연맹 집행부안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단지 임금억제는 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제해야 하며 노동자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경영참여에 대해

연맹 집행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경영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산별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노조측이 경영파악능력이 없는 경우 오히려 이용만 당하는 결과가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경영참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각 경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임금증양합의에 대해

93년도 4.1합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94년도 중앙합의에 대해서도 맹목적인 불신이 있었

고 비제도권으로의 조직이탈에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고 사실상 중앙합의보다는 임금들이 더 높게 타결되어 실용성도 없었다. 93년도에는 금속노련이 독자안을 제시하여 그래도 호응이 좋았다. 따라서 임금증양합의는 반대한다는 주장이 한 분임에서 나왔고 반대로 94년도 중앙합의중 제도개선부분이 실현되었을 경우 95년도 중앙합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부터의 토론을 거쳐 민주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다른 분임에서 나왔다.

노동법개정에 대해

노동법개악은 연맹을 중심으로 저지하여야 하며 복수노조를 이유로 한 타 노동법 개악은 절대로 반대하여야 한다.

조직확대, 강화에 대해

먼저 산별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산별체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법개정 난항과 단위조합 이해부족, 그리고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산별전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총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국회청원등의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기구명칭 및 직위명 단일화 등 산별체제의 기초작업을 하며, 산별체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단위조합원들에게 적극 교육을 전개하고, 제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개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지역본부의 활성화이다. 이는 지역본부의 참여의식 결여

로 현재 지역본부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규약개정 삼입 및 의무금 통합 부과 등 현재 단위조합에서 느끼고 있는 지역본부로의 참여에 어려움을 극복하여 적극적으로 지역본부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본부 참여를 의무화 함으로써 지역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분과위원회 활성화이다. 현재 연맹은 6개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전자,조선분과는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미진하고 다른 분과는 분과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지역적 차이 및 대,소 조직의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운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으며, 분담금의 부담감이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먼저 분과별 사업장의 분류와 조직화, 구체적인 활동방침의 수립, 분과별 담당자 선임, 각종 정보 교류 및 자료발간, 임,단협 공동교섭 준비, 활동비에서의 일부를 연맹사업비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것들이었다.

재정확충, 자립에 대해

연맹의 재정확충 및 자립은 먼저 상급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조직 및 중간노선다 회원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의무금을 산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감

각을 잘 이해하는 상급단체로 탈바꿈하면 재정자립은 자연히 보장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노조간부의 의식강화에 대해

노조간부의 의식강화의 문제점은 집행부 구성후 승복하고 단결력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으며,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와 우리라는 개념보다 너와 나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며, 조합행사 참여가 부족하며 관심이 없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세대간의 의식차이로 갈등이 있는 것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집행부가 많은 대화를 갖고 지역감정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세대차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만들며, 올바른 민주의식을 숭상하여 보여주고, 모든 불신사항들을 교육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그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위원장 강령

금번 우리 운동기조의 선언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내년 대의원대회후에 일차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운동기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9.13 전국대회에서 일단 토의가 되고 나면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홍보하여 공감대 폭을 확대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에 대해 협조적이지 아니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오해는 풀릴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노사관계 정상화이다.

경영참여는 신뢰가 구축되어 가는 가운데 가능하다.

복수노조문제에 대해서는 분임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지만 전면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노총만 허용할 것이냐의 2개안이 나왔다. 그러나 ILO협약의 정신은 사업장이든 전국이든 다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에 관하여는 노총과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우리 독자적으로 안을 낼 수는 없다. 다만 우리 금속노련 고위간부들의 견해는 이렇다는 것을 전달토록 하겠다. # 임금증양교섭의 문제는 금년말 제도개선이행여부를 보고 결의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다. # 우리도 우리의 홍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개선키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러 동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로 계속 논의가 되었으며 연맹에서도 해결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각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대회를 통해 새로운 운동방향과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정립된 것이다.

94년도 중점사업

조직 통일 및 활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 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서울	(021)	863-1983
부산	(051)	42-3990
대구	(053)	437-9505
인천	(042)	273-5786
대전	(0431)	87-1418
광주	(061)	84-4021
울산	(051)	644-4613
충청	(0422)	74-9531
경북	(053)	964-0128
경남	(052)	524-9581
전북	(0562)	83-3728
전남	(0548)	454-3543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전국에 울려 퍼진 금속노동자의 함성!!

단결된 힘 모아 노동운동 선봉 다짐

금속노련 전국대회 성공적으로 개최

본노련이 주최한 '노동운동의 현안 제도약을 위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전국대회'가 9월 13일 대구 시민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1천 200여명의 조합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전국대회는 금속노동자의 운동방향과 노선을 정립하고 조직력을 한층 강화하여 노동운동의 발전과 전진,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결을 통한 선진노동조합으로의 제도약을 도모하는 대회로 그 동안 확고한 운동노선과 방향이 부재한 가운데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금속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운동의 선진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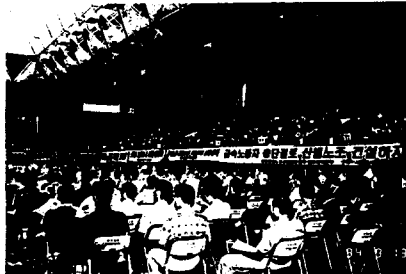
전국대회는 먼저 1부 행사로 풍물패 동지들의 문화공연으로 분위기를 유도한 뒤 김성문부위원장의 대회선언, 금속노련기 및 지역본부기 입장, 국민의례가 있었으며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의 대회사와 한국노총 박종근위원장의 격려사, 대구위원장 조해녕시장의 축사, 그리고 본노련 대구·경북지역본부 김경조의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박인상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현재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속에서 노동운동은 제도습과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단결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한 뒤 금속노련이 운동기조와 활동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현재의 모든 운동은 국민과 함께할 때만이 승리와 발전을 할 수 있으며 노동운동도 국민과 함께 할 때만이 전진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의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의 인정과 부당노동행위의 포기, 정부정책에의 참여와 경영참여 보장 등을 기업과 정부에 요구하였다.

박인상위원장은 오늘 대회를 출발점으로 토론과 실천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연맹과 단위조합이 하나가 될 것을 노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대회사를 마무리 하였다.

대회는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2부행사를 시작하면서 경실련 서경석사무총장의 '현정세와 노동조합 운동의



전국대회에 참석한 금속노동조합 간부들

과제'에 대한 강연을 들었으며 현대전자노동조합 박연희여성부장의 '단결만이 살길이다'를 내용으로 한 웅변이 있었다.

이어 금성사노동조합 유재섭위원장의 제안발의 '우리의 노동운동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가 진행되었으며 이 주제를 가지고 각 지역의 제안이 있었다. 각지역 제안은 인천지역 손종홍 대한제당노동위원장, 포항지역 김우석 화성기업노동위원장, 서울지역 권태정 남부금속노동위원장 순으로 이어졌으며 지역제안이 끝나고 평화발레노조 박용민위원장의 '우리 의식부터 변화시키자'라는 내용의 웅변이 있었다.

대회는 두번째 주제로 한국노총 부천지부장진수의장의 '우리 모두 조직강화위해 뛰자'라는 내용의 제안발의

가 이어졌으며 제안에 이어 경기지역 대표로 금성전선노조 군포지부 이우창지부장의 조직확대 강화방안, 경남지역 대표인 금성사노조 창원2지부 김영준지부장의 교육·홍보 개선방안, 충북지역 대표인 뉴맥스노조 이형일위원장의 재정확충 및 자립방안, 부산지역 대표인 오리엔탈정공노조 권동재위원장의 의식개혁방안이 발표되었다.

세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인천지역본부 박한주의장은 '금속노련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제안발의를 하였으며 이어 각지역발언으로 대구지역은 아세아종합기계노조 윤태길위원장, 전남지역은 남산선반노조 임경연위원장이, 충남지역은 삼신노조 강한우위원장이, 구미지역은 대우전자노조 구미지부 이병균

지부장이, 울산지역은 정일공업노조 김복천위원장이 각각 지역발언을 하였다.

이어 대회는 집행부 논평으로 진행되었는데 박인상위원장은 논평에서 그 동안 단위조합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음을 지적한 뒤 선언의 자리보다는 지속적인 토론과 실천을 통해 운동기조와 운동방향을 확립시켜 구체화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이번 대회 결과를 전 조합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조합 간부들도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여 단결된 힘을 결집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세진전자노동조합(위원장 문광주) 운동패들이 매 시기시기 노래에 맞춰 울동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었으며 노래패 모드의 노래도 한껏 대회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대회는 대우전자노조 황창배 부위원장의 '노동운동의 힘찬 제도약을 위한 선언'을 끝으로 성대한 막을 내렸다.

전국대회에서 보아



세진전자 노동조합 울동래



현대전자노동조합 박연희여성부장



대우전자노동조합 이병균 구미지부장



대한제당노동조합 손종홍위원장



화성기업노동조합 김우석위원장



금성사노동조합 유재



남부금속노동조합 권태성위원장



삼신노동조합강한위원장



노송 부천지부장전수지부장



박인상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인천지역본부 박한주의장



뉴맥스노동조합 이형일위원장



오리엔탈정공노동조합권동재위원장



아세아종합기계노동조합



평화발레노동조합 박용민위원장



남신선반노동조합 임경연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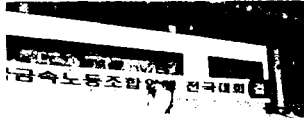
정일공업노동조합 김복천위원장



진 단결의 모습



전국대회



금속노동조합 전국대회



위원장



한영사를 하는 대구 경북 지역본부
김경준 의장



금성사노동조합
김영준 상임2시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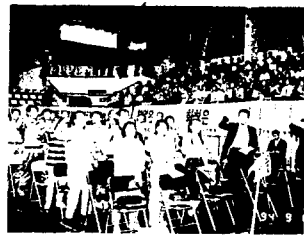


금성전선노동조합
이우창 군포지부장

각지역에서 참가한 동지들의 모습



있다 재도와 선언'을 하는 대우전자노조 황창배 부위원장



얼은 화합은



노동자 총대



연대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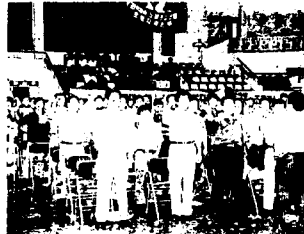
대신위원장



노동운동



구미



충북



충남



건설하자



통일행동 연대강화 앞서가는 금속노련



를 끌어가자



금속노련 깃발이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선언

우리는 지금 세계사적 대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타성에 안주하여 변화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주체성을 새로이 세워 변화의 주인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있다.

주요 공산권 몰락과 함께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전지구를 휩쓸고 있다.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국가이기주의가 날뛰고 있다. 경제 제1주의가 무서운 기세로 등장하고 있으며 진보와 민주와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를 압살하고 있다. 선진국 자본은 경쟁, 자유무역을 무기로 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불복화동 수직적, 수평적 분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초기의 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문민정부는 이제 경제 제1주의의 논리로 노동자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독점제법은 날로 비대해져 이제 최고 권력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반면, 사회진보전열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조직을 저하와 분열강화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계속되는 후퇴를 멈추고, 변화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새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결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력이요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개혁과 운동노선정립으로 단결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의식과 조직문화를 고쳐나갈 것이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조직확대와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며 산별재구조화를 위해 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진보력향 구축을 위해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각계각층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주도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상호인정의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불신의 근원인 노동탄압을 영구히 포기하라!
-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을 진실로 인정하라!
- 노동자의 정책참여와 경영참여를 보장하라!
- 사회정의의 불무시한 경제성장 제1주의를 중단하라!
- 최저생계비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 해고, 구속, 수배노동자 문제를 대화합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라!

우리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만이 노사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고 신뢰 넘치는 사회의 공존공영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럼에도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가중스런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측의 진실한 사고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국민속의 노동운동을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의 단결력과 우리의 운동을 통해 우리 권익과 국민의 권익을 도모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사악한 이익추구를 위해 우리 노동자를 국민으로부터 이간시키려는 어떤 시도화도 과감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합리적 노동운동의 전개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측의 합리적 요구 수용태세를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권 개악시도를 일체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 문제해결과 권위주의적 경영방식을 일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노동위원회 개혁을 요구하며 정부 및 사용자에 대해 정보의 공유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체적 입장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방적 고통전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사용자측에 촉구한다. 그 길만이 사회적 분열과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국가경쟁력 저해의 최대요인이 정부와 기업, 비생산적 불로소득 재도에 있으며 잘못된 노사관계와 비민주적 경영, 단순반복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중대한 경쟁력 저해요인임을 밝혀 둔다. 노동자의 창의성과 헌신은 참여와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조건속에서 생애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개혁과 모든 국민의 합의된 노력속에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성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히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경쟁력의 단순 거부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력 저해요인 규명에 참여, 그 시정에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창의력과 정성과 기능을 경쟁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상은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기본적 요구이다. 우리는 이를 요구를 관철키 위해 단결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중단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노력이 무시되고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임금억제와 일방적 고통전달, 그리고 노무비식감을 위한 고용불안정책이 계속된다면 단결된 투쟁과 국민연대의 호소로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1994년 9월 13일

노동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대회

94년도 중점사업

조직 통일 및 활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 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서울	(02)	863-1983
경기	(031)	42-3698
인천	(032)	437-8505
충청	(042)	273-5788
전북	(043)	87-1418
전남	(051)	84-4221
경북	(051)	844-4613
경남	(052)	74-9831
충남	(053)	364-0128
대전	(042)	524-4861
광주	(052)	83-3728
대구	(054)	454-3643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회의

임투평가와 하반기사업 논의

본노련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가 지난 10월 20일 오후 2시 부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13일에 있었던 금속노련 전국대회 결과보고와 '94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94년도 임투평가, 조직강화 방안 토의, 금속노련 자동차분과위원회 건설 준비 논의, 그리고 당면문제에 대한 토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된 내용은 먼저 하반기 사업으로 본노련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각종 사업을 보다 탄탄하게 진행하고 특히 각종 교육이 임부관계로 하반기에 몰려있는 상황을 감안해 단위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맹에서 계획되어 있는 주요 교육사업으로는 이미 실시한 산업안전교육과 신입대표교육,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신입사무국장교육과 여성간부교육, 노동문화교육, 홍보선진교육, 회계처리실무교육, 상집간부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이다.

또 조직활동을 강화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조직활동 강화로는 지역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단위노조 방문

을 적극적으로 펼쳐 단위조합과 지역본부, 그리고 연맹과의 관계를 더욱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속노련의 운동기조를 확고히하고 운동논리를 정립하며 지역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별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는 것이다. 또 조직강화의 달을 선정하고 토론회,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단위조합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휴면 및 유령노조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연맹에서 파악하고 있는 휴면 및 유령노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관청에 해산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재조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94임투평가에 대한 평가인데 대략적인 면을 살펴보면 인상요인은 작년에는 15.92%, 70,331원에서 올해 15.07%, 72,968원으로 요구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금액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타결율은 93년의 경우 기본급 기준 37,953원 8.62%로 떨어졌으나 올해에는 47,952원, 9.63%의 임금인상을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 말 이후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사 상호가 보다 현실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다소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록 자세한 '94 임투평가는 연맹에서 별책으로 제작하여 각 단위조합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속노련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을 위한 자동차업종노조 대표자회의에 대한 논의로 본노련은 94년도 정기대의원대회와 9.13전국대회에서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결의하였고 특히 자동차업종에 관해서는 공정거래 질서확립 등을 위한 정책활동을 전개

해 온 바가 있어 시급하게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11월 중으로 금속노련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을 위한 자동차업종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후 회의는 당면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한 후 폐회하였다.

인천지역본부 수련회 개최 공감대형성, 단결 도모

본노련 인천지역본부(의장 박한주)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지역본부 산하 대표자 수련대회를 가졌다. 금속화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변화하는 노동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금속노련 인천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조직간의 친목과 유대관계를 마련하여 정보공유와 운동성, 공감대형성,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수련대회를 계획한 인천지역본부는 바쁜 일정으로 18

개 노조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속리산에서 진행되었다.

수련대회는 본임토의와 극기훈련, 그리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 등으로 이루어 졌는데 본임토의는 2개조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본임토의의 주제는 먼저 노동운동의 현안 및 과제와 인천지역노동자의 통일과 단결방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본임토의 결과 지역본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사업장방문을 활성화하고 사무국활동을 강화하며 적극적

인 참여속에서 비판과 격려를 수행자는 결론과 인천지역본부 중심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선의관을 배제하여 대등단결을 이루자는 내용이었다.

한편 인천지역본부 박한주의장은 바쁘고 무리한 일정속에서도 참석하여 뜨거운 토론과 활발한 논의를 해준 대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였으며 재도약하는 인천지역본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노동조합 명칭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서진대금에서 서진다이컨으로

주소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번지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암동 1280-90으로

'94신임대표자교육 새로운 조합활동 다짐

본노련이 매년 실시하는 신임대표자교육이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여주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신임대표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교육은 새롭게 단위조합을 이끌어 갈 신임 노조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교육내용은 첫날 개강식에 이어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의 '금속노련의 현황 및 운동기조' 특강, '위원장과의

진의용담', 장명국 내일신문운영위원장의

의료 이루어졌다. 둘째날은 본노련 운



신임대표자교육에서 대화사를 하는 박인상위원장

'현 노동운동의 문제점과 과제', 그리고 위두주제에 대한 본임토

창철총무국장의 '노동조합 회계 실무 및 질의용담 토론', 이진우

조직국장의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강의 및 질의용담 토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정학균국장의 '지도자의 자세',의 강연이 있었고 이후 '연맹과의 대화 및 토론'이 있었으며 연맹 최용길부위원장의 '노동조합 연구 및 노동문화'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 교육은 김홍룡교육부장의 '단체교섭준비 및 실무' 강의와 질의용담 및 토론이 있었으며 본노련 김성문부위원장의 '한국노동 운동사'강의가 이어졌다.

교육은 본임토의 결과 발표와 종강식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신임대표자들은 연맹

과의 대화토론시간이 매우 유익하였으며 질의용담이나 토론시간이 많아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모두 함께 참여하고 함께하는 교육이 되었다고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단지 좀더 많은 신임대표자가 참석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연맹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신임대표자 및 간부들의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매진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여성회의 개최

성평등 논의와 행동계획 수립

여성개발원(원장김정자)이 주최하고 UNDP(유엔 개발계획)가 공동사업으로 한 전국여성회의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과 일 : 노동시장에서 성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회의는 27일 주제발표로 '노동시장에서 성 불평등 실태와 극복방안: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28일 주제로 '노동시장에서 성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조순경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여성개발원 노미혜조사연구실장의 사회로 전체토의가 이루어졌다.

28일은 주제발표 두 번째로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세력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조순경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각 주제에 관한 본임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후 회의는 여성단체행동 계획안, 모니터 계획안, 정책건의서 계획안 등을 채택하였다.

여성단체행동계획안은 먼저 여성고용할당제 확보를 위한 행동계획, 간접차별규제를 위한 행동계획, 공무원 채용상의 성차별 폐지를 위한 행동계획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직종, 직급별 30% 여성비율 확보를 목표로 채용할당제, 승진할당제, 직업훈련기관 및 사내교육 할당제를 단계적,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결과적으로 성 불평등을 야기하는 신인사제도, 비정규직 확대, 파견업의 합법화를 저지하고 이를 법률의 시행령에서 성차별임을 명시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채용시 성차별을 철폐하도록 행동한다는 것이다.

모니터 계획안은 모니터 활동으로 여성노동관련법에 대한 의견감시 활동을 하고, 여성 노동 관련법 모니터

터를 하며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 모니터를 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시장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건의하였는데 정부에 대하여는 승진할당제를 실시하고, 업무배치에서의 할당제, 근무

무 가산점 폐지, 공무원 양성대학의 성별 분리 모집 폐지와 국.공립대학 여교수 할당제 채택 건의, 공기업에서의 승진 및 채용할당제 건의 등이다.

고사리손과 환경보호

대우전자노동조합 구미지부 김종각

우리집의 막내동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집은 온통 환경보호에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엄마, 아빠 머리 감을 때 샴푸를 사용하면 지구가 아프데' 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린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가르쳐 주었냐고 물어보니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우리의 주변환경을 보면 환경의 파괴속도가 대단히 빨라졌다. 강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어울려 강물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름난 유원지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모두 오염되었다. 휴지조각과 비닐, 빈 캔, 병, 음식 찌꺼기 등 이부 해아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 결국은 우리자신이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조그만 곳에서도 환경보호는 우리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생활쓰레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 글을 적으면서 우리집 아이의 "지구가 아프데" 소리가 더욱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옛날처럼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강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단정짓고 싶다. 그리고 환경보호는 어느 특정인의 몫이 아니다. 우리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일에서부터 환경보호에 적극 행동으로 실천해 볼까한다.

산업안전세미나 개최

스웨덴 금속노조 연대사업으로

본노련이 주최하고 스웨덴 금속노조가 지원하는 제1차 산업안전보건 세미나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 있는 성프란치스코 피정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단위노조의 산업안전담당자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교육은 18일 10시 개최식으로 시작되었는데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건강이며 스웨덴의 지원과 연대속에서 보다 알찬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들이 습득한 내용을 단위조합에 전파하여 모든 노동자가 새해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첫걸음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교육을 함께 진행한 스웨덴 금속노조 스티그(Stig)산업안전교장은 인사말에서 "스웨덴과 한국의 노동조건은 다르지만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 가야 할 과제를 서로 나누

고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발전을 가져오는

질의응답시간까지 마련해 주었다.



산업안전세미나에 참석한 단위노조 산업담당자들

개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교육은 강의와 분임토의, 그리고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강의는 노동과 건강연구회 박은주교육부장의 '노동조합 산업안전활동 방향',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활용과 개정방향',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소장의 '안전관계 단체협약 실태와 개선방향' 등이었고 특히 박석운소장은 단위조합에서 발생하는 실사례들을 법적 내용을 하는 실무적인

또 스티그교장의 스웨덴의 산업안전활동 내용 소개와 여타, 다른 복지문제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지역차원의 산업안전활동 사례로 안산에 있는 삼육강업노동조합(위원장 남진우)의 최석민부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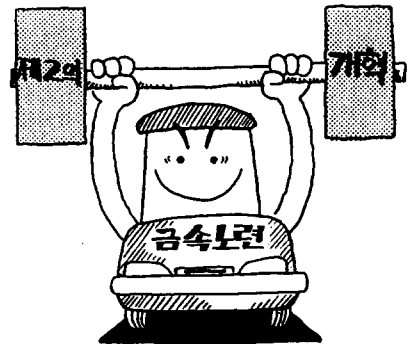
실습으로는 안전점검표 작성과 조합원교육전단 작성, 그리고 교육전단을 이용한 교육강의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연맹의 '94년도 산업안전보건활동 설명과 종합평가를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하였

다. 연맹의 주요 산업안전 관련 사업은 먼저 산업안전교육을 세차레 실시하고 각종 교육교재 및 활동사례를 수집하여 타노조와 지역에 전파 홍보하며 지역과 업종의 산업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지역순회를 하며 산업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소식지를 만들어 단위노조에 보급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 열심히 산업안전활동을 수행하겠다는 마음 다짐을 하며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의 모습은 교육시간의 짧음을 아쉬워하며 단위조합으로 향하였다.

금속 만평



노동판례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한다.

산화카드뮴 본진이 발생하는 스위 A의 작업장에서 2년 4개월 종사해 왔고 혈중 및 요중 카드뮴농도가 WHO에서 정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종 업무 종사자도 원고와 같은 증세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대법원 - 1994. 5. 13)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해 시정 요구 행위로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판단, 해고한 것은 정경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신청인들이 전보발령 이후 B사업장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이 조치가 부당하여 시정해 줄 것을 수차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 수단이었다 할 것이며, 같은 목적으로 배포한 호소문이 선동적이거나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 1994. 6. 30) <이상 '노동법률'에서>

포항지역본부 체육대회 가져

친목과 단결을 위한 한마당

본노련 포항지역본부(의장 백종부)의 제2회 조합원체육대회가 10월 2일 8시 포항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16개 노동조합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와 족구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친목과 단결을 위한 한마당을 마련한 대회에는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위원이 참석하여 조합원들의

체육대회를 축하해 주었다.

인덕축구구장과 인덕국민학교 등 두곳으로 나누어 치러진 체육대회에서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포항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었다.

대회에 참석한 박인상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포항지역 금속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친목과 단결을 이루는 이 체육대회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이룩하는 기초가 될 것이며, 조합원의 가족과 온 포항시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포항의 중심이 되는 금속노동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체육대회에서는 현대중합금속노동조합이 종합우승을 하였으며 강원산업노동조합이 종합준우승, 동성철강노동조합이 종합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단위노조활동

시그네틱스노조

서울에 있는 한국시그네틱스노동조합(위원장 서민애)은 지난 9월 8일 오후 2시부터 회사 운동장에서 하나로 축제를 가졌다.

금성정보통신노조

구미에 있는 금성정보통신노동조합(위원장 김문섭)은 9월 8일 오후 3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쌍용중공업노조

창원에 있는 쌍용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라병수)의 정기대의원대회가 9월 9일 10시에 개최되었다.

삼천리자전거공업노조

양산에 위치한 삼천리자전거공업노동조합(위원장 김영택)의 정기대의원대회가 9월 9일 오후 2시에 거행되었다.

대주실업노조

창원에 있는 대주실업노동조합(위원장 이인호)은 9월 9일 오후 2시 30분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거행하였다.

신동광학노조

창원에 있는 신동광학노동조합(위원장 장판수)은 9월 10일 오후 3시 정기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일성기계노조

구미에 위치한 일성기계노동조합(위원장 김장수)의 정기조합원총회가 9월 14일 오후 2시 있었다.

세운공업노조

울산에 있는 세운공업노동조합(위원장 박용도)의 정기대의원대

회가 9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되었다.

동희산업노조

울산에 있는 동희산업노동조합(위원장 오상철)은 9월 15일 11시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림통상노조

인천에 있는 대림통상노동조합(위원장 이은물)은 9월 15일 오후 3시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철강노조

마산에 위치한 한국철강노동조합(위원장 이태진)의 정기대의원대회가 9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되었다.

경원산업노조

평택에 위치한 경원산업노동조합(위원장 강장규)의 정기대의원대회가 9월 16일 오후 4시에 개최되었다.

삼화제관노조

송탄에 위치한 삼화제관노동조합의 정기조합원총회와 위원장이 취임식이 9월 27일 오후 2시 20분에 있었다. 3대위원장인 박종서동지가 수고하였고 4대위원장은 장동원동지가 수고한다.

한일제관노조

수원에 있는 한일제관노동조합 수원지부(지부장 신재경)는 9월 28일 오후 3시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전선노조

시흥에 있는 대한전선노동조합(위원장 강익화)이 9월 29일 10시 안양농민교육원에서

창립40주년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세신실업노조

양산에 있는 세신실업노동조합(위원장 이진희)의 정기대의원대회가 9월 30일 15시에 개최되었다.

금성마이크로닉스노조

구미에 있는 금성마이크로닉스노동조합(위원장 노승표)의 정기대의원대회가 10월 15일 15시에 개최되었다.

서울차체노조

안산에 위치한 서울차체노동조합(위원장 이쌍봉)이 10월 13일 오전 10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델코전자노조

구미에 있는 한국델

코전자노동조합(위원장 안석찬)의 정기대의원대회가 10월 13일 14시에 개최되었다.

대우전자노조

대우전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석)은 10월 15일 10시부터 호서대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사프노조

인천에 있는 한국사프노동조합(위원장 박재혁)은 10월 19일 14시 30분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경동산업노조

인천에 있는 경동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배종남)의 정기대의원대회가 10월 21일 10시 30분에 있었다.

세일기계노조

인천에 있는 세일기계노동조합(위원장 나용길)의 조합원정기총회가 10월 22일 13시에 개최되었다.

신아금속노조

경북 영천에 있는 신아금속노동조합(순순석)은 10월 26일 15시 30분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기아특수강노조

전북 군산에 있는 기아특수강노동조합(위원장 임문택)은 10월 27일 15시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동양강철노조

충남 대전에 있는 동양강철노동조합(위원장 정병석)은 10월 29일 오전 11시에 조합원체육대회를 거행하였다.

신간안내 산업안전보건관련 책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총아로서 국내 최초 최신판

◎ 산업안전보건법편람(신간: I · II · III권)

내용 및 특징

1.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법률 혼형·예규·고시를 총수록하여 집대성하였으며 산업재해예방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업무에도 활용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대조식으로 편집하였으며, 관계예규·고시를 조문별로 명시하고, 기업활동규제 완화와 관련한 특별조치법·명(발령)·산업안전보건법령을 대조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재식으로 재본하였으며 한번 구입하시면 영구히 추가·삭제하므로써 법령의 개정마다 구입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입니다.
 4.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혼형·예규·고시를 신속히 열거로 공급하였으며, 이 책을 구입하시는 애독자를 위한 주소록편리를 위하여 책속에 애독자 카드를 끼워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기록하여 발송해주시면 추후본을 발행하는 즉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 본편에는 이 기외에 구입하시는 분께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령을 개정 공포되는 즉시 개정된 부분을 추후본으로 발행하여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규집

- ◎ 산업안전보건법·명·시행규칙(94.3.29개정)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94.3.29개정)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94.3.29개정) ◎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94.1.7개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명(발령) ◎ 산업안전공단법·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명
- ※ 본책자는 수험식으로 되어있어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가 간편합니다.
- ※ 가격이 저렴하므로 저렴합니다.

▶ 저매도서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424쪽(1,10)	550쪽(4권)	390쪽(2권)	400쪽(6권)	375쪽(4권)
25,000원	7,200원	12,000원	8,000원	10,000원
세사(노동법) 제1권	주요노동법규집	노동법 제1권	노동법 제2권	노동법 제3권
국문·한글	국문·한글	국문·한글	국문·한글	국문·한글
400쪽(2권)	500쪽(2권)	300쪽(2권)	166쪽(2권)	360쪽(2권)
12,000원	15,000원	3,000원	3,000원	8,000원

※ 새로운 책: ◎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3000여 단어 수록 11월 중 발행)

- 국내에서 처음 발행되는 전문·기술·법률용어사전
- 산업안전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관계공무원, 학자, 전문가, 학생, 도서관, 기업체 및 노동조합 자료실에서 널리 구입해야 할 도서입니다.

▶ 구입방법

위 도서를 구입하실 분은 대령서전 매장에서 구입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구입대금을 은하인 구좌에 입금시키시면 약속되는 본사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및 발행처

도서출판 노 문 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37번지 전화(02) 264-3311 ~ 3, 2244 FAX(02) 264-3313

94년도 중점사업

조직 통일 및 합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서울	(02)	863-1983
경기	(0343)	42-3989
인천	(032)	437-9535
충청	(042)	273-5789
전북	(0431)	87-1418
전남	(0551)	84-4021
경북	(053)	844-4613
경남	(0522)	74-9831
충남	(053)	564-0128
대전	(042)	524-9581
광주	(062)	83-3728
대구	(0546)	454-3543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준비회의 열려 대표자회의 등 구체적 사업 논의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회의가 11월 4일 오후 2시 본노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부산지역의 동승기업노조 백선현위원장, 대성사노조 하성순위원장, 울산지역의 동희산업노조 오상환위원장, 대구지역의 평화오일필노조 정경진위원장, 삼현산업노조 김운이위원장, 인천지역의 삼성공업노조 오인상위원장, 경기지역의 동아정기노조 조동기위원장, 기정실업노조 이문경위원장 등 전국의 자동차관련산업 노동조합대표자 8명과 연맹의 노진권 노사대책국장, 김순호 노사대책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자동차분과위원회를 올해안에 결성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준비작업에 돌입하였다.

회의는 먼저 준비단계의 하나로 자동차업종 대표자회의를 11월 중으로 개최하고 이에 따른 입시의상과 사회를 정하며 회순을 결정하였다.

또 자동차분과위원회의 운영규칙안을 심의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선언문과 대표자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논의하였다.

현재 금속노련 산하 자동차 업종노조의 현황은 전국 143개노조 27,625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노련의 자동차업종 관련 주요사업으로는, 1991년 11월 120여명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92년초에 현대자동차 파업지원을 위한 남포회사노동조합 집회를 울산에서 가진 바 있다. 또한 1992년 6월 자동차 5사가 참여하여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1994년 3월에는 자동차부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책건의를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자동차업종 대표자회의를 11월 22일 울산노총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자동차분과에 참여하는 노조는 자동차제조, 부품제조, 자동차 판매 및 정비 관련 모든 노조를 포괄하여 결성하되 미참여 노조는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결성대회를 마치고 현대자동차로 이동하여 현대자동차 전학 및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자동차분과위원회 사업계획안으로는 1994

년 12월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995년 1월 이를 기초로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부하고 전 노조가 공유하며 1995년 2월



자동차분과 결성준비회의를 하는 지역대표자들

에는 95임무를 위한 회의 및 공정거래촉구 방안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95년 3월에는 95임무상황실을 설치하여 95임무에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기타사업으로 모기업방문과 친선모임을 조직하여 서로에 대한 친목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 준비모임은 그 동안 분과위원회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었지만 단위노조의 어려움과 연맹의 어려움이 함께 있어 결성이 늦어졌으나 불공정 거래의 심화 및 조직의 공동대응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터이상 분과위원회의 결성을 늦출수 없다는 모

두의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계속되는 불공정거래와 부품업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악화,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

한 압을 막아내는 조직체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맹은 이미 조직되어 있는 조선분과와 전기전자분과, 그리고 결성이 확정된 자동차업종분과 이외에도 시급하게 타 업종분과를 결성하여 각업종의 특성에 맞는 조합활동과 조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철강분과, 기계금속분과, 비철금속분과 등 타분과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속에서 금속노련은 전체 6개분과가 활성화되어 노동조합의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회계처리교육 실시

본노련이 매년 실시하는 회계처리 실무교육이 11월 4일부터 각 지역 순회교육으로 실시되었다.

신임 사무국장, 사무장, 회계감사 등 단위조합 회계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이번 교육은 본노련 운영철총사무장이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회계처리교육은 1차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11월 4일 경기지역본부에서 실시하였으며 2차는 충남, 충북, 전남,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11월 8일 충남지역본부에서 실시되었다. 또 3차는 대구, 경북, 포항, 구미지역을 대상으로 11월 9일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4차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11월 10일 부산지역본부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경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임기대회로 하영일의장 재선

본노련 경기도지역본부(의장 하영일)의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그 동안 경기도본부를 이끌어 왔던 집행부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선출도 있는 임기대의원대회였다.

대회는 먼저 개회선언과 금속노련기 입장, 국민의례에 이어 모범조합원 표창이 있었으

며 하영일 의장의 대회사와 박인상위원장의 격려사로 1부를 마무리하였다.



경기지역본부 대회사를 하는 하영일 의장

이어 대회는 2부행사에 들어가 성원보고와 회손통과, 94년도 사업보고와 회계감사보고 및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임원 및 중앙위원 선출에 들어갔다.

의장은 하영일 의장이 단일후보로 나와 참석대의원 93%의 압

도적인 찬성으로 경기도지역본부로 이끌어 가는 책임을 다시한번 맡게 되었다.

대회는 임원 및 중앙위원 선출을 마친 후 95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안 심의를 한 후 기타 토의사항을 끝으로 폐회하였다.

지역본부 사무국장회의 조직활동과 업무활성화 논의

본노련 각 지역본부 사무국장회의가 11월 8일 오후 1시에 충남 지역본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는 노총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노련 단위노조 설립 근로조건 조사심태서 제출 독려와 노동조합카드 진상화 문제, 그리고 각 지역의 조직실태, 업무보고 및 정리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여성간부교육 실시

여성간부 양성에 큰 도움

국제존다 서울클럽(회장 김인규)이 주최하고 본노련이 후원하는 제7차 근로여성 지도자 연수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어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60명의 단위조합 여성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사회와 직업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본노련산하 여성간부들만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우현 고대교수의 '현대사회와 직업여성의 역할', 이연숙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공동체의식과 애사심' 등의 강의와 대화의 시간으로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한국화장품노조 문춘화위원장의 '사례발표'와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의 '금속노련 현황과 운동기조' 강의, 노동부 신명부녀소년과장의 '근로여성 정책'

이영자 세무사의 '여성'과 관련된 세법', 이광택 국민대교수의 '여성특별보호법과 고용평등법의 실현', 안성여자기능대학 이필원학장의 '노동운동 사례'와 본노련 최용길부위원장의 '단결의 밤' 등으로 2일차 교육을 마무리 하였다.

이어 교육은 황산성 전 환경처장관의 '일반법 상식과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와 전체 종합 분임토의와 종합보

고를 끝으로 끝을 맺었다.

교육에 참가한 여성간부들은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교육내용과 일정이 좋았으며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더욱 실시하고 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짧은 일정속에서 교육이 진행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으며 앞으로 일정을 더욱 넉넉

하게 잡아 많은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이야기하며

교육을 준비한 본노련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듭시다.!

기타 활동소식

경사협

국민경제사회협의회는 11월 2일 판례스호텔에서 정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섬유화심 대회

섬유노련 화성분과 대회가 11월 2일 울산에서 있었다.

운수노협

운수노협 체육대회가 11월 4일 개최되었다.

금용노련

전국금용노동조합연맹 정기대의원대회가

11월 11일 10시에 개최되었다.

정학군부위원장 출판기념회

본노련 정학군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11월 11일 18시 부산 크라운호텔에서 거행되었다.

성림기업노동조합

포항에 있는 성림기업노동조합 명칭이 11월, 1일부터 그린산업노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경남지역본부 수련회 단결을 위한 한마당

본노련 경남지역본부(의장 제천수)는 노조 대표자간의 유기적인 연대와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11월 8,9일 양일간 94년도 노조 대표자수련회를 개최하였다.

경남도내 노조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지리산 증산리 두투산장에 모여 단합대회를 하였으며 지리산 천왕봉까지 산행을 하여 심신을 수련하고 대표자간의 결속력을 한층 고양하였다.

'94노동문화교육 실시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

본노련이 매년 실시하는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유성에 있는 경화장에서 실시되었다.

단위노조 쟁의, 문화관련 간부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은 첫날 개강식에 이어 연맹 박인상위원장의 '금속노련의 현황 및 운동기조'에 대한 강의, 노래 유동패인 모토의 '노동가 및 운동', '단결합동 및 단결투쟁놀이'로 진행되었다.

이어 둘째날에는 모토의 '공동체놀이 및 자신감 훈련'이 있었고 직장 레크레이션협회 전영수회장의 진행으로 '레크레이션 지도력 개발'과 연맹 최홍길부위원장의 '팀워크훈련 및 민속무용', '민속무용 및 촛불의식'이 있었으

며 마지막날에는 '팀별 토의와 '종합토론을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 하였다.



노동문화지도자 양성교육에서 개강사를 하는 박인상위원장

부산지역본부 체육대회 공감대 형성, 단결도모

본노련 부산지역본부(의장 오봉출)는 11월 4일 부산 신평레포츠공원 운동장에서 50여명의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4년도 단위노조 대표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각

조직 대표자들의 건강 증진 및 체력증강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또한 대표자들의 단결력과 연대감을 고취시켜 조직 상호간의 근로조건 정보 교환 및 건강한 조직 활동에 발전을 기하고 80여개에 달하는 조직

한편 박인상위원장은 '금속노련의 현황과 운동기조'에서 운동기조를 설명하면서 교육의 중요성과 연맹의 각종 교육을 설명하였으며 노동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조합에 돌아가 조합원과 함께 건강하고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노력해 줄 것을 참가한 노조간부들에게 당부하

였다.

교육에 참가한 노조간부들은 노동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열심히 교육에 참가해 배운 것을 기초로 노동조합원에게 교육할 것을 다짐하면서 더욱 안전한 교육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연맹에 요구하고 이러한 교육을 집행해 준 연맹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대표자들 상호간에 만남과 친선의 자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각종 교육이나 회의도 중요하겠으나 일차적으로 대표자간의 친분과 친선이 우선되어야 연대와 단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한 체육대회는 1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오봉출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조직상호간의 연대감 조성을 강조하면서 조합원 대중을 바탕으로 하는 굳은 단결력을 요구하였다.

2부 대회의 경기는 축구, 배구, 축구, 세가지 종목으로 하여 코믹한 기량들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사하구와 영도구의 조직들로 팀을 이룬 청팀과 북구와 기타지역 조직들로 팀을 이룬 백팀과의 청백전에서 축구와 배구를 이긴 청팀이 우승하였다.

대회를 마친 후 참가한 대표자들은 저녁식사를 하며 조직 상호간의 발전적 이야기와 정보교환의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친선과 질속력을 한껏 높였다.

노동판례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지부를 결성하려는 등의 노동활동을 문제삼아 형식적 해고 사유로 내세워 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지부 결성 및 인준활동을 주도한 것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문제삼았거나 형식적 해고사유를 내세워 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1993. 6. 4), 대법원 (1994. 5. 10)

노조전임자가 노조 업무수행중의 재해발

생시 그 업무가 회사 노동관리업무와 관련되었다면 보험지급대상에 포함됨

노동조합 업무수행중 재해발생시 재해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였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었고 회사노동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재해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노조전임자도 일반 근로자와 다름 없이 보험급여의 수권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2. 2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7. 14)

평균 44시간 근무라

도 48시간 근무한 주에는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근로자 중 일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8시간씩,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씩 근무함으로써 한주당 48시간 근무와 40시간 근무를 교대로 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비록 평균적으로는 주당 44시간을 근무해 온 것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상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백 50%인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토록 추정돼 있으므로 회사측은 48시간을 근무한 주의 4시간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1994. 8. 26)

해고된 근로자들과 연계되어 불법집단 행동에 가담한 이유로 객관적 증거 제시도 없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

용자의 징계권 남용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활동을 위해 조합활동을 한 것을 혐오하여 이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중앙노동위원회 (1994. 8. 22)

연장근로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누적으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피해자는 관상동맥경화증의 기존질환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업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증이 발생된 것으로서 기존질환이 피해자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발병전 30일간 55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바 이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산재심사위원회 (1994. 3. 28)

(이상 원간노동법 10월호에서)

성 명 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회적 합의 준수하라

우리 한국노총은 내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3.30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작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사회적 합의]시 협상당사자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95년 7월부터는 30인 이상으로 하되, 98년 이내에 10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근시안적 아집과 일부 정부부처의 동조로 이같은 [사회적 합의]가 깨진다면 소위 [사회적 합의]의 정신은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임금과 정책·제도 개선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임금교섭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합의]의 핵심과제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30인]의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은 [사회계약]을 파괴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가능한 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는 있을 수 없다. 고용보험료는 사용자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도 부담하며, 고용보험제도가 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실시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들 노동자는 사용자와 정부 일각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축소]를 왜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정부당국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준수함으로써, 정부의 도덕성을 견지하고 올바른 경제사회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같은 요구가 부당하게 거절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견지해온 노사관계 및 임금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책·제도 개선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안정 또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전조직력을 총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1994. 11. 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 종 근

노동운동 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전국노조대표자대회

일시 : 1994년 11월 17일(목) 오후 1시

장소 : 서울88실내체육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94년도 중점사업

조직 통일 및 활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서울	(021)	863-1983
경기	(0343)	42-3696
인천	(032)	437-8605
충북	(042)	273-5786
충남	(0431)	67-1418
전북	(0561)	84-4071
전남	(051)	644-4613
경북	(0522)	74-9631
경남	(053)	564-0128
부산	(062)	524-8981
대구	(0562)	83-3728
울산	(0545)	464-3643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식 개최

노동조합의 단결로 불공정거래 혁신 다짐

본노련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대회가 11월 22일 오후 1시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조직력 확대 및 정보교류 촉진과 자동차제조 및 부품업체의 불균형 및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하여 결성되는 이번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대회는 전국의 자동차업종 관련 노동조합 대표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표자회의는 먼저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의 개회사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박영규의장(력키금속노조위원장) 및 현대자동차노조 이영복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박인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인 자동차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불공정거래와 모기업의 횡포로 인하여 노동조건이 악화 및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모든 노동자가 자동차분과로 단결하여 활동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금속노련 산하 자동차분과위원회로 단결하여 정책,제도개선문제를 해결해 나가

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대표자회의는 임시의장으로 본노련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자동차업종 산업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 대

척제정을 한 후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임원은 지도위원에 연대사

(정기), 임광수(경남), 김무호(대구, 경북), 박관수(인천)등지, 사부국장에 울산 정일공업 노동조합 김복천위원장(부의장 겸임), 회계감사에 하성준, 김성진, 양승홍, 이대성 등지가 선출되어 출발하는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의 기틀을 다지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이어 회의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기타토의를 마친 후 특별경의문을 채택한 후 폐회하였다.(경의문 전문 별도 게재)

결성대회를 마친 자동차업종 대표자들은 연대자동차노조의

관남회를 가졌으며 간담회를 마친 대표자들은 연대자동차 이영복 위원장의 안내로 현대자동차로 이동하여 공장견학을 한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식 모습

대구, 경북지역본부 김경조의장을 선출한 후 회순통과를 한 후 본노련 김순호 노사대책부장의 사회로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을 위한 본회의에 들어갔다.

본회의는 먼저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의 결성방식으로 자동차제조, 부품제조, 자동차 판매 및 정비관련 모든 노조를 포괄하여 결성하되 미참여 노조는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하면서 운영규칙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운영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으로 자동차업종 노사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자동차업종 노조간의

정부, 대사용자 산업정책 수립에의 참여,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등이며, 조직으로는 자동차 제조, 부품, 판매, 정비소위원회를 각각 둔다는 내용이다. 대표자회의는 운영규

칙을 통과하고 이영복 위원장, 의장에 금속노련 대구, 경북지역본부 김경조의장, 각 지역당 부의장에 김보현(서울, 충남북, 전남북, 구미, 강원), 오일환(부산), 김복천(울산), 이병욱

위원장 동정

- 11일 부산 연합철강노동조합 교육 정학군부위원장 출판기념회 참석
- 한보철강노조 문제로 정학군부위원장과 부산시경 방문
- 14일 울산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 15일 본노련 경남지역본부 양산지역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 17일 한국노총 전국대표자대회 참석
- 18일 산업안전교육 중강식 참석
- 22일 울산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식 참가
- 23일 전력노조 창립기념식 참가 노동교육원 토론회 참석

노총 전국 대표자대회 열려 6천명의 함성으로 개혁과 단결결의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주최한 '노동운동 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전국노조 대표자대회'가 지난 11월 17일 오후 1시에 88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노총의 개혁작업의 하나로 전국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하나로 뭉쳐 노총의 변화와 개혁을 다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5천여명의 단위조합 대표자들이 참가하여 88체육관을 가득 메운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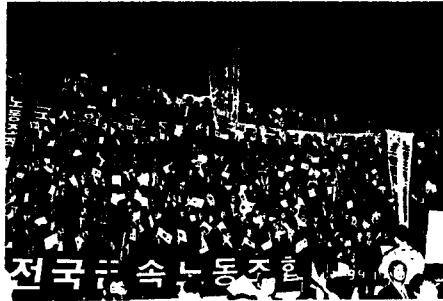
대회는 먼저 식전행사로 노래패 및 율동패의 노동가와 율동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운 뒤 본행사에 들어갔다.

본행사는 대회선언과 노총 및 산별기, 시도 지역본부기가 입장한

뒤 국민의례가 있었으며 연합노련 김락기위원장의 대회선언문 낭독과 한국노총 이주완 사무총장의 노동개혁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어 박종근위원장의 대회사에 있었는데 박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노총은 현재 새로운 변혁과 전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후 이것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을 굳건히 하고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확립하며 노동조합의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고 역설하였다. 이어 전 노동계의 통합과 단결을 제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노동운동발전과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노조 대표자들의 함성

아울러 그 동안 노사정 사회적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와 자본을 비판하면서 조합원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중앙단위 사회적합의를 내년에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천명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사에 이은 순서

로 축사가 있었는데 먼저 민주당의 김종필 대표를 대신한 이세기 정책위원장의 축사에서는 축사를 하시기 시작한 때부터 참석한 대표자들이 많은 야유를 보내 현재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정책에 대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노동자에게 부탁하였으며 정부의 저임금 및 노동탄압 및 노동통제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비판하였다.

다음은 노동운동발전과 노동계 통일에 대한 1분 발언으로 각 산별과 지역에서 발언을 하였는데 노동계의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노총의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견도 제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도 받았다.

대회는 김유곤화해노련위원장의 '노동운동 발전 방안 채택'과 본 노련 박인상위원장의 '노동운동발전을 위한 결의문', 신원노련 조천복위원장의 '사회개혁을 위한 결의문', 금융노련 이남순위원장의 '고용보험 30인 적용 촉구 결의문' 등을 채택한 후 노총가 합창을 끝으로 폐회하였다.

한 노동자들의 의식을 그대로 대변해 주었다. 다음의 축사는 민주당의 이기택대표의 축사가 있었으며, 경실련의 서경석사무총장의 축사도 진행되었다.

서경석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임무로 사회개혁을 들었으며 노동운동이 이제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산업안전교육 실시 단위조합 산안활동 강화에 기여

한국노총과 한국산업안전교육원(원장 최현망)이 후원하고 본노련이 주최한 단위노조 산업안전보건 담당교육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인천에 있는 한국산업안전 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단위노조의 산업안전 담당 간부 5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노동조합간부들에게 산업재해예방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양케 함으로써 단위노조에서 안전보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보호

기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강식에 이어 노동조합의 산업



산업안전교육에서 격려사를 하는 최용길부위원장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은 본노련 최용

길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강식에 이어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활동 및 활동계획,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요 등의 강의와 저녁식사를 마친

후 참가자 소개와 단위노조의 활동소개로 1일차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2일차 교육은 안전보건교육훈련, 직업병과 예방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설, 무재해운동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배명금속노조 김원덕위원장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3일차는 안전점검 및 개선요령, 작업환경 측정 및 실험과 분임토의로 진행되고, 마지막 날에는 기계설비의 안전대책과 설문조사를 마친 후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단위조합 산업안전담당 간부들을 교육을 평가하면서 전문적인 내용에 비해 교육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전문적

인 내용도 유익하였으나 단위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위조합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교육기법 및 내용들이 제외되었다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며 연맹에서는 이번 교육의 평가를 토대로하여 더욱 알차고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좀더 많은 단위조합에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의 의의

본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가 11월 22일 결성되었다.

이 업종분과위원회에는 자동차 제조, 부품, 판매, 정비 등 자동차에 관한 모든 부문이 총 망라되어 있다. 우리는 자동차업종이라 할 때 흔히 자동차 5개회사 즉 제조회에 관여하는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아시아자동차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제조회사가 주축을 받는 것은 그 규모나 생산설비의 크기, 그리고 회사의 자본력과 노동자의 수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힘 노동자의 수에 비례하는-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크다고 인식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또한 적지 않다. 앞으로 산업의 중추역할을 할 산업도 자동차업종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경제인 또한 없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만 알고 있는 자동차업종에 관한 사실이

모두인가. 그렇지 않는데 그 문제의 출발은 있다.

자동차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부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다. 먼저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약 몇 만개의-부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품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어렵잡아 약 30만명에 이른다. 그리고 부품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2000여개가 넘는다.

자동차제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약 10만여명에 이르고 사업체가 5개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업종의 불균형을 일단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수많은 중소기업과 일부 대기업의 불균형이 자동차업종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상태 등을 보면 그 불균형과 문제점은 더욱 심해진다.

실제 부품 및 판매, 정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제조회에 비해 70%수준을 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임금이 노동력에 대한 가치라고 할 때 산업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가지는 자본상의 문제, 상호 경쟁력관계 등으로 인하여 고용이 불안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많은 노동자가 실직을 한다. 여기에는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차명하다. 실제로 금속노련 산하 자동차관련 중소기업중에는 조합원 7명의 기업도 있다. 물론 조합원의 수와 종업원의 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이다.

근로조건도 열악하다. 자동차관련 중소기업이 가지는 많은 약점은 그 구조상에서 나타난다. 즉 자본의 영세성, 대기업의 횡포-여기에는 납품단가의 조작과 인하등이 가장 큰 횡포로 작용한다-와 압력, 중소기업 상호간의 무한경쟁 등이 그 것인데 이를 개선

하려는 노력은 정부와 대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중소기업 당사자는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뿐더러 구조상으로 개선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 바로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 결성이다.

제조업노동조합은 물론 중소기업노동조합이 하나가 되어 자동차산업의 모순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그리고 적절한 임금의 확보를 위해 단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결은 결코 노동조합과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 더욱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 것은 이러한 단결과 공동 실천으로 자동차산업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불합리한 납품단가의 하락이나 불공정거래에서 오는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위해 싸우다 보면 자연히 대기업의 횡포나 압력을 개선할 수 있고 이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고 치열해지는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과 합리화가 필요한데 우리 노동조합에서 그 출발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한 노력과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위한 투쟁은 결코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로 결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분열과 반목은 패배할 뿐이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노동조합이 행한 것은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의 138개 노조와 2만 6천 8백여명의 조합원들의 시작과 출발속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과 조합원들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결의가 더욱 빛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결과 연대정신의 표현이기에 더욱 값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노동관계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과 관련, 구제신청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면 사실관계의 입증에 곤란하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

간이 경과하면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설정된 것으로 그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1994.9.1)

형식상 노무도급계약의 성격을 띠더라도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

인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한다.

A와 민사상리전 참모부장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임종의 노무도급과 같은 외견을 띠고 있으나,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하에서 일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여 왔고 부수적업무까지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계

약이라 할 것이므로 금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법(1994.9.9)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조치는 정당하지 않다.

피신청인이 사무착오로 인해 K신용협동조

함에 누를 끼친 잘못이 인정되어 징계대상은 되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까지 이른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중앙노동위원회(1994.10.4)

94년 11월 11일자

활동소식

아세아종합기계

경북 달성에 있는 아세아종합기계노동조합(위원장 윤태길)은 11월 12일 정기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주철

부천에 있는 서울주철노동조합(위원장 권갑주)은 11월 12일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생산력향상과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발휘하여 대립이 아닌 함께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사원이 참가한 가운데 부천 비들캡공장 연수원에서 노사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GMB

창원에 있는 한국GMB노동조합(위원장 이윤철)의 정기 조합원 총회가 11월 14일 15시에 개최되었다.

두산전자

구미에 있는 두산전자노동조합(위원장 강희준)은 11월 17일 15시 30분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양산지역지부

본노련 경남지역본부 양산지역지부(의장 김종국)는 11월 15일 15시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일공업

울산에 있는 대일공업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에서 민영일동지가 당선되었다.

삼영전자

성남에 있는 삼영전자노동조합(위원장 지수식)은 11월 18일 노동조합 간부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우전자

대우전자노동조합 구미지부(지부장 이병균)은 11월 18일 노동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제강

인천에 있는 서울제강노동조합(위원장 최광길)은 11월 20일 노동조합 간부교육을 실시하였다.

동아건설

서울 동아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박한섭)은 11월 25일 14시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우전자

대우전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박성구)는 11월 25일 노동조합 간부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원풍력기계

안양에 있는 서원풍력기계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최상길위원장으로 변경되었다. 그동안 권혁기동지가 노동조합을 위해 일해 왔다.

정정합니다.

지난 금속노보 122호의 단위조합 활동에서 한국철강노동조합의 임태진위원장의 이름이 임태진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임태진위원장과 한국철강노동조합에 최송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동정

대양전자

본노련 수석 상임부위원장이었던 김장선동지가 11월 18일 구미에서 전차부품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소 : 경북구미시 비산동 356-2
0546) 463-8217*8

맹비인상 안내

본노련 의무금이 지난 10월 1일부터 조합원 1인당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1994년 5월 1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그 동안 의무금의 현실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남

부해 주신 의무금은 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바탕이 됩니다.

연맹의 각종 활동과 정보의 제공,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은 모두 동지들의 의무금으로 충당됩니다.

우리의 의무이행은 곧 금속노련 전체 노동조합의 발전과 직결됩니다.

단체협약 및 실행근로조건 조사서를 연맹으로 보내 주십시오!

연맹에서는 단위노동조합의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을 조사, 분석하고 연맹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단위조합에 조사서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위조합의 바쁜 일정 때문인지 수거되는 조사서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 동지들의 작은 수고가 연맹과 단위조합을 위한 활동에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속히 연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맹에서는 수합된 자료를 분석하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자료집과 실행근로조건 조사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노동자신문 11월 22일자(324호) 2면 기사중 금속노련이 자유민주 민족 회의에 참가단체로 된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창립

특별 결 의 문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이며 국제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강력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절대적임의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 확대로부터 우리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본론한 기초부터 확실히 다져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부품산업과 노동자 회생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전근대적 방식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합지배에 의한 불공정거래 제도화와 부품업체 노조에 대한 감시감독으로 경쟁의 힘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품업체의 지위는 날로 허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기초가 본론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모기업이 적극적으로 사고전환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오늘 자동차업종 노동자의 굳센 단결과 협력을 통해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노동자문제를 합력적으로 해결기 위해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다 음

1.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현장감사를 실시하라!
1. 모기업은 자동차공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부당한 단기식갑조치와 모든 비리를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부품업체 노사관계에 대한 모기업의 지배개입을 강력 규탄한다.
1. 우리는 모든 자동차업종 노조의 동참을 촉구하며 특히 부품업체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기업노조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1994년 11월 22일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 대표자회의

94년도 중점사업

조직 통일 및 활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구분	단위	인원	비고
총계	본부	42,794	
	지역본부	2,737,786	
지역본부	서울	6,712	
	부산	1,044,413	
지역본부	대구	1,044,413	
	대전	1,044,413	
지역본부	인천	1,044,413	
	경남	1,044,413	
지역본부	충청	1,044,413	
	전남	1,044,413	
지역본부	전북	1,044,413	
	강원	1,044,413	
지역본부	제주	1,044,413	
	합계	2,737,786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개최

'95임투대비 등 연맹활동 논의

본노련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가 지난 12월 1일 오후 1시 유성에 있는 경하상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전회의 연석회의 결의사항을 검토하고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연맹활동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연맹의 주요활동은 교

육활동, 조직활동,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 국제회의의 파견, 한보천강 분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10월 20일 전차회의 이후 12월 1일까지의 교육활동은 신입사무교교육 1회, 여성간부교육 1회, 노동문화교육 1회, 산업

안전교육 2회, 회계처리 실무교육 1회 등이었다.

또 법개정 활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를 노동총을 통해 건의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진행되는 한일고위간부회의에 대한 보고도 진행되었다.

회의는 보고를 마친후

'95임투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 '95임투에 대비하여 12월 중순경에 위총과 지역별 주요사업장 대표자 중심으로 '95년 임투실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임투대책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활동지침안을 만들어 중앙위원회에 상정, 중앙위

원회에서 결정된안을 가지고 '95임투에 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날 회의는 연맹활동 보고를 들을 수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성공적인 연맹활동을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성명서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허용을 반대한다

그간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가 돌연 납득할만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허용의 입장으로 백발십도 선회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도에 따르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이유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 정치적 이유로 허용된다면 우리 국민경제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실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경제체제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장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산업 상황을 볼 때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로 과잉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지적한다. 과잉중복투자는 결국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노동자 고용불안도 야기하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과 전문적 검토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문제에 대해 불허용 입장을 견지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부가 입장을 뒤집는다면 그에 따라 발생할 문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또한 우리는 무노조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이 야기할 국내·국제적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삼성의 무노조정책은 결국 타 업체에도 영향을 주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매우 크며 불투명한 등 국제적 노동권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제적 공격의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현대계에 있어서의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1994. 12. 6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신임사무국장교육 실시

노조활동 활성화에 큰 기여

본노련이 실시하는 신임 사무국장교육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유성에 있는 경하장에서 단위조합 신임 사무국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교육은 먼저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이 진행되었고 개강식에서 박인상위원장은 새로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조직을 맡아 노동운동을 하는 사무국장들에게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을 건설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금속노련의 현황 및 운동기조에 대해서 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교육은 장명국 내일신문 주주운영위원장의 '현 노동운동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강의와 김홍룡교육부장의 '단체교섭 준비 및 실무강의와 토의'로 첫날을 마무리하였다.

둘째날은 이진우조직국장의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강의 및 질의 응답', 한국노총 정책

실 홍성진연구위원의 '고용보험법 해설 및 고용문제에 대한 노동



신임사무국장 교육개강식 모습

조합 대책, 정학균부위원장의 '지도자의 자세' 등의 강의가 있었

으며 연맹 의장단과 함께 '연맹과의 대화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 연맹과의 대화가 끝난 후 최용길부위원장의 지도로 '노동조합연구 및 노동문화'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마지막날은 윤정열

및 토론이 있었으며 김성분부위원장의 '한국노동운동사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 후 교육은 평가서와 종강식을 한후 마무리 되었는데 참가한 신임 사무국장들은 교육평가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내용과 강의가 좋았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타 단위 및 조합원들에게도 확대시켜 줄 것을 연맹에 부탁하였다.

또한 교육을 준비하고 집행한 연맹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단위조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한알미늄 부당노동행위 극심 조합원 반발, 단결투쟁 결의

울산에 있는 대한알미늄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회사경제위원회를 열어 한경남노조위원장을 해고 조치 했다.

회사의 이 같은 조치는 8월 말에 있었던 위원장과 관리상무와의 말다툼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어용화시키려는 회사의 음모로 사건의 발단이 된 비조합원이 위원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를 저지하던 조합간부들과 몸싸움에서 비조합원이 위원장과 조합간부를 고소하고 이의 경위를 조합원에게 알려 대자보작성과 집회 과정에서 회사가 한경남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확대되었다.

회사는 조합원들과 집행부를 이간시키기 위해 이 사건은 한경남위원장과 회사와의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노조위원장에 사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항의하는 본노련 산하 울산지역본부 단위노조위원장들의 방명록 사실을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는 사실 무근한 사실을 조합원에게 유포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민사 및 형사소송을 위해 조합원의 연대서명 및 기금을 마련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회사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그 행위의 진실이 노동조합의 와해와 어용노조의 결성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대표자 일등과 본노련 울산지역 대표자 일등은 이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는 일방적인 해고처분을 내리고 단체협약을 이행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노동조합에 의견을 묻는 파렴치한 작태를 연출하였고 11월 23일 노동조합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고처분으로 인사명령을 게시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부당징계,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말살음모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부착하면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연맹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계속 대응되는 노동조합 와해음모를 척결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나갈 것을

전 조합원에게 말씀드리며 전국의 노동조합원 동지들에게 대한알미늄의 부당노동행위

를 규탄하고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에 격려를 보낼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한보철강노조 정상조업 노사합의로 파업 철회

부산에 있는 한보철강노동조합(위원장 장의진)은 공장이전 문제로 시작된 회사와의 교섭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과 이를 위해서 12월 5일부터 정상조업을 진행하고 회사와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은 공장이전에 따른 근로조건 문제로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하여 11월 12일부터 정의를 돌입하였었다.

회사는 이에 대해 16명의 노조간부를 고소고발하고 이 중 4명의 노조간부가 영장이 신청되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립은 노사가 공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12월 3일 협상에

서 노조는 선조업 후 협상을 할 것을 결정하였고 회사는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형사처벌부분도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합의를 도출해 내게 되어 12월 5일부터는 정상조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연맹과 부산노총, 그리고 본노련 부산지역본부는 한보철강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계에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였으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현지에 노진기 노사대책국장과 김순호 노사대책부장을 보내 지도하였다.

또 연맹은 노사간에 합의한 일정(12월 20일까지)에 따라 믿음과 신뢰속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국노총, 노동계통합 본격 추진

민주노총준비위에 통합제의 서한 전달

한국노총은 11월 3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준비위원회를 공식 방문하고 '노동계 통합을 위한 제안서'한을 전달했다.

노총의 이날 방문은 지난 11월 17일 '전국노조대표대회'결의에 따른 것이며, 노총이 노동계통합과 관련하여 재야 노동단체를 공식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총은 통합제안서 한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뒤 "노동조직의 분열과 15%도 안되는 낮은 조직률로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통합된 노동계가 우리 사회의 핵심

적인 개혁세력으로 우뚝 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양심세력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고 밝혔다.

노총은 또 "양측 각 5명 내외의 대표단과 2명 내외의 실무간사를 구성,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노총이나 민

주노총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남을 갖고 통합을 위한 모든 사안에 관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노총은 이종복

사무차장과 지병문조직국장을 실무간사로 임명, 12월 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준비위가 정하는 장소에서 실무간사 접촉을 갖고 회의준비를 위한 제반문제를 사전협의하자고 밝혔다.

'94남녀고용평등법 심포지움 열려

여성노동환경개선위한 각 단체 역할 모색

한국노총이 개최하는 '94 남녀고용평등법 심포지움이 12월 1일 오후 2시에 노총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노총 및 산별노조 간부, 사용자 및 인사노무관리자, 일반 여성단체 회원 및 학계, 언론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서울대 박세일교수가 '여성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각 단체의 역할'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였다.

박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여성노동환경 개선의 문제는 단지 여성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여성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세일교수의 주제발

표에 이은 지정토론 시간에는 외국어대 이은영교수, 정부제2차관실 김광수조정관, 한국여성개발원 노미혜실장,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공동대표, 민자당 박종용의원, 민주당 조세형의원 등 노동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심포지움은 남녀고용평등법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동책임의

식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성차별관행을 시정하며, 올바른 여성고용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노동가치적 효과를 재조명하고 여성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및 노동단체, 여성단체, 연구기관 등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성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평에서는 문광주여성부장이 참석하였다.

산업안전교육을 참가하고



네명금속노조위원장 김원덕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연평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천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교육원에 도착하였다.

전국에서 도착한 많은 노동조합간부들과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노동조합도 이제의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두서없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사실 아직도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안전모나 쓰고 다치지 말라는 형식적인 교육이거나 나하나만 안다치면 된다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노동자

가 대부분이고 안전교육은 사측에서만 시키는 교육인 줄 착각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줄 안다.

실제로 지난날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교육을 하면서 이번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랬더니 조합의 간부되는 조합원들도 예 산업안전교육을 노동조합에서 정기교육시간에 하느냐고 따지는 조합원이 상당수 있었다. 그래서 산업안전교육은 사측에서 시키는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교육을 한 적이 있다. 특히 이번 연평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노동자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다.

여지껏 산업안전이라면 노동조합 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노동조합에서 수행하고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산업안전보건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생목숨을 잃는 노동형제들이 연간 약 2천 4백명, 신장장애자가 약 3만 3천 5백명, 해를 입은 재해자가 약 10만 7천 4백명, 경제적 손실액이 약 4조 6천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못된 수

치가 아닐까 의아해했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통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심각한 실정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번 교육에 참가한 것이 참 잘못했다는 생각과 교육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가면 조합원들에게 이번 교육에서 배운 것을 전달하고 여태껏 산업안전과 노동조합의 활동이 별개라는 잘못된 의식들을 깨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박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광범위한 내용을 교육받다보니 수박겉핥기식의 교육이 될 수 있으며 실제 피부에 닿는 교육이 미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경계해 가면서 좀더 과목마다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시간을 넉넉히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준비한 연평에 감사의 마음과 부활을 해 본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모 써라, 안전화. 보호구 착용하라라는 지시만 할 뿐인 또는 조심해라는 말만 하고, 안전사고가 많이나면 보험료를 많이내고 노동부의 지휘감독을 받게되니 무사안일에 빠진 사업주들도 이러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계속적인 반복 교육과 안전지적 확인을 철저하여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말로만 조심조심 하지 말고 실천하는 안전제일이 되길 전국의 노동형제에게 전달하고 싶다.

단위노조활동

대우통신

인천에 있는 대우통신노동조합(위원장 전병순)은 11월 25일 신입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한알미늄

울산에 있는 대한알미늄노동조합(위원장 한정남)은 11월 28일 15시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전자

구미에 있는 한국전자노동조합(위원장 이대영)은 11월 29일 14시에 개최되었다.

대성정기

대구에 있는 대성정기노동조합(위원장 이종규)은 11월 29일 조합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세광알미늄

안산에 있는 세광알미늄노동조합(위원장 엄종국)은 11월 30일 15시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우전자

대우전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석)은 12월 2일 노동조합의 임원 및 상집, 여성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삼화전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화전자노동조합(위원장 유일열)은 12월 2일 노동조합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두산기계

경기도 화성에 있는 두산기계노동조합(위원장 유숙희)은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정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외연장 동경

11월 28일 : 대한알미늄 정기대회 참석
29일 : 신입사무국장 교육 개강식 및 특강
12월 1일 :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회의 주재
5일 : 경기지역본부 세미나 참석
8일 : 자동차분과 임원회의 주재

연맹각부서활동

총무국

@회계처리교육 실시
사무국장교육 지원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회의

조직국

@지역본부사무국장 회의
대구, 경북지역본부 교육지원
산별조직담당자 회의
구미지역 조직지도 노동조합카드 정리
사무국장교육 지원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회의
삼화전자현판식 참가

노사대책국

@한일고위회담 준비
국제금속노련 전기전자회의 참석
자동차분과위원회 결성
조선중기노련 방문 준비
고용보험법회의 참석
산업안전법 개정요구안 발송
스웨덴산업안전교육 및 사업계획 보고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회의
임금관련 실태조사
자동차분과 임원회의 준비

여성국

@노동문화교육 실시
금속노련통신 제작발송
직장탁아추진회의 참석
노동여성국회의 참석
남녀고용평등법 심포지움 참석

교육부

@단위노조 교육지원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조사
신노사관계 토론회 참석
사무국장교육 실시
부산강사양성교육 자료준비

홍보부

@산업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담당자회의 참석
금속노보124호발행
금속노보125호발행

노동판례

오주의 운동제한 및 척추전만의 감소등이 있음이 확인에 의해 관찰되어 후유장애가 척추장애도 포함된다면 장애등급은 중증인 7급으로 판정됨

원고의 후유장애가 척추자체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보건대, 원고의 후유장애는 척추자체의 장애정도가 제8급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자'와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각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중한 장애등급인 8급을 1개 등급 인상한 7급으로 판정됨이 마땅하다. (대법원 1994.10.11)

전직 근로자들을 위하여 재고용계약을 미리 체결했다면 해고시 새로운 고용관계 성립을 인정해야 신설된 회사에 전직 한 후 폐업과 동시 해고당하지 2년8개월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

에 재취업약정을 근거로 하여 원래 근무하던 회사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내지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의 소재지를 뒤늦게 했다 하더라도 소재지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실효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으며, 재취업 약정에 기하여 생긴 새로운 고용관계는 성립됨이 마땅하다. (대법원 1994.9.30)

시달서 제출요구를 5차례 거부한 이유만으로는 징계해고한 조치는 재량권 남용이거나 징계법위를 일

탈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 원고의 시달서 제출거부가 5회에 이르자 00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 중 '시달서를 연 5회 이상 제출한 때'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1994.9.16)

징계권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도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노사합의로 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진 자일지라도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의 기회 등 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을 내었다면 부당해고라 판단한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의 판단근거를 살펴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절차상 중대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써 정당성이 상실된다.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 1994.10.24)

94년도 중점사업

조직 통일 및 활성화
현장주의 운동 실현
실질·민주주의 구현
산업안전활동 활성화

금속노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지역	본부	지역	본부
서울	1,021	부산	863-128
경기	1,033	대구	42-300
충청	1,032	전주	437-500
강원	1,042	광주	273-570
충남	1,043	대전	87-127
충북	1,053	세종	844-400
전북	1,054	전남	444-400
경북	1,055	경남	72-960
경서	1,056	제주	642-700
제주	1,057	제주	572-400
제주	1,058	제주	803-300
제주	1,059	제주	854-400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한·일금속노조 고위간부 회담 열려 올해 4회로 양국 금속노동자 연대 굳게 다져

본노련과 IMF JC(국제금속노련) 전일본회 의회, 이하 JC의 공식 교류인 한·일 금속노조 고위간부회담이 12월 12일 10시 서울 판례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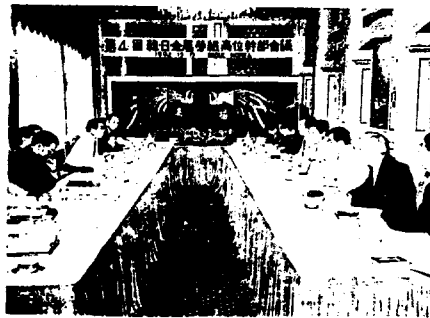
매년 일본과 서울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1991년 1회 회담을 시작으로 올해로 4회를 맞이해서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다.

회담은 먼저 환영식으로 시작되었는데 본노련 정창영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환영식은 먼저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JC의 도쿠모토 대우히토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박종관 한국노총위원장과 남세희노동부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인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단순한 정보교류 차원이 아니라 양국 노동지도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연대내용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양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서로 굳게 연대하여 국제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반노동자적인 반응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한편 도쿠모토 대우히토 JC의장은 인사에서 "국제적인 연대, 특



한일고위회담을 하는 양국대표들

히 동아시아에서의 한·일 노동자의 연대는 전체 국제금속노련의 발전과 동아시아 노동자의 권리회복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였다. 회담은 이어 주간 내일신문 장병국 주주운

임위원장으로부터 "한국경제 성장정책"에 관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점심식사 후 계속된 회담은 본노련 박인상 위원장으로부터 "한국 노동운동정책"에 대한 한국보고를 들었으며

JC 도쿠모토 대우히토의 회담으로부터 "일본 경제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일본보고를 들었다. 이 후 회담은 한·일 양국의 경제에 대한 현황, 양국간의 협력방안과 연대활동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양국 대표의 폐회인사를 끝으로 회담을 종료하였다.

한편 회담을 마친 일본측 일원들은 12월 13일 원대전자를 방문하여 공장견학을 한 후 귀국하였다.

본노련은 일본금속노동조합 임원단의 공장 견학에 협조해 준 원대전자와 노동조합위원회 김형경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 한해도 노동자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동지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쾌적한 노동현장이 되길 바라며 동지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동자가 하나되는 세상을 위해 굳은 단결로 함께 전진합니다.

1995년 새 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임직원 일동

자동차분과 임원회의 개최

향후 구체적 사업활동계획 논의

본노련 자동차분과임원총분과위원회(의장 김경조) 임원회의가 12월 8일 오후 2시 본노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분과임원 1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2일 결성된 자동차업종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두시간에 걸친 활발한 논의를 한 후 사업계획을 결정하였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을 보면, 먼저 근로조건 실태조사서를 12월말까지 수거하여 1995년 1월말까지 자료를 만들어 배부하여 임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1995년도 임투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95년 2월 15 ~ 16일경에 대전에서 1박2일간 개최하며,

1995년 10월 9 ~ 10일경에 자동차분과위원회 대표자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의장, 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이 협력업체 대표



자동차분과 임원회의 모습

의 노사간담회 요청건은 연맹, 분과위원회

를 만나 조건을 타진한 후 결정하고,

일본 조선중기노련 간부내방

한.일조선업종노조연대 모색

일본 조선중기노련(위원장 요시이 마사유키) 간부 6명이 지난 12월 9일 본노련을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고 한국의 조선산업과 일본의 조선산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노동조건의 비교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일본 조선중기노련은 일본의 조선관련 노동조합의 연합체로 IMF-JC(국제금속노련 전일본 협의회)의 구성노련 중의 하나이며 조



일본 조선중기노련 임원과 환담하는 박민상위원장

합원수는 약 13만 2천명에 이르는 조직이다. 일본 조선중기노련 임원단은 본노련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금성사노조 평택지부와 울산 한진중공업노조를 방문하여 공장견학을 하였다.

본노련은 일본조선중기노련의 공장견학에

중소영세사업체 재해예방 3천억 투자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95년부터 추진

산업현장의 근원적인 안전보건 확보와 신진국 수준의 재해율 감소를 위해 추진되는 산재예방특별사업에 오는 97년까지 향후 3년간 3천억원이 투자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최승부)은 그 동안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산재예방사업을 선비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차원의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를 위해 향후 3년동안 3천억원을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자체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시켜 재해감소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산재예방특별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분담금은 지역담당부의상의 노력하에 1994년 12월말까지 의상에게 송금한다는 등이다.

이번 회의는 그 동안 일부에서 본노련 자동차분과위원회가 구성만 되고 활동은 하지 못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깨끗하게 털어버리는 것으로 앞으로 활동적인 금속노련 자동차분과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모임이다.

자동차분과위원회는 자동차업종 노동조합의 단결과 노동조건개선, 그리고 불공정거래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산재예방 73%를 감축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체의 물리적 안전보건시설에 집중투자된 산재예방특별사업은 영세사업체에 산업안전시설 개선 지원, 재해의 작업방안개발이 높은 특수업종 사업,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선진화 추진 등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사업장 선비지원 및 기술지원사업은 중심으로 추진된 금년 특별대책사업은 전체금액의 77%인 2천3백억원을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매칭하여 영세사업장에서 직접 산재예방시설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공단 02)798-8801이나 본노련으로 연락바랍니다)

새책 소개

YES를 이끌어 내는 협상법

NO를 극복하는 협상법

협상에 관한 전문적인 학문서적이 나왔다. 도서출판 '장락'에서 발행한 이 책은 국가간의 협상에서 노사간

의 협상까지 일반적인 협상은 물론 전문적인 협상전략을 연구한 서적으로 특히 어려워지는 협상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협상연구팀에서 개발한 것으로 노동조합간부도 한번쯤은 보고 연구해 볼만한 도서. YES ~ 값 7,000원 NO ~ 값 6,500원

서울지역본부 정기대회 개최

통합선언으로 더욱 힘찬 출발 다짐

본노련 서울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가 12월 14일 11시 70여명의 대의원과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본노련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그 동안 서울지역에 있지만 지역본부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인지역협의회와 통합을 하는 자리로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대회였다.

대회는 먼저 개회선언을 한 후 통합선언 결의를 하였다. 통합선언문은 "서울지역의 금속노동자들은 그 동안 분열을 겹쳐히 반성하고 변화하는 시대

에 대응하고 노동운동을 더욱 발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노동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을 선언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어 대회는 통합에 공로가 큰 안영환 서울지역본부 의장과 경인지역협의회 박승리의 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모범조합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의 격려사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정성용의장으로부터 축사를 들었다.

대회는 1부행사를 마치고 본 대회에 들어

가 규약개정과 94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감사보고, 결산보고를 하였

장이 단독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지도위원에 금성사구로지부 박



서울지역본부가 통합대회를 하고 있다.

으며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임원선출에는 오톤 노동조합 신성균위원

승리동지, 동부제강노조 안영환위원장, 한국콘베어노조 권용석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또 수석부의장에 경방기계노조 박상범위원장, 부의장에 금성사구로지부 이찬구지부장, 모용코리아노조 박순자위원장, 롯데알미늄노조 전기홍위원장, 한국특수강관노조 서갑순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정책실장에 세월중공업노조 전기노위원장, 사무국장에 신명진기노조 이명재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였다.

회계감사는 대한전선노조 시흥전선 김영식지부장, 세진전자노조 문광주위원장, 동성전기노조 이대영위원장, 해덕기계노조 김재연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대회는 신임 신성균의장의 사회로 199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수입을 한 후 폐회하였다.

포항지역본부 정기대회 개최

활동적 사업으로 힘찬 95년 만들 것

본노련 포항지역본부(의장 백종부)의 정기대의원대회가 12월 15일 포항지역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먼저 1부행사로 개회선언 및 대회기 입장, 국민의례가 있는 후 모범조합원 표창이 있었다. 그리고 백종부의장의 대회사와 박인상위원장의 격려사, 노동부 장한수소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포항지역본부 정기대회 모습

2부행사로 들어간 대의위대회는 성원보고에 이어 94년도 활동

보고와 결산보고를 하였으며 95년도 사업계획서 수립과 95년도

예산을 수립한 후 파견대의원을 선출하고

당면현안 토의를 한 후 폐회하였다.

부산.울산지역 강사회 교육 실시

본노련 부산.울산지역 강사회(회장 문창수)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동래에 있는 금강국민호텔에서 40여명의 단위원조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부산.울산지역 강사회가 지난 7월 강사교육을 실시한 후 조직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교육의 보급이 확대 실시되어 조합원의 의식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강사 양성교육을 개최하기로 의견일치를 모아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본노련 김용봉교육부장의 노동경제와 노동교육 강사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와 문창수회장의 '교양적

성 요령' 각 그룹별 교양작성, 실습강의의 발표, 실습강의에 대한 토론회 등으로 하루를 마무리 했고 둘째날은 실습강의의 지적사항 요약 발표, 바람직한 강사의 자질향상 방향에 대한 강의와 종합평가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노동교육 강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체적인 교육강사를 배출하여 조합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도 전국으로 확대되어 노동교육강사를 더욱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장 동정

- 8일 자동차분과 임원회의
- 9일 일본조선중기노련 임원단 내방
- 12일 한.일고위간부회담
- 14일 서울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참석
- 15일 포항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참석
- 16일 시그네틱스노조 대의원대회 참석

단위노조활동

풍정산업

풍정산업노조(위원장 이문식)는 12월 9일 15시 30분에 사내복지관에서 정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풍우산업

서울에 있는 풍우산업노조(위원장 김광현)의 정기 조합원총회가 12월 9일 15시에 있었다.

삼협전자

삼협전자노조(위원장 김권태)는 12월 9일 16시에 조합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창원기화기

창원에 있는 창원기화기노조(위원장 김성철)는 12월 1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등금속

대구에 있는 대등금속노조(위원장 김형호)는 12월 10일 13시에 조합원교육을 실시하였다.

흥화공업

포항에 있는 흥화공업노조(위원장 강진포)는 12월 10일 14시에 조합원교육을 실시하였다.

금성전선

금성전선노조는 12월 12일 11시에 안양공장 강당에서 위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그동안 노조를 이끌어 왔던 도정복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신임 장진위원장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한국번디

한국번디노조(위원장 백광인)는 12월 14일 8시 30분에 조합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삼성제침

삼성제침노조(위원장 주태화)는 12월 14일 노동조합 간부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프레스

서울프레스노조(위원장 김현주)의 조합원교육이 12월 15일 8시 사내교육장에서 실시되었다.

한국시그네틱스

서울에 있는 한국시그네틱스노조(위원장 최원숙)는 12월 16일 13시 30분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우전자

대우전자노조 구미지부(지부장 이병균)는 12월 16일 가야산 국민호텔에서 노조간부교육을 실시하였다.

대륙전선

대륙전선노조(위원장 김영규)는 12월 17일 11시에 정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대덕전자

안산에 있는 대덕전자노조(위원장 송성수)는 12월 19일 18시 정기 조합원총회와 조합원의 대화합과 대동단결을 위한 조합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영풍제관

영풍제관노조(위원장 김용태)의 창립기념식이 12월 23일 15시 30분에 개최되었다.

세왕금속

세왕금속노조(위원장 정용목)는 12월 24일 12시에 정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연맹각부서 활동

총무국

@임원회의 정리 및 결과통보
한일고위간부회담 직원
연하장제작 및 발송
국제교류재단 직원 처리

한일고위간부회담 개최
대한알미늄방문조사
대한알미늄관련 탄원서 작성
95임부전문대책위 준비

이상국

@금속노련총신 제직 발송
단위노조 대회 참석
이성계의원 토론회 참석

조직국

@월말조직실태 수합
가맹노조 대회 참석
자동차노조절기대회 참석
조선중기노련방문단 안내
삼성송파차허용반대 토론회 참석
산별조직담당자수련회 참석
단위노조 교육
한일고위간부회담 직원
조직원할선전화 작업

교육부

@단위노조 교육지원
부산·울산장사교육 지원
전대노조 및 단원분식 작업
삼성자동차공업자직대 개최에 참석

홍보부

@한일고위간부회담 직원
금속노보 126호제작
중소영세사업체 해해 예방위해 3천여 부자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95년부터 추진

노사대책국

@조선중기노련방문단 안내
95임부관련실태조사
자동차분과임원회의
자동차분과실태조사
단위노조정의회시 및 대책

정부는 노동자 세 부담 가중시키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라!

한국노총은 14일 발표한 '94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노동자의 세 부담 경감 및 과세형평에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세법시행령은 주택자금공제한도축소, 복지후생급여의 공제제도 폐지 그리고 초과근로수당 비과세근로자의 일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제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비합리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노동자의 낮은 주택보급율을 감안할 때 주택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하여 무주택 노동자의 세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어야 하며, 특히 식대는 필요경비로 월 3만원의 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연월차수당은 휴가를 반납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임금으로서 초과근로에 대한 댓가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은 초과근로수당 비과세와 형평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그리고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범위가 일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업의 중요성 증대, 운수노동자와의 형평성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당 연맹은 무주택근로자 공제를 더욱 확대하고 식대 및 연월차수당 비과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며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전 직종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994년 12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 종 근

금속노동자
중단결로 95임투
승리하자!!

금속노동보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서기	(02)	863-1983
총무	(0343)	42-3666
인사	(032)	437-8805
교육	(042)	273-5786
노조	(0431)	87-1418
경제	(051)	84-4021
문화	(051)	644-4613
법률	(0522)	74-9631
노동	(053)	564-0128
여성	(062)	524-8581
노련	(0562)	83-3728
사무	(0548)	464-3643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95임투추진발!!



본노련은 지난 95.2.27 개최된 본노련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금년도 산하노조의 임투를 성공적으로 지원키 위한 임투방침 및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특히 금속산업의 상황이 양호하나 물가불안이 예측되므로 금년도 임투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정치적으로는 세계화의 기조와 함께 보수적 정책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언론의 보수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국민이나 노동자의 의식도 경쟁논리로 흡수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합리화가 거세게 추진될 전망에 있음을 분석하고 금년도 임투야말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금년도 임투의 목표

통상임금 84,406원(14.1%) 요구

-본노련 중앙위.중집서 결정-



본노련 중앙위원회에서 '95임투방침을 위해 심도깊은 토론을 하고 있다

▲임금수준 및 격차 개선과 함께 ▲종합적 생활개선과 다양화하고 있는 조합원 욕구 충족의 차원에서 각종 복지를 확충하고 ▲고령노동자 및 맞벌이가계의 증가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나 부가적 기업연금제 도입, 생활정보실 운영이나 생활상 편의 제공장치 확충과 함께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세계화'를 저지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노동강화를 가져올 일방적 경영합리화를 저지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장치를 마련하며 ▲이런 운동을 통해 노조 운동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와 같은 방향인식을 바탕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러가지 안을 심의한 뒤에 금년도 임투의 금인상요구지침 결정에 있어서 ▲생계비충족을 개선목표로 하되 ▲중전처럼 무턱대고 높은 값을 내놓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고립되기가 쉬우므로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그를 대부분 관철해내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생계비충족을 79%(94년 11월 현재의 생계비충족율은 66.9%)가 되는 통상임금 기준 금액 84,406원, 월 14.1%(호봉승급분 제외)를 연맹지침으로 결정하여 산하 각노조가 이를 중심으로 자체의 요구안을 결정하여 임투를 전개키로 하되 임금이나 회사 경영사정이 특수한 경우는 그 사정을 반영하여 각 단위노조가 결정키로 하였다.

그리고 임금요구와 아울러 회사측의 일방적인 회사봉쇄합,공장이전,하청,인원감축,비정규직 및 외국인 채용등을 막고 노조측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며 다양한 조합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과 고령노동자 및 맞벌이가계를 위한 대책 수립, 그리고 연간실노동시간을 현재의 2,457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점차적으로 단축함과 아울러 통상임

금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91시간으로

본노련,임투지원개시



본노련 임투지원 본격 개시. 서울,인천 임투교육 모습

본노련은 그간 산하노조의 임투 지원을 위해 95년도 임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지역,업종의 실무자들로 임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임투활동자료집을 제작하여 금년 2월초에 배부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단체협약분석 및 실행근로조건조사서를 발간하여 2월말에 배부하였으며 또 임투지침을 제작하여 3월초에 발송하였다. 또 3월

점차 줄여가기 위해 임투와 병행해서 각노조의 주요사항을 교섭해 나가기로 결정했으며 각 노조가 부딪치고 있는 주요 현안문제도 임금과 함께 요구해나간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 산업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문제, 특히 하청단가동결 및 삭감문제에 대응키 위해 공정거래 화합을 위한 요구활동도 연맹차원에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준 및 승순에 걸쳐 지역순회 임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1일과 22일 2회에 걸쳐 1일 경영분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복부제작을 통하여 조합원차원의 임투분위기 고조시켜 나갈 방침이며 임투상황실을 설치하여 신속히 임투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임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단위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임투노고하는 간부들을 위로하고 아울러 현지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오늘날 사회에는 3가지 권력이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언론권력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들 3가지 권력이 3박자가 되어 임금권고안 중앙합의를 하도록 열

리기도 하고 압박도 하였다. 노동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국민경제의 성과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경제를 고려해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또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임금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생각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임금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처럼 실용없이 개입해서 나라가 있는지 뒤 돌아 볼 필요가 있다. 70년대에는 강제조정제도로써 모든 협약에 대해 외부적으로 정부로부터 조정결정 받도록 했고 80년대에는 정치권력이 잠시 꼬리를 감추었던 87-88년을 제외하면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내고 이를 기업이 어길 경우 은행돈을 빌려주지 말도록 금융당협정을 맺을 수 하면 공권력 개입을 강화했고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총액임금제의 임금억제 정책을 쓰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 노사 중앙단체가 임금권고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다시 임금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노라는 승거친 칼로 위협하면서 중앙합의를 하도록 강제하기도 하고 유도하기도 했다. 경기가 좋은 나쁘든 항상 임금억제의 임

금지침이 나왔었다. 이런 임금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는가? 임금억제도 임금억제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안된다는 것을 시행착오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를 당당히 걸을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는 보호안 해서는 안되고 스스로 일어도 지고 상처도 입으

만 길로만 빠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며 노사 양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노사 양당사자를 항상 물가의 여련에서런 취

노동자의 눈

정.경.언론 3권력이 공격해오고 있다 노동자는 이제 정말 하나로 단결해야

이 절대화되고 들쭉는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노사자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고 모든 권력을 다 휘둘러야 한다는 생각은 민주사회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지금 문민정부가 부르짖고 있듯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면 정부는 작은 정부가 되는 것이며 대통령을 포함,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개입없이도 사회가 문제 없이 굴러 가려면 사회 각계층이 성숙된 모습으로 민주적 질서와 규칙, 그리고 사회적 상식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노사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개입없이 노사문제에 노사 양당사자 스스로의 대화와 갈등해소과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노사 자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일시적 비용과 아픔으로 생각해야 한다. 노사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는

면서 걷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노사관계를 볼 때 이전에 비해 엄청난 성숙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임금 중앙합의를 해서 노사분규가 없어지고 노사관계가 안정되었다고 억지 해석하면서 올해도 중앙합의를 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의 노사관계는 노사 양당사자의 뼈아픈 경험과 반성울 토대로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과 유착된 일부 기업들은 권위주의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고 있고 경총만 하더라도 한쪽으로는 우호적 노사관계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금년도 노사관계의 불안함을 내세우면서 공권력개입준비를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관계를 잘 유지해보려는 노력들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부들기만 하고 또 노사관계가 크게 보아

잡히는 관준민비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신적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한편 우리 노동자들은 일치 단결로써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개입이 국민 누구에게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도록 스스로 성숙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도록 출신 수반해야 하며 기업에 대해서도 이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전년대비 대도를 고집할 때는 이를 순정해나가야 한다.

물론 이것은 험난한 길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언론 권력이 하나가 되어 노동자에 대해 공격을 해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자는 심각히 분열되고 상호 반목하고 있어 상대는 더욱 나빠진다. 분열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노동자간의 폭넓은 대동단결의 문화를 세워 전보세력과 연대하여 '국민권력'을 만들지 않는 한 갈수록 상황은 나빠질 것이다.

'95임투승리결의대회

본노련 부산지역본부 힘찬 결의

본노련 부산지역본부(의장 오봉출)는 지난 3월 1일 부산 동래 금정산성에서 노조간부 및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5임투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져 금년도 임투출발을 선언하였다. 결의대회는 오봉출의장의 대회사, 본노련 박인상 위원장의 격려사, 노총 부산지역본부 정학균 의장의 축사에 이어 선언문과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으로 열



'95임투승리를 위해 힘차게 결의하는 부산지역본부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고봉을 전담하 다시피 하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만 생을 유지해가는 우리 노동자에게 임금의 한자리수 인상만이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최선

의 길"이라고 정부와 자본측이 혼계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부정부패 완전척결 ▲공평과세 촉구 ▲소사장제와 하도급제 즉각 중단 ▲고용보장 ▲산별체제 입법 ▲노동법원 설립 ▲노련 최용길 부위원장 공약속스 및 연명근로 제 도입시도 중단 ▲

경영분석교육 안내

1. 대상지역별 일정 및 장소

- (1)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1995년 3월 21일(화)
한국노총 8층강당
- (2)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1995년 3월 22일(수)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2. 교육 내용

- 10:30 - 11:00(등록)
11:00 - 12:20(경영분석기초)
12:20 - 13:00(점심)
13:00 - 15:00 재무제표 보는법
15:10 - 18:00(사례분석)

3. 참가비 : 20,000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5 노총 대의원대회 개최

개혁차원 규약 대폭 개정

한국노총 대의원대회가 지난 95.2.22의 각 위원회 회의에 이어 23일 개최되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작년도에 설치된 노동운동발전특별위원회 회의의 성과를 반영하여 규약을 대폭 개정, 노동운동발전차원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주요 규약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언,강령의 신설(내용 본지 참조) ▲중앙위원회의 신설 ▲대의원배정에 있어 조합원 2,000명당 1명, 단수 1,001명에 대해 1명을 추가 배정하던 것을 조합원 1,500명당 1명, 단수 751명 1명 추가 배정토록 함 ▲대의원대회 활성화를 위해 각 업무분야별 위원회 신설 ▲대의원 대회 4일이내로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기간 연장의 길을 터놓는 등 민주화 강화를 위한 개정조치를 하였다.

신설된 중앙위원회는 본노련이 지난 수년간 꾸준히 요구하였던 것으로 노총 위원장, 상임부위원장,사무총장,회원조합 대표자,노총 지역본부 의장, 그리고 선출위원으로 조합원 8천명당 1명(단수 4,001명도 1명)을 각 회원조합에 배정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본노련은 현재 당연직 위원장 1명,선출

위원 13명 배정)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년2회이상 개최토록 하였으며 임금 및 근로조건,쟁의에 관한 사항,노동정책대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규정개폐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하도록 기능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중

전의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의 기능이 일부 축소조정되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노동발전을 위한 특별결의문',경제사회 개혁과 올바른 노사관계확립을 위한 결의문',지방자치제 선거와 노조 정치활동 강

화를 위한 결의문', '한반도연세도개편에 대한 결의문', '명실상부한 한은독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등이 채택되었다. 한편 본노련에서는 금번 노총대의원대회에 52명의 대의원을 파견하였다.



오랜 신고 끝에 태어난 노총 중앙위원회 제1회 회의

노총 '95임금지침 확정 통상기준 89,969원(12.4%) 요구

-신설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한국노총은 지난 95.3.2 개최된 제1회 중앙위원회에서 95년도 임부지침을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안(통상임금 89,969원, 12.4%), 제2안(통상임금 92,640원, 12.8%), 제3안(통상임금 97,218원, 13.5%) 등 세가지 안

을 내놓고 토론하여 제1안을 노총지침으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고졸 5년근속 임금을 대졸초임과 같게 할 것, 동일하력 사무직,생산직 격차를 없애고, 동일하력,동일노동

의 성별임금격차를 없앨 것, 고졸초임을 대졸초임의 80%이상으로 하도록 요구기도 결정했고 ▲ 기본급 비중을 임금총액의 80% 이상으로 할 것 ▲ 모든 고정직 수당을 통상임금화할 것 ▲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으로 단축할 것(현재 노동시간은 2,457시간) ▲ 신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노조와 협의하여 실시할 것 ▲ 기업경영성과를 연발에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기업 순이익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립한 것등을 아울러 요구해나갈도 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노총이 시행해나갈 정책,제도개선사항으로 조세제도 개혁,노동자 주택확충등 사항도 아울러 결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활동강화를 위한 규정정비도 있었다.

노총 '사회경제연구원' 설립

한국노총은 무상으로 '사회경제연구원'을 설립하여 오는 3-4월경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이미 인선작업등 설립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소장으로는 어수봉 박사(전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가 확정되었으며 그의 박사 1명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전문적연구를 통해 노총의 중장기적 정책을 뒷받침함과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노동자적 입장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의 정책참여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산업안전 · 보건용어사전
논문서 264-3311~3

한국노총선언(신설)

우리 노동자는 생산의 직접 담당자이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정의 실현의 선구자이고 평화의 강력한 옹호자이며 진진적 문화창조의 주역이다. 우리 노동자는 자신에게 지워진 이 같은 역사적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장구한 시일에 걸쳐 조직적 통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줄기차게邁進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힘찬 전진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진과 창조와 개혁의 의지를 가다듬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민주세력으로서의 책무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기본권리 및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간섭나 간섭도 이를 규탄하고 배격해 나갈 것이다. 또

한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반영된 민주복지 사회의 건설 및 참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강력한 정치,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국민일반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대동성과 자애심, 참여와 창의를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과 생산민주화, 경영민주화 및 산업민주화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국내외의 민주적인 타대중운동과의 유대를 깊게하고, 국제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평화적인 민족통일과 세계평화의 달성을 위해 적

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같은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자주성의 바탕위에 과거 운동사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하여 그 성과를 계승하고 오류를 시정하면서 우리의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고 노동조직의 통일을 기하며, 자주적 민주노동운동의 고양을 통해 어떠한 도전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하게 전진해 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한국노총강령(신설)

1.우리는 조합민주주의를 관철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전지한다.
2.우리는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통하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한다.
3.우리는 완전고용과 생활임

금의 확보, 노동시간의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우리는 산업재해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과 공해없는 맑은 생활환경을 실현해 나간다.

5.우리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하여 노동자의 경제,사회,정치적지위를 개선한다.

6.우리는 자율,대동,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를 실현한다.

7.우리는 형평과 효율이 조화되는 균형된 경제발전을 통하여 민주복지사회를 실현한다.

8.우리는 노동운동의 생명인 단결과 노동조직의 통일을 기한다.

9.우리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10.우리는 국내외의 모든 민주적 운동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종합건강진단의 근본적인 목적은 피검자의 건강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함으로써,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데 있다. 따라서 건강진단은 단순한 검사항목의 중대만 목적에 두어져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검사항목이 다양하여지면 보다 많은 건강상태를 발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검사 항목의 선정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에 일부 건강진단기관이 혈액검사만으로 수십 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검사의 대부분 항목이 아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거나 설사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위양성률 혹은 위음성률이 높은 부정확한 검사로서 건강진단 항목으로는 부적절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그러한 검사에서 양성이나 나왔다 하여도 정확도가 20-30%에도 미치지 못하면 검사 항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이보다 더욱 나쁜 경우는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검사의 위음성률이 높은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는 실제 병이 있으나 이를 정상으로 판정하는 오진율이 높은 것이므로 더욱 좋지 않은 검사 방법인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히 검사 종류만을 늘린다고 하여 정확한 건강진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 항목의 선정은 가능한한 전문의료인과의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항목의 선정시에 전 조항원을 일률적으로 동일 항목의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20-30대의 비교적 젊은 계층과 40-50대의 장년층은 질병 발생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진단 항목도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와는 달리 유방암, 자궁암 및 골다공증 등과 같은 여성 특

종합건강진단전략 알아보기

위상 급은 '노동과 건강' 제33호에 게재된 **최정호** 한일대 한림대병원 외과학과 신약 연구소의 '노동조합과 종합건강진단 실시'의 일부를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주>

유의 건강진단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와는 달리 남자의 경우는 간경화, 간암 검사, 및 AIDS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강진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진단 항목의 선정에서 사업장 및 건강진단 기관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성별 및 연령구조에 따른 여러가지의 건강진단 실시방안을 검토해야만 한다.

건강진단의 항목 선정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른 점은 진찰 및 상담 부문이다. 특히 검사항목의 중대 및 고 급화에만 치중하는 경우 의사의 진찰 및 상담은 소홀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상담 및 진찰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수많은 검사항목 보다도 간단한 진찰로도 얼마든지 진단 내릴 수 있는 것이 많으며, 검사는 진단을 내리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진찰 및 상담이 중요한 진단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의 상담 및 진찰을 통하여 수검자는 평소 건강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기도 하고 올바

른 건강지식 및 보건행태를 유도 할수 있는 보건교육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강진단의 계획시에 노동조합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진찰 및 상담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의사의 수는 하루 건강진단 수검 인원

고려하여 결정 해야한다. 통상 하루 100인을 기준으로 의사 1인이 상담 및 진찰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초과시에는 2인의 의사가 배치되어야만 충분한 상담 및 진찰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흔히 건강진단의 실시에만 초점을 맞추고 건강진단의 사후관리에는 소홀하게 된다. 그러나 건강진단 그 자체 보다는 오히려 건강진단의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즉 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이 뒤따라 하며, 이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필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일부 사업장의 건강진단 실시후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개인별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검자의 반응이나 효과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건강진단실시에 관한 협약시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실시후 결과에 대한 개별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합건강진단이 직업병이나 산업보건과 완전히 분리되어 실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건강진단은 거의 대부분 직업병에 관한 건강진단은 제의한채 일반 성인병에 대한 부분만 강조 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작업환경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불건강의 원인이 개인적인 원인으로 치부되거나 오도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종합건강진단은 일반병 및 직업병과의 관련성에 기화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종합건강진단의 실시와 함께 기존의 직업병에 대한 검사인 특수건강진단도 보다 자세한 정밀 검사가 될수 있도록 1차 및 2차 검사 항목의 통합이나 검사 항목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는 현행 1차 검사 항목만으로는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2차 정밀 검사 항목을 1차에서 실시하면 누락되거나 놓치기 쉬운 이상자를 발견 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직업과 관련한 질환이면서 아직까지 직업병으로 인정 받지 어려운 질환인 경견환장이나 직업성요통을 종합건강진단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은 사업주측에서는 자칫하면 직업병 문제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하여 기피하는 추세이나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지자체와 노조정치활동강화를 위한

'95노총대회 결의문

지방자치제도는 중앙권력의 분포와, 집중화를 방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시키는 불투명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는 정당, 집권당이나 일부 인사의 명예만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써 전락되어서는 안되며 주민 다수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수 있어야 한다.

이에 노동과 산하 각급조직은 금번 지자체 선거가 민주정치 발전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를 인식하고 노조법 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결정을 단호히 거부하는 한편, 불투명 민주주의정확을 위해 감시자로서 그리고 주체자로서 자주적 민주주의적 결정을 촉구하며 선거에 참가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노조법 12조에 대한 위헌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결정이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결정을 확인하며 다가오는 6월 지자체 선거에서 현직 정치활동을 통해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1. 우리는 노동자와 국민의 이해가 정치인이나 일부 명예에 사로잡힌 인사에 의해서 대변될수 없으며, 이는 노동자 스스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노동자 후보의 지방의회 및 단장진출에 총력을 경주한다.

1. 우리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찬동하는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고 반노동자적인 정당과 인사를 배격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노동자 '투표블록'을 형성하여 지자체 선거에서 노동자 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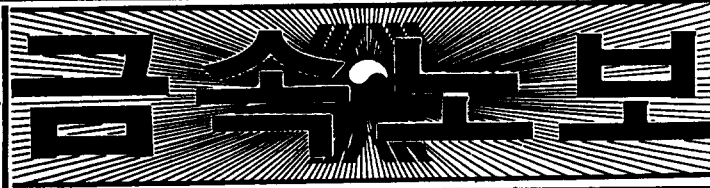
1. 우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만이 성숙한 선거문화로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각급선거에서의 경험을 바탕

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조직과 노동자를 총동원하여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1. 우리는 지역주의의 폐해와 열연, 지연, 학연에 의한 선거공포를 일신하여, 정당 노동자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의 당선을 위해 노동자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후보자와의 정책토론회를 앞장서서 전개한다.

1. 우리는 금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이상과 같은 노조정치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제 사회 주체세력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한편, 전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선거에 참가할 것을 다짐한다.

금속노동자
충당길로 95임루
승리이지!!



주요기사 목차
삼성, 독일서 부당노동행위(1면)
노사정 '95임금지침 본다(3면)
본노련, 경영분석교육 실시(2면)
경남본부 임투결의대회(2면)

발행인/박인상 편집인/정창영 발행처/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우 150-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2 FAX 864-0457

“삼성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본노련,독일지사 부당노동행위건 성명발표

삼성전자 독일지사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 독일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독일지사(판매담당 총업원 130여명) 총업원들이 한국의 기업자본 노조와 비슷한 총업원평의회를 만들어 그 하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일부 노동자들을 금품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특화된 자료 중 삼성전자가 독일지사에 본낸 것으로 되어 있는 문헌에는 “총업원 평의회는, 노조관련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삼성의 경영철학에 배치된다. 독일지사의 총업원평의회는 독일에서 있어서의 우리 회사의 이전이나



해체!유령노조!! 본노련의 삼성의 유령노조해체 촉구 거제 집회(88년)

폐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9년 뉴저지의 칼라벨레비전 공장이 노조 때문에 폐쇄되고 포르투갈의 공장이 같은 이유로 영국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본사의 경영진은 귀하께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

고 있다.

삼성의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독일노동자들은 프랑크푸르트 노동재판소에 제소, 지난해 9월 “총업원평의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삼성측은 노동자들에게서 신기환봉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일부 노동

자에게는 10만마르크(한화 5천4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회유에 나선 것으로 현지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과 관련,본연맹은 삼성전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정부의 엄정한 조사 및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본노련

은 “삼성이 국내에서 반노동자적 ‘무노조경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사악함에도 조급의 반성도 없이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는 독일에서 똑같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의 명예를 일거에 더럽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국익을 해치게 되리라 우려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즉각 중단과 국민적 사과를 촉구했다.

그런데 본노련은 88년말 삼성규탄대회를 열어 삼성의 노조탄압행위 중지를 촉구하며 삼성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독일금속노조에 따르면 삼성이 독일에 전자부품제조업에도 투자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정책 때문에 매우 긴장되어 있으며 적극적 대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 반노동자적 판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에 대한 노총의 위헌심사제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바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3일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제정에 의한 판결에서 “위법부당하여 취소될 수도 있는 이러한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과, 또 구제명령이 위법,부당하여 재심 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경우까지 이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그 이행확보 내지 그 제재방법으로

...물심양면의 고통을 가하거나 형벌인 벌금형으로 처벌함은... 정외에 반하고 행정명령의 이행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이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도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법 제46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적극적인 노조간부를 해고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지 때까지 기업이 시간을 벌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헌법상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연맹소식

■ 연맹활동일지

- 장하금 매정 홍보
- 임투교육 3월 8일 충남본부로 시작으로 9일 대구본부, 10일 부산본부, 14일 경남본부, 17일 노총안양본부 경영분석교육 21일 노총, 22일 충남본부
- 임투특보 제작,공정거래 촉구방안 검토
- 3월 15일 우진전자 조합원 교육, 인천지역 순방, 기아자동차,롯데전자,대덕전자,국제전선,희성금속 등 교육 지원
- 21-25일 포항구미 단위노조 방문

- 전남북 충남북 사업장 방문,신명전기,중성전기,대우봉신,동아건설 청주공장 행사참석
- 노총 여성위원회 4주년 기념 지도자 세미나 공문 발송

■ 위원장 동정

- 3월 10일 노총 창립 기념식 참석
- 3월 16일 현대전자 노사정합동행사 참석
- 3월 17일 대우봉신 전기대의원대회 참석
- 3월 21일 고무노련 전기대의원대회 참석
- 3월 23일 경사협의회
- 3월 25일 부산주공 전기대의원대회
- 3월 25-26일 현대자동차 노조 교육
- 3월 29일 대한전선

전기대의원대회

■ 신규제응



조시봉계부 차장 임문주(금남 1월1일부터 근무)



홍보부 차장 박원미(금남 3월13일부터 근무)

경남본부, 임투결의대회

777 777777 777, 7777 7777 777



'95임투승리하자!!' 3월 14일 경남본부 임투결의대회

3월 14일 창원경남 지역본부에서 본노련이 주관한 임투결의대회가 있었다. 이 대회는 최근 주객관적인 정세가 우리 노동운동의 발전을 옥죄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급진 임투승리를 위해 굳게 단결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다음은 이날 결의된 내용 중 주된 몇가지이다.

▲연맹지침을 중심으로 95임투요구를 통일시켜 공동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적 연대로써 과감히 투쟁한다 ▲노조와 합의없는 경영합리화 반대한다 ▲노동자의 정치참여권 획득을 위해 적극 투쟁하며 지자체 선거에 적극 참여한다 등.

단사교육지원

95 임투방향 등

본노련은 임투를 앞두고 산하노조 조합원과 노조간부 교육을

지원하였다.

본노련은 임투를 앞두고 조합원과 노조간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3월 15일 우진전자 조합원교육은 정영숙 여성국장이 95임투에 대한 조합원의 자세, 16일 기아특수강 노조 간부교육은 노진귀 노사대책국장, 김홍룡 교육부장 등이 95임투방향, 임투에 임하는 간부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이외 롯데전자, 대덕전자조합원교육, LG

전자 간부교육, 국제전선노경합동교육 등이 있었다.

경영분석교육 본노련 실시

95년도 임투승리를 위한 기업경영분석교육이 3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교육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57명과 충청, 호남, 영남지역 82명이 참석하였다. 교육내용은 경영분석의 기초와 재무제표 분석, 다양한 경영분석방법론, 경영분석의 실제순으로 진행되었다.



아는것이 힘 3월 21일 경영분석교육

단사소식

내우전자노조 임원선거동향

■원대전자 노사는 3월 16일 선임평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노사화합을 약속했다.
■대우전자 노사는 3월 24일 노조위원장선거를 치렀다. 이날 이명관후보가 7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신명전기(15인), 농아건설청주공장(18인), 세안공업(18인), 연대공업(20인), 삼철산업(23인), 동호전기(24인) 등 회개지

행사단

■한국노사관계학회 3월 22일 노동위원회법 개정, 노동조합의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 중소기업중앙회 박상희 회장 3월 22일 광주서 간담회, 신철규를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소개하기 위한 모임
■한국노동연구원은 3월 22일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모임" 개최

< 노동계 >

노총, 근로자파견법 재추진 철회촉구

노총은 3월 16일 정부의 근로자 파견법 제정의 재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업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노총 ILO에 일본정부 제소

노총은 3월 20일 '정신대는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노총은 이를 통해 "2차대전중 일본정부 및 군부에 의해 자행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1932년 비준한 ILO협약 제29호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ILO이사회는 이와 관련, 즉시 3자구성심의위원회를 구성, 내용을 검토하고 진상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없는 사업구역 통합반대 부천지역 택시기사 결의대회' 개최

한국노총 부천지부

택시분과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3월 21일 오후 2시 부천역 로얄백화점 앞에서 대책없는 사업구역 통합반대 부천지역 택시기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채신노조, 공사추진 조합의견 반영 합의

채신노조는 채신공

이로써 국내취업 최저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5세로 높아진다. 또한 개내에서는 여자가 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법제 근거없이 인건적 차원에서 실시되어 온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재해보상도 유해한에 명문화될 것이다.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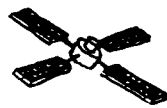
이노동, 복수노조 불허, 노조정치참여 위법 언급

3월 14일 열린 부산지역 노사정간담회에서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현시점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 개입 문제 등을 다음 노동

부의 임금인상제시율 5.6%-8.6%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는 기업의 자본기여도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다. 이에 경총은 자체 인건임의 준 임금인상의 근거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연, 노사문제 정부개입 역효과

전경련부산 한국경제연구원은 3월 23일 "노동시장 규제의 이윤과 실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 개입노사문제에 개입하면 노사관계가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결론을 내린 노동시장에서 개입의 개입을 완화해 노사자율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사정안테나

노동부, 임금연구회 5.6 - 8.6% 임금인상안 수용

노동부는 3월 22일 정부가 구상한 임금연구위원회의 내용은 임금제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상장임금 기준 5.6 - 8.7%,정찰로는 7.1%이것은 노총과 경총의 중간수준이다.

근로자파견법 제정

정부는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파견사업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재정경제원과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적극

관계법 제정을 마라하지 않겠다"며 "노동계의 정치참여는 일정 범상 문명화 급속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임금 능률급제로 개편

3월 22일 임금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개인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능률급 체계로 전면개편하기로 하였다.

< 경영계 >

경총, 정부 임금인상안에 불만

경총은 3월 22일 경

계사관

연맹에서는 당원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95년 노동총연교육원 교육생을 모집했다. 교육신청은 1차 3월 31일, 2차 4월 30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당연맹 교육국으로 문의 (02864-2901).

주요노동뉴스

6대도시 시내버스 임금타결

3월 14일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의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이들 노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급 6.2% - 7%, 상여금 50%인상(4백50% - 5백%),금액으로는 대체로 월 평균 10만원 인상선에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외국인연수생 최임 적용

통상산업부는 3월 20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협력사업 운용요령' 개정안을 마련,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200 - 260달러인 외국인 연수생의 월평균연수수당이 최저임금수준인 330달러(통상임금기준)로 오르며 연수생에 대한 입학, 진후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이들은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통신 조직개편안확정

한국통신은 3월 20일 올해부터 97년까지 임직원 5천30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감원하기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통신은 시간상의 적지않은 마찰이 예견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본사 및 지역 본부의 직원 2천명을 희망퇴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통신은 내년과 97년에도 각각 1천5백여명을 같은 방식으로 감축,97년까지 모두 5천30명을 퇴직시킬 예정이다. 이는 한국통신 전체 직원의 약 8%에 해당한다.



동북지역의 임금협약체결 중간보고

동북에서는 90.7.1 경제,통화,사회통합에 의해 자율적인 단체교섭이 개시됐다. 교섭의 목표는 동서북간 임금격차 해소였다. 임금에 관하여 90년 상반기 시정예원 연구소는 서독노동자 임금의 50%에 얼마를 합한 금액을 동북지역의 임금격차해소로 제시했으나, 격차해소에 도움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이에 반대했다. 동북지역

한국제조업 생산성 세계 최고

한국의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주요 1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월 2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덴마크,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영국 등 주요 14개국의 제조업 분야 노동비용,생산성,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93년 중 이들 국가 가운데 최고치인 5%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난 79년부터 93년까지의 제조업 생산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한국은 10%로 대만의 6.9%, 일본의 5.4%,미국의 1.5% 등에 모두 앞서 가장 높았다.

'소득분배 불공정'이

'근로의욕저하' 증심요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제조업중에서도 석유화학,조립금속,철강,음식료품등 장치산업이거나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양호한 업종에서 근로의욕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조건 만족도의 경우 임금수준이나 임금체계를 비롯한 작업환경,노동시간,고용안정성,승진기회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충족될수록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이직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의 특성 및 성취감 부여정도,직무지식 향상,능력발휘기회가 클수록 근로의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의 임금은 서독의 30-35% 수준이었다. 90년 낮가율이 되면 40-45% 수준으로 올라간다. 물가상승 세부담들이 고려되어 임금이 150-300마르크 올랐기 때문이다. 한편 92년도가 되면 임금제도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다. 원래 동독은 임금체계가 직무나 업적과 관련이 적었고 동물자극적 요소도 적었으며 숙련,미숙련간 격차도 적었으며 기술,연구직 임금이 억제되었다. 이런 임금체계가 직무,업적중심의 임금체제로 바뀌어 나간다. 다음으로는 동서독의 기본급을 증가기에 걸쳐 함께 하는 협약들이 체결된다.91년 3월 메르켈부처금속의 경우 98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균등하게 한다는 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93년이 되면 이런 단계적 협약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동독특수가 사라짐에 따라 동독이 열기가 나빠지고 서독지역의 임금은 5-7%로 높았기 때문이다.

초점

노·사·정의 '95임금지침을 본다

<노총지침>

임금은 생계비를 근거로 요구한 산출. 임금요구안은 통상임금기준으로 12.4%(89,969원)이며 호봉승급분은 제외되어 있다. 임금 이외에도 ▲고졸5년임금 = 대졸초임, 동일학력 생산직,사무직임금 간동화,동일학력 동일노동 남녀임금동화,고졸초임 임금=대졸초임 80%이상등 임금격차 해소 ▲기본급 비중을 임금총액의 80%이상으로 함 ▲고정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함 ▲연간 실노동시간을 2천시간으로 단축함 ▲기업순이익의 5%를 사내부지급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정부 차원의 정책제도개선사항도 요구하고 있다.

<본노련 지침>

본노련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요구안을 산출했으며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 14.1%(84,406원)를 지침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공장이전,봉쇄합,하청,소사장제,임시직 등 고용문제와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령노동자 문제,말벌이 노동자 문제등에 대해 제도를 마련토록 했으며 조합원의 욕구가 다양함에 따라 각종 복지제도도 확충토록 했다.

<경총지침>

경총은 임금조정안을 낮추기 위해 그때그때마다 변이에 따라 여러가지 공식을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새로운 공식을 발명해 냈다.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 투자기여분'이라는 공식이 그것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95년도 경제성장률(7.0%,KDI) + GNP디플레이

터(4.7%,KDI) - 취업자증가율(2.6%, 한국은행) - 투자기여분(3.7%) = 5.4%와 같이 산출되고 있다. 생산성 증가분 중에서 기업의 투자로 발생한 생산성 상승분만큼은 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중적 공제이다. 가령 생산성이 10% 올랐다고 할 경우 임금이 10% 오르더라도 기업의 이윤도 10%가 오르도록 된다. 물론 좋은 기계를 들여오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기업은 감가상각으로 기계값을 다 빼내므로 따로 더 보상받을 이유가 없다.단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속성은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주가 독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한편 경총지침에는 호봉승급분이 포함되어 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물론 총액임금이다.

<정부지침>

노동연구원 이선 박사가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즉 95년도 실질GDP전망치 (8.3%,KDI전망) + 95년도GDP디플레이터 전망치 (5.1%, KDI전망) - 95년도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3.9%, 한국노동연구원 전망) - 임금협정 이외의 임금인상분 (2.4%) = 7.1% 이것을 다시 임금격차해소라는 목표하에서 고임금기업 5.6%, 저임금기업 8.6%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이들 용을 94년도 전 산업 총액임금인 1,000,364원)에 대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7.1% 인상시 금액은 71,026원, 5.6%인상시 56,020원, 8.6% 인상시 86,031원이 된다. 한편 호봉승급분은 제외되고 있다.

자료소개

'대구지역 제조업 노동조합 단체협약 조사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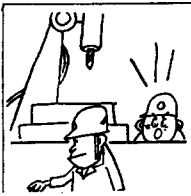
- 대구노동련 발간 -

이 자료집 중 대구지역 95년 단체협약 주요 공통 요건 내용은 19가지로 다음과 같다. 1.조합활동권리저하 금지 2.상징회의 주 4시간 인정 3.조합원교육 월 2시간(연 24시간) 이상 실시 및 적지분할 사안 4.조합간부(임원,상집,대의원)인사 노조와 합의 5.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6.임시직,용역직,시간제,파견근로자 채용때 조합과 사전합의 7.3개월 경과후 정규직 전환 7.인원정리(감원),하도급(용역직),폐업,업종전환,공장이전,분할 합병 양도시 노조와 사전합의 8.외국인 노동자 취업시

조합과 사전협의,노동환경 노동조건 보상 9.불법용역업체 10.불법임금법외의 명시 및 하대 11.퇴직금 무기한 전입 및 강화와 퇴직금 사회보험 12.근로시간 규정 및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13.산전후휴가임금의 84일 확대 14.주대사급 대졸 조합원실 15.산안전보건보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할 것 16.불법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비치 17.위험작업 임시 중지 18.재해인정기준 확대 19.요양 중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 30% 지급

■ 산업안전과 보건 ■

안전모 제대로 사용하자



안전모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가. 우선 큰 충격을 받은 것과 외관에 손상이 있는 것은 피한다. 둘째 AE종 및 ABE종의 안전모는 통풍의 목적으로 모체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된다. 셋째 착장제는 최소한 1개월에 한번 60도의 물에 비누나 세척제로 세척해야 한다. 합성수지의 안전모는 스티프와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넷째 착장제는 충격 흡수의 역할

을 하므로 헐거워지거나 찢어져서는 안된다. 항상 일정한 양의 여분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교체해야 한다. 다섯째 폴라스틱의 안전모는 자외선에 의해 열화되므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교환은 작업조건과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1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AE종 물체의 낙하 또는 날아옴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ABE종은 물체의 낙하 또는 날아옴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노동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은 부당하다.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보아 재검정전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퇴직시킨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1995.1.17.94 구 18692)

근로자집단 동의없이 정부지시 따른 취업규칙개정 무효

보수규정의 개정 당시 모든 국영기업체의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급여규정이 하

향개정되는 사항이었고 사용자인 사단법인 대한장사회 역시 재정상의 궁핍한 상황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정부감축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규정의 개정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사건 : 퇴직금 청구소송 대법원 1994. 10. 14. 94 다 25322)

근로자측 동의없는 무단결근 등 사유에 의한 자연면

직조항의 취업규칙 제정은 무효

무제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결론이 7월을 초과한 경우를 자연면직사유로 하는 조항은 무제출 인치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결론은 본질적으로 근로대립이나 회사의 복무규정 위반행위로서 정제사유와 다름 바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실인정만으로 자연면직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근로자에 불이익한 조건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근로자측의 동의없이 새로히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대법 88다카 4277, 89.5.9)

조강상식



지방간

지방간은 지방 특히 중성지방이 간세포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간조직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직검사의 위험성 때문에 간편한 초음파검

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초음파검사시 비만, 과다음주, 당뇨병, 고지혈증, 영양결핍상태, 특별한 약물복용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방간이 나타난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있는 것 자체가 인체에 큰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질환의 치료나 권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과다음주가 원인이라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술을 끊으면 1-2개월 이내에 간에 축적된 지방이 사라지고 원상회복이 된다. 치료를 위한 특별한 간장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계속하여 음주하게 되면 드물지만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최근 로스쿨(law school) 개념의 도입이 검토되고 대법원은 이를 적극수용하기로 하는 등 법학교육과정 개편논의가 한창이다. 또 법원은 반권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소송절차개혁 등 전반적인 사법개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법정을 소재로 한 의공명화들을 보면 법을 신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노만 주이슨 감독의 저스티스(And Justice For All)는 이상에 불타는 젊은 변호사가 법제에 비리에 분노를 느끼고 고뇌하며 투쟁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주연은 알파치노와 제 위돈이다. 또한 존 그리섬의 소설을 원작으로 야망의 합정(The Firm), 의뢰인

(The Client)이 있다. 야망의 합정은 톰크루즈가 신장변호사로 등장, 범죄조직의 돈



법정 소재영화 신의 법정의 6편

세탁과 자금회전을 파주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빚나간 법률회사를 고발한다. 의뢰인은 상인의 원 살인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11세 소년을 보호하는 변호

사가 권력과 법과의 유착관계를 낚아채고 있다. 풍류만의 심판(Verdict)은 친구의 배반으로 암살종족자가 된 전직 일류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너 서클(Inner Circle)은 범죄문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범죄자들을 직접 단죄하는 소고물에 관한 영화다. 크리미날 로(Criminal Law)는 자건의 고백이 연쇄살인의 범인을 암시한 변호사의 의무 때문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신의 법정(Inherit the Wind)은 성경을 세로는 말과 날카로운 말과 말의 대결로 법정영화의 압권이라 평가된다. 특히 진화론 교육을 둘러싼 광선적 감사와 인권 변호사간의 분투는 인생이 유명하다.

5분



OECD 가입논란

최근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6월말까지 OECD 사무국과 가입교섭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6월에는 OECD차표이사회

에서 한국가입문제가 공식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실익이 더 크다. '시기상조다'라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회원국들의 의무조항 중 우리나라가 자본이동 자유화 의무에 대한 준수능력이 있어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OECD에 가입할 경우 개도국 개발 지원을 위한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 공여규모증대에 따르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OECD에 가입한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선진국국의 축적한 경험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선진형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어 내세우고 있다.

·OECD란 1961년 9월에 발족된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현재 총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 이 OECD의 목적은 정부차원의 정책협조와 개도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통하여 세계경제발전과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그러나 상공부등은 반대움직임!

배신감주는 경제부처들도!!

93.12.27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노동부는 지난 94.10.26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 20일이상이 경과되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국무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등 경제부처는 법적용범위에 관하여 노동부의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에 반대하여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뿐이다. '95년 7월 1일 30명 이상 적용, 98년 1월 1일 10인 이상 적용'은 금년도 임금증상합의시 노사가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한 주요 제도개선사항이다. 정부는 중앙교섭 이전에 노사의 공동건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이런 약속이 전제되는 가운데 중앙교섭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앞가탈부한다는 것은 정부를 아예 '사깃꾼'으로 간주해달라는 애기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법이 30인 이상 적용되더라도 반수의 노동형태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고용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곳은 이들 사업장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정책에 관해서는 노동부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금년도 임투과정에 있어서 노동부가 조정중인데 타부처가 공권력을 투입해 정부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을 엄청나게 크게 했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1) 적용범위는 노동부안대로 통과되도록 모든 노조가 상공부, 경제기획원, 청와대에 촉구해야 하고 노동부안중 문제있는 부분(기초일액 산정등)은 노총을 통해 시정을 요구 한다
- (2) 고용보험법 실행규약 인상 및 급부기간연장을 위한 법개정활동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
- (3) 고용보험제도가 잘못 악용되면 감원, 해고가 남발되어 고용이 더욱 불안해진다. 경영참가법을 제정토록 하여 해고에 대한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 (4) 고용보험제는 직업안정소 및 직업훈련소의 확충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있어야 실효성을 거둔다. 이들 제도마련도 요구해야 한다
- (5) 고용보험제를 활용할 지침을 마련하고 그것을 단체협약등으로 제도화해 나간다.

고용보험제의 주요 내용

법적용 제외

- (1) 60세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파트타임 노동자, 3월미만 고용의 일용노동자, 3월미만의 일시적, 계절적 사업 노동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정부가 행하는 사업 노동자, 국제, 외국기관 종사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가일을 희망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 (2) 30인미만 사업, 도급액 일액제 미만 건설업(이 경우도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할 수 있음)

보험료 부담

- 노동자측 : 임금 총액의 0.3%(실업급여용 보험료를 절반 부담)
사용자측 : 임금총액의 1% 부담(실업급여용 보험료를 절반 + 직업능력개발용 0.4% + 고용안정사업용 0.3%)

응도

- (1) 실업급여
실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자는 실직후 2주째부터 기초급여일액(평균임금과 유사, 7만원 초과시 7만원으로 간주)의 50%를 연령,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1-7개월간 받음. 단, 자기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당한자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나 실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국 소개의 직장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실업급여 급부기간중 당국이 지시하는 직업훈련을 받을시 급부기간이 2년까지 연장됨. 실업급여 급부기간이 반이상이 남아있음에도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미지급기간 실업급여의 1/2을 지급.
- (2) 취직촉진수당
실업급여 급부기간중 당국 지시의 직업훈련을 받는 자에게 직업훈련수당 지급,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구직활동비를 지급하고 타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위해 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는 이사비 지급
- (3) 고용안정사업 지원
사업 축소, 폐지, 전환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대신 휴업수당 지급의 휴업을 하거나 임금지급의 전직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자회사 등에 재배치할 때는 그 사업주에게 해고 대신 지급되는 임금액의 1/2(중소기업은 1/3)을 지원, 일자리가 부족한 특정지역에 사업을 신설,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자 임금의 1/2(중소기업은 1/3)을 지원, 고령자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 9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휴직후 3개월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노동자 합숙소, 직장보육시설등 고용촉진시설의 시설자에게 지원금 지급
- (4) 능력개발사업
■사내직업훈련 실시 사업주 지원, 1개월 이상 유급으로 교육훈련 실시하는 사업주 지원, 구직자, 이직예정자 교육시 지원. 사업주가 내는 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20%(중소기업 180%)까지 지원 가능
■실업자 재취직 훈련시 그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급, 직업훈련시설비 대부, 50세 이상자 자비훈련시 지원, 기능대학, 이공계대학 진학시 교육비 대부

정부는 제도개선 약속을 이행하라!!

매년 한강다리 전부가 무너지는 산업현장

산업안전법의 근본적 개정을 촉구한다

무시되고 있는 진짜 '안전사각지대'

지존파, 성폭행, 세무비리, 성수교, 유람선, 낙동강... 등등 연쇄불안요인으로 사회 총체적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폭발적전
에 있다. 성수교 붕괴로 언론은 뗏목을 올렸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다리박사'들이 속출하여 흥분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조사단에 서로 끼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했으며 시공업자는 1500억원으로 다리를 새로 만들고 거
다 안전관리비 100억원을 내놓겠다고 공표했으며 관련자 여러명이 '제수없이' 걸려들어 수갑을 찼다. 이를 계기로 우리
의 총체적 '안전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불의에 간 명령들이 다소라도 위안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발등에 불끄기 식으로 접
근한다면 과거의 '성장제1주의'와 '실적주의', '블로소독 지상주의', '정경유착'이 도처에 숨겨놓은 '불안요소'들이 여기
저기서 터져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조용한 가장 '심각한', 가장 '확실한' 안전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우리가 청춘을 바치고 있는 산업
현장이다.

연간 2천명 이상 사망, 경제손실은 연간 4조원

매년 산재로 죽는 사람만 2천명이 넘고 4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 목숨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100년 이상 가는 한강 다리 하나 만드는데 1,500억원이 드므로 4조
원이면 100년 이상 가는 다리 26개를 만들고도 남는다. 물론 공사비를 구멍마다 다 때리는 우리나라 평균기준으로 하면
수십개를 더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후하게 봐주고 계산해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한강다리 전부가 다 무너
지는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역대 대통령이 사과했다거나 어느 기업가가 1600억원을 내놓겠다는 애
기를 돌은 적이 없고 침을 튀기며 열렬히 나서는 박사나 기자나 국회의원도 별로 없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인 기업주가
산업안전문제로 구속됐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가 독종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노동자가
힘이 없어서인가? 노동자를 '가족처럼'이지만 과연 경영자와 정치인, 고관료 가족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처럼 산
업안전문제를 방치하고 있었겠는가?

노동자들은 노동자 스스로!!

결국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법을 고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장치
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가 보상이나 제대로 받아보자고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의
처참한 현실이지만 보상문제로 함께 산업안전활동권을 확보하여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목숨을 지키고 가족의 불행을 막
아야 한다.

노동부, 산업안전법개정안마련

노동부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부분적인 개악이 있지만 상당부분의 개선점
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1) 중전처럼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위험작업의 임시적 중지권을 부여하고 있고 (2) 노
사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중전처럼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으며 (3) 안전보
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4)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 자
료를 비치 또는 게시토록 하고 있으며 (5) 작업환경 측정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동자 대표의 요청으로 측정결과에 대
해 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있고 (6) 산업안전, 위생지도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법
개정안은 '금속노련특보' 제94-17호 참조). 노동부의 개정안은 그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은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
지 않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공동결정기구로 만들어 산업안전에 관한 전반적사항을 공동결정토록 할 것
- (2) 노동자 안전담당에게 기업규모별 유급활동시간과 활동권을 부여하고 작업환경조사권과 작업중지권을 부여할 것
- (3) 안전교육의 철저이행과 실효성 제고장치 마련
- (5) 산업안전보건규정 이행여부 감독 및 불이행에 대한 벌칙설정
- (6) 산업안전, 위생지도사의 기능과 권한 강화

이렇게 합시다!!

산업안전법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단위노조에서는 산업안전의 실상을 알리고 법개선을 호소하는
공한을 국회 노동, 환경분과위원회에 보내고 대자보를 통해 조합원에게 홍보합시다!!(국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우편번호 150-010)

정부는 성장제1주의를 지양하고 산업안전등 총체적 '안전'을 강구하라!!

**단결된 힘으로 노동운동 발전을!
하나로 뭉쳐 노동운동의 신기원을 이룩하자!**

계속되는 노동운동통합의 경제
지난해 국제화에 이어 을 들어 세계화라는 용어가 온 나라를 휩싸고 있다. 1995년 WTO가입, OECD가입추진, 대통령 신년사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국제경쟁력의 증진 강조 등 정부는 올해도 역시 노동운동을 융화하고 산업발전을 이룩하려는 계획을 노골화하고 있다. 노동법제의 개정은 자꾸 미룬 채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라고 하고 노동기본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곳곳에서 와해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고도의 노무인사관리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는 노동자와 합의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보다는 노동운동의 약화와 자본의 노동지배 속에서 이윤획득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노노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고, 노동조합에 대한 회의감을 불어넣어 노동운동을 아예 없애려는 의도와 전근대적인 강압으로 노동운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 노동운동 전역의 모습은?
작년부터 시작된 제2노총 건설 움직임은 올해들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제2노총의 움직임은 그러나 노동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상호 이해없는 무제한적 대립만을 주장하여 전체 노동계가 하나로 뭉쳐도 해결될지 알지 못하는 노동악법 철폐, 임금인상, 산업제에 추방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동계의 극한적인 대립과 분열은 자본과 반노동세력에게 노동계를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성적인 반성과 비판은 사라지고 이기주의적인 조직확대와 자기중심적인 논리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한 노동운동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한 투쟁의 남발과 조합원을 이용하는 활동방식은 그 어느 조합원에게도 도움은 커녕 막대한 피해만 주고 있으며 전체 노동계를 분파주의로 몰아넣어 결국 노동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스스로 해치게 만들고 있다.

노동조합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그 것은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이해, 그리고 단결이다. 단위조합원부터 상급단체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 그리고 동지애적인 비판과 경허한 반성이 없이는 단결은 불가능하다. 우리 노동자에게는 많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 및 복지를 향상하는 일,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 정치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계가 하나로 단결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노동계가 분열되고 서로 반목할 때 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합원들과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굳게 단결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분열인가?
그 동안 노총과 연맹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노총을 탈퇴하고 다른 노총과 산별연맹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런가?
현재의 기업별노동조합이 주는 한계는 노동조합의 활동자체를 기업단위로 국한시키고 있으며 모든 조합의 힘은 단위노동조합에서 나온다. 또한 이러한 한계는 기업과 지역, 업종간의 연대를 철저하게 막고 있다. 그리고 노동악법은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별 단위조합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연대한 것이 연맹이며 노동악법의 한계속에서도 상호연대와 지원을 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산별연맹이다. 연맹의 힘은 단위조합에서 나오고 연맹은 조합원들의 뜻과 의지로 운영되고 있다. 단순히 이 조직에서 다른조직으로, 연맹을 탈퇴하고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조합원들의 참여와 주체적인 활동, 그리고 연대정신이 표출되느냐에 따라 상급단체의 활동은 규정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선동하는 것과 같이 다른조직을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주장은 그 동안 경험했던 소중한 유산을 모두 부정하고 그나마 이룩해 왔던 결과물들을 무너트리는 것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쟁취했던 것을 스스로의 분열로 잃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합원의 선택과 결정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그 어느 주장도 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즉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고 조합원 스스로가 행동할 때만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조합원에 있다. 이 것이 자주성이다. 상급단체의 활동또한 조합원들의 행동과 활동으로 규정된다. 사소한 의견차이나 불만으로 다른 조직을 만든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노동조직은 수없이 많이 만들어 질 것이며 노동조합은 수만개로 분리되어 서로 반목할 것이다. 단위조합의 복수노조는 왜 부정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서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우리는 지난 80년대 군부정권이 만든 것처럼 정부나 반노동세력이 조장하고 강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결사의 자유 논리에 반대되지 않는 단위조합의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결이지 분열이 아니다. 서로 잘났다고 목소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노동운동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은 조합원 스스로가 할 일이다. 상급단체에 불만이 있으면 조합원 스스로가 비판하고 실천적으로 고쳐나야 한다. 왜냐하면 상급단체는 조합원이 선택하고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활동하는 조합원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조직을 만들고, 불만이 있으면 다른 조직을 만들고, 또 불만이 있으면 제3의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간다면 우리 노동운동은 과연 무엇이 되었는가?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노력하고 전에 사소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한다면 노동운동은 결국 지리멸렬하게 되고 노동자의 지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험해 왔다. 노동조합이 약하고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임금인상투쟁에서 노동복지, 그리고 노동법 개정 등 작은 것에서 부터 정치적인 문제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하자. 모든 것을 조합원 중심으로 생각하고 활동할 때만이 노동운동은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단결과 연대, 참여와 비판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단련되고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비난이 아닌, 애정을 가진 비판만이 노동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두고 참여와 활동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인식하자. 조합원의 선택, 이는 노동운동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여성 · 문화활동

목 차

- 평가 및 개선방향
- 1. 29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행사지도
- 2. '95 전국여성 노동자 대회
- 3. 여성간부 교육
- 4. 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 활동
- 5. 회의 활동 및 각종 토론회
- 6.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 교육
- 7. 금속노련통신 제작 발송

평가 및 개선방향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고 여성의 취업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7 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후 여성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교육, 승진 등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교육에 힘입어 여성노동자 의식이 높아졌으며 90 년대 들어 산업구조 조정에 따라 여성전체 경제 활동인구는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부분 여성의 수요가 늘었지만 연맹 산하 여성노동자들의 수요는 (외국기업 투자중단 및 철수, 한국기업의 외국으로 투자, 중소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성국에서는 94 년도에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스스로의 책임 또한 없다할 수 없지만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1. 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활동에 있어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생리휴가 폐지 움직임은 특히 제조업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울분을 자아내게 하였다. 정부의 생리휴가 방침은 노총과 각 산별등의 적극적인 반대활동으로 인하여 현재 보류상태이나 확고한 대책을 세워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사 및 연구사업부분에 있어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분석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할수 없었지만, 타아관련 모성보호조항, 여성관련 조항등은 단체협약 분석시 미약하지만 분석집에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또한 남녀 고용평등법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단체협약에 타아 시설설치, 육아휴직등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제조항을 명시할수 있도록 지도지원 하였으며
3. 교육활동부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부지원으로 교육을 집행하다 보니 여성관련법 및 고용문제등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개선방안은 사업계획 의욕만 앞세워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부분을 감안하지 않아 여성임원 및 여성위원 세미나, 여성간부 극기훈련, 노동문화제, 노동가태이프 3집 및 노동가 모임집, 책자발간등을 하지 못한채 계획으로 끝나버린 부분은 95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재정자립방안을 모색함과 함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제29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행사지도

1) 목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여성노동력의 활용과 가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명되고, 여성노동자의 평생, 평등 노동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의 복
지사회 건설 추진을 위하여 범 조직적인 여성노동운동을 전개 한다.

2) 방침

- 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불평등한 차별제도 철폐
- 나) 여성노동의 기회균등한 참여와 고용안정보장의 노동환경 조성
- 다) 노동조합 여성활동 활성화 촉진 및 여성노동운동의 강화를 위한 여성 위원회
설치
- 라)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사회적 공동과제로 부각시켜 유관단체와의 연대활동전개
- 마) 노동은 산업경제 발전의 주체로서, 자주 의식과 권리 의식 함양을 고양, 기존의
활동을 구체화하고 연합 활동을 형성한다.

행사기간 5. 1 - 5. 31

2. '94 전국 여성 노동자 대회

1) 대회의 목적

여성 노동운동의 민주화를 성취하고 여성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모성보호 탁아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력을 강화하고 단결의 자주
성을 확보한다.

2) 대회 주제

“여성 노동의 고용평등, 고용안정, 모성복지 실현”

- 일 시 : 1994.5.26(목) 14:00 - 18:00
- 장 소 : 노총회관 8층강당
- 참석자 : 로움코리아 부위원장 외 43명
- 표창자 : 대우전자 노동조합 여성부장 신영자 대상

3. 여성간부 교육

1) 목적

여성노동운동에 참여할수 있는 동기 부여와 여성간부의 책임의식 고취와 여성노동자의 평생노동권 확립과 노동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노동조합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가) 일 시 : 1994. 10. 31. - 11. 2.(2박 3일)

나) 장 소 : 여성개발원

다) 참석자 : 60여명

* 비용은 한국존타크립 전액 지원

라) 주요교육내용

- | | | |
|----------------------|-----|-------------|
| ○ 금속노련 현황 및 운동기조 | 박인상 | 금속노련 위원장 |
| ○ 현대사회와 직업여성의 역할 | 정우현 | 고려대 교수 |
| ○ 특강(공동체 의식과 애사심) | 이연숙 |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 ○ 사례 발표 | 문춘화 | 한국화장품 위원장 |
| ○ 근로 여성정책방향 | 신 명 | 노동부 과장 |
| ○ 여성특별보호법과 고용평등법의 실현 | 이광택 | 국민대 교수 |
| ○ 노동운동 사례 | 이필원 | 안성여자기능대학 학장 |
| ○ 여성과 관련된 세법 | 이영자 | 세무사 |
| ○ 일반상식과 환경문제 | 황산성 | 전 환경처장관 |
| ○ 단결의 시간 | 최웅길 | 금속노련 부위원장 |
| ○ 분임토의 및 종합토의 | | |
| ○ 비디오 상영 | | |

마) 교육평가

교육은 대체적으로 좋았으나 공동체의식과 애사심, 사례발표, 일반상식과 환경문제가 좋았다고 하였으며 노동조합에 관한 교육이 없어서 아쉬웠고 더 많은 여성간부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부여와 가능하면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주관했으면 하는 요구

4. 유급 생리휴가 폐지 반대활동

정부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 및 모성기능 모성건강을 악화시키는 유급생리휴가 폐지 방안에 대하여 노총에서 반대건의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본 노련도 반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건의서

- 생리휴가 폐지 방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노총은 주지하고있는 바와같이 지난 1월 6일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려는[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바있다.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서 이에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때 큰 물의가 노동현장으로 확산될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거듭 천명(건의)하는 바이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생리휴가)에서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위반시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되어 있으나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하에서 여성노동력은 장시간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불안정고용의 표본이되어 왔고 채용,배치 교육,훈련,승진,승급,조기정년,결혼퇴직제등 차별대우를 강요받아 왔으며 여성 및 모성보호를 위한 생리휴가,출산휴가 법적권리의 보장은 실질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다.

또한 '80년대 들어와 노조의 활동을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다소의 혜택적 변화를 가져왔으나,여성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고용관행의 시정은 이루어 지지 않은채 노사간의 문제로서 계속되어왔다<표1참조>

<표1:생리휴가 사용>

<구성비>

생리휴가년도 여부	받고 있다		안받고 있다	수당지급	기 타	계
1978. 4 (제조업)	4,644 (25.2)		13,003 (70.5)		797 (4.4)	18,444명 (100)
1978.12	(44.60)		(49.29)	(2.17)	(3.94)	5,532명 (100)
1983. 1	3,570 (38.1)		571 (6.1)	4,557 (48.6)	673 (7.2)	9,371명 (100)
1998. 8	유급	무급	1,414 (20.0)	3,301 (46.8)	160 (2.3)	7,057 (100)
	1,430	413				
	20.3	5.9				

* 자료:한국노총[조직여성근로자 실태조사]결과 5년 간격조사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하여 월1회 유급생리휴가를 청구없이 사용할수있도록 '89년 3월 개정 시행 되어왔다.

2. 생리휴가를 둘러싼 논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남녀평등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정부와 기업의 주장으로 모성기능보호와 평등 이념이 혼동되고 있다. 모성기능은 여성만의 신체적 특성으로 임신,출산,수유라는 인간 창조의 기능이고 생리는 이를 위하여 생명을 이르는 혈의 원천적 과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생리현상은 신체적(구토,설사,메스꺼움,하복부복통,허리통증) 정신적(우울증,긴장,불쾌감,도벽,불안등)장애등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노동량과 작업환경(청결,소음,진동,악취)반복적 계속적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월경장애를 가져 온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신덕화[영세기업 근로자의 발육과 건강에 대한 고찰]카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72 정혜선의[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

3.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규정된 5가지 모성보호 제도중 생리휴가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생산직으로 작업이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청구월1일 또는 결근대체로 전원사용하고 있으나 비제조업의 경우는 아직도 25.0%가 실시하지 못하고있다.(표 2 참조)

<표2 여성노동자를 위한 각종 모성보호제도의 실시여부> (%)

모성 보호 제도		전혀실시 안함	법보다 못하다	법대로 실시함	법보다 낮다
생리 휴가	제조업 비제조업	7.5	17.5	86.5 67.5	13.5 7.5
산전산후 휴가	제조업 비제조업	5.7 2.6	4.6 7.9	82.8 78.9	6.9 10.5
유산 휴가	제조업 비제조업	31.7 34.3	9.8 20.0	56.1 45.7	2.4
영아외수유 시간제공	제조업 비제조업	37.2 77.8	5.1 8.3	53.8 13.9	3.8
육아 휴직	제조업 비제조업	38.0 50.0	12.7 8.3	43.0 36.1	6.3 5.6

* 자 료 : 1992.12월 한국노총 조사 130개 업체(조합)

참고 : 조사대상 업체규모 - 500명 미만 21개업체
- 500 - 1,000명 34개업체
1,000 - 3,000명 43개업체
3,000명 이상 19개업체

4.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생리휴가는 여성의 과보호 제도로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며 그대신에 생리휴가는 연.월차휴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기업은 이윤 추구의 목적을 위해 이윤동기적 투자원칙을 주장 여성의 모성 보호에 따른 부담은 여성고용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있다.

5.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 “노동부 장관은 근로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거에 의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94.2.3일 여성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성이 근로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산업인력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용평등,모성보호,여성고용확대,국제협력증진 등 여성노동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특별보호규정인 근로기준법상의 여성취업직종제한,연장,야간근로 제한 등을 조정하고,유급생리휴가를 본인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토록 개편하는 대신

- 산전,산후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ILO기준인 12주 확대하고
- 유산,조산,사산시 출산휴가 부여 방법을 법제화 하고
- 월1일의 태아검진휴일제 및 출산간호 휴가제를 도입하며
- 육아휴직제 이용대상을 남자에게까지 확대토록 할 계획
- 아울러 유급 산전,산후휴가 등 모성보호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보험이나 국가 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육대상 아동 모두를 수용할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한다. 고 발표함.

6. 그러나 우리는 유급생리휴가폐지에 대하여 적극 반대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여성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모성기능을 보호하기위해 부여하는 유급휴가 라는점.
둘째,생리휴가는 여성의 과보호제도가 아니라 제2세를 위한 모성보호로서 올바른 제도라는 점.
셋째,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유산휴가,영아수유시간,육아휴직은 여성노동자에게 각각의 특성을 갖고 적용되는 중요사항으로서 산전후 휴가는 ILO 기준에 맞게 12주로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의 년12일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산전산후 휴가에 가산하는 것은 기존 근로조건으로 저하시키려는 기도가 분명하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7. 따라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60년대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인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제도의 강화는 필연적이며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명분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선진국의 입법례나 남녀평등과 모성기능을 혼동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간주하고 유급생리휴가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 할것을 촉구한다

1994년 2월 7일

유급생리휴가 폐지반대 활동일지

일 자	주 요 활 동 내 용
'94. 1. 5.	○ 노동부 여성관련 주무국에 촉구 - 노총의 입장 표명 ○ 언론사 코멘트 - 조선, 연합통신 외 다수
'94. 1. 6.	○ 성명서 발표 - 생리휴가 폐지방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 언론사 코멘트 - 전남매일경제
'94. 1. 13.	○ 민주당 여성분과 위원회 회의참석 - 생리휴가 관련 각계의견
'94. 1. 25.	○ 생리휴가 실시에 대한 노총 임직원 의견조사 실시 - 내용조사결과 · 참석인원(총 21명) · 현행 근로기준법 제 59조 생리휴가무급제 전환시도에 대한 의견수렴 □ 무급제전환 절대반대 □ 임금손실 및 근로조건 저하
'94. 1. 26.	○ 정무제2장관에게 노총입장 및 노동현장 실태강조
'94. 1. 28.	○ 산별여성간부 회의 (생리휴가관련 대책회의) - 참석자 : 철도, 섬유, 외기, 금속, 금융, 담배인삼, 화학, 연합, 출판, 관광, 고무산업, 노총2(총 13명) - 협의내용 : 건의서 작성 및 생리휴가 폐지반대활동 적극 참여기로 결의함 ○ 노동부 부녀소년 담당자에게 재인식 촉구 - 생리휴가 폐지 부당성 표명 ○ 정무 제 2 장관에게 현실전달 및 여성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지적 ○ 산별여성간부 간담회 ('94. 2.4. 15:00) - 참석자 : 화학, 섬유, 고무, 금속, 연합, 출판
'94. 2. 2.	○ 노동부 관련 주무국 담당자에게 재 촉구

일 자	주 요 활 동 내 용
'94. 2. 15.	○ 건의서 작성완료 및 관련부처 발송완료
'94. 2. 16.	- 건의서 :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통일원, 정무제2, 외무부
'94. 2. 18.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보사부 노동부, 대통령비서실, 국회 노동위원회, 민자당 민주당
'94. 2. 21.	○ 각 회원조합 및 관련단체 공문발송 ○ 각 언론계 건의서 보도자료 배포 ○ 관련부처 방문 (노동계 입장전달) - 방문처 : 노동부, 상공부, 보사부 - 방문자 : 노총, 섬유, 금속, 외기, 화학, 연합, 고무 (총 8 명) - 면담자 : 노동부 부녀소년과장, 상공부 산업정책과장, 보사부 가정복지국장 - 노동부장관(유선) - 법개정건 임을 주지
'94. 2. 22.	- 방문처 : 정무 제 2 - 방문자 : 노총, 금융, 금속 2, 연합, 출판 (총 8 명) - 면담자 : 정무 제 2 장관
'94. 2. 25.	- 방문처 : 민자당 - 방문자 : 노총, 금속 - 면담자 : 여성국장
'94. 3. 2.	○ 관련부처 방문 - 방문처 : 국회노동위원회 - 방문자 : 노총, 회원조합 여성간부

5. 회의활동 및 각종 토론회

1) 회의활동

① 노총 여성국 회의

가) 일 시 : 1994. 4. 26.(화) 14:00

나)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다) 안 건 : -제29회 강조기간 활동에 관한사항

('94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계획 및 모범여성 노동자 표창시상 계획)

-제2회 노총위원장기 노동가 경연 대회에 관한사항

-노총 여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타토의(민자당 주관 간담회 협조 의뢰에 관한 사항)

②노총 여성위원 회의

가) 일 시 : 1994. 5. 6. (금) 14:00

나) 장 소 : 노총 6층 회의실

다) 안 건 : -부의장 선출

-노총 여성 위원회 규정검토

-“근로 여성복지 기본 계획”관련

(유급 생리휴가 폐지등 조사에 대한 설문지 개발 토의)

③ 노총 여성국 회의

가) 일 시 : 1994. 5. 16. (월) 15:00

나) 장 소 : 노총 여성국

다) 안 건 : - '94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및 표창건'

-제2회 노동가 경연 대회에 관한 사항

④ 노총 여성국 회의

가) 일 시 : 1994. 9. 27. (화) 14:00 - 17:00

나) 장 소 : 노총 8층 강당

다) 안 건 : -ICFTU-APRO 지원 여성노동문제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심포지움에 관한 사항

-제29회 강조기간 행사결과 및 평가

⑤ 노총 여성국 회의

가) 일 시 : 1994. 10. 11.(화) 11:30

나) 장 소 : 노총 7층 여성국

다) 안 건 : -노동조합 여성운동 전략 방안 모색 포럼 준비사항

⑥ 단위 노동조합 여성부장 회의

가) 일 시 : 1994. 10. 17.14:00

나) 장 소 : 금속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대우전자 여성부장 신영자 외 7명

라) 안 건 : -남녀고용법 이행 자율점검

-여성 관련 문제점 토론

-노동조합의 여성부 활성화 방안 토의

⑦ 노총 여성국 회의

가) 일 시 : '94. 11. 21.(월) 15:00 - 17:00

나) 장 소 : 노총 7층 회의실

다) 안 건 : -'94 남녀고용 평등법 심포지움 개최에 관한 사항

-ICFTU-APRO 여성노동문제 포럼 결과 평가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 보육법에 관한사항

-JILAF 참석에 관한 사항

⑧ 노총 여성국 회의

가) 일 시 : '94. 12. 26(월) 15:00 - 17:00

나) 장 소 : 노총 7층 회의실

다) 안 건 : -'94년도 각급조직 여성활동 종합토론

-여성노동문제 포럼 결론 및 권고안 검토

⑨ 노총 여성국 회의

가)일 시 : '95 2. 24. (화)10:00

나)장 소 : 노총 여성국

다)활동계획 : -(주)울티모 항의 및 실태파악 노조방문(95.1.24)

-강남 경찰서 방문(사건 경위 처리촉구) (95.1.24)

-노동부 서울청 방문(지도 감독 철저히 할것 촉구)(95.1.24)

-노총 성명서 발표(95.1.24)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촉구(95.1.25)

(노동부,정무장관(제2실)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국회 여성특별위원회,각 여성단체등)

⑩ 노총 여성국 회의

가) 일 시 : '95. 2. 21(화) 14:00

나) 장 소 : 노총 7층 회의실

다) 안 건 : - '95. 3. 8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제5차 노총 여성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⑪ 노총 여성국 간담회

가) 일 시 : 1995. 3. 8(수) 11:30

나) 장 소 : 노총회관 7층 회의실

다) 내 용 : 섬유노련 산하 울티모(주) 노조 성폭행 및 부당노동 행위 기자간담회

⑫ 노총 여성국 회의

가) 일 시 : 1995. 3. 21(화) 14 : 00 - 17 : 00

나) 장 소 : 노총 7층 회의실

다) 안 건 : -노총여성위원회 4주년 기념지도자 세미나에 관한 사항
-UN 세계 여성총회 참가 신청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여성운동 전략 방안 모색포럼

가) 일 시 : 1994.10.18 - 10.20 (2박 3일)

나) 장 소 : 한국노총 중앙 교육원 (여주)

다) 참석자 : 한국중천 위원장 외 5명

라) 주 제 : 경제전환기의 여성노동정책과 우리의 과제

마) 사례발표 : 정영숙 여성국장

-노동조합 여성활동에서의 제약조건에 대한 사례

(노동조합내에서의 여성의식.및 누가(사용자의식,노조인식미흡)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나 등

3) 남녀고용 평등법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

가) 일 시 : 1994.12.1(목) 14:00 - 17:30

나) 장 소 : 노총 대강당

다) 참석자 : 한국전자 부위원장의 12명

라) 주 제 : 여성노동 환경개선을 위한 각 단체의 역할

4)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일본국 위안부 (정신대)문제 토론회

가) 일 시 : 1995.2.9(목) 14:00 - 16:30

나) 장 소 : 노총 대강당

다) 참석자 : 로움코리아 위원장의 8명

5) '95.3.8 세계여성의날 행사

가) 일 시 : 1995.3.8 (수) 14:00 - 17:30

나) 장 소 : 노총 대강당

다) 참석자 : 한국 IG모타 위원장외 22명

라) 주 제 : 여성 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의식개발

“여성들이여 당신의 권리를 알자”

6) 노총 여성위원회 4주년 기념지도자 세미나

가) 일 시 : '95.3.28 - 30 (2박 3일)

나) 장 소 : 노총 중앙 교육원

다) 참석자 : 여성국장의 4명

라) 주 제 : 여성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의식 개발

6.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1. 목적

노동문화 활동은 노동자의 단결력 및 투쟁력 고취와 단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동료에 대한 상호 믿음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해주고 발표력이 부족한 사람은 발표력을 향상시켜주며 놀이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가) 일 시 : 1994. 11. 9 - 11. 11 (2박 3일)

나) 장 소 : 유성 경하장

다) 참석자 : 64명

라) 주요 교육내용

- 금속노련 현황 및 운동기조
- 노동가 및 울동
- 단결협동 및 단결투쟁놀이
- 공동체놀이 및 자신감 훈련
- 레크레이션 지도력 개발
- 팀웍 훈련 및 민속무용
- 민속무용 및 촛불의식
- 팀별토의 및 종합토의

박인상 금속노련 위원장

주희숙 모토대표 외 3 명

”

”

전영수 직장 레크레이션협회 회장

최웅길 금속노련 부위원장

“

마) 교육평가

교육은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노동자 및 율동, 레크레이션 지도력개발, 팀웍훈련, 공동체 놀이등에 좋았다고 했으며 교육이 다양하고 시간이 짧아서 확실하게 습득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이런 교육을 분기별로 했으면하고 노동문화 활성화를 위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지속적인 교육요구

7. 금속노련 통신 제작 발송

94 년 4 월 4 일 94 - 1 (148) 호	10 월 10 일 94 - 16(163) 호
4 월 14 일 94 - 2 (149) 호	10 월 29 일 94 - 17(164) 호
4 월 21 일 94 - 3 (150) 호	11 월 12 일 94 - 18(165) 호
5 월 4 일 94 - 4 (151) 호	11 월 21 일 94 - 19(166) 호
5 월 12 일 94 - 5 (152) 호	11 월 30 일 94 - 20(167) 호
5 월 24 일 94 - 6 (153) 호	12 월 10 일 94 - 21(168) 호
6 월 4 일 94 - 7 (154) 호	12 월 20 일 94 - 22(169) 호
6 월 16 일 94 - 8 (155) 호	95 년 1 월 10 일 95 - 1 (170) 호
6 월 30 일 94 - 9 (156) 호	1 월 20 일 95 - 2 (171) 호
7 월 9 일 94 - 10(157) 호	2 월 10 일 95 - 3 (172) 호
7 월 20 일 94 - 11(158) 호	2 월 20 일 95 - 4 (173) 호
8 월 10 일 94 - 12(159) 호	3 월 10 일 95 - 5 (174) 호
8 월 20 일 94 - 13(160) 호	3 월 20 일 95 - 6 (175) 호
8 월 31 일 94 - 14(161) 호	3 월 30 일 95 - 7 (176) 호
9 월 30 일 94 - 15(162) 호	

총 29호 발행